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양보경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고지도에 나타난 백두산 및
백두산 동북부 하천

201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문 상 명

고지도에 나타난 백두산 및
백두산 동북부 하천

양 보 경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문 상 명

인 준 서

문상명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국가 주권’에서는 백두산과 주변지역을 ‘국경’의 ‘선’과 ‘현재적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중국은 백두산에 대하여 국가 주권의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이곳을 살았던 한국의 옛사람들에게는 현재의 ‘국경선’ 안팎을 오고 가며 수많은 점으로 ‘면’을 만들었던 공간이었고, ‘면’으로 구성된 ‘변경’이었다. 고지도는 공간의 옛 모습을 시각적이고 종합적으로 비추어주는 거의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에 고지도에 표현된 백두산과 주변지역을 고찰한다면 당시 고지도를 그린 사람들이 살았던, 또는 사회에서 인식하였던 공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변경 지역의 공간을 논의하는 데 고지도 분석은 가장 적합한 연구 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동안 백두산을 포함한 만주지역에 관해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중국과의 국경문제에 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며, 국경문제연구는 역사·지명·국제법·국제관계·국경문제 연구동향·하천 수계 등으로 다시 세분화할 수 있다. 하천 수계를 중심으로 한 국경 문제는 역사적인 문헌과 지지를 대상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고지도를 통한 수계 중심의 국경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지도를 통해 ‘백두산 및 쟁점이 되는 백두산 동북부 하천’을 분석하는 것이다. 쟁점이 되는 백두산 동북부 하천은 양국의 경계를 정하는 데 조선시대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흑룡강·송화강·속평강·토문강·분계강·두만강 등이다.

백두산 영역권과 만주를 포함하고 있는 한국의 고지도 248점 가운데 백두산이 그려져 있지 않은 지도는 지도의 유형분류에서 제외하고, 160점의 고지도를 연구의 분석에 활용하였다. 크게 ‘백두산 표현’, ‘백두산 북동부 유로’와 관련된 두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 백두산 표현과 관련된 항목은 ‘백두산 명칭’,

‘천지 표기’, ‘백두산 표현의 특징’, ‘주기’의 네 가지로, 백두산 북동부 유로와 관련된 항목은 ‘백두산 북동부 유로’, ‘1강설과 2강설’, ‘분계강의 의미’, ‘유로의 특징’ 네 가지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여덟 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유형화한 내용을 통해 고지도에 나타나는 보편적 인식을 도출하였으며, 보편적 인식은 문자기록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객관화하였다. 그리고 고지도 이해와 해석에 부족한 부분은 현장 답사를 통해 보완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지도에 나타나는 쟁점이 되는 백두산 북동류·동류 하천과 고지도상의 주요 지역이 현재 지도에서 어떤 하천인지, 어느 지역인지 연구하는 것이다.

둘째, 고지도에 표현된 백두산을 고찰하여 백두산 명칭과 백두산 표현에 담긴 의미와 인식을 연구하는 것이다.

셋째, 고지도에 표현된 쟁점이 되는 백두산 북동부 유로를 유형화하여 흑룡강·송화강·속평강 등의 백두산 북동류 하천과 토문강·분계강·두만강 등 백두산 동류 하천을 연구하는 것이다.

넷째, 하천 유로의 분석을 통해 고지도에 나타난 북방영역 인식, 토문강·두만강의 1강설과 2강설, 분계강의 의미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다섯째, 고지도에 나타나는 두만강의 발원을 분석하고, 토문강과의 관계를 주제로 연구하는 것이다.

여섯째, 수계를 중심으로 한 국경문제 연구에서 고지도를 통한 연구가 가지는 의의와 한계점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연구를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백두산의 명칭에는 다양한 정보와 지식이 반영되어 있고, 색과 형태 등의 묘사에 따라 각기 다른 주제를 상징하기도 한다. 다양한 천지 명칭과 표현 역시 백두산의 상징성과 의미를 반영하며 이러한 모든 표현과 묘사는 백두산에 대한 인식을 총체적으로 표출한다.

둘째, 쟁점이 되는 백두산 북동부 유로는 두만강 북쪽 흑룡강이 동류하는 유로(A), 두만강과 흑룡강 사이 속평강이 동류하는 유로(B), 토문강 또는 분계강을 포함하는 유로 중 토문강이 북향하여 흐르는 경우(C) · 토문강과 분계강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경우(D) · 토문강 또는 분계강이 동향 · 동북향으로 흐르다 하류에서 두만강과 합류하는 경우(E), 백두산에서 두만강으로 이어지는 유로(F)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형화를 통해 고지도에서 백두산 북동부 유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고지도에는 북방영역에 관한 인식이 나타난다. 현재 한반도와 중국의 국경선인 백두산~두만강 유로를 기준으로 볼 때, 확대(A, B, C)되거나 현재 양국의 국경선을 북방 한계로 생각(F)하는 국경인식이 나타난다. 토문강 또는 분계강을 포함하는 유로 중 'D 유형'과 'E 유형'의 유로는 토문강 · 두만강의 1강설과 2강설, 분계강의 의미에 따라 상이한 인식이 나타나기도 한다.

넷째, 토문강과 두만강 2강설은 대체로 확대된 북방영역 인식을 표출하고, 1강설을 나타내는 지도 중에는 분계강을 속평강과 같은 강으로 표현하여 확대된 북방영역 인식을 표출하기도 한다. 그런데 1강설의 지도 가운데 분계강의 의미가 현재 지명의 해란하인 경우, 지도에는 확대된 영토인식이 나타나지 않고 현재 한반도와 중국의 국경선과 일치되는 국경인식이 나타난다.

다섯째, 고지도에서 분계강은 다음의 네 가지 의미로 표현된다. ① 속평강과 같은 강으로 확대된 영토인식이 나타난다. ② 토문강과 같은 강으로, 토문강의 하류이다. ③ 현재 지명의 해란하를 표현한다. ④ 단순히 분계를 나타내는 강을 의미한다.

여섯째, 고지도와 현재 지도와의 비교를 통해 1885년, 1887년 두 차례 감계 회담에서 이중하가 주장한 토문강이 오도백하이며, 두만강과 다른 강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하지만 고지도 중에는 토문강과 두만강을 하나의 강으로 표현한 지도가 다수 있기 때문에 고지도를 통해 오도백하가 토문강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일곱째, 고지도의 양적 분석을 기초로 해야만 고지도를 통한 수계 중심의 국경연구가 가능하다. 다수의 고지도를 바탕으로 유형화하여 보편적 인식의 도출이 가능하였고, 문자기록과의 비교를 통해 객관화할 수 있었다. 현장 답사를 통해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여 총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때, 종합적 시각에서 고지도 분석이 가능해진다.

연구의 한계 및 앞으로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지도를 통한 하천 수계 중심의 국경문제 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본 연구가 다수의 고지도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제작된 고지도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점은 연구의 한계점이기도 하다. 객관화되고 설득력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중국, 일본, 서양의 고지도 분석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한중간 근대적 국경개념의 성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이해되는 백두산정계비 건립이 근대적 개념의 국경선 확정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은 고지도를 통한 정계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고지도라는 시각 자료는 당시 사람들이 이해한 지표상의 공간을 표현한 그림이기 때문에 현재 지도가 가지는 정확성의 잣대로 논의할 수 없다. 따라서 고지도에 나타나는 백두산 동북부의 하천이 현재 지도의 하천과 다르게 그려졌다고 하여 ‘틀렸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이유로 고지도에 표현된 하천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분석하여 다양한 관점을 도출했으며, 고지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특성을 고지도만이 가지는 ‘허용’이라고 생각하며, 고지도의 ‘허용’을 받아들이는 개방적 태도는 고지도의 한계를 넘어 연구의 성과를 풍부하게 만들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방법	5
II. 연구 지역 개괄 및 선행연구	10
1. 연구지역 개괄	10
2. 선행 연구	24
1) 백두산 관련 연구 -역사 지리 측면에서	24
2) 고지도 자료를 기초로 한 국경연구	25
3) 국내 한-중 국경문제 연구의 변화	27
4) 중국의 한-중 국경문제 연구 주제	30
5) 토문강 · 두만강 1강설과 2강설, 분계강에 관한 연구	32
III. 고지도에 표현된 백두산	37
1. 고지도에 표현된 백두산 명칭	38
1) 태백산	43
2) 백산	45
3) 불함산	46
4) 장백산	48
2. 백두산 묘사의 유형	56

1) 산지의 복수(複數) 표현	56
2) 천지 명칭 및 표현의 상징	58
3) 백두산의 채색과 형태	69
3. 천하도에 그린 백두산	74
4. 요약	79
IV. 고지도에 표현된 쟁점이 되는 백두산 북동류 하천	81
1. 송화강과 속평강에 나타나는 영토의식 확대와 고토회복 의지	84
1) 확대된 영토의식을 반영하는 송화강-흑룡강	84
2) 속평강과 아야고하	86
3) 속평강과 분계강에 담긴 고토회복 의지	95
2. 황화송구자(토문강)에 담긴 영토에 대한 적극적 의지	102
1) 백두산에서 북류하는 토문강	102
2) 황화송구자(이알력개 · 삼포) · 하유송구자(이도강) · 오도백하	103
3. 요약	110
V. 고지도에 나타나는 쟁점이 되는 백두산 동류 하천	112
1. 유로 묘사 방법의 분류	113
1) 두 강과 북쪽 강 공백.	113
2) 두 강을 잇는 목책과 북쪽 강 공백.	114
3) 두 강을 잇는 목책.	118
4) 두 강과 정계비에서 연결된 목책.	121
2. 토문강, 두만강의 동일 하천 여부와 분계강	123
1) 2강설과 분계강	123
2) 1강설, 토문강과 다른 분계강	132

3. 경계를 나누는 의미의 분계강	140
4. 이중하의 토문강과 발원이 다른 두만강	145
5. 요약	155
6. 연구의 한계점	157
VI. 결론	159
참 고 문 헌	176
ABSTRACT	194
부 록	
부록 1. 연구대상 지도 목록	200
부록 2. 분석대상 지도 목록	218
부록 3. 백두산 표현 유형 목록	226
부록 4. 백두산 동북부 유로 유형 목록	234
부록 5. 논문에 수록된 고지도 이미지 목록	242

표 목 차

표 1. 분석대상 고지도 유형	7
표 2. 고지도 분석을 위한 항목	9
표 3. 토문강 · 두만강 1강설과 2강설에 대한 주요 논의	33
표 4. 분계강에 대한 해석	36
표 5. 고지도에 나타난 백두산의 명칭	43
표 6. 고지도에 나타난 천지의 명칭	59
표 7. 쟁점이 되는 백두산 북동부 유로	81
표 8. 고지도에 나타난 쟁점이 되는 백두산 북동부 유로와 1 · 2강설	82
표 9. 백두산에서 동류, 북동류하는 하천	94
표 10. 백두산 동류, 북동류 하천에 나타나는 북방영역 인식	101

그림 목 차

그림 1. 소장기관 별 선정지도 수	6
그림 2. 연구지역	11
그림 3. 연구지역 유역 분류도	11
그림 4. 연구지역(A) 상세도	12
그림 5. 연구지역(A) 수계도	12
그림 6. 연구지역 현재지도	13
그림 7. 허투아라성의 汗宮大衙門	17
그림 8. 허투아라성 입구	17
그림 9. 췌얼찰아라성 입구	17
그림 10. 영고탑으로 가는 길의 평원	19
그림 11. 영고대유적에서 바라본 해랑하	19
그림 12. (구)영고탑	20
그림 13. (구)영고탑 토성벽	20
그림 14. 발해 상경용천부	21
그림 15. 상경용천부 발굴현장	21
그림 16. 만구 24개 돌 유적지	22
그림 17. 만구 24개 돌	22
그림 18. 백두산 · 만주지역	26
그림 19. 백두산 · 만주지역	26
그림 20. 《지도》 중 〈중국도〉	44
그림 21. 《조선지도 부 팔도천하지도》 중 〈함경도〉	45
그림 22. 《동여도》	47
그림 23. 《청구도》	47

그림 24. 《청구도》	48
그림 25. 《화이지계》 중 〈성경〉	50
그림 26. 《각국도》 중 〈천하전도〉	50
그림 27. 《백두산정계비지도》	51
그림 28. 《지도》 중 〈동국팔도대총도〉	52
그림 29. 《여지도》 중 〈동국팔도대총도〉	52
그림 30. 《천하도》 중 〈팔도총도〉	52
그림 31. 《서북계도》	53
그림 32. 《관서관북도》 중 〈관서관북도〉	54
그림 33. 《청구관해방총도》	54
그림 34. 《관북전도》	55
그림 35. 《천하여지도》	55
그림 36. 《조선팔도고금총람도》	56
그림 37. 《천하고금대총편람도》	56
그림 38. 《전세보》 중 〈조선·만주지도〉	58
그림 39. 《고지도첩》 중 〈천하산천맥락도〉	58
그림 40. The Dragon Prince's Pool	60
그림 41. 중외일보 1928년 1월1일자 신문	61
그림 42. 《동국여지지도》	61
그림 43. 《서북계도》	62
그림 44. 《관서관북도》 중 〈관서관북도〉	62
그림 45. 《조선팔로지도》	62
그림 46. 《북방강역도》	62
그림 47. 《각도지도》 중 〈조선전도〉	63
그림 48. 《동국대지도》	63

그림 49. 《북관장파지도》	64
그림 50. 《서북양계지도》 중 〈관북총람도〉	64
그림 51. 《좌해여지도》 중 〈동국팔도대총도〉	65
그림 52. 《좌해여지도》 중 〈함경도〉	66
그림 53. ‘조선일보를 축함’ 중 ‘關門潭’	66
그림 54. ‘조선민족과 문화상으로 본 백구백인’ 중 ‘關門潭’	67
그림 55. 《관북지도》 중 〈갑산부〉	68
그림 56. 《전세보》 중 [조선·만주지도]	68
그림 57. 《동국여지도》 중 〈동국대총〉	69
그림 58. 《지도》 중 〈조선국팔도통합도〉	69
그림 59. 《팔도총도》	70
그림 59-1. 《팔도총도》	70
그림 60. 10폭 병풍에 그려진 《요계관방지도》	70
그림 61.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	70
그림 61-1.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	70
그림 62. 《장파지도》	71
그림 63. 《북관지도》 중 〈북도십읍〉	71
그림 64. 《지도》 중 〈함경도〉	72
그림 64-1. 《지도》 중 〈함경도〉	73
그림 65. 《동국지도》 중 〈관북〉	73
그림 66. 천하도 설명도해	74
그림 67. 천하도에 나타나는 지명과 설명문	75
그림 68. 《조선팔도지도》 중 〈천하지형〉	77
그림 69. 《천하도》 중 〈천하도〉	77
그림 70. 《축벽도》 중 〈천하도〉	77

그림 71. 그림 68, 69, 70의 천지 부분	77
그림 72. 《축벽도》 중 〈천하도〉	78
그림 73. 《조선팔도지도》 중 〈천하지형〉	78
그림 74. 쟁점이 되는 백두산 북동류 하천 수계도	81
그림 75. 《팔도지도》	84
그림 76. 《조선국도》	85
그림 77. 《팔도총도》	85
그림 78. 《조선팔도고금총람도》	86
그림 79. 《조선팔로지도》	87
그림 80.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	87
그림 81. 《동국여지지도》	88
그림 82. 《삼한일람도》 중 〈함경도〉	89
그림 83. 《여지전도》	90
그림 84. 《각국도》 중 〈천하전도〉	90
그림 85. 《해동지도》 중 〈서북피아양계전도〉	96
그림 86. 《각국도》 중 〈서북피아교계도〉	97
그림 87.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97
그림 88. 《청구관해방총도》	98
그림 89. 《대한전도》 중 〈대한전도〉	98
그림 90. 《백두산정계비지도》	102
그림 91. 2차 정해감계회담 후 작성한 《백두산정계비지도》	107
그림 91-1. 《백두산정계비지도》	109
그림 91-2. 《백두산정계비지도》	109
그림 92. 〈만주10만분1도 백두산18호〉	109
그림 92-1. 〈만주10만분1도 백두산18호〉	109

그림 93. 『黑龍江吉林遼寧交通圖冊』 부분도	110
그림 93-1. 『黑龍江吉林遼寧交通圖冊』 부분도	110
그림 94. 쟁점이 되는 백두산 동류 하천 수계도	112
그림 95. 토문강, 분계강, 두만강의 형태 분류 1	113
그림 96. 《각도지도》 중 〈조선전도〉	113
그림 97. 《해동여지도》 중 〈조선전도〉	114
그림 98. 토문강, 분계강, 두만강의 형태적 분류 2	115
그림 99. 《북관지도》 중 [관북지도]	115
그림 100. 《북계지도》	116
그림 101. 《관북전도》	117
그림 102. 《여지도》 중 〈함경도〉	117
그림 103. 토문강, 분계강, 두만강의 형태적 분류 3	118
그림 104.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119
그림 105. 《청구관해방총도》	119
그림 106. 《대한전도》	120
그림 107. 토문강 · 분계강 · 두만강의 형태적 분류 4	121
그림 108. 《북관장파지도》	121
그림 109. 《대동여지도》	122
그림 110. 《동국지도》 중 〈관북〉	123
그림 111. 《해동팔역여지도》 중 〈관북〉	124
그림 112. 《동국지도》 중 〈함경북도〉	124
그림 113. 《여지도》 중 〈함경도〉	125
그림 114. 《조선지도》	126
그림 115. 《해좌전도》	126
그림 116. 《해동지도》 중 〈무산부〉	127

그림 117. 《지도》 중 〈함경도〉	129
그림 118. 《청구관해방총도》	130
그림 119. 《동국팔로분지도》 중 〈함경도〉	132
그림 120. 《좌해지도》 중 〈함경도북도구주〉	133
그림 121. 《천하대총일람지도》	133
그림 122. 《북관지도》 중 [관북지도]	139
그림 123. 《북관지도》 중 〈북도십읍〉	139
그림 124. 《청구도》	140
그림 125. 《대동여지도》	140
그림 126. 《동여도》	141
그림 127. 《대동여지도》	141
그림 128. 두만강광장	146
그림 129. 두만강 발원지 표지	147
그림 130. 《만국대지전도》	148
그림 130-1. 《만국대지전도》	148
그림 130-3. 《만국대지전도》	148
그림 130-2. 《만국대지전도》	148
그림 131. 《황여전람도》	149
그림 132. 《각국도》 중 〈성경전도, 조병사운성본〉	149
그림 133. 《관북전도》	150
그림 134. 《백두산정계비지도》	151
그림 135. 《백두산》	151
그림 136. 오도백하 두 번째 지류의 시작지점	153
그림 137. 오도백하의 지류	154
그림 138. 오도백하 원류 부근도	154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홍세태(洪世泰)의 『유하집 柳下集』 「백두산기 白頭山記」는 ‘백두산은 북방 모든 산의 조상이다.’¹⁾라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육당(六堂) 최남선(崔南善)은 『백두산근참기 白頭山觀參記』에서 ‘천궁(天宮)의 일부이던 청유리 일장(一張)이 무슨 사품에 이리로 내려와 제가 제 미에 흘러 지내느라고 가만히 드러누워 있는 것 같다.’라고 천지를 묘사했다.²⁾ 백두산은 우리 민족만이 아닌 동북아 전체 산의 조종(祖宗)이며, 하늘과 맞닿은 영산(靈山)으로 인식되어 왔다. 역사적 관점과 민족적 의식 안에서 백두산은 비단 우리 민족 스토리텔링의 상징적인 아이콘일 뿐만 아니라 중국 청나라 시조의 발상지이며, 요·금·원 등 중국 변방 민족의 활동지이기도 했다. 현재 협의로는 북한과 중국·러시아의 국경이고, 광의로는 일본·중앙아시아·러시아 연해주로 연결되는 결절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한반도와 중국은 이 공간에 관해 국가 주권과 역사주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조선시대의 지리학자 신경준은 『산수고』에 “하나의 근본에서 만갈래로 나누어지는 것은 산(山)이요, 만가지 다른 것이 모여서 하나로 합하는 것은 물(水)이다. (우리나라) 山水는 열둘로 나타낼 수 있으니, (산은) 백두산으로부터 12산으로 나누어지며, 12산은 나뉘어 팔로(八路;팔도)가 된다. 팔로의 여러 물은 합하여 12수가 되고, 12수는 합하여 바다가 된다. 흐름과 솟음의 형세와 나누어지고 합함의 묘함을 여기에서 가히 볼 수 있다.”³⁾ 라고 밝히고 있다. 『산수고』와 『동국문헌비고』의 「여지고」를 바탕으로 작성된 『산경표 山經

1) 홍세태(洪世泰) 『유하집 柳下集』 「백두산기 白頭山記」, ‘白頭山北方諸山之祖也’.

2) 최남선 외, 1989, 백두산근참기-한국걸작 기행문 23선, 조선일보사, p.79.

3) 양보경, 1992, 申景濬의 『山水考』와 『山經表』 - 국토의 산천에 대한 체계적 이해, 토지연구 제3권 제3호, 토지개발공사, pp.135~145.

表』⁴⁾는 ‘백두대간(白頭大幹)’이라는 표제 아래, 백두산(白頭山)에서 시작되는 연지봉(楡脂峰), 허항령(虛項嶺), 보다회산(寶多會山), 사이봉(沙伊峰) 등 산봉우리의 명칭이 족보식으로 나열되어 있다. 백두산을 정점으로 하는 유기체적인 인식에 따라, 분수계를 중심으로 생활권을 나누어 산지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물을 나누는 경계를 중심으로 국토를 이해하고 동시에 하천의 흐름을 고려하며, 생활권을 파악하는 관점이다. 즉, 산은 교류의 장애물로서 경계가 되고 하천은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로로서 생활 터전의 바탕이 되어왔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분수계의 시작인 백두산을 언급하면서 하천은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백두산의 천지로부터 북쪽 이도백하로 흐르는 하천은 만주지역의 생활권을 형성했다. 서쪽으로 흐르는 압록강은 과거 중국과 교류를 위해 건너는 여행로의 출발점이었고, 책문은 교역의 장이기도 했다. 백두산 동쪽은 두만강을 포함한 복잡한 하천 수계로 인해 국경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만주지역 중 백두산과 백두산 동북부지역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논의는 대부분은 선⁵⁾에서 출발하는 국경과 영토의 문제였다. ‘국가 주권’⁶⁾의 현재적 입장에서 논의를 출발하는 중국에 ‘국경’과 분계를 의미하는 ‘선’은 적합한 개념이지만 한국에 이 지역은 국가 주권의 공간이 아니다. 그 공간을 살았던 사람들이 현재의 ‘국경선’ 안팎을 오고 가며 수많은 점들로 만든 ‘면’으로 구성된 ‘변경’지역이다.

‘변경’의 ‘면’을 논의하는데 고지도 분석은 가장 적합한 연구방법이라 판단하였다. 문자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지도는 인간의 의사를 전달하고 기록하

4) 양보경, 2001, 산경표와 백두대간, 시안 2001 가을호 기획특집 「백두대간의 의의와 시적 상상력」, pp.16~31.

5) 법적 기술성이 요구되는 영토문제에서 국경(boundary)과 변경지대(frontiers)를 혼용함은 위험한 일이다: 백충현, 1982, 영토분쟁의 해결방식과 증거, 서울대학교 법학 23(4), p. 18, Facett의 국경은 선(linear nature), 변경은 지역적 성질(zonal characteristics)이라는 구분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J.R.V. Prescott, 1970, Boundaries and Frontiers, *Croom Helm*, p.19.

6) 임지현은 ‘국가주권’과 ‘역사주권’에 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현 영토를 중국사의 공간적 범주로 규정하고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사에 통합하려는 ‘국가/국민 주권’의 개념적 개입에 대해 한국의 역사학계는 ‘역사 주권’을 무기로 반격한다고 표현했다. ; 2004, 임지현, 고구려사의 딜레마-‘국가주권’과 ‘역사주권’의 사이에서, 근대의 국경, 역사의 변경, p.22.

는 일종의 문자이며⁷⁾ 지역 및 공간 현상의 투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정치 등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이 각인된 그림이다. 고지도는 우리 국토의 옛 모습을 시각적, 종합적으로 비추어주는 거의 유일한 자료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고지도는 한국의 사회·역사를 이해하는 많은 분야의 학문적 접근에 기초를 제공해준다.⁸⁾ 단순한 공간 표상의 도형이라는 정의를 초월하여 인간이 대상공간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집약한 도형이며, 자신의 꿈과 이상을 구상함과 동시에 기획하여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제일 먼저 필요한 자료이다. 제작 당시의 시점에서 투사되었고 그 당시 지식의 총체가 특정 공간을 지도상에 재현한 도표이기 때문이다.⁹⁾ 따라서 고지도를 그린 사람들이 살았던, 또는 보고 관찰하며 느꼈던 ‘변경-지역적 성질(zonal characteristics)’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줄 뿐 아니라 그 안에 많은 이야기를 담기에 충분하다. 또한, 문헌자료와는 달리 고지도는 당대인의 지역에 대한 인식 태도를 보여주며 다양한 지역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해 주고 있어서 사료로서 적극적 해석되고 활용될 때 역사상을 해명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¹⁰⁾ 고지도의 이러한 특수한 성질을 이해한다면 백두산을 그린 고지도에 표현된 백두산과 주변지역, 즉 변경의 공간이 단순하게 그려진 그림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목적은 고지도에 표현된 ‘백두산 및 쟁점이 되는 백두산 동북부하천’을 분석하는 것이다. 하곡은 대부분은 지역경계를 형성하는데, 하곡이 뚜렷하지 않은 현상으로 인해 백두산 동북부지역의 하천은 피표분수령이 명확지 않다. 따라서 지하분수령에 의하여 집수구역의 경계를 정해야만 하므로 경계의 확정 문제에 다양한 논쟁이 야기되어 왔다. 이처럼 백두산이 가지는 하계망의 독특한 성질은 화산 폭발로 이루어진 백두산과 천지의 특징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고지도에 표현된 백두산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

7) 이찬, 1976, 한국의고세계지도-천하도와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 대하여-, 한국학보 12. 일지,p.47.

8) 양보경, 1997, 고지도와 역사연구, 역사와 현실 26, pp.263~281.

9) 서정철, 1991, 서양고지도와 한국, 대원사, pp.9~12.

10) 배우성, 1995, 고지도를 통해 본 18세기 북방정책, 규장각 18, p.123.

는 하계망은 이곳을 관찰하거나 살았던 사람들의 다양한 시각으로 고지도에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지도에 표현된 백두산을 분석하는 것은 고지도에 나타나는 쟁점이 되는 백두산 동북부 하천을 이해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 ‘쟁점이 되는 백두산 동북부 하천’이란 한반도와 중국의 국경문제에서 쟁점이 되는 하천을 의미한다. 백두산을 중심으로 백두산 동쪽과 동북쪽의 하천 중 양국의 경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조선시대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하천으로, 흑룡강·송화강·속평강·토문강·분계강·두만강 등이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지도에 나타나는 쟁점이 되는 백두산 북동류·동류 하천과 고지도상의 주요 지역이 현재 지도에서 어떤 하천인지, 어느 지역인지 연구하는 것이다.

둘째, 고지도에 표현된 백두산을 고찰하여 백두산 명칭과 백두산 표현에 담긴 의미와 인식을 연구하는 것이다.

셋째, 고지도에 표현된 쟁점이 되는 백두산 북동부 유로를 유형화하여 흑룡강·송화강·속평강 등의 백두산 북동류 하천과 토문강·분계강·두만강 등 백두산 동류 하천을 연구하는 것이다.

넷째, 하천 유로의 분석을 통해 고지도에 나타난 북방영역 인식, 토문강·두만강의 1강설과 2강설, 분계강의 의미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다섯째, 고지도에 나타나는 두만강의 발원을 분석하고, 토문강과의 관계에 관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여섯째, 수계를 중심으로 한 국경문제 연구에서 고지도를 통한 연구가 가지는 의의와 한계점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국경 안팎의 주변을 담고 있는 고지도는 지역적 성질과 인식을 충분히 담고 있기 때문에 면과 지역의 개념인 변경을 논의하기에 적합한 사료가 된다. 고지도에 나타난 해당 연구지역의 인식 도출을 위해서는 과거에 관한 고찰과 현재 그 공간에 대한 이해가 모두 필요하다. 고지도에 내포된 인식 고찰을 위한 자료로 중국과 한국에서 기록한 일반문헌 사료를 두 번째 자료로 선택했고, 부족한 부분은 실제 답사를 통해 보완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고지도는 248점¹¹⁾으로, 국내 11개 기관과 개인, 일본 4개 기관이 소장한 지도이다. 국내 기관은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울역사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고려대학교도서관, 고려대학교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사편찬회, 영남대학교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 해남 녹우당이다. 일본 소장처는 일본국회도서관, 일본국공립문서관, 일본동양문고, 일본천리대학부속천리도서관이며, 신경준 후손 신장호 선생의 소장 본이 있다. 자료로 선택한 고지도의 특성은 한국의 고지도 중 백두산 영역권과 만주를 포함한 지도인데, 전도에는 백두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료의 접근이 가능했던 대부분의 전도와 북방지역을 그린 한국의 고지도가 포함된다.¹²⁾

11) 부록 1 『연구대상 지도 목록』 참고.

12) 2010년과 2011년 『백두산 고지도집 발간 - 한국 고지도 속의 백두산(Window to Baekdu Mountain - Mount Baekdu in the Old Maps of Korea -)』(가제 - 이하 『백두산 고지도집』)이라는 연구 주제로 2차 년도에 걸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지원으로 시작된 이 연구는 백두산 지역에 대한 역사지리적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한국과 일본에 소장되어있는 한국에서 제작한 고지도 및 지리지에 표현된 백두산과 만주 지역 자료를 검색하고, 해설을 덧붙인 고지도집을 발간하는 작업이 『백두산 고지도집』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따라서 국내 및 일본에 소장되어 있는 백두산 고지도를 대상으로 2010년에는 지도 자료의 수집, 지도 목록의 작성, 지도 비교를 통한 수록 지도의 선정, 지도이미지 기초 자료 확보, 지도 해설, 백두산과 주변 지역 이해를 위한 기초 조사 및 답사, 자료 확보 등 간행을 위한 기초적 준비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 2차년도인 2011년에는 해제 및 논고 등 선행연구를 보완하고, 1차년도에 선정한 지도를 바탕으로 고지도집에 수록할 지도를 최종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고지도는 연구팀이 새롭게 촬영을 하거나, 소장처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고지도집에 도판으로 수록하여 고지도집을 완성하였다. 필자는 『백두산 고지도집』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본 논문의 기초가 되는 고지도 자료와 기타 자료를 확보하고 활용 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고지도자료는 일차적으로 『백두산 고지도집』 발간에서 사용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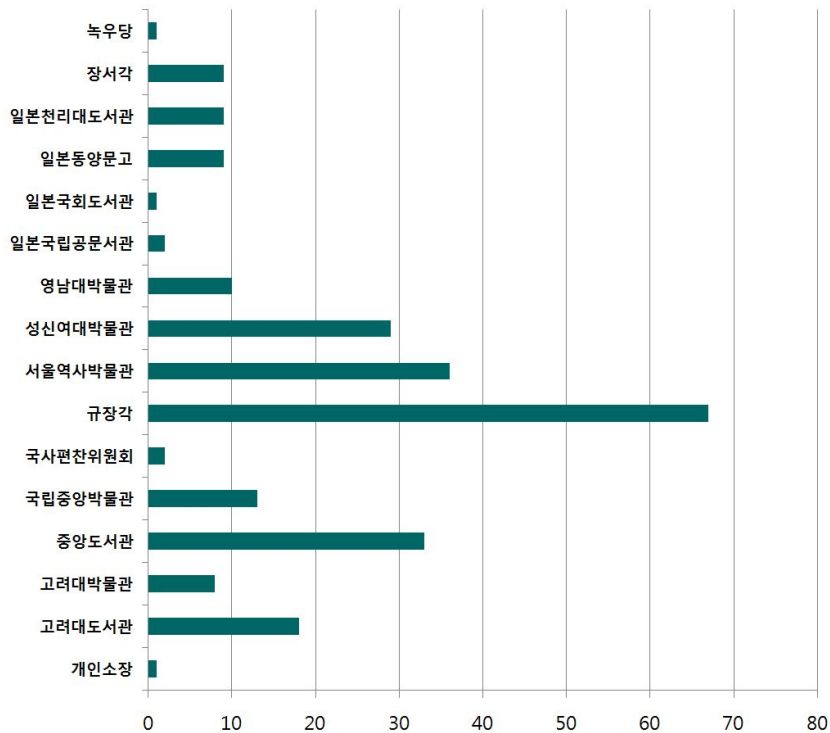


그림 1. 소장기관 별 선정지도 수

이 가운데 백두산이 그려져 있지 않은 지도는 백두산 및 백두산 북동부 유로에 관한 분석에서 제외¹³⁾하였다. 분석에는 총 160점의 지도를 사용하였는데 양계지역 지도 27점, 백두산 주제도 8점, 조선전도 61점, 도별지도 31점, 군현지도 8점, 세계지도 15점, 아시아지도 10점이다. 분석에 포함되는 160점의 고지도를 대상으로 백두산 명칭, 천지 표기, 백두산 표현의 특징, 백두산 북동부 유로, 1강설과 2강설, 목책의 연결, 분계강의 의미, 주기, 특징의 아홉 가지 항목을 분석하여 목록으로 만들었다.¹⁴⁾

고지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다른 고지도를 기초 자료로 더 활용하였다.

13) 연구의 유형 분류에서 제외된 지도는 백두산의 영역권에 속하지만 백두산이 그려져 있지 않은 압록강 주변 지도, 군현도 중 평안도 지도, 함경도 도별도 중 백두산이 그려져 있지 않은 지역의 지도 등이다.

14) 부록 3 『백두산 동북부 유로 유형 분류』, 부록 4 『백두산 동북부 유로 유형 목록』 참조.

표 1. 분석대상 고지도 유형

고지도 유형	지도 수 (점)	비율 (%)
백두산을 포함하는 양계지역 지도	27	16.88
백두산 주제도	8	5.00
조선전도	61	24.60
도별지도	31	12.50
군현지도	8	5.00
세계지도	15	9.38
아시아지도	10	6.25
총	160	100

고지도와의 비교연구를 위해 사용한 역사사료는 중국의 『산해경 山海經』, 『진서 晉書』, 『위서 魏書』, 『북사 北史』, 『신당서 新唐書』, 『태평환우기 太平寰宇記』, 『통전 通典』, 『거란국지 契丹國志』, 『금사 金史』, 『명일통지 明一統志』 등 이고, 우리나라의 사료로는 『동국여지승람 東國輿地承覽』, 서영보(徐榮輔)의 『만기요람 萬機要覽』, 정일용의 『북행수록 北行隨錄』, 신경준(申景濬)의 『여암전서 旅庵全書』, 이익(李瀾)의 『성호사설 星湖僿說』, 이규경(李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 五洲衍文長箋散稿』, 성해응(成海應)은 『연경재전집 研經齋全集』, 정약용(丁若鏞)의 『여유당전서 與猶堂全書』, 김정호의 『대동지지 大東地志』 등을 참고하였다.

연구대상 지역에 대한 답사는 2010년 7월 두 차례, 2011년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네 차례 진행되었다. 세 차례 백두산을 등정하였으며, 압록강 하구에서부터 백두산까지, 백두산에서 두만강 하구까지 강을 따라 답사했다. 그리고 백두산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심양에서 산해관까지, 백두산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목단강 유역의 영고탑과 발해상경용천부 지역을 답사했다. 광의적 백두산 문화권 답사의 목적은 고지도에 그려진 문화·역사의 현장에 대한 이해의 기초를 마련하고, 하천유로의 파악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살펴보면, 연구지역을 개괄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도와 고지도를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연구 분석 대상 160점 고지도의 주요 지역이 잘 나타나는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를 비교대상 고지도로 선정하고, 2010년에 출간된 『흑룡강 길림 요녕 교통도책 黑龍江 吉林 遼寧 交通圖冊』와 비교하여 연구지역을 개괄하였다. 그리고 실질적인 답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지역을 고찰하였다. 산해관에서 심양, 청의 첫 번째 도읍지인 흥경, 유조변지역과 백두산 북부 청의 용흥지지 영고탑 답사를 통해 중국 청나라 시조의 발상지이며 그들 활동의 무대였던 지역을 이해할 수 있었다. 발해 상경 용천부와 경박호를 따라 이어지는 발해의 교통로에 남겨진 24개 돌무더기는 한국과 중국의 어우러진 역사와 문화를 잘 보여주었다. 압록강에서 백두산까지, 백두산에서 두만강까지 강을 따라가며 현재 ‘국가주권’ 하의 경계와 주변지역에 대한 관찰이 가능했다.

선행연구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관련 연구를 정리하고 분류하여 다섯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첫째, 역사적 측면에서 백두산 관련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정리했다. 둘째, 고지도자료를 기초로 하는 국경연구를 정리했다. 셋째, 국내에서 한-중 국경문제 연구의 변화가 시대적인 흐름과 함께 어떠한 담론으로 바뀌어 왔는지 고찰했다. 넷째, 중국의 한-중 국경문제 연구 주제를 통해 중국에서 백두산을 위시한 만주지역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다섯째, 토문강·두만강 1강설과 2강설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백두산 북동부, 동부 쟁점하천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찰했다.

백두산 및 백두산 북동류·동류 하천을 분석하기 위해 160점의 고지도를 백두산 표현, 백두산 북동부 유로와 관련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백두산 표현과 관련된 항목은 백두산 명칭, 천지 표기, 백두산 표현의 특징, 주기의 네 가지이며, 백두산 북동부 유로와 관련된 항목은 백두산 북동부 유로, 1강설과 2강설, 분계강의 의미, 유로의 특징으로 구성된 네 가지이다. 여덟 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유형화한 내용은 문자기록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객관화하였으며, 답사를 통한 현장 관찰은 고지도 이해와 해석에 큰 부분을 차지했다.

표 2. 고지도 분석을 위한 항목

백두산 표현	백두산 북동부 유로
백두산 명칭	백두산 북동부 유로
천지 표기	1강설과 2강설
백두산 표현의 특징	분계강의 의미
주기	유로의 특징

논문을 기술하는 형식에 있어서 지도의 해제는 미주에 수록하였다. 백두산 또는 백두산 북동부 유로를 분석하기 위해 수록한 고지도는 설명에 필요한 부분을 해당 고지도에서 발췌한 후 확대하여 게재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하천과 산 등을 지도 위에 표시하고 주요 명칭은 확대하여 표기하였다.

II. 연구 지역 개괄 및 선행연구

1. 연구지역 개괄

백두산과 흑룡강 이남의 영고탑과 오라(길림) 지역을 포함하는 백두산 동북부지역이 연구대상 지역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西北彼我兩界萬里一覽之圖》는 1712년 이후 제작되었으며, 조선의 서북지방과 중국의 만주 일대를 그린 대표적인 관방지도(關防地圖)이다. 연구대상 지역이 상세하게 나타나 있고 조선 후기 고지도에 나타나는 주요 지역과 지명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의 기초자료인 고지도와 고지도상의 해당 연구지역 이해를 돕기 위해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를 연구지역 개괄을 위한 가시적 자료로 활용하였다.

지도에는 조선의 도읍이었던 한성 이북지역과 유조변장을 포함하는 만주일대가 표현되어 있다. 고지도가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연구지역을 도출하기 위해 한성(漢城)을 중심으로 의주로(義州路)와 서수라로(西水羅路)로 이어지는 도로망의 전개를 따라 세 지역으로 구분했다. 첫째,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너 연행로에 해당하는 길로 심양을 포함하는 구(舊)유조변장 지역. 둘째, 백두산 동부-두만강 하구지역. 셋째, 백두산을 중심으로 흑룡강 이남 영고탑과 오라(길림) 지역을 포함하는 백두산 동북부-두만강 상류지역이다. 한성에서 각지로 향하는 10개의 간선도로¹⁵⁾ 중 중국으로 통하는 중요한 교통로인 의주로(義州路)는 평양(平壤)을 거쳐 의주로 향하고 압록강을 건너 연행로로 이어지게 된다. 이 길을 따라 만주의 정치·군사적 중심지인 성경, 그리고 유조변장 지역과 산해관까지 지도의 서북쪽과 서쪽이 표현되어 있다.

15) 조선시대에는 초기 6개의 간선도로가 있었는데, 역원제의 정비와 발달과 함께 10개의 간선도로가 갖추어졌다. 한성(漢城)-의주로(義州路), 한성-경흥로(慶興路), 한성-평해로(平海路), 한성-동래로(東萊路), 한성-봉화로(奉花路), 한성-강화로(江華路), 한성-수원별로(水原別路), 한성-충청수영로(忠淸水營路), 한성-해남로(海南路), 한성-통영로(統營路)이다. ; 김중혁, 2002, 조선후기 한강유역의 교통로와 시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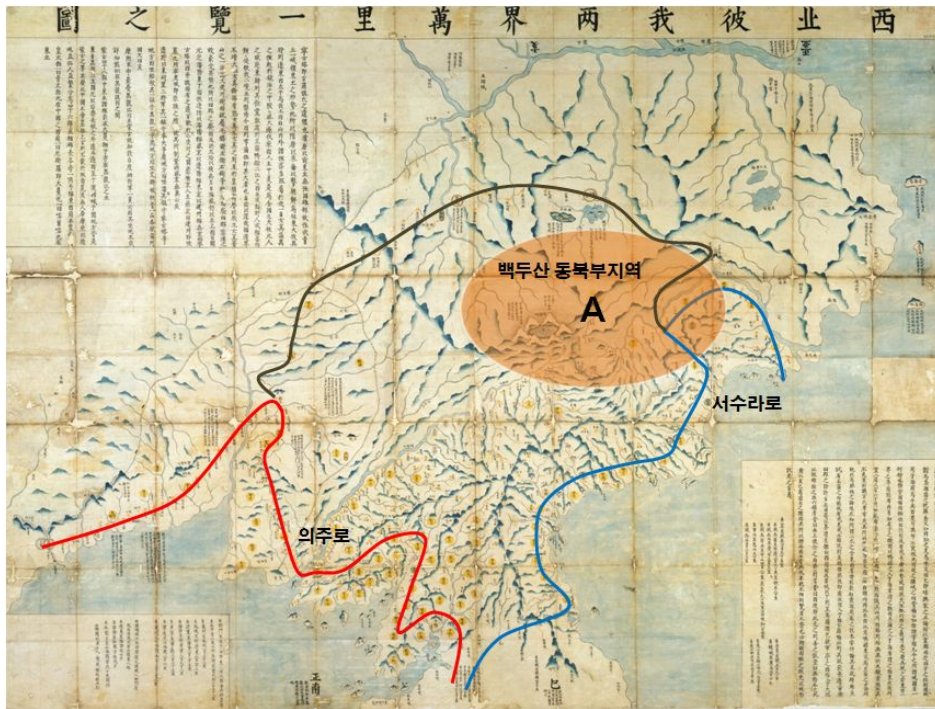


그림 2. 연구지역

- 주: 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서북괴아양계만리일람지도》.
 2. 백두산 동북부지역(A)이 연구지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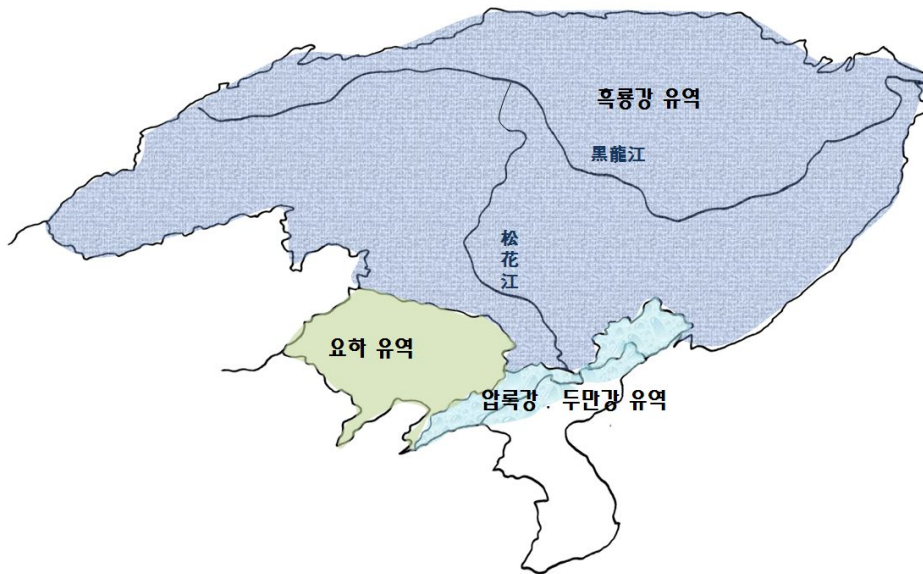


그림 3. 연구지역 유역 분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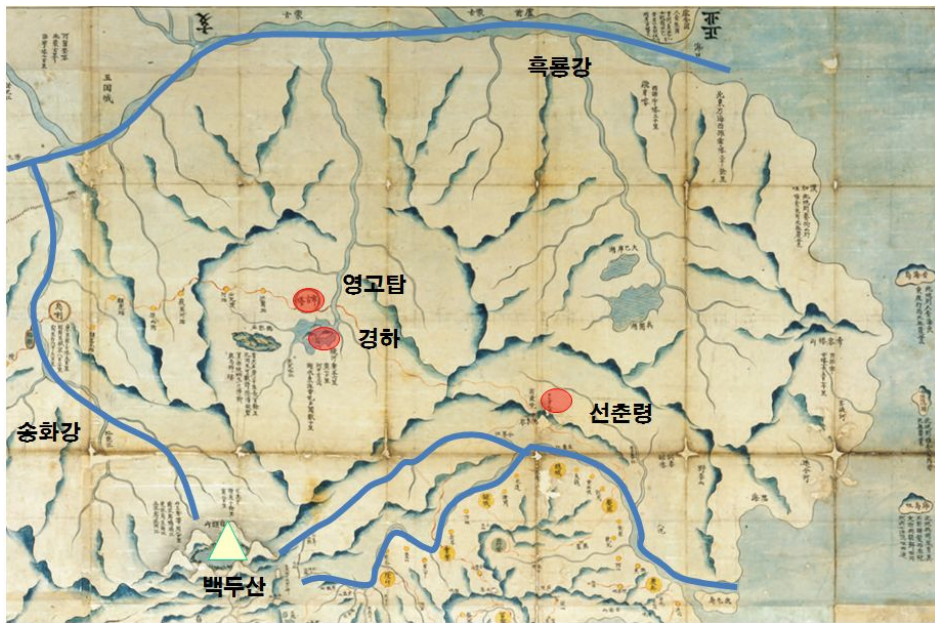


그림 4. 연구지역(A)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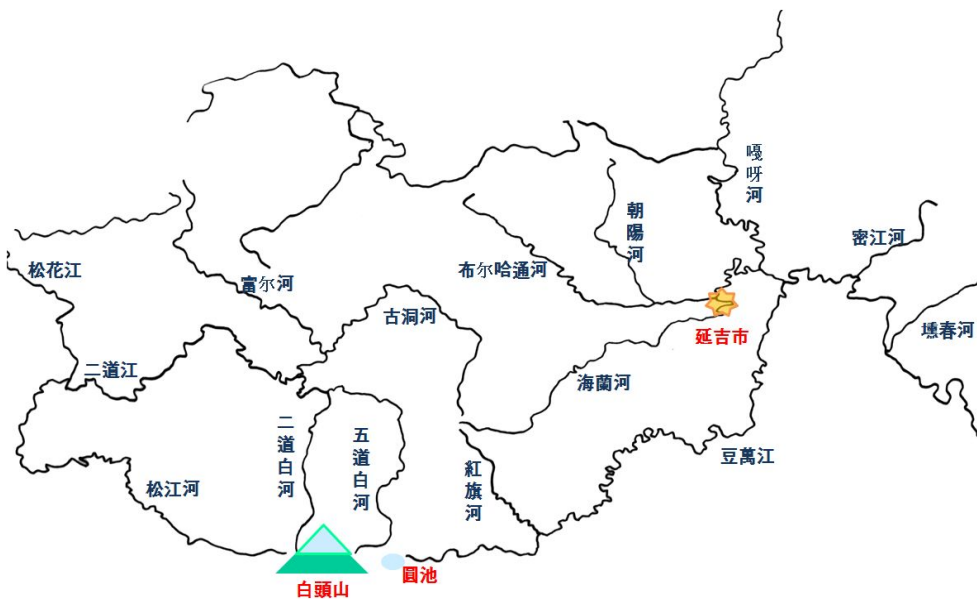


그림 5. 연구지역(A) 수계도

- 주: 1. 지도 범위 설정의 문제로 흑룡강은 수계도에 포함되지 않았음.
 2. 백두산 주변을 중심으로 그렸으며, 흑룡강은 지도의 북쪽에 위치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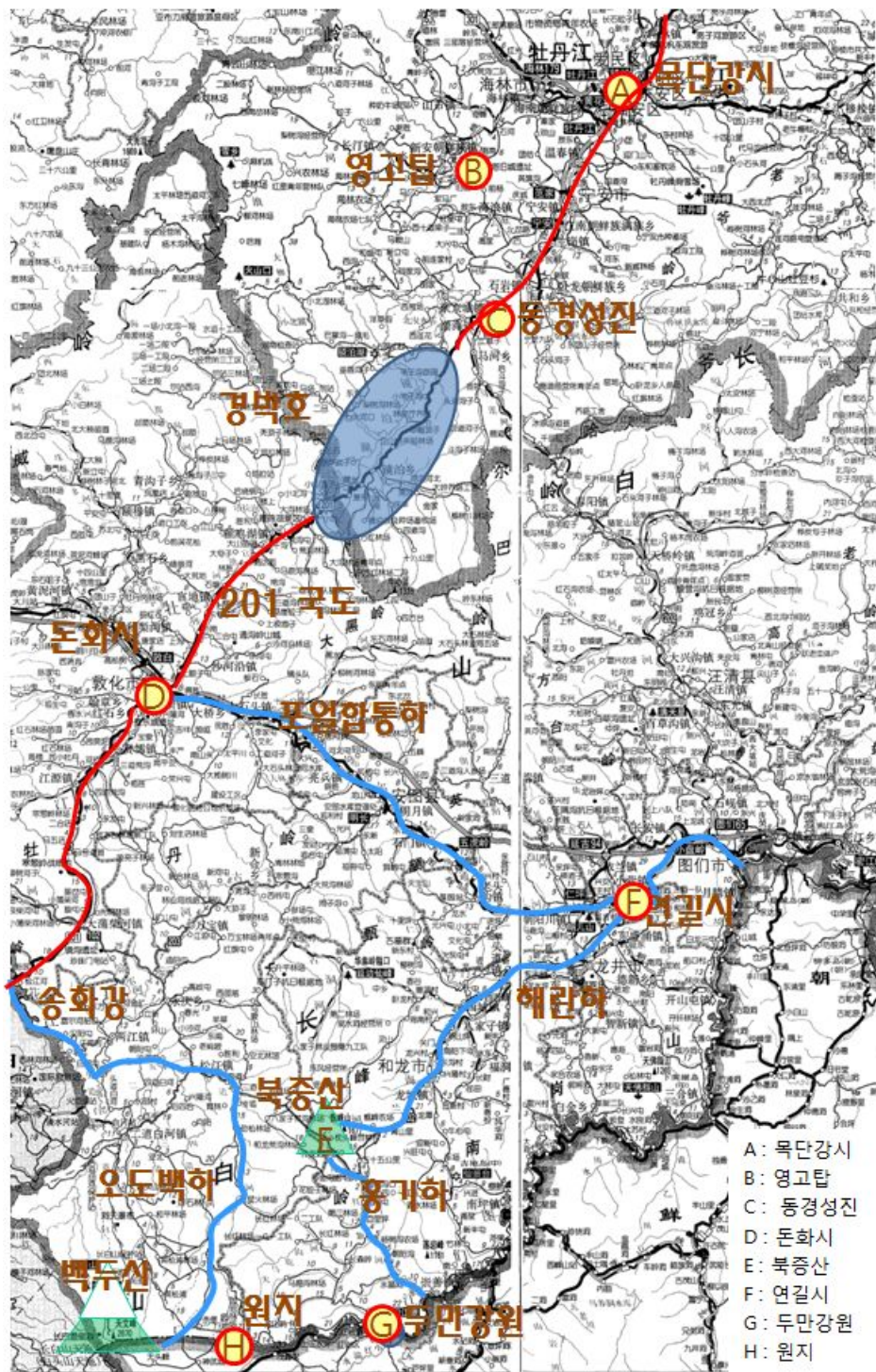


그림 6. 연구지역 현재지도

주: 2010, 『흑룡강 길림 요녕 교통도책 黑龍江 吉林 遼寧 交通圖冊』.

한성에서 북동쪽으로 향하는 도로인 경흥로(慶興路)는 안변(安邊)을 지나 함흥(咸興), 종성(鐘城), 그리고 회령(會寧)을 거쳐 경흥에 이른다. 경흥로 중한 갈래의 길은 회령에서 두만강 너머 선춘령, 영고탑(寧古塔), 오라(烏喇, 길림)로 이어져 의주로와 만난다.

첫 번째 심양을 포함하는 구(舊)유조변장 지역은 산해관(山海關)에서 시작하는 청대의 유조변이 변문과 함께 자세히 나타나 있고, 명대의 요동변장(遼東邊牆)도 함께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두 개의 연행로가 표시되어 있는데, 1665년부터 1678년까지의 ‘연산관→성경→우가장→광녕→산해관’의 구(舊)노선을 열은 붉은색 선으로 그린 것과 1679년 이후 확정된 ‘의주→압록강→구련성→탕참→봉황성→요양→심양→광녕→산해관’의 새로운 노선이 굵은 붉은색 선으로 함께 표시되어 있다. 누루하치가 흥기한 ‘흥경’과 두 번째 · 세 번째 도읍지 ‘동경’ · ‘성경’은 1644년 청조의 북경 입관 후에도 여전히 동북 지역에서 중요한 정치, 군사적 도시였다.

두 번째 백두산 동부-두만강 하구지역은 한성에서 동북으로 이어지는 경흥로 주변지역과 두만강 하구, 녹둔도 등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조-청-러 삼국이 맞닿은 곳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다.

세 번째 흑룡강 이남 영고탑(寧古塔)과 오라(烏喇, 길림) 지역을 포함하는 백두산 동북부-두만강 상류 지역은 영고탑과 오라 두 지역과 백두산을 포함하고 있다. 두만강 상류 현재 북한지역의 회령을 지나는 노선은 두만강을 건너 선춘령을 지나 영고탑, 그리고 오라로 이어진다. 선춘령 일대에는 고려 윤관 장군이 선춘령을 넘어 공험진에 세웠다고 전해지는 ‘철(凸)’자 모양의 고려경계비를 그리고, ‘윤시중입비처 고려경(尹侍中立碑處 高麗境)’이라 표기하였다. 동북지역을 관할하기 위해 1636년 누루하치가 세운 전략적 군사적 거점 도시 영고탑은 흑룡강 이남에 위치하며, 영고탑 아래에는 경박호가 삼산(三山)이 있는 경하(鏡河)라는 큰 호수로 표현되어 있다. 주기에는 “넓이가 5~6리, 길이가 70리에 달하며, 삼산에는 동쪽으로 흐르는 호수가 있는데 그 소

리가 우레와 같아서 수리에 걸쳐 들린다.”고 표기되어 있다.

지도의 중심에 우뚝 솟은 백두산은 매우 웅장하고 주변의 수계가 자세하다. 백두산 천지(天池)인 ‘대택(大澤)’ 동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정계비가 있고, 정계비에서 동쪽으로 ‘분계강(分界江)’이 흐른다. 백두산 대택 바로 아래 그려진 정계비 부근에서 ‘토문강원(土門江源)’과 ‘소홍단수(小紅丹水)’를 포함한 4개의 하천이 흘러나와 무산 부근에서 합류하여 동쪽으로 흐른다. 그리고 온성(穩城) 부근에서 ‘분계강(分界江)’과 합류하여 ‘두만강(豆滿江)’으로 합류된다. 한편, 공험진 선춘령 부근에서 흘러나온 ‘훈춘강(訓春江)’은 ‘경원(慶源)’ 부근에서 ‘두만강(豆滿江)’과 합류하여 동해로 흘러간다.

본 논문에서는 백두산 및 흑룡강 이남 영고탑과 오라(길림) 지역을 포함하는 백두산 동북부지역을 연구지역으로 설정하고, 고지도에 표현된 이 지역을 백두산 표현 및 백두산 동북부 수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그림 2, 4)에 나타나는 연구대상지역은 분수계를 중심으로 유역을 나누어 연구지역 유역 분류도(그림 3)로 표현하였고, 연구지역의 수계도(그림 5)를 실었다. 그리고 고지도와의 비교를 위해 현재지도(그림 6)를 게재했다. 목단강시(A) 북쪽으로 흑룡강이 흐르고, 흑룡강성(黑龍江省) 해림시 장정진 고성촌(海林市 長汀鎮 古城村) 서쪽 동구촌(東舊村)에 영고탑(B)이 위치하고 있다. 청나라 초기 성경(심양) 동북지역을 관할하는 주요 행정기구의 소재지로, 경제·문화뿐 아니라 팔기병이 주둔하여 러시아의 남하에 대처하는 군사적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영고탑은 조선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북방정세를 대변하는 상징적 지역이기도 했다.

명조 말기, 해서(海西)·건주(建州)·야인(野人)의 3부로 나누어진 여진은 명나라의 간접 통치를 받고 있었다. 건주여진의 족장인 누르하치는 조선의 임진왜란(1592~1598)을 전후하여 만주에 대한 명나라의 통제력이 약화된 틈을 타 1588년 여진의 여러 부족을 통일했다. 1616년에는 변방의 국가들에 대한 명의 통제력이 약화된 틈을 기회로 만주 일대의 여진족을 완전히 통일하고 스스로

왕위에 올라 금나라를 계승한다는 뜻에서 국호를 후금(後金)이라 하였다. 청을 건국한 누루하치의 증조부 복만(福滿)은 여섯 명의 아들을 낳았다. 첫째 덕세고(德世庫)는 각이찰아랍성(覺爾察阿拉城), 둘째 류천(劉闡)은 아합화락성(阿哈伙洛城), 셋째 소장아(蘇長阿), 화락갈선성(伙洛曠善城), 누루하치의 아버지인 넷째 각창안(覺昌安)은 혁도아랍성(赫圖阿拉城), 다섯째는 포랑아(包郎阿)는 니마란성(尼麻蘭城), 여섯째 보매(寶賈)는 장가성(章嘉城)에 터를 잡았고 이 여섯 아들을 영고탑(만주어로 숫자 6을 의미)패륙이라 한다. 영고탑패륙이 출현한 흥경지역은 청나라의 첫 번째 수도이자 청 발상의 중심이었다. 여섯 성은 모두 이 지역에 밀집해 있는데, 지금은 첫째 아들 덕세고(德世庫)의 각이찰아랍성[覺爾察阿拉城 웨얼차아라성]과 누루하치의 아버지인 넷째 아들 각창안(覺昌安)의 혁도아랍성[赫圖阿拉城 허투아라성]만이 남아있다. 국가 AAAA급의 명승지로 지정된 허투아라성은 외성의 길이가 동서 1,335m, 남북 1,352m에 이르며, 약 155.9만㎡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웨얼차아라성은 입구마저도 허름한 상태로 남아있다. 누루하치는 1610년 대장 액적도정(額赤都征)을 파견하여 동해 와집부¹⁶⁾(窩集部)를 형성한후 영고탑 일대를 통일시키고 군사를 주둔시켰다. 이후 1616년 청의 첫 번째 수도 허투아라¹⁷⁾에 도읍을 세우고 1636년 동북지역을 관할하는 영고탑을 세웠다.

청조가 1644년 8월 북경으로 천도한 이래 청의 용흥지지(龍興之地)인 동북지역은 만주족의 남하로 인해 ‘옥야천리, 유토무인(沃野千里, 有土無人)’의 현상이 지속되었다. 러시아는 이 틈을 이용해 남진정책을 표방하고 시베리아를 거쳐 흑룡강 유역까지 진출, 중국 동북지역을 위협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대순(大順)·대서(大西)의 잔여세력 및 남명(南明)정권의 항쟁, 그리고 삼번(三藩)의

16) 와집부는 중국 소수민족 중 53번째 규모를 가진 허저족(赫哲族)으로, 만족과 공동 조상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 동북지역의 오랜 소수민족이다.

17) 1603년 건주여진은 허투아라로 천도했다. 허투아라는 만족어 “hetuala”의 음역이다. “hetu”는 “橫”의 의미이고, “ala”는 “岡(언덕)”의 의미로 “비탈진 언덕”이라는 뜻이다. 明朝는 “만자성(蠻子城-오랑캐성)”이라 했고, 조선은 “노추성(奴酋城-누르하치추장의 성)”이라고 부른 누르하치의 성이다. 허투아라는 쑤커수후(蘇克素渾)강과 가하(加哈)강 사이 평원 언덕에 건립되었는데, 중국 최후의 산상(山上) 도성이다. 허투아라는 3차례에 걸친 토목공사를 해 도성의 규모를 갖추었다.

난 등으로 내우외환(內憂外患)이 겹친 상황이었다. 1681년 강희제는 삼번의 난을 평정하고 1689년 러시아와 네르친스크조약을 맺음으로써 그동안 러시아에 점령당했던 지역을 수복하게 되고 청의 발흥지인 ‘용흥지지’를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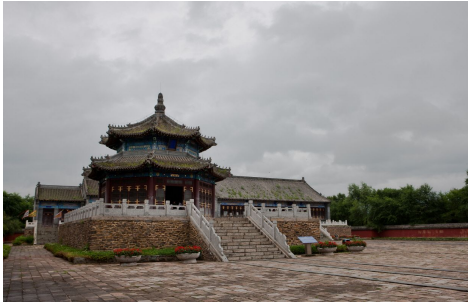


그림 7. 허투아라성의 汗宮大衙門

주: 1. 2011. 7. 26 촬영.
2. 누루하치가 집무한 정전이다.



그림 8. 허투아라성 입구

주: 2011. 7. 26 촬영.



그림 9. 웨얼찰아라성 입구

주: 2011. 7. 26 촬영.

청정부는 농업과 교통에 유리하고 군사보급에도 편리하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송눈평원(松嫩平原)에 성진(城鎮)을 건설하고 팔기병(八旗兵)을 주둔시켰다. 영고탑은 이 군사적 거점 ‘변외칠진(邊外七鎮)-길림오라(吉林烏喇)·영고탑·신성(新城)·이란합라(伊蘭哈喇)·복괴(卜魁)·흑이근(黑爾根)·애혼(艾琿)’ 중 하나이다. 만주어로 느릅나무숲(榆樹林子)이라는 뜻을 가진 해랑하(海浪河)가 휘돌아가는 영고탑(寧古塔)은 청나라 초기 성경(심양) 동북지역을

관할하는 주요 행정기구의 소재지이며, 경제, 문화뿐 아니라 팔기병이 주둔하여 러시아의 남하에 대처하는 군사적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고 한인의 유배지이기도 했다.¹⁸⁾

조선의 입장에서 영고탑 회귀설은 불안한 북방정세를 대변해준다. 정치적으로 불안한 청이 유사시에 영고탑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영고탑 회귀설이 조선 후기 공론화되었다. 만주의 지리에 밝지 못했던 조선은 청이 영고탑으로 회귀할 경우 조선의 국경을 거쳐 가면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였던 것이다. 남구만은 《성경지 盛京誌》 수입을 통해 중국 쪽 지리를 파악하고자 했고, 이이명은 내실 있는 북방지역 파악을 위해 《요계관방도 遼薊關防圖》를 제작하였다. 17세기에 남구만은 《성경지》를 통해 청이 영고탑으로 회귀한다 하여도 조선의 국경을 거쳐 가지 않을 것임을 주장하였다. 지리 지식과 정보의 확충으로 청에 의한 위기가 점차 약화되었지만 18세기 후반 지식인들에게 확인되는 영고탑 회귀설은 17세기 인식과는 달랐다. 두 차례 호란에 대한 대청 복수론과 대청 전면전에 대한 위기감을 상징하는 것이었다.¹⁹⁾ 이러한 이유에서 조선후기 북방지역과 만주지역을 주제로 하는 고지도에는 대부분 영고탑이 강조되어 그려져 있다.

고지도상에 나와 있는 백두산에서 영고탑²⁰⁾으로 가는 노선은 길림성 연길시

18) 류지원, 1998, 청대전기 동북의 변성 영고탑, 원광대학교, pp.37~52.

19) 배우성, 1995, 고지도를 통해 본 18세기 북방정책, 규장각 18, pp. 69~125.

20)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답사한 영고탑은 1년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다. 두 번째 방문했을 때에는 처음 방문 할 때는 없었던 ‘영고탑유적’이라는 이정표가 마을 입구에 있었고, 철망으로 잠겨 있어서 열쇠를 열면 들어갈 수 있었던 내성은 폐쇄되어 들어갈 수 없었다. 한편 서구촌(西舊村)에는 영고탑박물관을 새롭게 개관하고, 영고탑신성의 위치인 Ning'an시(寧安市) 영고탑대도(寧古塔大道) 거리에는 2010년에 ‘영고탑’이라는 표지석을 세우기도 했다. 청조와 만주지역의 역사에 주목하고 강조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으로 보인다. 영고탑유적에는 「영고탑장군주지성유지 寧古塔將軍駐地城遺址」 비문이 있는데,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영고탑 유적은 해림시 장정진 고성촌(海林市長汀鎮 古城村) 서쪽 동구촌(東舊村)에 위치한다. 원래는 성이 있었으나 현재는 성의 동측과 북측의 성곽 300m 정도만이 남아있다. 성곽은 흑과 돌을 섞어 사이 사이에 나무 막대를 끼워 넣어 건축했다. 옛 성은 1636년(후금 송덕원년)에서 1666년(강희5년) 사이, 청 초기 흑룡강 유역의 군정중심이었다. 청정부는 영고탑을 기지로 삼아 여러 차례 흑룡강과 송화강 일대에 파병하여 제정러시아를 격파했고, 1666년 영고탑장군을 동남쪽 25km 정도 떨어진 새로운 성(현재 寧安城)으로 옮겼다. 성곽의 양측 각 5m 범위는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성곽 내 5m 이상의 전 구역은 특히 중요한 보호구역이다. 성곽 외측 5m~15m는 일반보호구역이다. 보호구역의 총 면적은 4만6천여 평방미터이다.”

에서 고속도로를 통해 노령(老嶺)산맥을 넘고, 흑룡강성의 영안시(寧安市)를 지나 201번 국도로 해림시(海林市)까지 4시간 정도, 다시 해림시에서 서쪽으로 40분 정도 가는 길로 추정된다. 영고탑 가는 길은 넓고 평탄해서 주위에는 시야를 가리는 언덕이나 구릉 하나 보이지 않으며 주위의 넓은 평야에는 옥수수 와 고추 등 밭작물이 풍부하고 참외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가 펼쳐져 있다. 밭작물을 심었지만, 해랑하(海浪河)²¹⁾의 풍부한 물줄기가 감돌고 있어서 온화한 기온을 가지고만 있었다면 논농사를 짓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역이다.



그림 10. 영고탑으로 가는 길의 평원
주: 2011. 7. 31 촬영.



그림 11. 영고대유적에서 바라본 해랑하
주: 2010. 7. 8 촬영.

신영고탑(新寧古塔) 유적지인 녕안시에서 33km 남쪽으로 내려오면 과거의 해동성국, 고구려 유민이 세웠다는 발해의 성도 동경성진(東京城鎮) 발해국상경 용천부유지(渤海國上京龍泉府遺址)(C)가 있다. 중국에서 세운 표지에는 698년

21) 영고탑 앞에 있는 영고대유적에 오르면 마을을 감싸고 도는 해랑하가 보인다. 「영고대유적 寧古臺遺址」 비문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영고대 유적은 해림시 장정진 용두산촌(海林市長汀鎮¹⁾ 龍斗山村) 북쪽에 위치한다. 속칭 용두산(龍斗山)이라고도 한다. 당·발해 시대의 산성으로 후대에도 그대로 사용되었다. 이곳은 주위보다 볼썽 솟아있는 원형 모형의 작은 구릉으로 서쪽은 가파르고 동쪽은 완만하다. 서·북 양 면은 해랑하가 휘돌고 구릉 주변에는 토성단을 쌓았다. 둘레는 400여 미터이고 동쪽에는 성문이 하나 있다. 영고대지는 해랑하가 흐르는 요충지로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군사요지이다.

1661년(淸 순치 18년) 유배자를 산성에 보내었다. 영고탑 일대에 유배되었던 장진언(張縉彦)은 사면되어 남쪽으로 돌아갔다. 席間(술자리 연회의 석상), 네모지고 평탄한 암자로 등산할 때 포획한 한 마리 꿩을 서측 벼랑에서 놓아 주었다고 해서 방치애(放雉崖)라고도 부른다.

성벽의 내측은 5m이며 외측의 산 구릉 주변은 특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성 내부는 모두 중요한 보호구역이다. 구릉 주변의 10m정도만을 보호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남측의 해자는 일반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호구역 밖의 구릉 전체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정해져있다. 보호구역 전체는 2만4천여 평방미터이다.“

말갈족이 주체가 되어 세워진 당나라 시기의 지방정권에 불과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그림 12. (구)영고탑

주: 2010. 7. 8 촬영.



그림 13. (구)영고탑 토성벽

주: 2011. 7. 31 촬영.

상경용천부는 2004년부터 발굴을 시작하였고,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동경성진 전체를 발해 마을로 조성 중이다. 마을 지붕과 담벼락 하나하나에 발해를 상징하는 문양을 넣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관광객이 대부분이지만 한국인에게도 발굴 중인 유적지 촬영이 불가 되어 있다. 마을 입구에 있는 ‘발해국상경유지박물관(渤海國上京遺址博物館)’ 역시 한국인은 촬영뿐 아니라 입장도 불가능한 곳이다. 상경성 궁궐은 고구려 안학궁을 계승하여 ‘태극전체계(太極殿體系)’를 갖추고 있다. 한국인의 촬영이 불가능한 이유와 상경성 궁궐의 구조를 통해, 발해가 당과 다른 독자적 세계관에 입각한 도성제를 운영했다²²⁾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었다.

동경성진에서 201번 국도를 따라 돈화로 향하는 길에는 경박호(鏡泊湖)가 이어진다. 길이 45km, 동서 넓이 6km, 면적 95km²의 이 거대한 호수는 5차 화산 폭발 시기, 용암이 하류를 막아 형성한 세계 최대 규모의 용암호수이며 두 번째로 큰 고산호수이다. 2011년 5A를 받은 국가급 여행관광지구로 지정된 이 호수는 고지도에 등장하는 경하(鏡河)이다.

경박호를 따라 돈화로 가는 길은 과거 발해의 5개 주요 교통로²³⁾ 중 영주로

22) 양정석, 2007, 궁궐유적을 통해 본 발해의 도성, 발해5경과 영역변천, 동북아역사재단, 231~234pp.

23) 발해 5개의 주요 교통로: 장령-영주도, 압록-조공도, 부여-거란도, 남해-신라도, 용원-일본도; 채태영,

(현 遼寧省 朝陽)이다. 영주로는 상경용천부에서 돈화를 거쳐 영액문, 심양을 지나 요하를 건너는 길로 발해 시기 가장 융성했던 교통로이다. 이 가운데 상경용천부에서 돈화에 이르는 교통로에는 대략 30km 간격으로 여섯 곳에 24개 돌 유적이 분포되어 있다. 이 돌 유적 터의 용도에 대해 시신을 보관하는 장소 · 제례를 위한 건축물 · 사람이 숭배하던 돌 · 역참 · 발해왕실의 기념성 건축물 · 창고 등 여러 가지 추측과 연구가 진행 중이다.²⁴⁾



그림 14. 발해 상경용천부

주: 2011. 7. 31 촬영.



그림 15. 상경용천부 발굴현장

주: 2011. 7. 31 촬영.

특히 경박호 주변으로는 현재 만구(灣溝) · 경풍(慶豐) 두 개의 유적이 발견되었다고 보고되어 있다. 보고의 내용을 참고하여 동경성진과 돈화시 중간 정도 지점 경박향(鏡泊鄉) 만구촌을 찾았으나 이곳에서는 24개 돌 유적을 찾을 수 없었고, 마을 주민의 안내로 경박향(鏡泊鄉) 김가촌(金家村)에서 ‘만구24괴 석유지(灣溝24塊石遺址)’²⁵⁾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지점은 발해 상경용천부에서 6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201번 국도에서 23km 정도 동쪽으로 경박호

1998, 『발해사연구』 3,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4) 이병건, 2007, 발해의 교통로와 24개 돌유적의 기능, 발해5경과 영역변천, 동북아역사재단.

25) 「만구 24개 돌 유적 灣溝24塊石遺址」 비문 번역.

만구 24개 돌유적은 령안시 경박향 하북촌(河北村) 동쪽 20km, 송을하(松乙河) 좌측 약 500m 밖의 봉황산(鳳凰山) 아래 위치하고 있다. 동서 길이는 17m이고, 남북의 넓이는 14m의 장방형 모양이다. 동서 방향 3행의 큰 돌무더기는 매 행마다 8개의 돌이 있는데 모두 24개이다. 돌은 현무암주상체로 21개는 육각형, 3개는 5각형이다. 모든 돌은 크기가 균등하며 평균 직경 60cm, 높이는 80cm이다. 각 열간의 간격은 평균 3~5m정도이며 돌끼리의 간격은 평균 65cm이다. 이 유적은 당대(唐代) 발해국의 옛 역로 상에 존재했던 특수한 건축물의 유적지로, 발해 역사 연구에 중요한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24개 돌유적 안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며, 주위 10m는 중점보호구역이다. 그리고 그 주변 10m는 일반 보호구역으로 보호구역 총 면적은 2678㎡이다.

를 따라 들어간 지점이다.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둔탁하고 좁은 흙길을 사이에 둔 옥수수밭과 나무에 가려져 있어서 마을 사람이 아니면 찾기 힘든 곳에 위치해 있었지만, ‘만구24괴석유지’라는 표지석이 2009년에 새롭게 세워졌다.

지도에 묘사되어있는 경하 부근 넓이 30리, 길이 100여 리의 암석으로 묘사된 석림덕(石林德)은 실제 존재하지 않고, 경박호 부근에 존재하는 돌무더기는 이 24개 돌 무더기 유적뿐이다.



그림 16. 만구 24개 돌 유적지
주: 2011. 7. 31 촬영.



그림 17. 만구 24개 돌
주: 2011. 7. 31 촬영.

백두산 북쪽 흑룡강 이남에는 청의 용흥지지인 영고탑이 있고, 영고탑과 불과 30km 남짓한 곳에 발해의 상경용천부가 있다. 백두산 폭발의 영향으로 생성된 경박호와 부근에 위치한 영고탑, 발해의 상경용천부는 백두산 영향권에 속하는 지역으로 한족(韓族)과 만주족의 공통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기획 전시로 시작했다가 상설전시까지 진행 중인 심양 요녕성박물관 ‘요하문명전’에서는 진한 통일제국의 기초 아래 선비족, 거란족, 만주족이 중원과 하나 되어 중국의 주역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국에서 발굴 중인 상경용천부와 2009년 세워진 만구24개 돌 유적의 표지석, 2010년 가을에 설립된 영고탑 박물관과 영고탑 지역을 표기한 이정표는 박물관의 ‘요하문명전’과 일련의 흐름이 같다. 2010년 가을 새롭게 단장한 장백산 박물관, 중-조 경계비에 새로운

번호²⁶⁾가 생긴 것도 같은 시점이다.

포얼합통하(布爾合通河)는 돈화시(D)와 연길시(F)를 가로질러 흐르고, 북증산(E)에서 발원하는 해란하는 연길시에서 포얼합통하와 합류하여 두만강으로 유입된다.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의 분계강은 홍기하와 해란하를 하나의 수계로 표현한 것이며, 선춘령 공험진 지역은 현재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 홍기하는 두만강원(G)에서 동류하는 두만강과 처음 합류하는 강으로 북증산 부근에서 발원한다. 오도백하는 원지(H)에서 서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부근에서 발원하여 북류하다가 서쪽으로 흘러 송화강에 유입된다.

26) 중국은 2010년 가을, 북한과의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비를 새롭게 세웠다. 단동의 경계비를 1호로 백두산 남파의 4호비는 36호 경계비로, 백두산 서파의 5호비는 37호 경계비로 새로운 번호를 붙였다. 경계비에는 2009년에 비를 새로 세운 것으로 년도가 표기되어 있으나 현지 직원의 증언과 2010년 필자가 이 지역을 답사했을 때, 두만강 상류의 경계비가 21호였던 것을 미루어 볼 때 2010년 가을에 경계비의 번호가 새롭게 바뀐 것이 맞다. 바뀐 새 번호대로라면 21호 경계비는 58호 정도가 될 것이다.

2. 선행 연구

1) 백두산 관련 연구 -역사 지리 측면에서

근대 백두산에 관한 연구는 사학자들의 백두산 기행에서 시작되었다. 육당(六堂) 최남선(崔南善)이 동아일보에 연재한 『백두산근참기 白頭山觀參記』는 단순한 기행문을 뛰어넘는 국사학자의 학술적 고증이다.²⁷⁾ 안재홍(安在鴻)은 조선일보 팀에 속하여 백두산을 답사하고 사학자의 역사지식과 시각으로 『백두산등척기 白頭山登陟記』를 출간했다.²⁸⁾

백두산의 명칭을 정리하고 자연지리 조건과 인문환경에 관하여 정리한 이찬의 연구는 백두산에 관한 초기의 역사지리 연구이다.²⁹⁾ 이후 백두산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동시에 백두산을 단독의 산이 아닌 우리나라 산과 산맥의 뿌리로 인식하는 ‘백두대간’이라는 보다 넓은 범주에서 연구되었다. 산림청에서 발간한 『백두대간 관련 문헌집』³⁰⁾은 백두대간에 관한 초기의 연구이다. 이 연구에 참여했던 양보경은 연구를 발전시켜 백두산의 명칭과 개념을 정리했고, 백두대간의 개념을 확립했다. 한층 더 나아가 실제로 고지도 상에 백두산과 백두대간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분석했다. 고지도를 통해 백두산과 백두대간을 고찰한 최초의 연구이다. 그리고 산경표 연구를 통해 백두대간의 개념을 구체화하였다.³¹⁾

90년대에 확립된 백두대간 연구를 발전시킨 새로운 연구성과는 미비하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백두산의 다양한 명칭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었다. 송용덕은 백두산의 이칭을 정리하고 고려시대 확립된 백두산 숭배 사상과 조선전

27) 최남선, 1926, 白頭山觀參記, 동아일보.

28) 안재홍, 1931, 白頭山登陟記, 류성사.

29) 이찬, 1984, 백두산의 자연지리 조건과 인문환경, 북한 152, pp.68~75.

30) 산림청, 1996, 백두대간 관련 문헌집.

31) 양보경, 1992, 申景濬의 『山水考』와 『山經表』 - 국토의 산천에 대한 체계적 이해, 토지연구 3(3), 토지개발공사, pp.135~145. ;양보경, 1996, 옛 지도에 나타난 북방 인식과 백두산, 역사비평, 35호, 한국역사연구회, pp.300~322 ;양보경, 1997, 고지도와 역사연구, 역사와 현실 26, pp.263~281 ; 양보경, 1997, 조선시대 ‘백두대간’ 개념의 형성, 진단학보, 83, 진단학회, pp.85~106 ;양보경, 2001, 산경표와 백두대간, 시안 2001 가을호 기획특집 「백두대간의 의미와 시적 상상력」 pp.16~31.

기 백두산 제사가 치폐되었다가 영조시기에 다시 치제의 대상이 된 과정을 논술했다.³²⁾ 이강원은 한국과 중국에서의 백두산과 천지 지명에 관해 고찰하고 백두산 천지에서 장백산 천지로 공식적인 명칭을 바꾼 중국의 태도에 관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함을 언급했다.³³⁾ 백두산 명칭에 관한 연구는 역사적 측면과 한·중 양국 입장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고지도를 바탕으로 한 연구는 없다. 2010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에서는 백두산의 역사, 자연, 생태, 인문 등을 총괄한 책을 발간하였다. 책의 서두에서 김정배는 논고를 통해 중국의 장백산 문화론을 비판하고 한국고대사에서 백두산의 의미를 강조했다. 조법중은 백두산과 관련된 다양한 명칭을 고찰했다.³⁴⁾

2) 고지도 자료를 기초로 한 국경연구

백두산을 포함한 만주지역에 관한 연구는 지리, 역사, 인문, 국제법 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 역사 지리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는 간도협약 등 간도 전반에 관한 연구, 민족문제, 만주지역 도시연구, 조-중-러 영토문제 연구, 조-중간의 국경문제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국과의 국경문제에 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며, 국경문제연구는 역사·지명·국제법·국제관계·국경문제 연구동향·하천 수계 등으로 다시 세분화할 수 있다. 특히 하천 수계를 중심으로 한 국경연구는 역사적인 문헌과 지지를 대상으로 연구되어 왔다. 고지도를 통한 수계 중심의 국경연구는 없지만, 고지도 자료를 기초로 하는 국경연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서양고지도를 대상으로 한 국경연구는 비교적 다수의 서양고지도를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재은은 티메카코리아웹사이트에 소재한 서양고지도에 나타나는 간도지역에 관해 고찰했다.³⁵⁾ 이명원은 서양고지도 Regis선, D'anvill선,

32) 송용덕, 2007, 고려~조선전기의 백두산 인식, 역사와 현실 64, 127~159.

33) 이강원, 2010, 백두산(白頭山),천지(天池) 지명(地名)에 대한 일고찰: 한(韓),중(中) 지명표기를 중심으로, 지리학연구 44(2), p.131.

34) 김정배 외, 2010, 백두산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35) 이재은, 2011, 서양 고지도를 통해 본 간도: 티메카 코리아 웹사이트 소재 지도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Bonne선을 대상으로 한국과 중국의 경계를 고찰하였으며³⁶⁾, 오일환은 서양고지도 반도유형에 나타난 한국과 중국 경계인식의 특징을 논술했다.³⁷⁾

그동안 문헌만으로 파악했던 국경인식을 고지도를 통해 고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박선영은 지도에 나타난 한중 국경선의 변화를 중심으로 간도지역 국경인식을 파악하였다. 지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에 비해 특징적이지만 사례로 선정한 지도의 수가 적고, 지도에 표현된 간도지역과 한중 국경선에 대한 접근이 개괄적이라 상세한 분석이 되지는 못했다.³⁸⁾ 이화자는 조선 학자들의 ‘토문 · 두만 2강 인식의 극복’이라는 주제의 근거로 김정호, 이익 등 여러 학자의 지리지와 지도를 거론하였다.³⁹⁾ 하지만, 조선후기 지도 중 일부의 지도를 통해 본인의 주장에 부합시키는 것은 위험한 접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다수의 고지도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유형분류를 통해 고지도에 표현된 보편적 인식을 도출하는 객관적 연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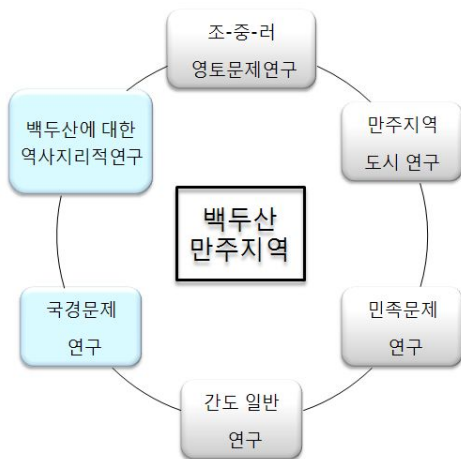


그림 18. 백두산 · 만주지역 역사 지리적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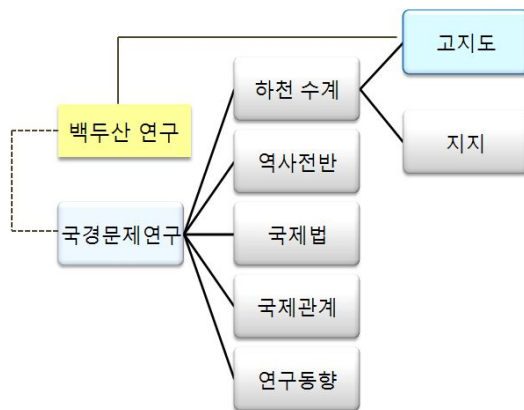


그림 19. 백두산 · 만주지역 국경문제 연구 유형

36) 이명원, 2005, 18세기 서양고지도를 통해본 간도영유권문제, 인천대학교 석사논문.

37) 오일환, 2009, 서양고지도의 우리나라 반도형태와 한·중 경계인식에 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13(4), pp.327-356.

38) 박선영, 2004, 근대 동아시아의 국경인식과 간도-지도에 나타난 한중 국경선 변화를 중심으로, 중국사 연구』 32, pp.199~234.

39) 이화자, 2008, 18-19세기 조선의 토문강. 분계강 인식, 근대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pp.67~100.

김기혁은 각 기관에 소장된 조선후기 북방지역과 만주지역을 그린 고지도를 정리하고 지도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다수의 고지도를 자료로 확보하여 고지도에 나타나는 지명을 자세히 고찰하고, 조선후기 양강지대의 지리정보 획득 수준을 파악하였으며, 변방지역에 대한 국가와 양강지대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분석하였다.⁴⁰⁾

3) 국내 한-중 국경문제 연구의 변화

일제강점기 이후 한국과 중국의 국경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선(linear nature)’에서 출발하는 영토의 문제였다. 민족주의적 담론에서 시작된 김노규와⁴¹⁾ 일본학자이자 관료인 시노다지사쿠의 연구는⁴²⁾ 민족주의적 담론의 초기 형태를 띠고 있다. 이성환은 시노다의 연구가 ‘한국에서 간도 영유권 주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연구’라고 언급하였다.⁴³⁾

광복 후부터 1960년대의 연구로는 간도문제를 국내 최초로 연구한 신기석과⁴⁴⁾ 제자 노계현의 석사학위 논문⁴⁵⁾이 대표적이다. 노계현은 스승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고 더 나아가 국제법적 접근을 통해 간도협약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시노다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신기석과 노계현은 시노다의 인식을 확대하고 재생산한 민족주의적 담론의 선구자로 대표되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일제의 제국주의적 담론과 뿌리를 같이 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상당 부분 비판을 받기도 했다. 1961년 북한과 중국이 맺은 ‘북·중우호조약’을 계기로 국내에서는 ‘간도 수복론’이 제기되었다. 1966년에 ‘백산학회’의 창립과 함께

40) 김기혁, 2006, 조선후기 고지도에 나타난 조·청·노 국경인식의 변화, 부산대학교부산지리연구소.

41) 金魯奎, 1903, 北興要選 서울대 규장각(奎6969) 외 다수 소장처 소장, 1冊(43장), 27.8×18.7cm. 1903년 김노규(金魯奎)가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와 한·청 국경, 간도(間島)의 영유권 문제에 관하여 쓴 책.

42) 시노다지사쿠, 1938, 白頭山定界碑, 樂浪書院 ; 시노다지사쿠, 신영길 역, 2005, 간도는 조선땅이다: 백두산정계비와 국경, 지선당.

43) 이성환, 2006, 간도문제 연구의 회고와 전망: 새로운 연구지평 확장을 위한 비판적 검토, 백산학보 76, pp.611~643.

44) 신기석, 1955, 간도 귀속문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5) 노계현, 1958, 동간도 귀속문제를 논함,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백산학보』가 창간되었다. 이 시기 간도 연구의 특징은 민족주의적 간도 담론이 간도 문제 인식의 기본 틀로 확립되었고, 반공의식과 고토회복 의식 하에 간도문제가 연구되었다는 것이다.

1970년에서 1980년대에는 자료의 축적과 활발한 연구를 통해 간도 연구가 양적으로 증가하였다. 1970년대 중반 국책사업으로 『간도영유권 관계 발췌 문서』⁴⁶⁾가 간행되었고, 민족주의적 감정에 상당 부분 치우친 연구도 여전히 지속되었다.⁴⁷⁾ 1983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토문제연구실에서 조광의 주도적인 참여로 창간된 『영토문제연구』는 1985년 제2호의 창간을 끝으로 중단되기는 했지만, 조광은 간도가 ‘우리 민족이 생활하여 온 일체의 문화적·생활사적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진 ‘문화영토’라는 새로운 개념을 표방하였다.⁴⁸⁾ 1990년대의 연구는 기존의 민족주의적 담론을 재정리하고 보완하는 수준의 연구였지만 활발하게 진행된 학술대회와 토론회 등 학술활동을 통해 간도와 북방영토에 대한 역사·현실적인 관심이 고조된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신각수는 백두산정계비가 국경조약으로서의 효력은 갖고 있으나 간도 귀속문제는 정계비 건립 당시의 상황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논문⁴⁹⁾을 발표하여 기존의 논문과 다른 관점을 보이기도 했다. 강석화는⁵⁰⁾ 북방지역의 사회경제적인 발전에 따른 영토의식의 확장에 따른 영토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쟁점을 제기했다. 18세기 초에는 두만강과 토문강을 동일하게 보았으나 북방지역 개발에 따른 영토의식 변화의 결과로 19세기 중반 이후 두 강을 별개의 강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그의 논지는 토문·두만 이강설(二江說)이 우세했던 당시, 매우 과격적인 주장이었다.⁵¹⁾

중국이 동북공정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10여 년간은 민족주의적 담론과

46) 국회도서관, 1975, 간도영유권관계 발췌문서집, 국회도서관.

47) 양태진, 1981, 백두산 천지를 위요한 한중국경선, 한국학보 22 pp.95~120.

48) 김기훈, 2009, 간도담론의 연구사적 검토, 근대만주자료의 탐색, 동북아 기획연구 31, p 104.

49) 김기훈, 上揭書, p. 107.

50) 강석화, 1995, 1712년의 조-청 정계와 18세기 조선의 북방경영, 진단학보79; 강석화, 1997, 백두산 정계비와 간도; 강석화, 2005, 백두산 정계비와 간도문제, 경인문화연구 32, 한국사 연구 96; 강석화, 2007, 19세기 북방강역에 대한 인식, 역사와 경계 65.

51) 김기훈, 上揭書, p.109.

탈민족주의적 담론이 분화하고 경쟁한 시기이다. 중국의 동북공정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말 고대사학회가 학술대회를 개최한 것을 필두로 2004년에는 대응할 연구기관으로 고구려연구재단이 성립되었다. 2006년 동북아역사재단은 이를 계승하였고, 동시에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2006년 처음 발간된 동북아논총 1호의 「현대중국의 국가주의 역사관과 고대동북변강사 인식」⁵²⁾은 중국이 표방하는 ‘침략 대 저항’과 ‘애국 대 매국’의 이분법적 역사관에서 비롯되는 동북공정을 비판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초기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는 주로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2004년 백산학회의 주도로 결성된 ‘간도 되찾기 운동본부’는 여전히 민족주의적 담론을 표방하였다. 한편 이성환, 배성준, 황명준⁵³⁾ 등은 탈민족주의적 담론을 내세우며 아전인수적인 민족주의적 담론에서 탈피하려고 시도를 하였다. 이러한 탈민족주의적 담론은 ‘국경사’로부터 탈피하여 지역적 성질(zonal characteristics)을 담아낸 ‘변경사’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변경지역 인간의 삶과 관계·문화 등 다양한 연구의 시도를 포함한다. 2004년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근대의 국경, 역사의 변경’은 ‘변경’의 개념을 재정립하였고 학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2010년 발간된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총서 54호는 재단의 관점과 태도의 큰 변화를 보여준다. 『중국 동북 연구 -방법과 동향』⁵⁴⁾이라는 주제 하에서, 「방법으로서의 만주-변경 만주와 지역협력」, 「중국 변경인식과 변경정치-동북지역을 중심으로」 등의 연구를 통해 변경적 시각에서 만주의 지향점으로 ‘지역협력’을 제시하였다. 즉, 만주를 한반도의 변경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중국, 러시아, 일본, 몽골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동아시아 현대사의 핵심으로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필자는 재단의 입장에 동조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의 요지를 전개하려고 한다. 한편 김종건⁵⁵⁾은

52) 윤휘탁, 2006, 현대중국의 국가주의 역사관과 고대동북변강사 인식, 동북아논총 2006(1).

53) 이성환, 2008, 간도 영유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론적 연구, 동북아문화 연구 14, 동북아시아문화학회, pp.563~588 ; 배성준, 한중의 간도문제 인식과 갈등구조, 동양학 4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pp.339~357 ; 황명준, 2005, 간도영유권 문제의 국제법적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4) 이동진 외, 2010, 중국 동북 연구 -방법과 동향, 동북아역사재단.

55) 김종건, 2007, 백두산, 간도 역사 연구의 현황과 쟁점, 동북아논총 8, pp.65~138.

1948년 이후 백두산과 간도문제에 대한 한국, 중국, 대만, 일본, 구미의 연구성과를 시기·유형·주제별로 분류하고 정리하였다. 그는 통계적 처리를 통해 2007년까지의 연구동향을 살피고 거시적·종합적·총체적으로 백두산과 간도문제를 정리함으로써 이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에게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4) 중국의 한-중 국경문제 연구 주제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会科学院中国边疆史地研究中心)은 중국 변강사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중국변강사연구 中国边疆史地研究- China 's Borderland and History and Geography Studies』를 간행하였다. 1988년에 처음 발간되어 현재(2011년)까지 1년에 네 차례씩 발간되었다. 1988년 처음 책이 발간되었을 때 중국 변강사 연구의 대상은 중국 변강 전체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운남 등의 서남 변강과 대만, 몽골, 소련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1996년부터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중-조 변계에 관한 연구가 처음 나타났다. 초기 연구의 주요 논지는 첫째, 목극등의 정계는 경계를 정하는 것이 아닌 조사였다는 것. 둘째, 두만강이 토문강이라는 것이었다. 서덕원(徐德源)은 「장백산 동남지역 토퇴 석퇴 건설의 진상」을 통해 목극등이 두만강(圖們江) 변계시, 조선에서 황화송구자(토문강)를 이어 세운 석퇴와 토퇴는 불법이므로, 근본적으로 황화송구자는 중-조의 변계가 될 수 없고 이중하의 감계는 청정부를 기만한 행위라고 주장했다.⁵⁶⁾ 하지만, 황화송구자의 흐름과 토퇴와 석퇴의 이어짐을 부정하는 그의 논지는 황화송구자가 목극등 정계비의 토문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시사해 준다. 도면(陶勉)은 「청대 장백산의 봉금과 장백산의 답사를 위한 관원의 파견」을 통해 청대 장백산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관원에 대하여 고찰하며, 목극등은 장백산을 조사하며 압록강과 두만강의 분수령에 비석

56) 徐德源, 1996, 长白山东南地区石堆土堆筑设的真相, 中国边疆史地研究, 1996(2), pp.60-68.

을 세웠다고 주장했다.⁵⁷⁾

서덕원은 1년 뒤 또 다른 논문 「목극등 비의 성질 및 비석의 이동-근세중조 변계 논쟁의 초점」을 발표하며 목극등의 비는 조사 후에 세운 비석이라는 기존의 논지를 이어나갔다.⁵⁸⁾ 그리고 비석의 원래 위치는 소백산이었는데 조선에서 백두산 동남쪽으로 옮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근본적으로 토문은 두만이라는 강건한 입장을 고수했다. 조서인(刁书仁) 역시 「강희년간 목극등 변계조사 고찰」에서 두만강의 수원은 홍단수이며 원래 비는 소백산에 있었는데, 조선 측에서 장백산으로 옮긴 것이라 주장하며 같은 논지를 견지하였다.⁵⁹⁾ 진혜(陈慧)의 「목극등비문의 토문은 현재의 도문강」은 논문의 제목처럼 토문강이 두만강임을 강조하는 내용이다.⁶⁰⁾ 『중국지명 中国地名』은 중국지명연구총회 요녕지명학연구회(中国地名学研究会 辽宁地名学研究会)에서 간행하는 연구서로 1996년 발간되기 시작하여 1년에 6회에서 12회 정도 간행되고 있다. 1997년 원휘(袁辉)의 「목극등정계의 전말」이 게재되었다. 그는 서덕원과 일관된 논지를 보이는데, 목극등은 정계를 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봉금지대에 대한 조선의 월경 등의 문제로 장백산 일대를 조사한 것이며, 그의 조사는 《황여전람도》 제작이라는 지리학사상 큰 업적의 바탕이 되었다는 것이다.⁶¹⁾ 마맹룡의 「목극등의변계 답사와 《황여전람도》 제작」 역시 목극등이 정계를 위해 백두산 정계를 답사한 것이 아니라 《황여전람도》 제작을 위해 답사한 것이라는 같은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⁶²⁾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목극등이 심시비(審視碑·정계비에 대한 마맹룡의 표현으로, 정계비가 아니라 답사를 하고 세운 비석이라는 의미를 강조)를 세운 위치는 소백산이며, 《황여전람도》에 그려진 토문강의 수계를 근거로 소백산에서 토문강이 원류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화자의 「청대

57) 陶勉, 1996, 清代封祭长白山与派员踏查长白山, 中国边疆史地研究, 1996(3), pp66~84.

58) 徐德源, 1997, 穆克登碑的性质及其凿立地点与位移述考-近世中朝边界争议的焦点, 中国边疆史地研究, 1997(1), pp.68~77.

59) 刁书仁, 2003, 康熙年间穆克登查边定界考辨, 中国边疆史地研究, 2003(3), pp45~116.

60) 陈慧, 李宝奇, 穆克登碑文中的“土门”即今图们江, 学术交流, 2006(11), pp.176~179.

61) 袁辉, 1997, 穆克登查边始末, 中国地名, 1997(4), p.20.

62) 馬孟龍, 2009, 穆克登查邊與《皇輿全覽圖》編繪, 中國邊疆史研究, 2009(3), pp.85~99.

장백산 답사활동과 삼강원에 대한 기술」에서도 목극등이 양국의 경계를 정하기 위해 답사를 했다는 사실은 부정되었다. 압록강과 두만강의 분수령은 장백산 남쪽 소백산의 포태산(胞胎山) 일대이며, 이곳이 북변의 천지와 남변의 조선 내지 사이의 절충선(折中線)이라는 논지가 추가되었다. 분수령이 백두산이 아닌 소백산 부근이라는 논지를 근거로 토문강과 두만강이 하나의 강이라는 일강설을 역설하고 있다.⁶³⁾

중국의 학자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중-조 변계에 관한 논의에서 첫째, 목극등이 양국의 경계를 정하기 위해 답사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황여전람도》라는 지도제작을 위해 목극등이 백두산 지역을 답사한 것이라는 논지를 펼치고 있다. 둘째, 정계비의 위치가 소백산에서 장백산으로 바뀌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셋째, 소백산이 분수령임을 강조하며 소백산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두만강을 토문강과 같은 강이라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5) 토문강 · 두만강 1강설과 2강설, 분계강에 관한 연구

목극등의 백두산정계비 문구 ‘동위토문’에서 ‘토문’이 어떤 강을 지칭하는 지에 대한 논의는 한-중 국경문제의 핵심이다. ‘토문강 · 두만강 1강설(江說)’은 토문강과 두만강은 하나의 강이라는 주장이고, ‘토문강 · 두만강 2강설(江說)’은 토문강과 두만강이 각기 다른 별개의 강이라는 주장이다. 1강설이 옳다면 한국과 중국의 국경은 두만강이 될 것이며, 2강설이 옳다면 양국의 국경은 토문이라는 주장이 우세해지면서 별도의 또 다른 논의가 야기될 것이다.

주로 중국 측이 주장하는 1강설은 1908년 오록정(吳祿貞)이 실제 답사자료에 근거하여 『연길변무보고 延吉邊務報告』에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대표적인 연구이다. 이후 1971년 장존무(張存武)는 『청대중한변무문제탐원 清代中韓邊務問題探源』⁶⁴⁾에서, 1993년 손옥매(孫玉梅)와 양소전(楊昭全)은 공저한 『중조변계사 中朝邊界史』⁶⁵⁾를 통해 토문강과 두만강이 같은 강임을 역사 문헌에

63) 李花子, 2011, 清代長白山踏查活動及對三江源的記述, 한국연구논총 23, pp. 415~455.

64) 張存武, 1971, 清代中韓邊務問題探源, 近代史研究所集刊 2, 中央研究院, 臺北.

근거하여 고증하였다. 이화자⁶⁶⁾는 『명·청시기 중한 지리지에 기술된 백두산 수계』에서 명·청시기 지리지의 백두산 수계 기술을 바탕으로, 토문강과 두만이 같은 강이라는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한국의 일부 학자들⁶⁷⁾ 역시 1강설을 주장하였지만 토문강이 북류하여 송화강·흑룡강으로 이어진다는 논지는 오히려 간도 전역을 한국의 영토로 포함시키는 민족주의적 담론에 입각한 것으로, 기존의 1강설과는 다른 견해이다.

표 3. 토문강·두만강 1강설과 2강설에 대한 주요 논의

토문강·두만강 1江說		토문강·두만강 2江說	
1908년	오록정 『연길변무보고』	1880년대	중성, 온성, 회령, 무산 변민
1971년	장준무 『청대중한변무문제탐원』	1885년	이중하 「을유감계」
1993년	양소전 『중조변계사』	1903년	김노규 『북여요선』
1995년	박용욱 『백두산 정계비 건립의 재검토와 간도 영유권』	1995년	강석화 「1712년의 조-청 정계와 18세기 조선의 북방경영」
2008년	이화자 『명·청시기 중한 지리지에 기술된 백두산 수계』		

한국 측에서 주장하는 ‘토문강·두만강 2강설’은 1880년대 중성, 온성, 회령, 무산 변민들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을유감계(乙酉勘界)시 조선의 감계사 이중하(李重夏)는 이것을 근거로 토문강 국경설을 주장하였다. 그 후 김노규(金魯奎)는 『북여요선 北興要選』을 통해 2강설을 주장했다. 이들의 논지는 정계비의 ‘토문’은 ‘두만’이 아닌 ‘토문’이며 토문강과 두만강은 엄연히 다른 별도의 강이라는 것이다. 만약 한 발 물러서서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인정하더라도 토문강

65) 楊昭全·孫玉梅, 1993, 中朝邊界史, 吉林文史出版社.

66) 이화자, 2008, 명·청시기 중한 지리지에 기술된 백두산 수계, 문화역사지리 20(3), pp.31~50.

67) 박용욱, 1995, 백두산 정계비 건립의 재검토와 간도 영유권, 조선시대 북방 관계사 논고, pp. 1054~1055.

의 상류는 가장 상류의 물줄기인 ‘홍토수(紅土水)’⁶⁸⁾라고 주장했다. 강석화는 「1712년의 조-청 정계와 18세기 조선의 북방경영」⁶⁹⁾을 통해서 2강설을 주장했다는데, 그의 견해는 종전의 주장들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정계 당시에는 양국 모두 토문과 두만이 같은 강이라고 막연히 인지했지만, 19세기 이후 조선민의 북방개척과 북방고토 회복 의식의 확산으로 2강설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1990년대까지 토문과 두만이 다르다는 2강설은 있었지만, 토문강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논의는 없었다.

90년대 후반 강석화⁷⁰⁾는 정계 이후 북방경영 노력과 성과로 토문과 두만이 엄연히 다른 강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압록·두만 양강을 넘어 토문강 이남지역까지 주민의 활동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조선후기 실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확대된 영토관과 함께 두만강 북쪽 분계강을 제시했다. 배우성은 「18세기 청의 지리지·지도와 백두산의 수계」⁷¹⁾에서 18세기 청의 지리지와 지도들이 백두산과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물줄기에 대해 일관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기술했다. 즉, 정계비 설정 이후 조선에서는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분계강’에 대한 믿음이 확산되었으나 『강희성경통지』나 『흙정성경통지』 등 『성경통지』 계열의 판본에서는 해란하와 그 유로에 대한 정확한 기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계강이 해란하라고 확신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흙정대청일통지』, 『만주원류고』, 《황여전람도》나 『수도제강』 등을 통해 해란하의 발원처가 백두산이라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히며 조심스럽게 해란하가 분계강이라는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만주어라는 언어적 접근으로 ‘토문’과 ‘분계’를 연구한 이강원⁷²⁾은 백두산정계비 설치 이후 생긴 국토상실 의식을 ‘토문강’과 ‘분계강’의 개념으로서

68) 두만강의 수원으로 가장 북쪽의 홍토수, 중간의 석을수, 가장 남쪽의 홍단수가 있다.

69) 강석화, 1995, 1712년의 조-청 정계와 18세기 조선의 북방경영, 진단학보 79, pp. 135~165.

70) 강석화, 1997, 백두산 정계비와 간도, 한국사 연구 96, pp.121~134.

71) 배우성, 2007, 18세기 청의 지리지·지도와 백두산의 수계, 역사와 경계 65, 부산경남사학회, pp. 27~62.

72) 이강원, 2007, 조선후기 국경인식에 있어서 두만강·토문강·분계강 개념과 그에 대한 검토, 정신문화연구 제 30(3), pp.91~118.

그 공백을 채우려 했지만, 이러한 개념들은 오해와 추론 내지 상상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분계강 자체를 부정하였다. 이화자⁷³⁾는 분계강에 대해 분계를 나누다는 의미가 없으며 단지 짧은 지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백두산 동쪽 쟁점 하천에 대한 논의의 바탕이 되는 자료는 문자기록이었고, 고지도를 통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연구를 통한 두만강·토문강 1강설과 2강설은 여전히 대립적이며, 이러한 논의 가운데 분계강 관념이 새롭게 등장했다. 분계강이 어떤 강인지 아직 명확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며, 분계강의 실체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고지도라는 새로운 자료를 통한 접근은 분분한 의견과 불명확한 해석에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이며, 문자기록을 통해 도출하지 못한 중요한 결론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73) 이화자, 2008, 18·19세기 조선의 토문강. 분계강 인식, 근대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pp.67~100.

표 4 .분계강에 대한 해석

학자	토문·두만·분계 관계	분계강에 대한 해석	문헌
서명응 徐命膺	토문≠두만 토문≠분계	분계~건가퇴 ≈두만(두만강 북쪽의 분계강이 두만강과 합류)	『保晚齋集』 권8 「遊白頭山記」
이익 李瀾	토문=두만 토문≠분계	분계강=速平江	『星湖僊說』 권2 天地門 「白頭山」
성해응 成海應	토문=두만 토문≠분계	분계~해란~건가퇴(선춘령 아래 분계강은 두만강 북쪽에 흐름)	『研經齋全集』 권46, 「白頭山記」
정약용 丁若鏞	토문=두만 토문≠분계	두만강 북쪽의 분계강이 두만강과 합류 / 두 나라 경계의 의미	『與猶堂全書』 제6집, 「大東水經」
이규경 李圭景	토문=두만 토문≠분계	정계비~분계강	『五洲衍文長箋散稿』 「천지편-지리류」 〈백두산 변증설〉
서영보 徐榮輔	토문≠분계 토문≠두만	상: 분계강 중: 토문강 하: 두만강	『萬機要覽』, 군정편5, 「白頭山定界」
신경준 申景濬	(토문=해란=분계)≠두만	토문~해란~분계~두만 (두만강 북쪽의 토문강이 두만강과 합류)	『旅庵全書』 권8 「四沿考」
강석화	토문≠두만	두만강 북쪽 분계강 제시	「백두산 정계비와 간도」 (1997)
이강원	토문에 대한 부정	분계강은 상상에 기초한 것. (분계강 자체를 부정)	「조선후기 국경인식에 있어서 두만강·토문강·분계강 개념과 그에 대한 검토」 (2007)
이화자	토문=두만	분계를 나눈다는 의미가 없으며 짧은 지류에 불과	「18·19세기 조선의 토문강·분계강 인식」 (2008)
배우성		해란하(海蘭河)가 분계강임을 조심스럽게 제안	「18세기 청의 지리지·지도와 백두산의 수계」 (2007)

주: 1. 조선후기 실학자와 90년대 이후 학자들의 해석.

2. A≈B : 북쪽에 위치한 A강과 아래쪽의 B강이 합류.

Ⅲ. 고지도에 표현된 백두산

동양문화권의 조종산인 중국의 곤륜산에서 지맥이 연결되는 백두산은 북쪽으로 청조의 근원인 영고탑에 연결되며, 남쪽으로는 우리나라 산계의 조종(祖宗)을 이룬다고 이중환은 택리지에 기술한 바 있다.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지역은 여진족과 한족(韓族), 그리고 뒤에 도착한 한족(漢族)이 서로 접하여 사는 중간지대를 이루어왔다. 고려시대에는 대체로 의주(義州)~정평(定平)을 남쪽 한계선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이 북쪽 한계를 이루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중간지대는 점차 북진하여 남쪽은 압록강과 두만강이 되고 북쪽은 만주 쪽의 두만강 지류인 해랑강(海浪江)과 압록강의 지류인 혼강(渾江) 유역이 되었다. 대략 동간도는 길림성의 노령(老齡), 서간도는 백두산의 서쪽 압록강과 요하(遼河)의 분수계에 이른다.

중국명칭의 ‘산(山)’에는 독립된 한 개의 산을 뜻하는 동시에 산지 또는 산맥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중국의 장백산은 백두산 부근 전체의 산지를 막연히 뜻하는 명칭일 때가 더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백두산은 산지와 산맥이 아닌 언제나 독립된 산을 뜻한다. 백두산 동북부에서 두만강과 압록강의 북안을 따라 발달한 산지를 장백산맥이라고 하는데 백두산은 장백산맥과 전혀 다른 계통의 독립된 화산(火山)이다.

우리나라에서 화산활동이 활발했던 제3기에 조면암(粗面岩)이 분출하여 수개의 종상화산을 이루고 이것이 침식을 받아 제4기에 유동성이 강한 현무암을 분출하여 산록에 넓은 용암대지를 형성하였다. 약 해발 고도 2천 2백 미터를 경계로 하여 그 아래는 지면의 균열을 따라 현무암이 흘러나와 비교적 평탄한 대지를 이룬다. 이 용암대지에서 약 5백 미터의 고도를 갖는 종상화산이 백두산이다. 백두산 정상부에는 폭발 당시의 화구가 함몰되어 이루어진 화산호가 있다. 이 화산호는 ‘천지’라고 부르며 둘레가 12km이고 남북 반경이 약 4km이며 동서반경이 약 2.5km, 수면고도는 2,257m이다. 1931년과 1932

년 이곳을 답사한 독일의 지리학자 라우텐자하(Lautensach)는 수심 442m 이상의 세계에서 드문 깊은 호수로 보고 있다. 74)

백두산 부근 하계망의 특징은 비교적 큰 지류가 없이 하나의 본류만을 가진 하계에 여러 규모의 지류들이 합류하는 형태의 하계망이 발달하는데 이는 기후 조건보다는 지질 및 지형 조건에 의해 하계망이 이루어지고 있는 까닭으로 해석된다. 천지 주변의 해발고도 2,500m 이상의 백두산 꼭대기 지표면은 40~60m 두께의 회백색 부석으로 덮여 있다. 천지의 총저수량은 20억t으로 그 가운데 70%는 빗물이며, 나머지 30%는 지하수가 솟아오른 용천수이다. 천지의 물은 중국 측의 달문으로만 유출되어 장백폭포에서 이도백하(二道白河)를 흘러 송화강(松花江)을 이루며, 압록강과 두만강으로는 지하수로서 유출될 뿐이다. 두만강과 그 상류 곡지들은 최상류에서 골짜기를 형성하던 하천이 대지면에서 없어졌다가, 정상적인 흐름이 시작되는 발원 점에서 갑자기 수량이 많아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이들 하천이 집수구역은 넓지만, 대부분의 물 흐름이 부석층 밑에서 진행되는 것과 관계가 깊다. 하곡이 대부분의 경우 지역경계를 형성하는데, 하곡이 뚜렷하지 않은 현상으로 인해 백두산 동북부 지역의 하천은 피표분수령이 명확치 않다. 따라서 지하분수령에 의하여 집수구역의 경계를 정해야만 하기 때문에 경계의 확정문제에 다양한 논쟁이 야기되어 왔다.75)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하계망은 이곳을 관찰하거나 살았던 사람들의 다양한 시각으로 고지도에 표현되었다. 따라서 고지도에 표현된 백두산을 분석하는 것은 고지도에 나타난 쟁점이 되는 백두산 북동류·동류하천을 이해하는 바탕이 된다.

1. 고지도에 표현된 백두산 명칭

백두산은 여진족·한족(漢族), 그리고 한족(韓族)이 서로 관련된 성산이므로 그 이름도 다양하게 불리어 왔다.76) 백두산 관련 명칭을 정리한 한치윤

74) 이찬, 1984, 백두산의 자연지리 조건과 인문환경, 북한 152, pp.68~75.

75) 박경, 2012, 백두산의 지형과 자연지리, 백두산고지도집(가제).

은 기록에 나타난 백두산 이전의 명칭을 불함산(不咸山), 개마대산(蓋馬大山), 도태산(徒太山), 태백산(太白山) 등으로 제시하였다.⁷⁷⁾ 다산 정약용은 예로부터 방언으로 번역하는 것이 달랐던 까닭에 불함(不咸), 개마(蓋馬), 도태(徒太), 태백(太白), 장백(長白), 백산(白山), 백두(白頭), 가이민상견(歌爾民商堅)의 여덟 가지 이름이 생겼다고 『大東水經 대동수경』에 기술하였다.⁷⁸⁾ 최남선의 『조선상식 朝鮮常識』에는 장백산이라는 지명은 중국에서 금나라 이래 통칭하여 왔고, 조선반도에서는 오로지 백두산이라는 명칭만 사용해왔다고 기술되어 있기도 하다.⁷⁹⁾ 그리고 중국학자들은 ‘개마(蓋馬)’와 ‘단단(單單)’을 장백산 남쪽 지류의 명칭으로 보고 개마대산(蓋馬大山), 단단대산령(單單大山嶺)을 장백산의 한반도 남쪽지류로 파악한다.⁸⁰⁾ 일반적인 백두산의 이칭에 관하여 송용덕은 이 명칭들이 모두 백두산의 이름일 개연성은 있으나 고려시대나 조선전기의 개마산이나 태백산은 백두산과 별개의 산이었던 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오히려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야 이들 명칭은 백두산 또는 장백산의 이칭으로 정리되면서 모두 동일한 산으로 인식되었다고 언급하였다.⁸¹⁾

학자들이 제시한 백두산에 대한 다양한 명칭들은 『흙정만주원류고 欽定滿洲源流考』 권 14 山川(산천)조 ‘장백산’ 부분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백두산의 기록은 『산해경 山海經』, 『진서 晉書』, 『위서 魏書』, 『북사 北史』, 『신당서 新唐書』, 『태평환우기 太平寰宇記』, 『통전 通典』, 『거란국지 契丹國志』, 『금사 金史』, 『명일통지 明一統志』의 기록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그 중 『금사』의 기록이 가장 많다.

76) 이찬, 上揭書, p.69

77) 한치윤(韓致胤), 海東歷史, 속집 13 지리고 13 산수 1; 조법중, 2010, 백두산과 장백산, 그리고 만주, 백두산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재인용.

78) 정약용(丁若鏞), 『대동수경 大東水經』, 其一, 溲水一.

79) 이강원, 2010, 백두산(白頭山), 천지(天池) 지명(地名)에 대한 일고찰: 한(韓), 중(中) 지명표기를 중심으로, 지리학연구 44(2), p.131.

80) 조법중, 2010, 백두산과 장백산, 그리고 만주, 백두산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p.40.

81) 송용덕, 2007, 고려~조선전기의 백두산 인식, 역사와 현실 64, pp.127~159.

(산해경) 태황의 가운데 불함산이 있으며 숙신씨의 나라가 있다. (진서)숙신씨는 일명 읍루로 불함산의 북쪽에 있다. (위서) 물길국 남쪽에 도태산이 있는데, 위나라의 말로 태백이라 한다. 태백에는 호랑이 표범, 이리, 곰이 있는데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산을 오르던 사람이 부득이하게 오줌이 마렵거든 담아서 싸가지고 내려온다. (북사) 말갈국 남쪽에 도태산이 있는데, 위서·당서·통고에 있는 도태산과 같다. 중국 한족의 말로는 태황이다. 위서의 태산과 차이가 있다. 사람들이 산을 경외시하여 산을 오르던 사람이 부득이하게 오줌이 마렵거든 담아서 싸가지고 내려온다. 산에 큰 곰, 표범과 이리가 있지만 사람을 해치지 않고, 사람 역시 동물을 죽이지 않는다. (신당서) 말갈은 숙신씨의 땅에 살며 속말부족은 고려와 접한 도태산이라 불리우기도 하는 태백산의 제일 남쪽에 산다. (신당서) 발해 대씨가 요수를 건너 태백산의 동북쪽 오루하의 막다른 곳에 나무 성채를 견고히 쌓고 이를 보전했다. (통전) 읍루 즉, 옛 숙신은 불함산의 북쪽에 있다. (태평환우기) 읍루국은 불함산의 북쪽에 있는데 부여 북쪽 천리에 있다. 통고에는 부여의 동쪽 천리에 있다고 했다. (거란국지) 장백산은 냉산 동남쪽 천여리에 있으며, 백의관음이 그곳에 살고 있다. 그 산의 금수 또한 모두 희다. (금사) 여진의 땅에 장백산이 있다. (금사) 대정 12년(1172년)에 유사(有司)가 ‘장백산을 왕조가 일어난 곳이므로 예를 갖추고 존송해야 하는데, 작위를 봉하여 주고 묘우를 세워야 한다’고 하였다. 12월에 예부 대상 학사원에서 ‘황제의 칙지를 받들어 장백산을 흥국 영웅왕에 봉하고 그 산의 북쪽에 묘우를 세웠다’고 상주하였다. 15년(1175년) 3월에 상주하기를 ‘책봉을 하는데 필요한 서책 의장품 관 9류, 복 9장, 옥규·옥책·함·항·폐·책·축을 정하고 사신과 부사 각 일원을 보내서 회령부에 이르러 예관이 산재를 2일, 치재를 1일 행하며 묘중 안에 하는 것은 의식에 맞게 진설을 하고 묘문 밖에 진설한 옥채·곤면·휘장·병장기와 깃발·북 등의 물건을 보기에 모두 일품이었고, 예를 드림에 있어 세 번 술을 올리고 제사는 오악과 진산이 같이 하였다.’고 말했다. 그 책문에 말하기를 ‘태극이 음양으로 나누어진 이래에 산악은 신령하고 빼어나며 별들은 각각 하늘의 분야에 배치되어 있고, 나라가 장차 흥함은 하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신에 대항하거나 뛰어 넘으면 안되므로 반드시 제사를 지내야 한다. 그러므로 왕조를 처음 열어서 일으킴에 있어서는 기산의 남쪽 땅에서와 같다. 산의 등급에 따라 산천에 망제를 지내니, 『우전』에 실린 바를 조사하여 그대로 하였다. 삼가 장백을 보면, 우리 왕조의 금덕을 담고 있다. 단지 그곳이 높

기 때문에 우러러 보는 것이 아니라 실로 우리 옛 나라의 진산이기 때문이다. 혼동강의 흐름은 빛과도 같은데 여기에서 발원하였다. 차례대로 깊고 먼 도가 있다. 여러 선조께서 번성하여 창성하였고, 태조에 이르러 신무로써, 응징하니 천하에 무적이었다. 이에 신주로 삼고 나 어린 사람(황제 본인)은 조상과 성인을 좇아 좋은 왕업을 이어간다. 사해의 안에 있는 명산대천이 차례가 없는 것은 아니며 하물며 왕업과 인연이 있는 곳이라. 한산의 기슭을 바라다보고 그 예를 검소하게 하니, 복장과 작호는 공후보다 높지 않고 칭호도 부족하다. 이제 모관 아무개로 하여금 지절과 예물을 갖추고 이 산의 신을 흥국영웅왕에 책명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유사에게 명하여 매년 철마다 제사를 지내고 묘당에 음식을 올리도록 하였다. 억만 년에 이르도록 금의 상서로움은 산과 같이 끝이 없도다. 그 어찌 위대하지 아니한가. 이때부터 매년 향을 내리고 유사에게 명하여 봄과 가을 보름 날 두 번 택일을 하여 제사를 올리도록 하였다. (금사)장종 태화 2년(1202)에 사신을 장백산에 보내 감사를 하였다. 창 4년(1193) 10월에 곧면 옥책 의식용 물건을 갖추고 황제가 대안전에 가서 황색 기치를 든 8백 명과 병장기를 잡은 5백 명을 배치하고 다시 개천평성제로 책봉을 하였다. (금사)장종 태화 2년(1202)에 사신을 장백산에 보내 감사를 하였다. (금사)소조와 같은 씨족 사람 과포라는 사람이 있었으며 소조가 무용을 날리며 백산에 이르렀을 때 모시고 갔다. (금사)온도포라는 처음 장백산의 아포산하에 살다가 용주의 액륙민하로 옮겼다.⁸²⁾ (금사)소조가 무용을 휘날리며 청령과 백산, 서로좌 등의 지역에 이르렀다. (원일통지)개원로의 장백산은 옛 회령현 남쪽 60리에 있다. 횡으로 천리에 걸쳐있으며 높이는 2백리 이다. 산 정상에는 못이 있는데 둘레는 80리 이고 못의 깊이는 잴 수 없다. 남쪽으로는 압록강으로 흘러가고 북쪽으로는 혼동강 즉 송아리강으로 흐르며, 동으로 흘러 애호하가 된다. (명일통지) 장백산은 옛 회령부 60리의 거리에 있는데 횡으로 천리, 높이는 2백리 이다. 산 정상에는 못이 있는데 둘레는 80리 이다. ⁸³⁾

82) 남주성 역, 2010, *흥정만주원류고*, 글모아.

83) 阿桂, 1777, 『*흥정만주원류고 欽定滿洲源流考*』 木板本, 4책 20권.

(山海經)大荒之中有山名不咸在肅慎氏之國 (晉書)肅慎氏一名挹婁在不咸山北 (魏書)勿吉國南有徒太山魏言太白有虎豹熊狼不害人人不得山上渡汗行逕山者皆以物盛去 (北史)靺鞨國南有徒太山者-案魏書隋書俱作徒太山通考與此同-華言太皇-案魏書作太山與此異-俗甚敬畏之人不得山上渡汗行逕山者皆以物盛去上有熊豹狼皆不害人人亦不敢殺 (新唐書)靺鞨居肅慎地粟末部居最南抵太白山亦曰徒太山與高麗接 (新唐書)渤海大氏度遼水保太白山之東北興阻與婁河樹壁自固 (通典)挹婁即古肅慎其國在不咸山北 (太平寰宇記)挹婁國在不咸山北夫餘北千里-案通考云在夫餘東北千里 (契丹國志)長白山在冷山東南千餘里乃白衣觀音所居其山禽獸皆白 (金史)女真地有長白山 (金史)昭祖耀武至于白山入于率賓扎蘭之地所至克捷還經佛頂水 (金史)大定十七年省臣秦

『흙정만주원류고』에 나타나는 백두산의 명칭은 ‘불함산’, ‘태백산’, ‘도태산’, ‘백산’, ‘태황’, ‘장백산’이며 옛 숙신⁸⁴⁾의 땅에 있는 높은 산이다. 산의 신을 ‘흥국영웅왕’에 봉하고 제사를 지내는 존숭의 대상이 되어 온 곳이다.

분석대상 고지도를 백두산 표현과 관련된 네 가지 항목, ‘백두산 명칭’, ‘천지 표기’, ‘백두산 표현의 특징’, ‘주기’로 구분하여 유형화하였다.⁸⁵⁾ 이 가운데 백두산 명칭과 관련한 내용은 표 5와 같다. ‘백두(白頭)’를 포함한 ‘백두산(白頭山)’ 명칭은 129점으로 가장 많았고, 백두산과 장백산을 함께 표기한 명칭은 ‘백두산 청여도 장백산(白頭山淸輿圖長白山)’, ‘백두산 피운 장백산(白頭山彼云長白山)’, ‘백두장백(白頭長白)’, ‘백두산 피명 장백산(白頭山彼名長白山)’ 등으로 표현되며 6점이다. 백두산과 장백산 두 개의 산이 그려진 경우도 6점이며, ‘장백산(長白山)’ 표기는 17점, ‘백산(白山)’과 ‘태백산(太白山)’은 각각 1점이다. 그 외에 백두산의 명칭 표기가 없는 지도는 5점이다.

咸平府路一千六百餘戶白陳皆長白山錫馨珊沁河女真人遼時僉爲獵戶移居于此號伊勒敦部本朝之興首詣軍降仍居本部今乞厘正從之 (金史)祭祀志大定十二年有司言長白山在與王之地禮合尊崇議封爵建廟宇十二月禮部太常學士院奏奉敕旨封與國靈應王即其山北地建廟十五年三月奏定封冊儀物冠九旒服九章玉圭玉冊爾香幣冊祝遣使副名一員詣會寧府行禮官散齋二日致齋一日所司於廟中陳說如儀廟門外說玉冊袞冕輦次牙仗旗鼓從物等視一品儀禮用三獻祭如嶽鎮其冊交曰自兩儀部判山嶽神秀各鍾于其分野國將與者天實作之對越神休必以祀事故肇基王述有若岐陽望秩山川於稽虞典厥長白載我金德仰止其高實惟我舊邦之鎮混同流光源所從出秩秩幽幽有相之道列聖蕃衍熾昌於太祖神武徵應無敵於天下爰作神主肆予沖人紹休聖緒四海之內名山大川灑不成秩矧王業所因瞻彼早麓可儉其禮服章爵號非位于公侯之上不足以稱焉今遺某官某特節備物冊命慈山之神爲與國靈應王仍勅有司歲時奉祀於歲廟食之享亙萬億年維金之禎歟山無極豈不偉歟自是每歲降香命有司春秋二仲擇日致祭明昌四年十月備袞冕玉冊儀物上御大安殿用黃麾立仗八百人行仗五百人復冊爲開天宏聖帝 (金史)章宗泰和二年遣使報謝于長白山 (金史)昭祖族人果布者從昭祖耀武至于白山 (金史)溫布拉始居長白山呵布繼河徙隆州額勒敏河 (金史)昭祖耀武至於青嶺白山舒嚕佐之也 (元一統志)開元路長白山在舊會寧縣南六十里橫亘千里高二百里其頂有潭周八十里淵深莫測南流於鴨綠江北流於混同江今呼爲松阿里江東流爲愛呼舊訛阿也古今改正 (明一統志)長白山在故會寧府六十里橫亘千里高二百里基寧有潭周八十里.

84) 숙신이라는 호칭은 중국의 《국어(國語)》 《사어(史語)》 및 그 밖의 고전에서 볼 수 있고, 특히 《국어》의 숙신공시(肅愼貢矢)는 전설로도 유명하여 성천자(聖天子)의 출현과 그들의 입조공헌(入朝貢獻)을 결부시켜 설명하기도 한다. 중국의 《사기》에는 식신(息愼)·직신(稷愼)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고구려 서천왕(西川王) 때 일부가 고구려에 복속되었으며, 398년(광개토대왕 8) 완전히 병합되었다. 뒤에 일어난 읍루(挾婁)·말갈(靺鞨) 종족이 숙신의 후예로 추측되기도 한다. 한편 당(唐)나라 때는 선진(先秦)시대의 북동방면 거주 민족의 총칭으로 쓰였다. ; 네이버 백과사전.

85) 부록 3 『백두산 표현 유형 목록』 참고.

표 5. 고지도에 나타난 백두산의 명칭

백두산 명칭		지도 수 (점)	비율 (%)
백두산	白頭	129	1
	白頭山		128
백두산과 장백산	白頭山 清輿圖長白山	6	1
	白頭山 彼云 長白山		2
	白頭山 彼名 長白山		1
	白頭 長白		1
	白頭山 長白山		1
백두산과 장백산 두 개의 산 표기		6	3.75
장백산(長白山)		17	10.63
백산(白山)		1	0.63
태백산(太白山)		1	0.63
명칭 표기가 없는 경우		5	3.13
총		160	100

1) 태백산

서울 역사박물관에 소장된 《지도 地圖》 중 〈중국도 中國圖〉⁽¹⁾(그림 20)의 한반도는 붉은 장방형 안에 크게 ‘조선(朝鮮)’이 표기되어 있는 길죽하고 둥근 형태이다. ‘조선’ 두 글자 외에 다른 지명과 지형은 없으며 『신당서 新唐書』의 명칭처럼 ‘태백산(太白山)’으로 표기된 백두산만 있다. 『신당서』에는 태백산은 도태산이며 숙신의 땅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말갈은 숙신씨의 땅에 살며 속말부족은 고려와 접한 도태산이라 불리우기도 하는 태백산의 제일 남쪽에 산다. 발해 대씨가 요수를 건너 태백산의 동북쪽 오루하의 막다른 곳에 나무 성채를 견고히 쌓고 이를 보전했다.⁸⁶⁾

86) 『신당서 新唐書』 「흑수말갈전 黑水靺鞨傳」.



그림 20. 《지도》 중 〈중국도〉

- 주: 1. 《지도》 중 〈중국도〉에서 발췌한 조선부분.
2. '태백산' 명칭에 장방형 표시를 했음.

태백산은 신인(神人) 단조(檀祖)가 시강(始降)한 곳으로 지금의 백두산이다. 천산(天山) 혹은 조산(祖山), '한배메'로 호칭하기도 한다.⁸⁷⁾ 『동국사략 東國史略』에는 “단군이 태백산 단목에 내려오시었다[神降于太白山檀木下]”라고 기록되어 있다. 『단조사고 檀祖事考』에는 “갑자년에 천부삼인을 받아 태백산 단목에 내리시다[甲子握天符三印降于太白山檀木下]”라고 되어 있다. 이밖에 『신단실기 神壇實記』, 『태백단가서 太白檀歌序』, 『권근응제시주 權近應製詩注』, 『단군고기 檀君古記』, 『제왕운기 帝王韻記』, 『세종실록지리지 世宗實錄地理志』, 『동국문헌비고 東國文獻備考』, 『단군민사 檀君民史』 등에는 단군이 태백산에 내려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태백산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백두산의 또다른 명칭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단군이 내려온 신성한 산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반도에 유일하게 그려진 백두산은 민족의 영산이라는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

지도에서 불꽃 모양의 백두산은 푸른색으로 채색되어 있다. 이 지도는 채색이 특히 아름다운데, 명칭을 고려하여 중국의 황하는 황색으로 채색하였다. 백두산을 강조하여 그린 보통의 지도는 봉우리 윗부분을 흰색으로 채색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지도에서의 백두산 명칭이 '백두산'이었다면 흰색으로 봉우리 윗부분을 채색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태백산'이라는 명칭으로 표기된 산은 다른

靺鞨居肅慎地粟末部居最南抵太白山亦曰徒太山與高麗接.渤海大氏度遼水保太白山之東北與阻奧婁河樹壁自固
87) 尹世復, 1959, 檀君考, 學術誌 2(1), 건국대학교, p.18.

산들과 같은 푸른색으로 채색되어 있다. 백두산의 본래 특징을 표현하기보다는 ‘태백산’이라는 명칭을 강조하여 산을 표현하였다.

2) 백산

《조선지도 부 팔도천하지도 朝鮮地圖附八道天下地圖》 중 〈함경도 咸鏡道〉 (2)(그림 21) 지도에 백두산의 명칭은 ‘백산(白山)’이다. 백두산의 ‘두(頭)’자 지워졌거나 박락된 흔적은 없지만 ‘백’자와 ‘산’자 글자 사이의 간격이 큰 것으로 보아 ‘두(頭)’자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백두산의 명칭이 ‘백산’으로 표기된 다른 고지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글자 누락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고지도에서 백두산으로 명명된 모든 산의 봉우리 부분이 흰색으로 채색되어 이름의 특징을 반영하지는 않지만 백산이라는 특징적인 명칭이 고지도에 드러나도록 산 전체를 흰색으로 채색했다면 글자 누락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지도는 동람도식 도별도로 비교적 단순한 형태이다. 백산은 다른 산에 비해 강조되어 있으며 연결된 봉우리는 분계강과 두만강을 따라 두만강 하구까지 이어진다. 백산은 주변의 산과 같은 옅은 연두색으로 채색되어있다.



그림 21. 《조선지도 부 팔도천하지도》 중 〈함경도〉

- 주: 1. 《조선지도 부 팔도천하지도》 중 〈함경도〉에서 발췌한 백두산부분.
2. ‘백산’ 명칭에 장방형 표시를 했음.

『금사 金史』에는 백두산의 이칭인 백산에 관한 기록이 있다. 숙신의 땅에 있으며 장백산으로도 불린다는 내용이다.

소조와 같은 씨족 사람 과포라는 사람이 있었으며 소조가 무용을 날리며 백산에 이르렀을 때 모시고 갔다.
흑수말같은 옛 숙신의 땅에 살며, 이곳에는 금국이 흥기한 백산이 있는데 장백산이라고도 한다.⁸⁸⁾

3) 불함산

불함산(不咸山)은 숙신씨 나라에 있는 산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중국의 문헌 『산해경』, 『진서 晉書』 등에 기록이 있다. 그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으나 대체로 몽고어에서 신을 뜻하는 'Burkwan' 또는 'Baukhan'이라고 생각되며 『위서』의 「물길전」에 이 산을 신산이라고 한 것은 서로 상통하는 것으로 해석된다.⁸⁹⁾ 육당(六堂) 최남선은 1927년 「불함문화론 不咸文化論」을 통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민족의 독자적인 문화와 역사를 불함문화라고 발표하였다. 불함문화는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신(天神)의 아들 환웅천왕(桓雄天王)의 자손이라는 천손강림(天孫降臨)의 단군신화를 사상적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신화를 뿌리로 하는 불함문화가 퍼져 고대 중국과 일본의 문화를 형성했고, 나아가 유라시아 전역에 퍼졌다는 가설이 불함문화론의 내용이다.⁹⁰⁾ 이처럼 불함산 명칭에는 하늘의 자손이 내려온 산으로서 천(天)을 계승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백두산에 대한 명칭을 직접적으로 ‘불함산(不咸山)’으로 표기한 고지도는 없지만 《청구도》(3)류 지도의 백두산 옆 주기에 ‘불함산(不咸山)’에 대한 설명이 있다.

88) 『금사 金史』 열전 제73, 「외국 外國(하)」, 「고려전(高麗傳)」

昭祖族人果布者從昭祖耀武至于白山

黑水靺鞨居古肅慎地有山曰白山蓋長白山金國之所起焉.

89) 이찬, 前揭書, p.70.

90) 최남선, 정재승 · 이주현 역, 2008, 불함문화론, 우리역사연구재단.

산해경에서 불함산이라 하고 당서에 이르길 장백산이라 칭하였다. 요지에 이르기를 냉산 동남쪽 천여리 흑수 즉, 혼동강이 발원하는 곳에 있다고 기록하였다. 대명일통지에 이르기를 옛 회령부 남쪽 60리에 있으며 장백산은 횡으로 천리, 높이가 200리이다. 산꼭대기에는 못이 있는데 둘레가 80리에 이르고 색은 거무스름하고 측량이 불가능하다. 여름철에는 졸참나무가 있고, 빙설은 광활하고 은색 바다를 한 산의 형상은 성채의 울타리까지도 아득하게 멀리 보인다. 물항아리가 뒤집어진 모양을 한 못의 북쪽이 터져서 수척의 물이 넘쳐서 폭포가 되어 흐르는데 즉, 흑룡강원이다. 다시 언덕부분에서 압록강의 수원이 시작된다.⁹¹⁾



그림 22. 《동여도》

주: 1. 천리대 부속 천리도서관 소장본.
2. ‘산해경’ 부분에 장방형 표시를 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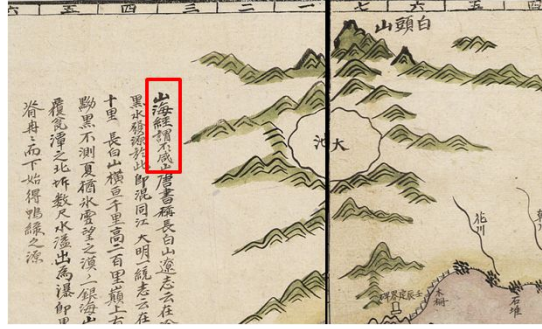


그림 23. 《청구도》

주: 1.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2. ‘산해경’ 부분에 장방형 표시를 했음.

『산해경』과 『진서』에 불함산의 명칭이 언급되어 있으며, 《청구도》류 지도의 주기에 불함산 명칭은 『산해경』의 내용을 참고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대황지중에 산이 있는데, 불함이라 부른다. 숙신씨의 나라가 있었다.⁹²⁾

숙신씨는 일명 읍루라고 하는데 불함산의 북쪽에 있다. 부여까지 육십일 정도 걸린다.⁹³⁾

91) 《청구도》의 주기 부분.

山海經謂不咸山 唐書稱長白山 遼志云在冷山東南千餘里 黑水發源於此即混同江 大明一統志云 在故會寧府南六十里 長白山橫亘千里高二百里 嶺山有澤周八十里 色黝黑不測夏檐 冰雪望之漠 銀海山形在遠望之碧 覆瓮潭之北坻數尺水溢出為瀑即黑龍江源也 從岡脊再而下始得鴨綠之源.

92) 『산해경』 권 17, 「대황북경 大荒北經」

大荒之中, 有山名曰不咸有肅慎氏之國.

93) 『진서 晉書』 열전 제 67, 「사이 四夷」, ‘숙신씨(肅慎氏)’

肅慎氏一名挹婁在不咸山北, 去夫餘可六十日行.



그림 24. 《청구도》

- 주: 1.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2. '산해경' 부분에 장방형 표시를 했음.

고려대학교 도서관 ·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청구도》⁹⁴⁾(그림 23, 24)와 일본 천리대학 부속 천리도서관 소장 《동여도》⁹⁵⁾(그림 22)의 3층 8판과 3층 9판 〈백두산〉 부분에도 같은 내용의 주기가 있다. 문헌에 기록된 정보는 조선 후기 고지도에 영향을 주었고, 고지도에 표현되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백두산에 관한 주기가 많은 것은 백두산에 관한 당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4) 장백산

장백산은 현재 중국에서 백두산을 지칭하는 공식 명칭이다. 요금(遼金)시대부터 사용하기 시작하다가 금나라 여진인에 의해 정식으로 명명되었다. 장백산은 금나라 세종 완안옹(完顔雍)에 의해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전해지며 『금사 金史』 「세기 世紀」에 '장백산'이 기록되어 있다. 장백산은 여러 문헌을 거쳐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금사』에는 장백산 기록이 여러 차례 나타나며, 존송의 대상인 흥왕지지로 묘사되어 있다.

94) 《청구도 靑邱圖》, 중 제 3층 8·9판, 貴511, 1834년, 채색필사본, 30.8×20.7cm, 고려대학교 도서관; 《청구도 靑邱圖》 중 제 3층 8·9, 2-4587, 채색필사본, 24.0×37.2cm, 한국학중앙연구원.

95) 《동여도 東輿圖》 중 제 3층 8·9, 292.1-223, 채색필사본, 천리대학 부속 천리도서관.

장종 태화 2년(1202)에 사신을 장백산에 보내 감사를 하였다. .. 온도포랍은 처음 장백산의 아포산하에 살다가 용주의 액륙민하로 옮겼다.⁹⁶⁾

『원일통지 元一統志』에는 옛 회령 남쪽 60리에 있는 장백산을 기술하며 산의 높이와 형상을 기술했다.

개원로의 장백산은 옛 회령현 남쪽 60리에 있다. 횡으로 천리에 걸쳐 있으며 높이는 2백리이다. 산 정상에는 못이 있는데 둘레는 80리이고 못의 깊이는 잴 수 없다. 남쪽으로는 압록강으로 흘러가고 북쪽으로는 혼동강 즉 송아리강으로 흐르며, 동으로 흘러 애호하가 된다.⁹⁷⁾

『명일통지 明一統志』에 나타나는 장백산의 기술은 『원일통지』의 내용을 상당 부분 따르고 있다.

장백산은 옛 회령부 60리의 거리에 있는데 횡으로 천리, 높이는 2백리 이다. 산 정상에는 못이 있는데 둘레는 80리이다.⁹⁸⁾

『거란국지 契丹國志』에는 장백산이 냉산(冷山) 동남쪽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냉산에 관한 기술은 《청구도》류의 주기에도 나오는데 ‘요지에 이르기를 냉산 동남쪽 천여리 흑수 즉, 혼동강이 발원하는 곳에 있다.’라는 기록이 같다.

장백산은 냉산 동남쪽 천여리에 있으며, 백의관음이 그곳에 살고 있다. 그 산의 금수 또한 모두 희다.⁹⁹⁾

96) 『흙정만주원류고 欽定滿洲源流考』¹⁾ 권 14 山川(산천)조 ‘장백산’ 부분 참고.

章宗泰和二年遣使報謝于長白山.. 溫布拉始居長白山呵布繖河徙隆州額勒敏河.

97) 開元路長白山在舊會寧縣南六十里橫亘千里高二百里其頂有潭周八十里淵深莫測南流於鴨綠江北流於混同江今呼爲松阿里江東流爲愛呼舊訛阿也古今改正.

98) 明一統志長白山在故會寧府六十里橫亘千里高二百里基寧有潭周八十里.

99) 長白山在冷山東南千餘里乃白衣觀音所居其山禽獸皆白.

고지도에서도 장백산 명칭 표기는 다수 나타나는데, ‘장백산’으로 단독으로 표기된 경우와 ‘백두산·장백산’ 두 가지 산명이 함께 표기된 경우가 있다.

(1) ‘장백산(長白山)’으로 단독 표기된 경우



그림 25. 《화이지계》 중 〈성경〉

- 주: 1. 《화이지계》 중 〈성경〉에서 발췌한 장백산 부분.
 2. ‘장백산’ 명칭에 장방형 표시를 했음.



그림 26. 《각국도》 중 〈천하전도〉

- 주: 1. 《각국도》 중 〈천하전도〉에서 발췌한 장백산 부분.
 2. ‘장백산’, ‘대택’ 명칭에 장방형 표시를 했음.

《화이지계 華夷地界》 중 〈성경 盛京〉(4)(그림 25)과 《각국도 各國圖》 중 〈천하전도 天下全圖〉(5)(그림 26)는 중국의 《황여전람도 皇輿全覽圖》(100)를 저본으로 그린 지도이다. 공통적으로 만주지역을 대상으로 표현하였으며, 지도

100) 《황여전람도》는 중국 최초 서구식 실측지도로 황제의 명으로 제작된 전국범위의 관찬 지도이다. 중국뿐 아니라 아시아와 서양에까지 영향을 미친 중국 최고의 지도중 하나이다.

에서 백두산은 중국과 조선의 경계지역 정도에 불과한 변방이다. 백두산을 ‘장백산(長白山)’으로 표기했고, 다른 산들과 마찬가지로 연결된 봉우리로 표현했다. 조선을 주제로 그린 고지도에서 백두산이 강조된 것과 다르게 장백산은 평범하게 표현되어 있다. 오히려 장백산의 명칭보다 대택(大澤)의 표기가 더 크다. 중국의 지도를 저본으로 만주지역을 그린 고지도에서 장백산(백두산)은 강조되지 않는 평범한 산으로 묘사되어 있다.

1712년 백두산정계비가 세워진 이후, 조선과 중국은 1885년과 1887년 두 차례 공동으로 국경조사를 시행하였다. 《백두산정계비지도 白頭山定界碑地圖》(6)(그림 27)는 1887년 조선감계사 이중하(李重夏)가 청과의 회담 이후 그린 지도이다. 2차 감계회담에서도 청과 합일점을 찾지 못하자 한 발 물러서서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인정하더라도 두만강 가장 상류의 물줄기인 ‘홍토산수(紅土山水)’¹⁰¹⁾를 토문강이라고 주장하고, 이 물줄기에 ‘조선과원요차수정계(朝鮮派員要此水定界)’라는 표기를 했다. 청의 감계사는 토문강과 두만강이 하나의 강이라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했지만 처음 주장이었던 홍단수가 아닌 보다 상류의 석을수에 ‘길림과원요차수정계(吉林派員要此水定界)’라는 표기를 하고 청의 강계로 고수했다.



그림 27. 《백두산정계비지도》

- 주: 1. 《백두산정계비지도》에서 발췌한 장백산 부분.
 2. ‘장백산’ 명칭에 장방형 표시를 했음.

조선에서는 비록 한 발 물러서서 홍토산수를 경계로 타협하려 했지만, 청의 뜻대로 더 많은 양보를 하지 않아 결국 회담은 결렬되고 회담의 과정과 결과를 그린 이 지도만 남게 되었다. 조선의 감계사 이중하는 도문강(圖們江)의 정원(正源)을 경계로 정하고자 하는 청에 맞서, 비퇴(碑堆)의 경계로 증거를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의 주장은 고지도에도 잘 나타나는데, 석퇴에서 이어지는 황화송구자(黃花松溝子·토문강)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두산을 청에서 부르는 명칭인 ‘장백산’으로만 표기한 것은 그다지 평등하지 못했던 회담의 과정을 시사해 준다.



그림 28. 《지도》 중 〈동국팔도대총도〉
주: 1. 《지도》 중 〈동국팔도대총도〉에서 발췌한 장백산 부분.
2. ‘장백산’ 명칭에 장방형 표시를 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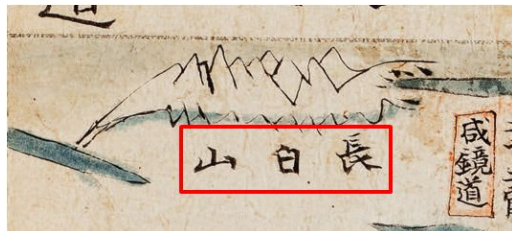


그림 29. 《여지도》 중 〈동국팔도대총도〉
주: 1. 《여지도》 중 〈동국팔도대총도〉에서 발췌한 장백산 부분.
2. ‘장백산’ 명칭에 장방형 표시를 했음.



그림 30. 《천하도》 중 〈팔도총도〉
주: 1. 《천하도》 중 〈팔도총도〉에서 발췌한 장백산 부분.
2. ‘장백산’ 명칭에 장방형 표시를 했음.

101) 두만강의 수원으로 가장 북쪽의 홍토수, 중간의 석을수, 가장 남쪽의 홍단수가 있다.

《지도 地圖》 중 〈동국팔도대총도 東國八道大總圖〉(7)(그림 28), 《여지도 輿地圖》 중 〈동국팔도대총도 東國八道大總圖〉(8)(그림 29), 《천하도 天下圖》 중 〈팔도총도 八道總圖〉(9)(그림 30)는 공통적으로 주요 산과 강만을 표시한 압축적인 조선 전도로, 백두산을 중국에서 명명하는 ‘장백산(長白山)’으로 표기하였다. 이 가운데 《여지도》 중 〈동국팔도대총도〉는 특별히 백두산을 흰색으로 표현하기는 했지만 다른 산과의 크기, 묘사된 정도 등을 비교해 볼 때 나머지 두 지도처럼 백두산을 강조하여 표현하지는 않았다. 조선전도에서 ‘백두산’으로 표기된 경우 백두산은 형태와 색채, 크기 등을 통해 강조되어 나타나지만 조선전도에서 ‘장백산’으로 표기된 백두산은 평범하게 표현되어 있다.

(2) ‘백두산(白頭山)·장백산(長白山)’ 두 가지 산명이 함께 표기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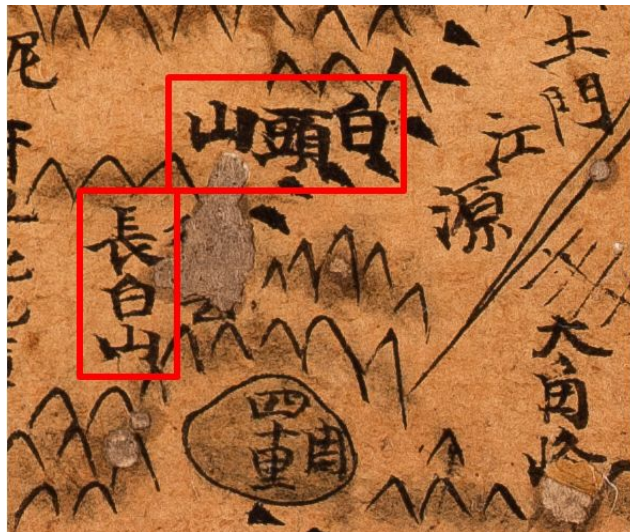


그림 31. 《서북계도》

- 주: 1. 《서북계도》에서 발췌한 백두산 부분.
 2. ‘백두산’, ‘장백산’ 명칭에 장방형 표시를 했음.

‘백두산’의 명칭 표기와 함께 ‘장백산’이라는 명칭을 함께 표기한 고지도가 있다. 《서북계도 西北界圖》(10)(그림 31)에는 짙은 글씨로 쓴 ‘백두산(白頭山)’

이라는 표기와 함께 조금 아래에 세로로 흐리게 표기한 ‘장백산(長白山)’ 명칭이 있다. 함경도 소백산 남동쪽에 장백산이 있기 때문에 위의 장백산 명칭은 함경도 장백산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백두산에 장백산 명칭을 함께 표기한 것은 중국에서 부르는 백두산 명칭을 더불어 표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백두산’ 표기를 더 강조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명칭을 상대적으로 돋보이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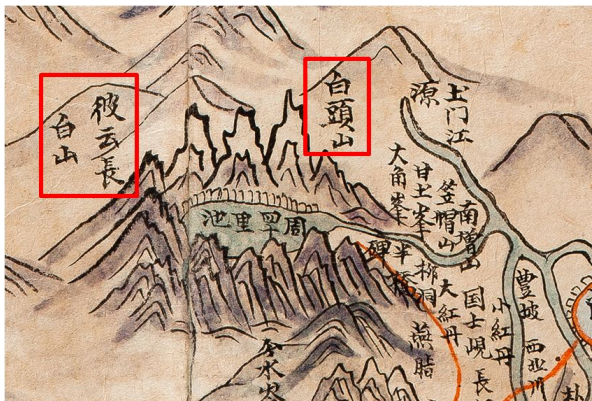


그림 32. 《관서관북도》 중 〈관서관북도〉

- 주: 1. 《관서관북도》 중 〈관서관북도〉에서 발췌한 백두산 부분.
2. ‘백두산’, ‘피운장백산’ 명칭에 장방형 표시를 했음.



그림 33. 《청구관해방총도》

- 주: 1. 《청구관해방총도》에서 발췌한 백두산 부분.
2. ‘백두산 피운장백산’ 명칭에 장방형 표시를 했음.

《관서관북도 關西關北圖》 중 〈관서관북도 關西關北圖〉(11)(그림 32)와 《청구관해방총도 淸丘關海防總圖》(12)(그림 33)에는 청과의 경계지역인 백두산 북부가 묘사되어있다. 공통적으로 백두산 옆에 ‘백두산, 그쪽(청)에서는 장백산이라 칭함[白頭山彼云長白山]’ 라고 표기되어 있다. 조-청간의 경계지역을 그린 지도이기 때문에 백두산에 대한 양국의 호칭을 병기한 것으로 보인다.

양계지역을 그린 《관북전도 關北全圖》(13)(그림 34) 에도 백두산에 ‘청 여도에는 장백산이다[淸輿圖長白山]’는 표기가 있다. 중국에서 부르는 백두산의 명칭 ‘장백산’을 함께 병기하였다. 《천하여지도 天下輿地圖》(14)(그림 35) 는

중국과 조선을 그린 중국 중심의 세계지도이지만, 중국의 4분의 1 정도 크기로 그려진 조선은 중국보다 더 강조되어 있다. 세계지도이지만 중국과 조선을 강조한 지도에서 백두산은 양국의 변경지역이다. 백두산에는 ‘백두산의 명칭은 청에서 장백산이다.[白頭山彼名長白山]’ 라고 양국의 명칭을 모두 병기했다. 지도가 표현하는 주제와 지역의 범주에 따라 백두산에 대한 명칭의 표기와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림 34. 《관북전도》

주: 1. 《관북전도》에서 발췌한 백두산 부분.
2. ‘백두산’, ‘청여도장백산’ 명칭에 장방형 표시를 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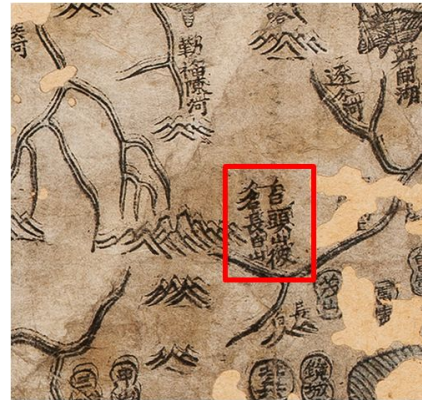


그림 35. 《천하여지도》

주: 1. 《천하여지도》에서 발췌한 백두산 부분.
2. ‘백두산 피운장백산’ 명칭에 장방형 표시를 했음.

2. 백두산 묘사의 유형

1) 산지의 복수(複數) 표현

두 개의 백두산이 지도에 표현되었는데, 각각의 명칭은 ‘백두산’과 ‘장백산’¹⁰²⁾이다. 두 개의 백두산이 같이 그려진 지도는 김수홍이 제작한 조선전도와 세계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6. 《조선팔도고금총람도》

- 주: 1. 《조선팔도고금총람도》에서 발췌한 백두산 부분.
2. 두 개의 백두산에 장방형 표시를 했음.



그림 37. 《천하고금대총편람도》

- 주: 1. 《천하고금대총편람도》에서 발췌한 백두산 부분.
2. 두 개의 백두산에 장방형 표시를 했음.

조선전도인 《조선팔도고금총람도 朝鮮八道古今揔覽圖》⁽¹⁵⁾(그림 36)의 서쪽에는 ‘장백산(長白山)’, 동쪽에는 ‘백두산(白頭山)’이 나란히 있다. ‘장백산(長白山)’에서 ‘백두산(白頭山)’으로 송화강이 흐르고 백두산에서 이 물줄기가 이어져 흑룡강으로 흘러 동해로 유입된다. 이 물줄기 아래를 이루는 또 다른 하천은 ‘백두산(白頭山)’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서쪽으로 압록강, 동쪽으로 두만강이다. 청과 조선에서 명명하는 백두산의 두 이름 ‘장백’과 ‘백두’를 두 산에 표기하였고, 두 산은 조선의 가장 북쪽에 각기 다른 산으로 표현되어 있다.

김수홍이 제작한 또 다른 세계지도인 《천하고금대총편람도 天下古今大揔便覽圖》⁽¹⁶⁾(그림 37)에도 백두산과 장백산이 각기 다른 두 개의 산으로 표현되

102) 여기서 장백산은 현재 북한 함경도에 있는 백두산 남동쪽에 위치한 ‘장백산’이 아니다.

어 있다. 장백산이 백두산 북서쪽에 있는 옛 숙신의 땅에서 조금 더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점은 두 산이 나란히 있는 《조선팔도고금총람도》의 표현과 차이가 난다. 장백산에서 송화강이 동쪽으로 발원하는데, 산해경에 등장하는 상상의 나라인 ‘장비국(長臂國)’과 ‘장각국(長脚國)’을 휘돌아 나간다. 한편 조선에는 강조하여 크게 그린 백두산과 백두산 양쪽 수계 압록강, 두만강이 있다.

현전하는 조선전도와 세계지도에는 백두산과 장백산을 별개의 다른 산으로 표현한 지도들이 다수 존재한다. 백두산을 크게 강조하여 그림으로써 분명 우리나라의 조종산으로 인식하고 표현하였으며, 장백산 역시 또 다른 백두산으로 강조하여 지도에 표현하였다. 장백산은 조선전도에 백두산과 평행하게 그려져 있고, 세계지도에서는 백두산보다 북서쪽인 만주지역에 표현되어 있다. 여러 문헌의 내용¹⁰³⁾을 참고로 할 때, 장백산 부근의 ‘옛 숙신의 땅[古肅慎]’이라는 표기는 장백산이 백두산이라는 것을 시사해주며 장백산 바로 옆에 표기된 조선 함경북도의 ‘회녕(會寧)’ 표기를 통해 백두산이라는 것은 더욱 분명해진다. 지도 제작자는 백두산의 이칭인 장백산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며, 백두산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두 개의 백두산을 다른 이름으로 지도에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장백산에서 ‘송화강이 발원하고 송화강은 동쪽으로 흐르다가 혼동강과 합류한다[松花江山北又東流合混同江出長白]’는 주기와 송화강과 합류한 혼동강이 흑룡강으로 유입되는 두 지도의 공통적인 표현을 통해 백두산 혹은 장백산의 동쪽 수계가 두만강이 아닌 흑룡강임 표현하였다. 흑룡강 유역까지 조선의 영역으로 표현하여 매우 확대된 조선 초기의 영토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전세보 傳世寶》 중 [조선 · 만주지도 朝鮮 · 滿州地圖] (17)(그림 38)와 《고지도첩 古地圖帖》 중 〈천하산천맥絡도 天下山川脈絡圖〉 (18)(그림 39)는 조선의 입장에서 현재 흑룡강성에 거주하던 해서여진(海西女眞)을 해서이(海西

103) 『금사 金史』 「고려전 高麗傳」: 흑수말갈이 옛 숙신의 땅에 살며 여기에 백산이라는 산이 있으니 이 산은 장백산으로서 금나라가 일어난 곳이다.

『산해경』: 태고적에 산이 있어 이름을 불함이라 하였는데 거기에 숙신씨의 나라가 있었다.

『진서 晉書』 「동이전 東夷傳」: 숙신씨는 일명 읍루라고 하는데 불함산의 북쪽에 있다.

夷), 지린 성의 건주여진(建洲女眞)을 건주이(建洲夷), 그리고 만주 최북방의 생여진(生女眞)을 표기하였다. 해서이·건주이와 같은 청 건국 이전 여진족의 명칭 표기를 통해 지도의 내용이 청 건국 이전의 상황을 담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만주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세보》에는 장백산 부근에서, <천하산천맥락도>에는 백두산에 부근에서 각각 송화강이 발원하여 분류하고 있다. 장백산 부근에 표기된 숙여진(孰女眞)과 생여진(生女眞)의 표기를 통해 장백산은 만주족의 발상지로서 의미 있는 산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백두산을 강조하기 위해 두 개의 백두산을 그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백두산과 별개의 의미를 가지는 만주족의 장백산을 지도에 표현하고 있다.



그림 38. 《전세보》 중 <조선·만주지도>
 주: 1. 《전세보》 중 <조선·만주지도>에서 발췌한 백두산 부분.
 2. 두 개의 백두산에 장방형 표시를 했음.



그림 39. 《고지도첩》 중 <천하산천맥락도>
 주: 1. 《고지도첩》 중 <천하산천맥락도>에서 발췌한 백두산 부분.
 2. 두 개의 백두산에 장방형 표시를 했음.

2) 천지 명칭 및 표현의 상징

연구대상 고지도를 백두산 표현과 관련된 항목 ‘백두산 명칭’, ‘천지 표기’, ‘백두산 표현의 특징’, ‘주기’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유형화하였다.¹⁰⁴⁾ 이 가운데 천지 명칭과 관련하여 표 6과 같이 정리하였다. 대지(大池)와 대택(大澤)의 표기는 각각 31점과 30점으로 가장 많고, 지(池) 4점, 천상근(天上近) 2

104) 부록 3 『백두산 표현 유형 분류』 참고.

점, 달문담(達門潭)이 2점이다. ‘천지’로 표기된 지도는 없으며, 명칭 표기가 없는 경우는 88점이다.

표 6. 고지도에 나타난 천지의 명칭

천지 표기		지도 수 (점)	비율 (%)
대택(大澤)	大澤	25	18.75
	大澤 周面八十里	2	
	大澤 周八十里	1	
	大澤周万里	1	
	大澤周方千里	1	
대지(大池)	大池	27	19.38
	大池 周八十里	4	
지(池)	池	2	2.50
	周八十里 池	1	
	周四十里 池	1	
달문담(達門潭)	達門潭	1	1.25
	達門潭 周面八十里	1	
천상근(天上近)		2	1.25
주팔십리(周八十里)		2	1.25
주사십리(周四十里)		1	0.63
명칭 표기가 없는 경우		88	55.0
총		160	10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는 ‘천지’에 관한 정의를 ‘백두산(2,744m) 정상에 있는 화구호. 이칭은 용왕담(龍王潭), 대지(大池).’라고 기술하고 있다.

‘용왕담(龍王潭)’이라는 명칭은 백두산을 여행한 영국의 H.E.M. James가 1888년, 『Long White Mountain』¹⁰⁵⁾을 통해 천지를 [백두산 정상의 용왕담 : The Dragon Prince's Pool on the Summit of the Long White Mountain] 이라고 기술한 바 있다.



그림 40. The Dragon Prince's Pool
on the Summit of the Long White Mountain

주: H.E.M. James, 1888, Long White Mountain or A Journey in MAnchuria, *London Longmans*.

‘천지’라는 명칭은 1908년 청의 관리인 유건봉(劉建封)이 사용했으며, 이미 조선에서는 1751년에 이의철(李宜哲)이 『백두산기 白頭山記』에서, 성해응의 『백두산기 白頭山記』, 1766년 서명응(徐命應)이 『유백두산기 遊白頭山記』에서 ‘천지’가 언급되었다.¹⁰⁶⁾ 근대 자료인 중외일보 1928년 1월 1일 기사를 통해 ‘龍字든 名勝古蹟(其1), 白頭山龍王潭(一名天池)’를 확인할 수 있는데, 당시 ‘천지’와 ‘용왕담’ 명칭이 함께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재홍(安在鴻)역시 1931년 백두산 답사 후 출판한 『백두산등척기 白頭山登陟記』에서 ‘천지’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105) H.E.M. James, 1888, Long White Mountain or A Journey in MAnchuria, *London Longmans*.

106) 이강원, 2010, 백두산(白頭山), 천지(天池) 지명(地名)에 대한 일고찰: 한(韓), 중(中) 지명표기를 중심으로, *지리학연구* 44(2), p.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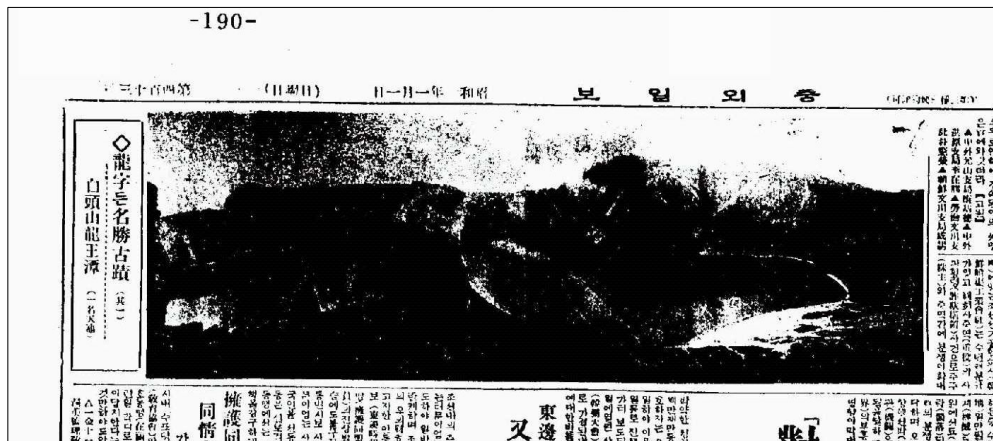


그림 41. 중외일보 1928년 1월1일자 신문

고지도에는 ‘천지’라는 명칭의 표기는 없으며, ‘대지(大池)’와 ‘대택(大澤)’이라는 표기가 가장 많다. 그 외에 ‘지(池)’, ‘천상근(天上近)’, ‘달문담(達門潭)’이라는 표현도 있다. 『용비어천가』의 ‘대택’, 《대동여지도》의 ‘대지’ 표기를 근거로 이강원은 조선전기 역사지도집을 제작한다면 백두산 정상부의 호수는 ‘대택’으로, 조선후기 역사지도집을 제작한다면 백두산 정상부의 호수는 ‘대지’로 기록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¹⁰⁷⁾ 하지만 고지도에서 ‘대지’와 ‘대택’이라는 용어는 조선 전기와 후기로 구분되어 표기되지 않고, 시기 구분 없이 혼재되어 사용되었다.



그림 42. 《동국여지지도》

- 주: 1. 《동국여지지도》에서 발췌한 백두산 부분.
- 2. ‘지(池)’에 장방형으로 표시하였음.

‘대지’와 ‘대택’이 표기된 지도보다 이른 시기의 지도에 ‘지(池)’라는 표현이 나타나기도 한다. ‘지’라는 명칭은 대명일통지의 주기 ‘주팔십리(周八十里)’라는 내용과 함께 표기되어 ‘주팔십리 지(周八十里 池)’로 표현되기도 한다. 한편 ‘주팔십리’를 오기하여 ‘주사십리(周四十里)’로 표기한 지도와 여기에 ‘池’를 더한 ‘주사십리 지(周四十里 池)’ 표기도 있다.



그림 43. 《서북계도》

- 주: 1. 《서북계도》에서 발췌한 백두산 부분.
2. ‘주사십리’에 장방형으로 표시하였음.



그림 44. 《관서관북도》 중 <관서관북도>

- 주: 1. 《서북계도》에서 발췌한 백두산 부분.
2. ‘주사십리 지’에 장방형으로 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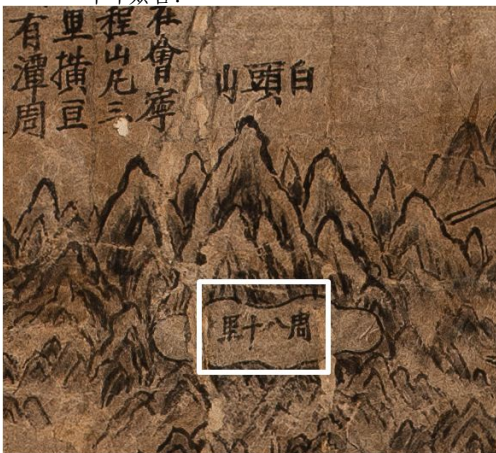


그림 45. 《조선팔로지도》

- 주: 1. 《서북계도》에서 발췌한 백두산 부분.
2. ‘주팔십리’에 장방형으로 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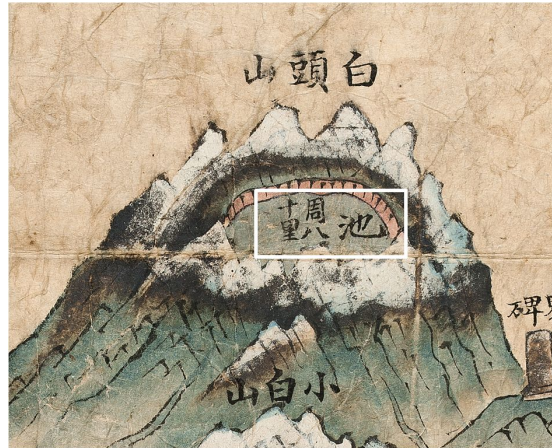


그림 46. 《북방강역도》

- 주: 1. 《서북계도》에서 발췌한 백두산 부분.
2. ‘주팔십리 지’에 장방형으로 표시하였음.

107) 이강원, 上揭書, p.139

『대명일통지』나 『만주원류고』, 『청태조실록』 등 문헌에 나타나는 천지의 둘레에 대한 ‘주팔십리’ 기록은 조선시대에 지도를 제작할 당시, 백두산에 관한 중요한 정보였음이 확실하다. 이 정보는 오기(誤記)되기도 했고, 천지를 명명하던 당시의 명칭과 함께 표기되기도 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천지의 명칭은 ‘대지’와 ‘대택’인데 이 명칭들 역시 ‘주팔십리’와 함께 표기되어 ‘대지 주팔십리(大池 周八十里)’와 ‘대택 주팔십리(大澤 周八十里)’로 표현되기도 했다. 하지만 ‘주사십리’와 결합된 형태의 ‘대지’나 ‘대택’은 나타나지 않는다. 『대명일통지』의 주기 ‘주팔십리’의 오기인 ‘주사십리’는 후에 수정되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지’와 ‘대택’은 ‘지’ 보다는 늦은 시기에 등장하는 명칭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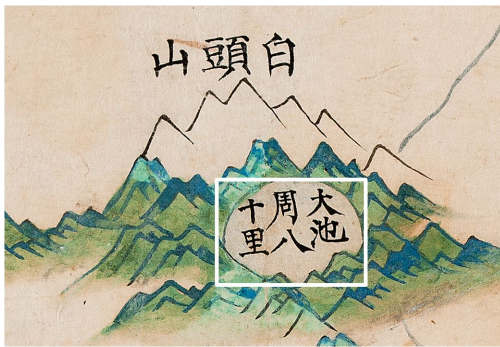


그림 47. 《각도지도》 중 〈조선전도〉
 주: 1. 《각도지도》 중 〈조선전도〉에서 발췌한 백두산 부분.
 2. ‘대지 주팔십리’에 장방형으로 표시하였음.



그림 48. 《동국대지도》
 주: 1. 《동국대지도》에서 발췌한 백두산 부분.
 2. ‘대지 주팔십리’에 장방형으로 표시하였음.

《동국여지지도 東國輿地之圖》(19)(그림 42)에는 ‘지(池)’, 《조선팔로지도 朝鮮八路地圖》(20)(그림 45)에는 ‘주팔십리(周八十里)’, 《북방강역도 北坊江域圖》(21)(그림 46)에는 ‘주팔십리 지(周八十里 池)’, 《서북계도》(그림 43)에는 ‘주사십리(周四十里)’, 《관서관북도 關西關北圖》 중 〈관서관북도 關西關北圖〉(22)(그림 44)에는 ‘주사십리 지(周四十里 池)’가 나타난다. 《각도지도 各

道地圖》 중 〈조선전도 朝鮮全圖〉(23)(그림 47)와 《동국대지도 東國大地圖》(24)(그림 48)에는 ‘대지 주팔십리(大池 周八十里)’가 나타나고, 《북관장파지도 北關長坡地圖》(25)(그림 49)와 《서북양계지도 西北兩界地圖》 중 〈관북총람도 關北總覽圖〉(26)(그림 50)에는 ‘대택 주팔십리(大澤 周八十里)’가 나타난다.



그림 49. 《북관장파지도》

주: 1. 《북관장파지도》에서 발췌한 백두산 부분.
2. ‘대택주팔십리’에 장방형으로 표시하였음.



그림 50. 《서북양계지도》 중
〈관북총람도〉

주: 1. 《동국대지도》에서 발췌한 백두산 부분.
2. ‘대택주팔십리’에 장방형으로 표시하였음

천지의 또 다른 명칭인 ‘달문담(闕門潭)’은 『만주원류고』, 『길림통지』, 정약용의 『여유당전서』 등에 나타난다.

선조의 발상지인 장백산은 높이 이백리, 천여리에 걸쳐있는 산이다. 수목이 울창하고 경관이 수려하며 부흥의 기운이 서려있는 곳이다. 산 위에는 달문이라는 못이 하나 있는데 둘레가 80리이다. 물은 깊고 광활하게 흘러 압록, 혼동, 애호 삼강의 수원이 된다.¹⁰⁸⁾

길림부성에서 동남쪽으로 육백여리 떨어진 곳에 장백산이 있다. 높이는 2백여리 되고 산 정상에 달문이라는 못이 있는데, 둘레가 29리 이다. 달문 북쪽으로는 기이하게도 물이 유출되는 곳이 있는데, 송화강이 북쪽으로 흘러나간다. 송화강은

108) 『만주원류고 滿洲源流考』 권 1 「부족 部族」 1,

先世發祥於長白山是山高二百餘里綿更千餘里樹峻極之雄觀萃扶輿之靈氣山之上有潭曰闕門周八十里源深流廣鴨綠混同愛濬三江之水出.

즉 혼동강이며 본명은 송아리오랍이고, 위나라에서는 속말수, 당에서는 속말, 요에서는 압자하개, 혼동강이라 불렀다.¹⁰⁹⁾

개국방략에서 말하기를, 장백산의 정상에 못이 있는데, 달문이라 했다. 둘레는 80리에 달하며 깊고 넓게 흐르는데, 압록강 혼동강 애호 삼강의 수원이 된다고 하였다.¹¹⁰⁾

우리나라에 소장된 고지도 중에는 ‘달문담’이라는 명칭이 표기된 것이 없다. 그러나 일본 천리대부속 천리도서관에 소장된 《좌해여지도 左海輿地圖》 중 〈동국팔도대총도 東國八道大總圖〉(27)(그림 51)에는 천지가 ‘달문담(達門潭)’으로 표기되어있다. 같은 지도첩 《좌해여지도》 중 〈함경도 咸鏡道〉(28)(그림 52)에는 ‘달문담(達門潭) 주팔십리(周八十里)’ 라고 표기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만주원류고』 등 중국문헌에 대한 정보가 있었지만, 천지에 대한 표기를 ‘달문담(達門潭)’ 보다는 ‘대지’ 또는 ‘대택’으로 사용했다.



그림 51. 《좌해여지도》 중 〈함경도〉

- 주: 1. 《좌해여지도》 중 〈함경도〉에서 발췌한 백두산 부분
- 2. ‘달문담 주팔십리’에 장방형으로 표시하였음

109) 『길림통지 吉林通志』 권 22의 「여지지 輿地志」 10 중 山川 5, 수도 상(水道 上) · 송화강지수 松花江之水 1

長白山在吉林東南去府城六百餘里高二百餘里基嶺油潭曰關門周二十九里有奇松花江出基北松花江即混同江也本名松阿哩烏拉魏曰速末水唐曰粟末遼曰鴨子河改曰混同江

110) 정약용(丁若鏞)의 『여유당전서 與猶堂全書』 제6집, 「대동수경 大東水經 · 만수(滿水), 開國方略云長白山之上有潭曰關門周八十里源深流廣鴨淥混同愛濇三江之水出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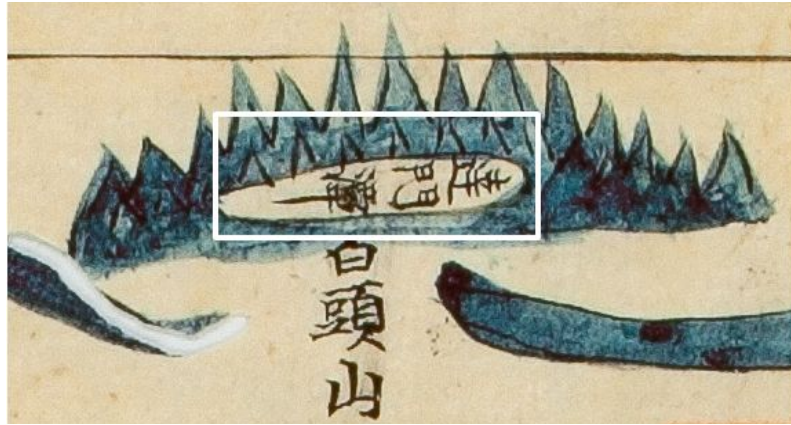


그림 52. 《좌해여지도》 중 <동국팔도대총도>

- 주: 1. 《좌해여지도》 중 <동국팔도대총도> 에서 발췌한 백두산 부분.
2. '달문담'에 장방형으로 표시하였음.

'달문담'은 우리나라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동아일보의 탄생을 축하하는 1920년 4월 20일 동아일보 기사에 '네 기상의 장엄함은 흰구름인 백두산 갖기를, 네 이상의 웅심함은 밋모르는 달문담 갖기를'이라는 부분이 있다. 백두산 천지를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깊은 '달문담(達門潭)'으로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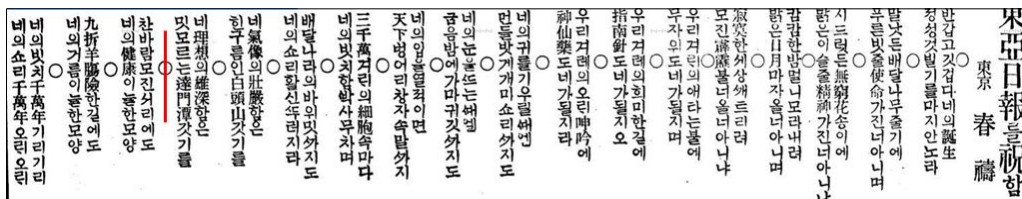


그림 53. '조선일보를 축하' 중 '달문담'

주: 동아일보 1920년 4월 20일 기사.

1920년 7월 25일 또 다른 동아일보의 기사 '조선민족과 문화상으로 본 백구 백인'에는 백 가지 민족의 문화상을 열거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첫 번째는 백두산인데, 그 내용에는 '산정에 화구호가 있어서 천지라 달문담이라 용담이라 하니'라는 부분이 있다. 당시 천지를 '달문담', '용왕담' 등으로 명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세기 초 백두산은 한민족의 정체성, 한민족 역사를 통사적으로 파악하면서 특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었고 당시 겪고 있는 고통의 의미와 미래의 유토피아적 청사진까지 보여주는 일종의 사회 종교 차원의 의미

를 부여하는 거대 담론으로 변모하였다.¹¹¹⁾ 두 기사를 통해 백두산은 당시의 민족주의적 담론에서 대표적인 아이콘으로써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스토리텔링에 어울리는 천지의 명칭으로 ‘달문담(達門潭)’이 상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45년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벗어나고서도 백두산은 민족의 정통성을 공인하는 상징으로서 여전히 운용되었다. 1946년 작가 유병우와 이극로의 「백두산」은 이러한 민족주의적 담론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백두산 정상은 ‘천지(天池)’로 명명되고 있다. 백두산과 천지는 근대 민족주의적 담론 주제의 아이콘으로 상징화되었는데, 학문이나 정보 등 일본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을 일제강점기에는 ‘천지(天池)’와 함께 ‘달문담(達門潭)’이 혼용되었고, 조선의 독립 이후에는 ‘천지(天池)’로 명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4. ‘조선민족과 문화상으로 본 백구백인’ 중 ‘關門潭’

주: 동아일보 1920년 7월 25일 기사.

영겁을 뚫어 창공에 높이 솟은 이 산 위에서/ 우리들 옛 아버지가 내리셨다는 거룩한 신비경/ 맑은 물을 담은 천지(天池) 거울에 그림자 비치며/ 태고의 마음을 품고 경건한 목도를 드린다.

북으로 흘러 이 물줄기 만주의 별을 씻고/ 남으로 내려 장한 혈맥이 땅으로 퍼졌으나/ 옛날 같은 겨레가 살던 근역은 움쳐 들어/ 이제 동서로 나뉜 한 띠 물이 국경을 지었다.// 『백두산』 (전문, 1946) 유병우

111) 장원석, 2010, 민족의 상징, 백두산의 탄생, 백두산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p.387.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이라!/ 하늘 위냐? 하늘 밑이냐?/ 하늘에 오르는 사
닥다리로나!/ 진세의 더러운 기운/ 발 밑엔들 어찌 미치리//

(중략)

이는 곧 천지(天池)/ 예로부터 이 물 맞아/ 득천한 이 얼마뇨!//

(하략)

『백두산』(1946) 이극로



그림 55. 《관북지도》 중 <갑산부>
주: 1. 《관북지도》 중 <갑산부>에서
발췌한 백두산 부분.
2. '천상근'에 장방형으로 표시하였음.



그림 56. 《전세보》 중 [조선·만주지도]
주: 1. 《전세보》 중 [조선·만주지도]에서
발췌한 백두산 부분.
2. '천상근'에 장방형으로 표시하였음.

천상근(天上近)은 고지도에만 나타나는 천지의 명칭으로 문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높은 산 정상에 있는 천지는 당시 사람들에게 하늘과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었고, 이러한 생각은 지도에 '하늘과 가깝다[天上近]'로 표현되었다. 일본 동양문고에 소장된 《관북지도 關北地圖》 중 <갑산부 甲山府> (그림 55), 《전세보 傳世寶》 중 [조선·만주지도 朝鮮·滿州地圖] (그림 56)의 백두산은 천지를 '천상근(天上近)'으로 표현하였다.

3) 백두산의 채색과 형태

(1) 채색을 통한 강조

고지도에서 평범하게 묘사되고 강조되지 않은 백두산이 다수 있는 반면, 봉우리와 산의 채색이 다양한 백두산 역시 많다. 갈색, 초록과 녹색, 두 색이 어우러진 화려한 채색, 황금색, 그리고 가장 많이 표현되는 채색은 흰색이다. 흰색으로 표현하는 경우, 봉우리 윗부분을 흰색으로 채색하여 백두산이라는 명칭을 잘 표현하거나, 산 전체를 흰색으로 채색하여 백두산을 다른 산보다 강조하는 경우가 있다.



그림 57. 《동국여지도》 중 〈동국대총〉
주: 《동국여지도》 중 〈동국대총〉에서
발췌한 백두산 부분.



그림 58. 《지도》 중 〈조선국팔도통합도〉
주: 《지도》 중 〈조선국팔도통합도〉에서
발췌한 백두산 부분.

《동국여지도 東國輿地圖》 중 〈동국대총 東國大摠〉(29)(그림 57)은 주요 산과 강만을 간략하게 표시한 목판 지도인데, 백두산을 가장 크게 그리고 그 명칭을 잘 표현하기 위해 백두산 봉우리만 음각으로 조각하여 백두산 봉우리 부분만 흰색으로 묘사했다. 《지도 地圖》 중 〈조선국팔도통합도 朝鮮國八道統合圖〉(30)(그림 58)의 백두산은 초록의 화려한 채색이 돋보인다. 특히 산 정상 봉우리 부분에만 흰색으로 채색하여 ‘머리가 하얀 산’이라는 이름을 잘 표현하였다. 조선 초기에 제작된 《팔도총도 八道總圖》(31)(그림 59, 69-1)는 지도의 박락이 크고 전체적으로 어두운 갈색으로 채색되어 있는데 황금색으로 채색된 백두산만이 유독 눈에 띈다. 《요계관방지도 遼薊關防地圖》(32)(그림 60)

는 산을 녹색과 청색으로 그렸고, 백두산만 흰색의 우뚝 솟은 큰 산으로 표현하였다. 요동에서 북경에 이르는 10폭 병풍 지도에서 흰색의 백두산은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강조되어 있다. 채색이 돋보이는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 海東八道烽火山岳地圖》(그림 61, 61-1)에서 흰 색의 백두산은 특히 강조되어 있다.



그림 59. 《팔도총도》

주: 《팔도총도》에서 발췌한 조선 북부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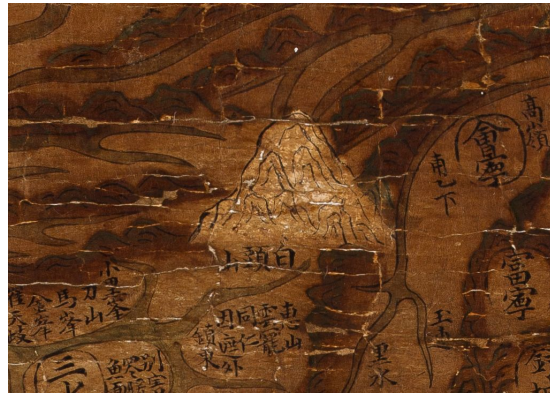


그림 59-1. 《팔도총도》

주: 《팔도총도》에서 발췌한 백두산 부분.



그림 60. 10폭 병풍에 그려진 《요계관방지도》



그림 61.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

주: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에서 발췌한 조선 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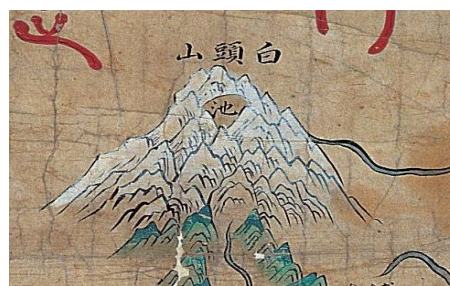


그림 61-1.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

주: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에서 발췌한 백두산 부분.

(2) 형태를 통한 상징

고지도에 백두산은 여러 가지 형태의 산으로 표현되어 있다. 우뚝 솟은 봉우리, 연첩된 형태의 봉우리, 중첩된 형태의 봉우리, 또는 연첩되고 중첩된 봉우리, 우뚝 솟은 웅장한 산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표현된 백두산의 모습이다. 일반적인 백두산의 묘사 외에 주상절리가 그려진 백두산과 불꽃모양의 봉우리가 중첩된 모습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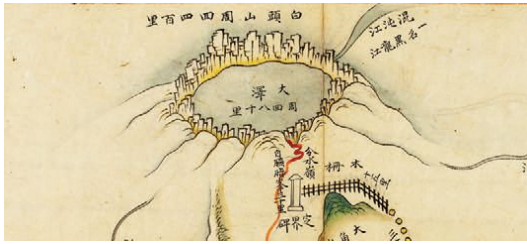


그림 62. 《장파지도》

주: 《장파지도》에서 발췌한 백두산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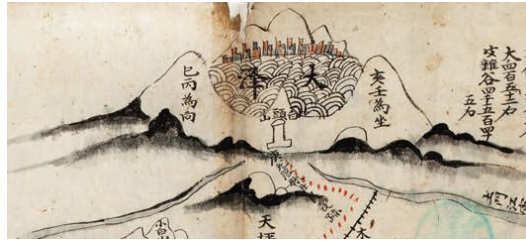


그림 63. 《북관지도》 중 <북도십읍>

주: 《북관지도》 중 <북도십읍>에서 발췌한 백두산 부분.

백두산과 백두산 동쪽 두만강 상류 무산 부분을 자세히 그린 《장파지도 長坡地圖》¹¹²⁾(그림 62)는 천지를 둘러싼 주상절리가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북관지도 北關地圖》 중 <북도십읍 北道十邑>⁽³³⁾(그림 63)은 수파묘 물결 무늬가 돋보이는 천지와 이를 둘러싼 주상절리, 그 바깥쪽을 다시 둘러싸 안은 연첩된 흰 봉우리로 표현되어 있다.

조선 후기의 지도 중에는 여러 봉우리를 중첩하여 불꽃 모양으로 묘사한 백두산이 등장하기도 한다. 정상기의 《동국지도》 유형과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유형의 지도에도 이러한 불꽃 모양으로 강조된 형태의 백두산이 묘사되어 있다. 《지도 地圖》 중 <함경도 咸鏡道>⁽³⁴⁾(그림 64, 64-1)에는 불꽃 모양의 백두산 위에 얼핏 보면 야자수처럼 보이는 커다란 ‘천년단목(千年檀木)’이 그려져 있다. “신단수는 단군의 영혼이 담긴 신령스러운 나무이며 ‘단’은 옛 말로 배달(우리 역사상 최초의 나라, 우리 민족을 지칭하는 단어¹¹³⁾)을 의미한다.

112) 《장파지도 長坡地圖》, 奎12160, 연대미상, 채색필사본, 71.0×108.5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박달은 와전된 말이다. [신단수(神檀樹)는 신인(神人) 단조(檀祖)의 자광(慈光)이 화피(化被)한 신목(神木)이라 단(檀)은 고어(古語)에 배달(倍達)이오 박달(朴達)로 와전(訛傳)한다.]¹¹⁴⁾ 『동국사략 東國史略』, 『신단실기 神壇實記』, 『단조사고 檀祖事考』, 『태백단가서 太白檀歌序』, 『권근응제시주 權近應製詩注』에는 “단군이 태백산단목에 내려오시었다[神降于太白山檀木下]”라고 기록되어 있다. 『단군고기 檀君古記』, 『제왕운기 帝王韻記』, 『세종실록지리지 世宗實錄地理志』, 『동국문헌비고 東國文獻備考』, 『단군민사 檀君民史』에는 “신단수에 내리다[神檀樹下]”라는 기록이 있다. 백두산에 단군의 영혼이 내렸다는 단목을 그려서 단군신화를 지도에 표현하였다. 민족 영산으로서 백두산의 신성함과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다.

《동국지도 東國地圖》 중 〈관북 關北〉(35)(그림 65)의 백두산은 중첩되고 연결된 봉우리가 불꽃처럼 솟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백두산의 힘찬 기상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림 64. 《지도》 중 〈함경도〉

주: 《지도》 중 〈함경도〉에서 발췌한 백두산부분.

11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14) 尹世復, 1959, 檀君考, 學術誌 2(1), 건국대학교, p.19.



그림 64-1. 《지도》 중 〈함경도〉

주: 《지도》 중 〈함경도〉에서 발췌한 백두산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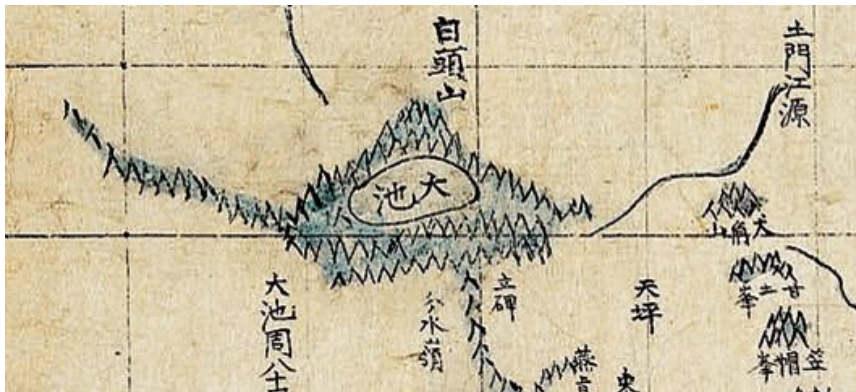


그림 65. 《동국지도》 중 〈관북〉

주: 《동국지도》 중 〈관북〉에서 발췌한 백두산부분.

3. 천하도에 그린 백두산

천하도(天下圖)는 조선 중기 이후 비교적 널리 보급된 지도첩의 첫 장 또는 마지막 장에 나타나는 세계지도이다. 지도의 형태는 바빌로니아에서 출토된 니토판(泥土版)에 새긴 세계지도와 비슷하다. 중세 유럽에 유행했던 T-O지도 등과 같이 원(圓)형의 세계를 바다 위에 떠있는 것으로 표현한 점도 유사하다. 그러나 내용은 전혀 다르며 이웃한 일본과 중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천하도가 있는 지도첩은 외국의 지도수집가, 도서관, 박물관 등에서 귀중본으로 다루어 왔고 한국 고유의 지도로 소개되어 왔으나 지도의 기원과 특징에 대해서는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¹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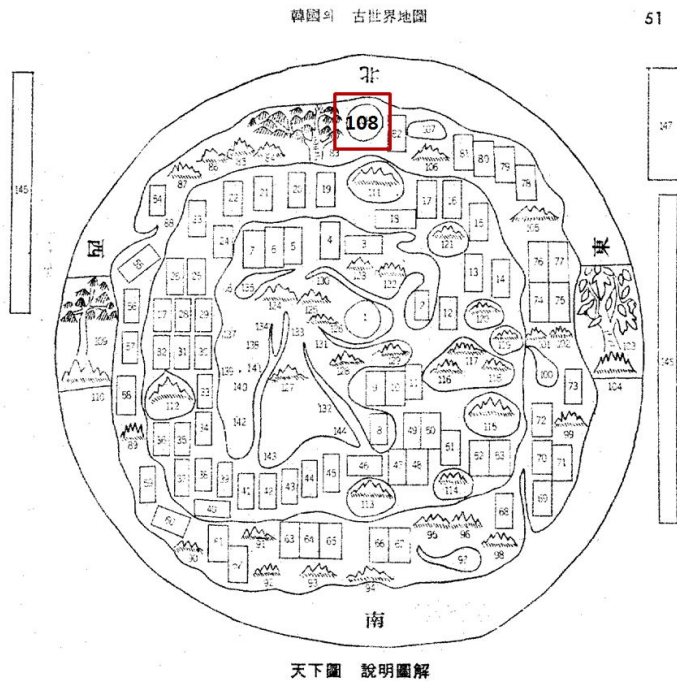


그림 66. 천하도 설명도해

- 주: 1. 이찬의 上揭書, p.51.
 2. 108번 위치에 번호를 표기하고 장방형으로 표시했음.

천하도의 기원은 조선 초기에까지 소급되나 실제로 전해지는 것은 대부분

115) 이찬, 1976, 한국의고세계지도-천하도와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 대하여-, 한국학보 12, 일지사, pp.48~49.

17세기 이후에 제작된 것이다.¹¹⁶⁾ 천하도에는 해안선(海岸線)·하계(河系)·산계(山系)·주현(州縣)·기타 지표에 실재하는 지리적 상황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둥근 원형의 천하 안에 푸른 채색의 내해와 외해가 있고, 그 사이에는 환상대륙(環狀大陸)이 있다. 내해 안에 있는 중앙대륙(中央大陸)에는 중국과 조선, 일본 그리고 산해경에 등장하는 상상의 국가들이 그려져 있다. 조선은 주로 길쭉한 타원 모양을 하고 있는데, ‘조선(朝鮮)’이라는 두 글자만 표기되어 있거나 ‘조선’ 위에 커다란 백두산이 묘사되어 있다.

天下圖에 나타나는 地名과 說明文 (第1圖와 天下圖 說明圖解 參照)

- | | | | | | |
|------------|------------|----------|--------------------|-------------------------|----------|
| 1. 中國 | 2. 朝鮮國 | 3. 肅慎國 | 4. 大封國 | 5. 赤脛國 | 6. 流鬼國 |
| 7. 大幽國 | 8. 安南國 | 9. 暹羅國 | 10. 眞臘國 | 11. 琉球國 | 12. 日本國 |
| 13. 明祖國 | 14. 陽國 | 15. 毛民國 | 16. 勞民國 | 17. 玄肢國 | 18. 拘緩國 |
| 19. 博父國 | 20. 眞耳國 | 21. 歐米國 | 22. 无陽國 | 23. 整禹國 | 24. 白民國 |
| 25. 深目國 | 26. 無殺國 | 27. 巫咸國 | 28. 桑梨國 | 29. 一目國 | 30. 大樂國 |
| 31. 髮屈國 | 32. 伽祗國 | 33. 羽民國 | 34. 長脚國 | 35. 三身國 | 36. 奇肢國 |
| 37. 臂國 | 38. 三首國 | 39. 殺國 | 40. 結育國 | 41. 厭火國 | 42. 貫肢國 |
| 43. 長臂國 | 44. 文脛國 | 45. 不死國 | 46. 岐吉國 | 47. 食木國 | 48. 長沙國 |
| 49. 足明國 | 50. 扶桑國 | 51. 蚩二國 | 52. 鳩始國 | 53. 小人國 | 54. 淑女國 |
| 55. 壽麻國 | 56. 軒轅國 | 57. 女子國 | 58. 雲和國 | 59. 火山國 | 60. 互人民國 |
| 61. 城民國 | 62. 羲和國 | 63. 驪頭國 | 64. 季禹國 | 65. 殺民國 | 66. 鬻人民國 |
| 67. 鼠性國 | 68. 墟民國 | 69. 女人國 | 70. 君子國 | 71. 中容國 | 72. 司幽國 |
| 73. 夏州國 | 74. 龍伯國 | 75. 仲太國 | 76. 少昊國 | 77. 俳人國 | 78. 大人國 |
| 79. 始州國 | 80. 背肩國 | 81. 无賜國 | 82. 深目國 | 83. 千里盤松 | 84. 奇山 |
| 85. 白山 | 86. 章尼山 | 87. 不周山 | 88. 寒暑水 | 89. 荒山 | 90. 融天山 |
| 91. 襄山 | 92. 天臺山 | 93. 倫山 | 94. 奕山 | 95. 倚天山 | 96. 蘇門山 |
| 97. 白淵 | 98. 待山 | 99. 堅門山 | 100. 甘淵 | 101. 甘山 | |
| 102. 招搖山 | 103. 扶桑 | 104. 波山 | 105. 衡天山 | 106. 系民 | |
| 107. 封淵 | 108. 大澤 | 109. 盤格松 | 110. 方山 | 111. 廣野山 | |
| 112. 麗農 | 113. 長離山 | 114. 連石山 | 115. 廣桑山 | 116. 蓬萊山 | |
| 117. 方丈山 | 118. 溫州山 | 119. 扶桑山 | 120. 丹榜山 | 121. 始射山 | |
| 122. 拳山 | 123. 恒山 | 124. 山門山 | 125. 華山 | 126. 崇山 | |
| 127. 三千子章山 | 128. 衡山 | 129. 天臺山 | 130. 黃河 | 131. 震水 | |
| 132. 赤水 | 133. 黑水 | 134. 洋水 | 135. 疏勒 | 136. 車師 | |
| 137. 繕善 | 138. 沙車 | 139. 大宛 | 140. 鳥孫 | 141. 月支 | |
| 142. 西域諸國 | 143. 蕃胡十二國 | 144. 樂陽 | 145. 泰山崇山華山衡山恒山內五岳 | 146. 廣野山麗農山廣桑山長離山崑崙山外五岳 | 147. 天下圖 |

그림 67. 천하도에 나타나는 지명과 설명문

- 주: 1. 이찬의 上揭書, p.52.
 2. ‘108번 대택’에 장방형으로 표기했음.

천하도에는 대택(大澤)이 있다. 이찬의 논문에 게재된 ‘천하도 설명도해’(그림 66)에서 북쪽 환상대륙 ‘108번’ 지명이다. 이찬은 108번 지명을 그림 76에서

116) 이찬, 1991, 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p. 344.

‘대택(大澤)’으로 표기하고, “환대륙 북쪽과 남쪽에 위치하는 대택(大澤)과 백연(白淵)은 극지방의 얼음에 덮인 호수나 북극해를 연상한다면 고대인들이 붙일 만한 지명이다.”¹¹⁷⁾라고 설명했다. 그가 설명하는 대택은 백두산의 천지가 아닌 극지방의 호수이거나 북극해이다. 백두산과 분리되어 그려진 대택이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볼 때 타당한 주장이지만 대택에 표기된 주기를 주목하고 천하도의 지도로서 성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조선팔도지도 朝鮮八道地圖》 중 〈천하지형 天下地形〉¹¹⁸⁾, 《축벽도 丑關圖》 중 〈천하도 天下圖〉¹¹⁹⁾, 《천하도 天下圖》 중 〈천하도 天下圖〉¹²⁰⁾에는 내해와 외해 사이 환상대륙의 정북(正北)에 대택이 있다. 중앙대륙에 위치한 백두산에서 북쪽으로 직선상의 위치이다. 동근 호수에는 ‘대택주방천리(大澤周方千里)’ 또는 ‘대택주만리(大澤周万里)’ 라는 주기가 있다. ‘주만리(周万里)’ 라는 표기는 ‘주방천리(周方千里)’ ‘방(方)’자의 오기인 것으로 추측된다. ‘대택’은 천지를 지칭하던 당시의 일반적인 명칭이며, ‘대택주방천리(大澤周方千里)’는 대명일통지의 천지에 관한 주기 ‘대택주팔십리(大澤周八十里)’와 비슷하다. 지도에서 천지를 강조하기 위해 백두산 안에 그리지 않고, 백두산과 분리하여 지도의 가장 북쪽 중앙에 크게 그린 것으로 보인다. 지표의 실제 모습을 그대로 그리지 않는 천하도 표현의 특징을 참고할 때, 천지를 따로 그리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지도의 북쪽 중앙에 천지를 묘사함으로써 백두산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을 지도에 표현하였다.

고지도에 표현된 백두산 이칭에는 다양한 정보와 지식이 반영되어 있고, 색과 형태 등의 묘사에 따라 각기 다른 주제를 상징하기도 한다. 다양한 천지 명칭과 표현 역시 백두산의 상징성과 의미를 반영한다. 고지도에 나타나는 백두산 표현과 묘사는 백두산에 관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민족의 영산이라는

117) 이찬, 上揭書, pp.52~53.

118) 《조선팔도지도 朝鮮八道地圖》, 중 〈천하지형 天下地形〉 古4709-13, 18세기 말, 채색필사본, 19.8×31.1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19) 《축벽도 丑關圖》 중 〈천하도 天下圖〉, 62, 연대미상, 채색필사본, 23.4×19.3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120) 《천하도 天下圖》 중 〈천하도 天下圖〉, 1017, 19세기, 목판본,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인식과 중요성을 총체적으로 표출해 준다.



그림 68. 《조선팔도지도》 중 <천하지형>



그림 69. 《천하도》 중 <천하도>



그림 70. 《축벽도》 중 <천하도>



그림 71. 그림 68, 69, 70의 천지 부분



그림 72. 《축벽도》 중 〈친하도〉
주: 대택, 백두산부분 확대도.



그림 73. 《조선팔도지도》 중 〈친하지형〉
주: 대택, 백두산부분 확대도.

고지도에는 백두산으로부터 분수계를 이루는 하천이 표현되어 있지만, 하곡이 뚜렷하지 않은 현상으로 인해 백두산 동북부 지역의 하천은 피표분수령이 명확치 않다. 따라서 복잡한 동북부 하천들은 고지도에서도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다. 고지도를 통해 백두산에서 북동류하는 하천과 동류하는 쟁점하천들을 자세히 고찰한다면 역사적 문헌만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다른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4. 요약

분석대상 고지도를 백두산 표현과 관련하여 ‘백두산 명칭’, ‘천지 표기’, ‘백두산 표현의 특징’, ‘주기’의 네 가지 항목으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이 가운데 ‘백두(白頭)’를 포함한 ‘백두산(白頭山)’ 명칭은 129점으로 가장 많았고, 백두산과 장백산을 함께 표기한 명칭은 ‘백두산 청여도 장백산(白頭山淸輿圖長白山)’, ‘백두산 피운 장백산(白頭山彼云長白山)’, ‘백두장백(白頭長白)’, ‘백두산 피명 장백산(白頭山彼名長白山)’등으로 표현되며 6점이다. 백두산과 장백산 두 개의 산이 그려진 경우도 6점이며, ‘장백산(長白山)’ 표기는 17점, ‘백산(白山)’과 ‘태백산(太白山)’은 각각 1점이다. 그 외에 백두산의 명칭 표기가 없는 지도는 5점이다. 고지도의 주제, 표현하고자 하는 정보와 인식에 따라 백두산의 명칭이 달라지기도 하고 채색과 형태는 다르게 표현되었다.

첫째, ‘태백산’은 또 다른 백두산의 명칭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단군이 내려온 신성한 산으로 민족의 영산이라는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

둘째, ‘백산’은 글자 간격과 ‘백산’으로 표기된 다른 고지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점 때문에 ‘두(頭)’자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백산’이라는 특징적인 명칭이 고지도에 드러나도록 산 전체를 흰색으로 채색했다면 글자 누락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 불함산(不咸山)’으로 표기한 고지도는 없지만 《청구도》류 지도의 백두산 옆 주기에 나타나며, 하늘의 자손이 내려온 산으로서 천(天) 계승의 의미를 가진다. 다른 지역에 비해 백두산 관련 주기가 많이 있는 것은 당시 백두산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을 반영한다.

넷째, ‘장백산’은 단독으로 표기된 경우와 ‘백두산(白頭山) · (長白山)’ 두 가지 산명이 함께 표기된 경우가 있다. 단독으로 표기된 경우는 중국의 지도를 저본으로 만주지역을 그린 고지도와 조선전도에서 나타나는데, 장백산으로 표기된 산은 지도에 평범한 산으로 표현되어 있다. 조 · 청 국경회담이후 그린 지도에 백두산을 청에서 부르는 명칭인 ‘장백산’으로만 표기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것은 평등하지 못했던 회담의 과정을 시사해 주기도 한다. ‘백두산(白頭山) · (長白山)’ 두 가지 산명이 함께 표기된 경우, ‘백두산’ 표기를 더 강조하여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명칭을 상대적으로 돋보이게 표현하기도 했다. 조 · 청간의 경계지역을 그린 지도가운데 백두산에 대한 양국의 호칭을 병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도가 표현하는 주제와 지역의 범주에 따라 백두산에 대한 명칭의 표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천지 명칭과 관련해서는, 대지(大池)와 대택(大澤)의 표기가 각각 31점과 30점으로 가장 많았고, 지(池) 4점, 천상근(天上近) 2점, 달문담(達門潭)이 2점 나타났다. 문헌상에 등장하는 ‘천지’는 고지도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명칭 표기가 없는 경우는 88점이다. ‘지’는 ‘대지(大池)’와 ‘대택(大澤)’보다 이른 시기의 고지도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달문담’은 일본에서 그린 조선전도에 나타나는 표기로, 일본에서 명명되던 천지의 명칭으로 추측된다. 문헌에 등장하지 않는 ‘천상근’은 고지도에만 나타나는 명칭이다.

백두산에 ‘천년단목(千年檀木)’을 그린 지도는 매우 특징적이다. ‘천년단목(千年檀木)’을 통해 단군신화의 내용을 지도에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민족 영산으로서 백두산의 신성함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조선 후기 민간에서 유행했던 천하도에는 백두산에서 분리된 천지가 독립적으로 지도의 북쪽 중앙에 묘사되어 있다. 백두산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지도에 표현된 백두산 명칭에는 다양한 정보와 지식이 반영되어 있고, 채색과 형태 등의 묘사에 따라 각기 다른 주제를 상징하기도 한다. 다양한 천지 명칭과 표현 역시 백두산의 상징성과 의미를 반영한다. 백두산에 관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민족의 영산이라는 인식과 중요성은 고지도에 묘사된 백두산을 통해 총체적으로 나타난다.

IV. 고지도에 표현된 쟁점이 되는 백두산 북동류 하천



그림 74. 쟁점이 되는 백두산 북동류 하천 수계도

- 주: 1. 이 장에서 논의 될 쟁점이 되는 백두산 북동류 하천에 음영으로 표시하였음.
 2. 지도의 범위 설정 문제로 흑룡강은 그리지 않았음. 흑룡강은 지도 밖 북쪽에 위치함.

표 7. 쟁점이 되는 백두산 북동부 유로

쟁점이 되는 백두산 북동부 유로		기호
두만강 북쪽 흑룡강이 동류하는 유로		A
두만강과 흑룡강 사이 속평강이 동류하는 경우		B
토문강 또는 분계강을 포함하는 유로	토문강이 북향하여 흐르는 경우	C
	토문강과 분계강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경우	D
	토문강 또는 분계강이 동향·동북향으로 흐르다 하류에서 두만강과 합류하는 경우	E
백두산에서 두만강으로 이어지는 유로		F

표 8. 고지도에 나타난 쟁점이 되는 백두산 북동부 유로와 1·2강설

쟁점이 되는 백두산 북동부 유로	1강설과 2강설	지도 수 (점)		비율 (%)
A	.	11	13	8.13
	1강설	0		
	2강설	2		
B	.	4	7	4.38
	1강설	1		
	2강설	2		
C	.	0	2	1.25
	1강설	0		
	2강설	2		
D	.	10	35	21.88
	1강설	2		
	2강설	23		
E	.	3	11	6.88
	1강설	3		
	2강설	5		
F	.	4	76	47.50
	1강설	69		
	2강설	3		
유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	16		10.00
총		160		100

분석대상 고지도를 백두산 동북부 유로와 관련하여 ‘동북부 유로’, ‘1강설과 2강설’, ‘분계강의 의미’, ‘유로의 특징’으로 구성된 네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유형화하였다.¹²¹⁾ 표 7과 같이 쟁점이 되는 백두산 북동부 유로를 기호

121) 부록 4 『백두산 동북부 유로 유형 목록』 참고.

화하고, ‘고지도에 나타난 쟁점이 되는 백두산 북동부 유로와 1·2강설’을 표로 만들었다. 쟁점이 되는 백두산 북동부 유로는 두만강 북쪽 흑룡강이 동류하는 유로(A), 두만강과 흑룡강 사이 속평강이 동류하는 유로(B), 토문강 또는 분계강을 포함하는 유로 중 토문강이 북향하여 흐르는 경우(C)·토문강과 분계강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경우(D)·토문강 또는 분계강이 동향·동북향으로 흐르다 하류에서 두만강과 합류하는 경우(E), 백두산에서 두만강으로 이어지는 유로(F)의 6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이 유형을 바탕으로 1강설과 2강설이 나타나는 수계를 구분하였다. 이 장에서는 위 표의 하천유형 분류를 바탕으로 고지도에 표현된 쟁점이 되는 백두산 동북부 하천을 분석하고, 하천 표현에 나타나는 인식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쟁점이 되는 백두산 동북부 하천은 송화강, 속평강, 아야고하, 황화송구자(토문강) 등이다.

1. 송화강과 속평강에 나타나는 영토의식 확대와 고토회복 의지

1) 확대된 영토의식을 반영하는 송화강-흑룡강¹²²⁾

조선 전기에 제작된 조선전도에는 한반도와 함께 흑룡강 이남의 만주지역까지 모두 표현되어 있다. 조선 북부지역인 관서와 관북, 만주지역은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소략하고 압축적으로 그려져 있으며 하천의 표현도 명확하지 않다. 특히 백두산 동쪽 수계는 서쪽 수계보다 3분의 1 가량으로 짧게 표현되어 있다. 조선전기 지도인 《팔도지도 八道地圖》(36)(그림 75)와 《조선국도 朝鮮國圖》(37)(그림 76), 《팔도총도 八道總圖》(그림 77)에는 북부 지역과 만주지역이 압축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하계망의 표현도 부정확하지만, 흑룡강(黑龍江)·송화강(松花江) 등 두만강 북쪽의 하천까지 묘사되어 있다. 6가지로 구분한 유로의 유형 가운데 A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흑룡강 유역의 만주지역까지 조선의 전도에 표현하였다. A유형에는 백두산 북쪽 흑룡강까지 조선의 영역으로 표현한 확대된 영토 의식이 나타난다.



그림 75. 《팔도지도》

- 주: 1. 《팔도지도》에서 발췌한 조선 북부지역, A유형.
2. 지도 안에 지명을 확대하여 표기하였음.

122) 송화강은 백두산(白頭山)의 천지(天池)에서 발원하여 북서쪽으로 흘러 길림성 북서단의 삼분하(三岔河)에서 남류하는嫩江(嫩江)을 합친 뒤 북동쪽으로 유로를 바꾼다. 하얼빈을 거쳐 이란(依蘭)에서 목단강(牡丹江)을 합치고, 다시 가목단(佳木斯)를 지나 흑룡강성 북동단에서 본류인 흑룡강에 합류한다.: <http://100.naver.com/100.nhn?docid=103851> 네이버백과사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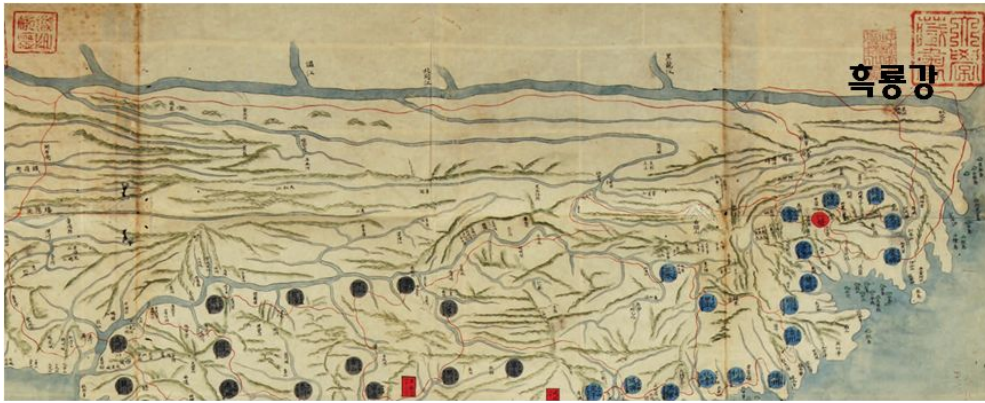


그림 76. 《조선국도》

- 주: 1. 《조선국도》에서 발췌한 조선 북부지역, A유형.
2. 지도 안에 지명을 확대하여 표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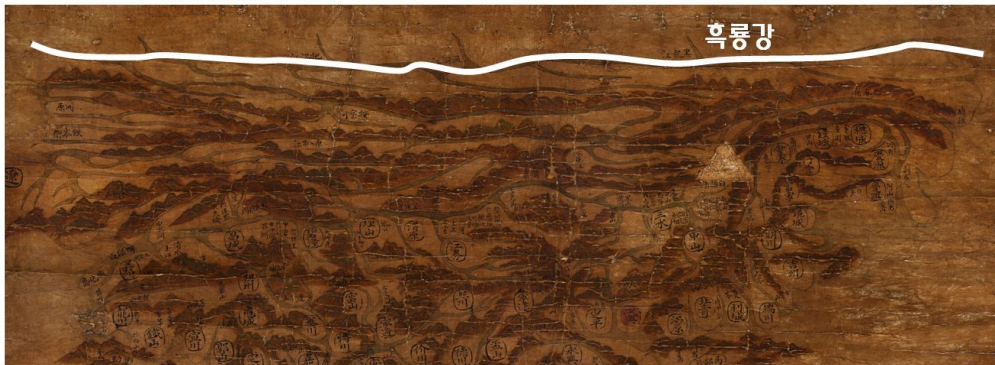


그림 77. 《팔도총도》

- 주: 1. 《팔도총도》에서 발췌한 조선 북부지역, A유형.
2. 지도 안에 지명과 주요 하천을 확대하여 표기하였음.

17세기에 제작된 《조선팔도고금총람도 朝鮮八道古今揔覽圖》¹²³⁾(그림 78)에는 압록강과 두만강이 동서 일직선상에 있다. 평안도와 함경도가 남북으로 심하게 압축된 모양을 하고 있으며 두 개의 백두산이 나란히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지도에는 두 개의 백두산이 있는데 동쪽은 ‘장백산’, 서쪽은 ‘백두산’이다. ‘장백산(長白山)’에서 ‘백두산(白頭山)’으로 흐르는 하천에는 ‘송화강’이라 표기

123) 《조선팔도고금총람도 朝鮮八道古今揔覽圖》, 서13145, 보물 제1602호, 김수홍(金壽弘), 1673년, 목판본, 141.8×107.0cm, 서울역사박물관.

되어 있고, ‘백두산’에서 동쪽으로 흘러 동해로 유입되는 하천에는 ‘흑룡강’으로 표기되어 있다. 송화강-흑룡강 남쪽으로는 두 강과 평행하게 흐르는 강이 있는데 ‘백두산(白頭山)’에서 발원하며, 서쪽으로는 압록강이, 동쪽으로는 두만강이 흘러 동해로 유입된다.

《조선팔도고금총람도》에는 의도적으로 두 개의 백두산을 각각 다른 이름으로 지도에 표현¹²⁴⁾하여 백두산을 강조하였다. A유형에 속하며, 백두산과 장백산의 동쪽 수계로 두만강이 아닌 송화강과 흑룡강을 그렸다. 흑룡강 유역까지 조선의 영역으로 매우 확대하여 표현한 17세기 영토의식을 보여준다.



그림 78. 《조선팔도고금총람도》

- 주: 1. 《조선팔도고금총람도》에서 발체한 조선 북부지역, A유형.
2. 지도 안에 주요 하천과 지명을 확대하여 표기하였음.

2) 속평강과 아야고하

《조선팔로지도 朝鮮八路地圖》(그림 79)는 1767년에 제작된 조선전도로, 두만강 북쪽에 송화강과 혼동강이 흐른다. 유로의 표현은 A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흑룡강 유역의 만주지역까지 조선의 전도에 표현하여 확대된 조선의 영토를 표현하였다. 그리고 『동국여지승람』의 기술대로 속평강인 소하강·수빈강이 백두산에서 동북류¹²⁵⁾하여 과거 선춘령 공험진 부근을 지나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 속평강 남쪽으로는 백두산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두만강이 있다. 백두산에서 북동류하는 쟁점이 되는 유로는 북쪽에서부터 송화강-혼동강 유로, 속

124) 본 논문 III-2. ‘고지도에 표현된 두 개의 백두산’ 참고.

125) 지도상에서 백두산의 동쪽을 두만강으로 보았을 때, 속평강은 동북류하고 있다.

평강(소하강-수빈강)유로, 두만강 유로이다.



그림 79. 《조선팔로지도》

- 주: 1. 《조선팔로지도》에서 발췌한 조선 동북부지역, A유형.
2. 지도 안에 주요 하천과 지명을 확대하여 표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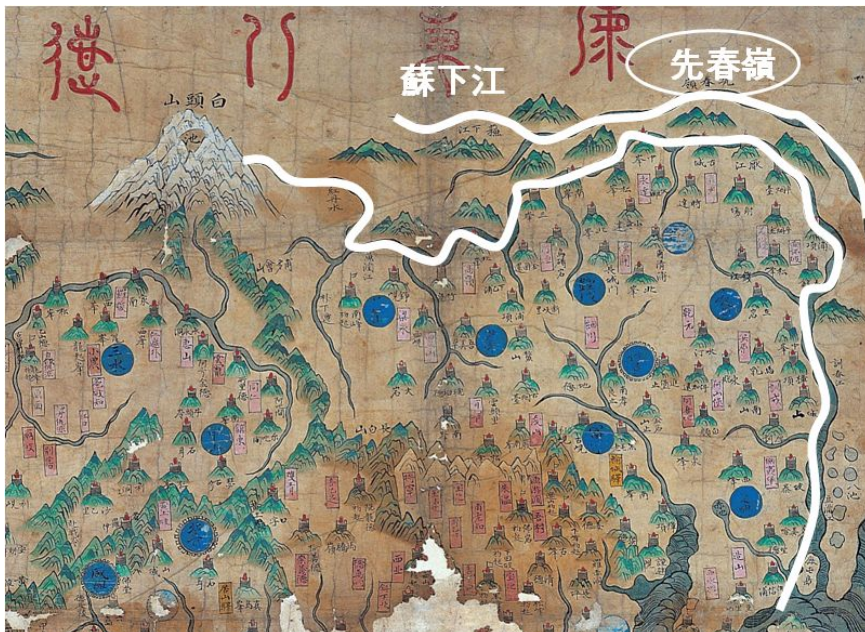


그림 80.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

- 주: 1.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에서 발췌한 조선 동북부지역, B유형.
2. 지도 안에 주요 하천과 지명을 확대하여 표기하였음.

17세기 후반에 제작된 조선전도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 海東八道烽火山岳地圖》(38)(그림 80)와 1710년대에 제작된 조선전도 《동국여지지도 東國輿地之圖》(그림 81)의 쟁점이 되는 백두산 북동부 하천의 유형은 B이다. 두 지도에서 속평강(소하강-수빈강)은 선춘령 공험진 부근을 흘러 동해로 유입된다. 속평강 이남으로 두문하(豆門河)와 합류되는 두만강이 백두산에서 동류하여 동해로 유입되고 있다.



그림 81. 《동국여지지도》

- 주: 1. 《동국여지지도》에서 발췌한 조선 동북부지역, B유형.
2. 지도 안에 주요 하천과 지명을 확대하여 표기하였음.

《조선팔로지도》,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 《동국여지지도》에는 토문강이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토문강과 두만강의 1강설과 2강설은 나타나지 않는다. 세 지도에 공통적으로 표현된 속평강(소하강-수빈강)은 백두산에서 북동류하는 두만강 북쪽의 강으로 고려 윤관이 영토를 넓히고 정계비를 세운 선춘령 공험진 지역을 흘러 동해로 유입된다. 조선 전도에 표현된 가장 북쪽 유로가 두만강 북쪽에 흐르는 속평강이며, 속평강이 공험진 부근을 흐른다는 것은 당시 이 지역을 살았거나 관찰했던 사람들이 이 공간까지 조선의 영역으로

포함하여 생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82. 《삼한일람도》 중 〈함경도〉

- 주: 1. 《삼한일람도》 중 〈함경도〉에서 발췌한 조선 동북부지역, B유형.
2. 지도 안에 주요 하천과 지명을 확대하여 표기하였음.

《삼한일람도 三韓一覽圖》 중 〈함경도〉 (39)(그림 82)지도에서 백두산 북동부 유로 중 가장 북쪽의 하천은 수빈강(愁濱江), 즉 속평강으로 B유형에 속하며 토문과 두만을 각기 다른 강으로 표현한 2강설을 나타내고 있다. 《여지전도 輿地全圖》(그림 83)와 《각국도 各國圖》 중 〈천하전도 天下全圖〉(그림 84)는 중국 중심의 세계지도로, 장백산(백두산)에서 북동류하는 유로가 단순한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하천의 유형은 두만강 북쪽의 백두산에서 북동류하는 속평강(수분하)이 있는 B유형이다. 공통적으로 두 지도에서 장백산에서 북동류하는 가장 북쪽의 유로는 속평강(수분하)이다. 그리고 장백산에서 북동류하는 또 다른 유로 중 속평강 남쪽에서 속평강과 평행하게 흐르는 토문강이 있다. 《여지전도》에는 토문강 남쪽으로 토문강과 평행하게 동류하는 두만강이 있는데, 두만강과 토문강은 각각 별개의 강으로 2강설이 나타난다. 《각국도》 중

〈천하전도〉에는 토문강 남쪽에 두만강이 없다. 토문강은 두만강과 같은 강으로 지도에는 1강설이 표현되어 있다.



그림 83. 《여지전도》

- 주: 1. 《여지전도》에서 발췌한 조선 동북부지역, B유형.
2. 지도 안에 주요 하천과 지명을 확대하여 표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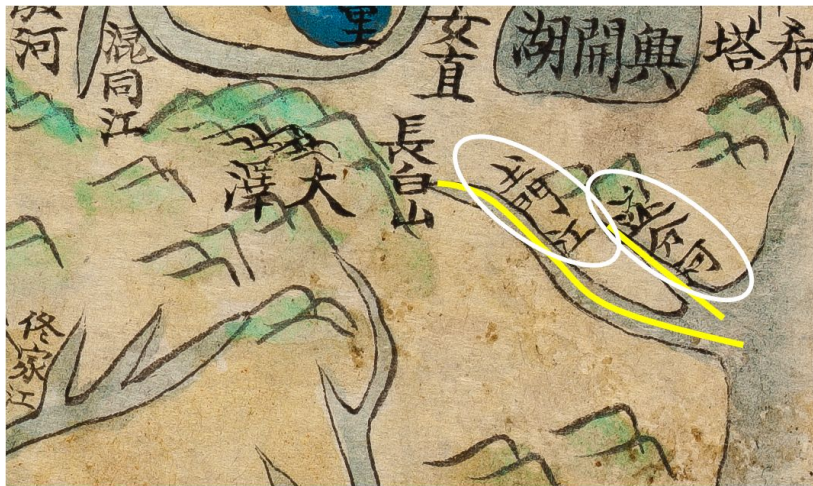


그림 84. 《각국도》 중 〈천하전도〉

- 주: 1. 《각국도》 중 〈천하전도〉에서 발췌한 조선 동북부지역, B유형.
2. 지도 안에 주요 하천과 지명을 확대하여 표기하였음.

17세기 후반, 18세기 고지도 중에는 백두산에서 북동류하여 공험진 부근을 흘러 동해로 유입되는 속평강이 표현되어 있고, 속평강 남쪽에는 백두산에서 동류하는 두만강이 있다. 『동국여지승람 東國輿地勝覽』, 『조선왕조실록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나는 ‘백두산에서 북류 또는 북동류하는 두만강 북쪽의 속평강이 공험진·선춘령 부근을 지난다’는 기술과 부합한다.

북호봉(伏胡峯) [부의 동쪽에 있는데, 본부 사람들이 진산(鎭山)으로 삼는다.] 대천(大川)은 두만강(豆滿江)과[부의 동북쪽에 있다. 그 근원이 백두산(白頭山)에서 나오는데, 동쪽으로 흘러서 동량북(東良北)으로부터 사지(舍知)·오음회(吾音會)·수주(愁州)·동건(童巾)·다운(多溫)·미전(迷錢) 등지를 지나 회질가(會叱家)에 이르고, 남쪽으로 흘러서 소다로(所多老)·동림(東林)·오롱초(吾弄草)·아오지(阿吾知) 등지를 거쳐 공주(孔州)를 지나고, 동쪽으로 23리를 흘러서 사차마도(沙次尓島)에 이르러 갈라져 5리 정도쯤 흘러서 바다로 들어간다.] 수빈강(愁濱江)이다. [두만강 북쪽에 있다. 그 근원은 백두산 아래에서 나오는데, 북쪽으로 흘러서 소하강(蘇下江)이 되어 공험진(公險鎭)·선춘령(先春嶺)을 지나 거양성(巨陽城)에 이르고, 동쪽으로 1백 20리를 흘러서 수빈강이 되어 아민(阿敏)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사방 경계 [四境]는 동쪽으로 바다에 이르기 20리, 서쪽으로 경성(鏡城) 두롱이현(豆籠耳峴)에 이르기 40리, 남쪽으로 연해(連海) 굴포(掘浦)에 이르기 12리, 북쪽으로 공험진에 이르기 7백 리, 동북쪽으로 선춘현(先春峴)에 이르기 7백여 리, 서북쪽으로 오음회(吾音會)의 석성기(石城基)에 이르기 1백 50리이다.¹²⁶⁾

세조의 명을 받아 『팔도지리지』를 완성한 조선전기 최고의 지리학자 양성

126) 『조선왕조실록 朝鮮王朝實錄』, 『세종실록 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 함길도(咸吉道) 길주목(吉州牧) 경원도호부(慶源都護府) :<http://sillok.history.go.kr>.

伏胡峯[在府東, 府人以爲鎭山]大川曰豆滿江、[在府東北, 源出白頭山, 東流自東良北, 歷舍知、吾音會、愁州、童巾、多溫、迷錢等處, 至會叱家, 南流, 過所多老、東林、吾弄草、何吾知等處, 歷孔州東流二十三里, 至沙次尓島, 分流五里許入海] 愁濱江、[在豆滿江北, 源出白頭山下, 北流爲蘇下江, 歷公險鎭、先春嶺, 至巨陽城, 東流一百二十里, 爲愁濱江, 至阿敏入海] 四境, 東距海二十里, 西距鏡城豆籠耳峴四十里, 南距連海掘浦十二里, 北距公險鎭七百里.

지의 『세종실록 世宗實錄』 권1, 원년 7월의 기록, ‘우리나라는 요수 동쪽의 만리지국이며.. [吾東方世居遼水之東號爲萬里之國..]’라는 표현은 중국과의 경계에 있어서 우리나라 영토에 관해 확대된 인식을 보여준다. 서거정(徐居正)은 『동국여지승람 東國輿地勝覽』 서문을 통해, 선춘령에 이르는 백두산 동북지역의 확대된 인식을 표현했다.

오도양계의 지리를 정하면서 서쪽의 끝은 압록강으로 한정하여 고구려의 영역에 못미쳤지만, 동북은 선춘령지역을 경계로 하여 고구려의 동북지역을 넘어섰다.¹²⁷⁾

『명일통지 明一通志』에는 장백산 동쪽으로 아야고강이 흐른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동국여지승람』에서는 ‘백두산에서 북동류하는 속평강은 아야고하일 것’ 이라고 표현하였다.

장백산은 옛 회령부(會寧府) 남쪽 60리 지점에 있는데, 천리에 뻗어 있으며 높이는 200리이다. 그 꼭대기에 연못이 있는데 둘레는 80리이다. 남쪽으로 흘러 압록강(鴨綠江)이 되고, 북쪽으로 흘러 혼동강(混同江)이 되며, 동쪽으로 흘러 아야고강(阿也苦江)이 된다.¹²⁸⁾

『동국여지승람』 백두산 부분의 기술은 『명일통지』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명일통지』에는 백두산 동쪽으로 아야고강이 흐른다고 되어있지만, 『동국여지승람』에는 동쪽으로 두만강이 흐른다고 기술되어 있다. 하나의 물줄기를 더 언급하여 동북쪽으로 소하강(속평강)이 흐르는데, 이 강이 아야고강일 것이라고 기술했다.

127) 『東國輿地勝覽』, 序文

定爲五道兩界地理之盛於斯極矣但西北以鴨綠爲限東北以先春嶺爲界蓋西北不及高句麗而東北過之.

128) 『명일통지 明一通志』 권 89, 「여직산천 輿直山川」, ‘장백산(長白山)’

在故會寧府南六十里橫亘千里高二百里其嶺有澤周八十里淵深莫測南流爲鴨綠江北流爲混同江東流爲阿也苦河.

백두산은 즉 장백산이다. 회령부 서쪽 팔백리에 있고 산은 세 층이며, 높이는 200리에 달한다. 천여리에 걸쳐 있으며 산 꼭대기에는 못이 있는데 둘레가 80리이다. 남쪽으로 흘러 압록강(鴨綠江)이 되고, 북쪽으로 송화강이 흘러 혼동강(混同江)이 되며, 동북쪽으로 소하강이 흘러 속평강이, 동쪽으로 흘러 두만강이 된다. 대명일통지에서는 동쪽으로 흘러 아야고강(阿也苦江)이 된다고 했는데, 속평강이 아닌가 싶다. 이 강은 두만강 바깥쪽 야인의 땅을 흐른다.¹²⁹⁾

최부(崔溥)의 『표해록 漂海錄』에는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하천에 대한 설명이 있다. 동쪽으로 흐르는 두만강, 남쪽으로 흐르는 압록강, 서북쪽으로 흐르는 송화강과 송화강의 하류인 혼동강에 관해 기술했다. 그리고 동북쪽으로 흐르는 속평강을 언급했다.

장백산은 동북쪽에 있는 산으로 일명 백두산이다. 높이 이백여 리, 산 정상에 못이 있는데 둘레는 80여 리 이다. 동쪽으로 흘러 두만강, 남쪽으로 흘러 압록강, 동북쪽으로 흘러 속평강, 서북쪽으로 흘러 송화강이 되는데 송화강의 하류는 혼동강이다.¹³⁰⁾

『동국여지승람』 권 50, 「함경도 咸鏡道」; ‘경원도호부(慶源都護府)’, 수빈강(愁濱江) 조에는 수빈강이 소하강(속평강)이며, 백두산에서 북류하여 과거 공험진 선춘령을 지나 동류하여 바다로 유입된다는 기술이 있다. 이 기록을 통해 수빈강과 속평강, 소하강이 같은 강을 지칭하는 명칭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백두산으로부터 원류하여 북쪽으로 흐르는 소하강은 속평강이라고도 하며,

129) 『동국여지승람 東國輿地勝覽』 권 50, 「함경도 咸鏡道」, ‘회령도호부(會寧都護府)’ 백두산 부분. 白頭山即長白山也在府西八百程山三層高二百里橫亘千里其頭有澤周八十南流爲鴨綠江北流爲松花江爲混同江東北流爲蘇下江爲速平江東流爲豆萬江大明一統志東流爲阿也苦河也疑指速平江也以下流豆萬江外野人地面.

130) 최부(崔溥), 『표해록 漂海錄』 금남선생표해록 권1 (錦南先生漂海錄卷之一) 2월 4일. 山川則長白山在東北一名白頭山橫亘千餘里高二百餘里其巔有潭周八十餘里東流爲豆滿江南流爲鴨綠江東北流爲速平江西北流爲松花江松花下流即混同江也.

공협진 선춘령을 지나 거양에서 동류하여 아민을 지나 바다로 유입한다.¹³¹⁾

위에 기술한 『명일통지』, 『동국여지승람』, 『조선왕조실록』, 『표해록』을 토대로 백두산에서 동류, 북동류 하는 하천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백두산에서 동류, 북동류하는 하천

문헌	백두산에서 동류하는 하천	백두산에서 북동류하는 하천
『명일통지』	아야고강	언급 없음
『동국여지승람』, 『조선왕조실록』, 『표해록』	두만강	속평강=수빈강=소하강, 아야고강

『명일통지』와 『동국여지승람』에 기술된 아야고하와 속평강에 관하여 이화자는 『명일통지』는 『동국여지승람』에 영향을 주었는데, 『동국여지승람』에서 아야고하를 두만강이 아닌 속평강으로 기술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속평강이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동북쪽으로 바다에 흘러가는 듯 착각한 것이며, 이것은 잘못된 인식을 『동국여지승람』에 기록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백두산에서 동류하는 강은 아야고강이며, 아야고강은 두만강이고 즉, 속평강이라는 논지를 펼치고 있다.

이화자는 논지를 전개하며 『동국여지승람』 권 50, 「함경도 咸鏡道」, ‘경원도호부(慶源都護府)’, 수빈강(愁濱江) 부분의 기술을 참고하였는데, 논문에 원문을 실지 않았고 “소하강 즉 속평강은 수빈강이라고도 칭하며 동북쪽으로 아민을 경유하여 바다로 흘러들어간다”¹³²⁾라고 기술했다. 원문의 전체 내용을 해석하면 “백두산으로부터 원류하여 북쪽으로 흐르는 소하강은 속평강이라고도

131) 『동국여지승람』 권 50, 「함경도 咸鏡道」; ‘경원도호부(慶源都護府)’, 수빈강(愁濱江)
爲出白頭山北流爲蘇下江一作速平江歷公險鎮先春嶺至巨陽東流一百二十里至阿敏入于海.

132) 이화자, 2008, 「명칭시기 중한지리지에 기술된 백두산과 수계」, 『문화역사지리』 20(3), p.33.

하며, 공험진 선춘령을 지나 거양에서 동류하여 아민을 지나 바다로 유입한다.”이다. 이화자는 “속평강이 공험진 선춘령을 지난다”는 중요한 부분은 해석에서 누락시켰다. 공험진 선춘령은 분명 백두산의 동북쪽에 있다.

B유형의 고지도와 문헌의 기록을 통해 다음 세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두만강 바깥쪽 야인의 땅 부근을 흐른다는 속평강은 백두산 동북쪽을 흐르는 것이 맞다. 『동국여지승람』에 속평강이 백두산 동북쪽으로 흐른다고 기술한 것은 명확한 근거가 있으며, 착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둘째, 『명일통지』에서 아야고하는 백두산 동쪽으로 흐른다고 기술되어 있지만, 『동국여지승람』에서는 백두산 북동쪽으로 흐르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동국여지승람』은 『명일통지』의 영향을 받았지만¹³³⁾, 백두산 동쪽 수계에 관하여 독자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기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쟁점이 되는 백두산 북동부 유로 중 B유형은 속평강 유역까지 조선의 영역을 확대하여 인식한 적극적 의지를 표출하였으며,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고지도에 반영되었다.

3) 속평강과 분계강에 담긴 고토회복 의지

쟁점이 되는 백두산 북동부 하천의 유형 가운데 E유형은 B유형과 형태가 유사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 결정에 활용하기 위해 편찬한 군현지도집 《해동지도 海東地圖》 중 〈서북피아양계전도 西北彼我兩界全圖〉(40)(그림 85)의 쟁점이 되는 백두산 동북부유로는 분계강과 두만강, 건을가토강이다. 백두산 동남쪽 정계비 부근에서 두만강이 발원하고, 백두산 동북방향으로 건을가토강(件乙加土江·건가퇴강·포얼허투하)과 분계강(分界江)이 발원한다. 두 강은 감토봉이 끝나는 지점에서 합류한 후 온성 부근에서 두만강으로 유입된다. 건을가토강 북쪽으로 풍사강(豐事江)이 있는데, 풍사강에는 ‘백두산에서 발원한다.[源出白頭山]’이라는 표기가 있다. 북쪽에서부터 풍사강, 건을가토강, 분계강, 두만강은

133) 이화자, 上揭書, p.33.

백두산에서 북동류하는 유로이며, 풍사강과 건을가토강 사이에는 선춘령 공협진이 있다. B유형의 지도에서 공협진 지역 부근을 흐르는 속평강이 E유형에서는 분계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85. 《해동지도》 중 <서북피아양계전도>

- 주: 1. 《해동지도》 중 <서북피아양계전도> 에서 발췌한 조선 동북부지역, E유형.
- 2. 지도 안에 주요 하천과 지명을 확대하여 표기하였음.

《각국도 各國圖》 중 <서북피아양계도 西北彼我交界圖> (41)(그림 86)에는 백두산에서 동북류하는 분계강이 있다. 분계강은 ‘윤시중입비처 고려경(尹侍中立碑處 高麗境)’이라고 표기된 ‘철(凸)’자 모양의 정계비 부근을 흐른다.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西北彼我兩界萬里一覽之圖》(그림 87)에서도 분계강은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백두산에서 동북류하는 분계강은 ‘윤문숙공정계비(尹文肅公定界碑) 고려경(高麗鏡)’ 부근을 흘러 동해로 향한다. 정계비는 고려 윤관 장군이 선춘령을 넘어 공협진에 세운 비석이며, ‘문숙’은 윤관의 시호이다. 두 지도에서 분계강은 B유형의 지도에서 공협진 지역 부근을 흐르는 속평강과 같은 강이다. 한편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에는 토문강이 두만강과 같은

강으로, 1강설이 나타난다.



그림 86. 《각국도》 중 <서북피아교계도>

- 주: 1. 《각국도》 중 <서북피아교계도> 에서 발췌한 조선 동북부지역, E유형.
 2. 지도 안에 주요 하천과 지명을 확대하여 표기하였음.



그림 87.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 주: 1.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에서 발췌한 조선 동북부지역, E유형.
 2. 지도 안에 주요 하천과 지명을 확대하여 표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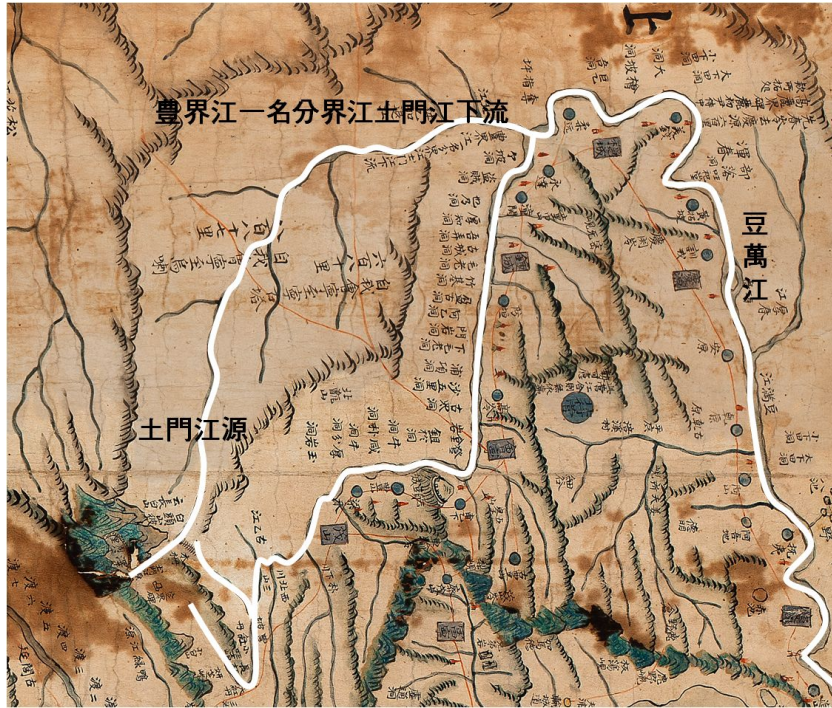


그림 88. 《청구관해방총도》

- 주: 1. 《청구관해방총도》에서 발췌한 조선 동북부지역, E유형.
 2. 지도 안에 주요 하천과 지명을 확대하여 표기하였음.



그림 89. 《대한전도》 중 <대한전도>

- 주: 1. 《대한전도》 중 <대한전도>에서 발췌한 조선 동북부지역, E유형.
 2. 지도 안에 주요 하천과 지명을 확대하여 표기하였음.

《청구관해방총도 靑丘關海防總圖》(그림 88)와 《대한전도 大韓全圖》 중 〈대한전도 大韓全圖〉(그림 89)의 쟁점이 되는 백두산 동북부 유로는 E유형이다. 백두산에서 동북류하는 분계강이 두만강과 합류하여 동해로 유입된다. 분계강은 토문강과 같은 강이며, 두만강과 별개의 강으로 표현되어 토문강과 두만강이 서로 다른 강인 2강설을 나타내고 있다.

조선 후기에 속평강을 분계강으로 인식한 이유는 조선 전기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의 영향 때문이다. 18세기 이후 ‘분계강’에 관한 지식과 정보가 논의되면서 실학자들 사이에서는 분계강이 17, 18세기에 언급되었던 속평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익(李瀼)은 『성호사설 星湖僿說』에 백두산 동북쪽으로 흐르는 속평강을 분계강이라고 기술했다.

전씨(田氏)라는 손님이 와서 말하기를, “국내의 산천은 두루 다녀서 아무리 깊은 데라도 가지 않은 곳이 없다. 일찍이 백두산 절정에 올라가 보니 무산(茂山)에서 멀지 않더라.” 하면서 나에게 자세히 말해주었다. 『여지승람』에, “백두산은 회령부(會寧府) 서쪽에 있으니 7~8일 길의 거리다. 산 정상에 못이 있는데 남으로 흐르는 것은 압록강(鴨綠江)이 되고, 북으로 흐르는 것은 송화강(松花江)과 혼동강(混同江)이 되고, 동북으로 흐르는 것은 소하강(蘇下江)과 속평강(速平江)이 되고, 동으로 흐르는 것은 두만강(豆滿江)이 되었다.”고 하였다. 『대명일통지』에, 동쪽으로 아야고하(阿也苦河)가 흐른다고 했는데, 속평강을 말하는 것 같다. 또한 이것은 분계강이다.¹³⁴⁾

서영보(徐榮輔)의 『만기요람 萬機要覽』에는 토문 북쪽 분계강에 정계비를 세우는 것이 마땅하며, 이곳은 토문강의 발원지라고 기술했다. 그리고 윤관이 영토를 확장하여 비를 세운 곳은 속평강 유역인데, 김종서 때 와서 두만강유역에 경계를 정하고 영토가 줄어든 것을 한탄하였다. 즉, 그는 윤관이 확장한 영토의 부근을 흐르던 속평강을 분계강으로 인식하고, 이곳에 정계비를 세우는

134) 『성호사설 星湖僿說』 권2, 「천지문 天地門」 〈백두산〉 조.

嘗有客田畝者至云踏遍國內山川無幽不到亦曾陟白頭山絕看距茂山界不遠爲余頗詳道焉捷輿地勝覽白頭山在會寧府西七八日程其嶺有澤南流爲鴨綠江北流爲松花江爲混同江東北流爲蘇下江爲速平江東流爲豆滿江大明一統志東流爲阿也苦河疑指速平江也亦稱分界江.

것이 마땅하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여지도(輿地圖)에는 분계강이 토문강의 북쪽에 있다 하였으니, 강의 이름이 분계인 만큼 정계비는 마땅히 여기에 세워야 한다. 또 비문에 동쪽은 토문강이 된다 하였으니 또한 토문강의 발원지이다. 식자들이 당시에 아무도 다투어 밝히지 못하고, 수백 리의 강토를 앗아서 잃고 말았다는 것에 한탄하였다고 한다. 옛적에 윤관이 영토를 확장하여 속평강까지 이르렀는데, 그때 세운 비가 아직도 남아 있다. 김종서 때에 와서는 두만강으로 경계를 정하였으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윤관의 비로 증거를 세워서 따지지 못했음이 당시의 사명을 면 자의 잘못임을 한스럽게 여긴다.¹³⁵⁾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 정약용(丁若鏞)도 『여유당전서 與猶堂全書』에서 백두산 동북쪽으로 흐르는 강을 속평강으로 기술하였다.

승람에서 이르길, 백두산 정상에 못이 있는데 둘레는 80여 리 이다. 남쪽으로 흘러 압록강, 북쪽으로 흘러 송화강이 되는데 즉, 혼동강이다. 동북쪽으로 흐르는 소하강은 속평강이다. 동쪽으로 두만강이 흐른다.¹³⁶⁾

윤관이 영토를 확장하고 정계비를 세운 공험진 부근을 흐르는 속평강과 분계강은 같은 강이며, 고지도에 표현된 분계강을 통해 조선 후기 확대된 고토회복에 대한 강한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속평강-분계강에 내포된 고토회복에 대한 인식은 토문강·두만강 1·2강설과는 별개의 의미를 가진다.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와 《청구관해방총도》, 《대한전도》 중 〈대한전도〉는 공통적으로 속평강과 같은 분계강을 표현하였지만,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는 1강설을, 《청구관해방총도》와 《대한전도》 중 〈대한전도〉는

135) 『만기요람 萬機要覽』 군정편(軍政編)5, 「백두산정계 白頭山定界」·군려대성(軍旅大成)
輿地圖分界江在土門江之北江名分界則定界碑當豎於此且碑文既曰東爲土門則亦當豎於土門之源識者歎其無一人爭辨坐失數百里疆土云昔尹瓘拓境至速平江遺碑尚在至金宗瑞以豆滿江爲界國人猶恨不能以尹碑爭執爲奉命者之失.

136) 『여유당전서 與猶堂全書』 제 6집, 「대동수경 大東水經」 녹수 1(淥水一)
勝覽云白頭山其巔有潭周八十里南流爲鴨淥江北流爲松花江爲混同江東北流爲蘇下江爲速平江東流爲豆滿江.

2강설을 나타내고 있다.

표 10. 백두산 동류, 북동류 하천에 나타나는 북방영역 인식

북방영역 인식	하천	시기
매우확대	송화강-흑룡강	조선 전기
확대	속평강(수빈강, 소하강)	17, 18세기
	분계강	18, 19세기

2. 황화송구자(토문강)에 담긴 영토에 대한 적극적 의지

1) 백두산에서 북류하는 토문강

백두산에서 북동류하는 하천은 두만강 북쪽의 송화강-혼동강과 흑룡강, 속평강, 분계강이다. 흑룡강은 조선전도에서 가장 북쪽의 수계를 나타내는 강이며, 속평강은 흑룡강과 두만강 사이의 하천으로 고려 윤관이 정계의 비를 세웠다는 공험진 부근을 흐른다.



그림 90. 《백두산정계비지도》

- 주: 1. 《백두산정계비지도》 백두산 동북부지역, A유형.
 2. B지역은 흑룡강 유역임.
 3. 지도의 방위를 별도로 표시했음.

백두산과 정계비를 주제로 그린 《백두산정계비지도 白頭山定界碑地圖》 137)(그림 90)는 백두산 천지에서 북동쪽으로 송화강이 흐르다가 흑룡강과

합류한다. 정계비에서는 석퇴·토퇴·목책이 이어지고 ‘토문강원(土門江源) 일명분계강(一名分界江)’이 북동쪽으로 흐르다가 북쪽에서 평행하게 흐르던 송화강과 합류한다. 흑룡강, 송화강, 토문강, 분계강은 두만강 북쪽의 하천이며 두만강은 백두산 남쪽 삼지(三池) 부근 여러 곳에서 발원한다. 지도에서는 토문강과 분계강을 하나의 강으로 표현했으며, 토문강과 두만강은 별개의 다른 강으로 2강설이 나타난다. 토문강은 백두산 부근에서 북류하여¹³⁸⁾ 송화강과 합류한 후, 다시 흑룡강과 합류한다. 지도의 B 유역까지 조선의 영역으로 표현한 A유형의 수계가 나타나며 매우 확대된 영토인식이 표현되어 있다.

2) 황화송구자(이알력개·삼포)·하유송구자(이도강)·오도백하

황화송구자(黃花松溝子)는 청에서 부르는 명칭으로 조선에서는 이알력개(伊婭力蓋) 또는 삼포(杉浦)라고 명명했다. 목극등의 정계 당시 정계비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강은 황화송구자이며, 이중하는 황화송구자를 토문강(土門江)으로 인식하였다.

하유송구자(下柚松溝子)는 1934년 대일본제국육지측량부에서 제작한 《만주 10만분 1도 백두산18호 滿洲10萬分1圖 白頭山18號》 지도에 표현된 하천으로, 이도강(二道江)의 상류이다. 사도백하 동쪽에서 평행하게 북향하는 이도강은 사도백하, 삼도백하, 이도백하 등과 합류하여 송화강으로 유입된다.

오도백하(五道白河)는 중국 현대 지도에 표현된 하천이다. 백두산 천지와 원지 사이에서 발원하며 북쪽으로 흐르다가 사도백하, 삼도백하, 이도백하 등과 합류하여 송화강으로 유입된다.

(1) 을유감계와 정해감계

1869년, 1870년 대흥년으로 관북지방을 넘어 간도로 향하는 월경민이 발생

137) 《백두산정계비지도 白頭山定界碑地圖》, 奎26676, 연대미상, 필사본, 97.6×56.9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38) 백두산에서 두만강으로 이어지는 수계의 방위는 백두산 동쪽이며, 이것을 기준으로 토문강과 흑룡강의 방위를 나타내었음.

하기 시작했다. 이중하는 농경지로서 적합하지 않은 관북지방에 비해 바라보이는 땅이 탁 트이므로 농경의 유혹이 생긴다고 언급했으며, 두만강 건너 만주가 지니는 농경지로서의 가치는 매우 큰 것이었다.¹³⁹⁾ 『백두산정계비자료 白頭山定界碑資料』¹⁴⁰⁾중 함경북도 경흥감리겸해삼 통상사무(慶興監理兼海蔘 通商事務) 황우영(黃祐永)이 외부대신(外部大臣)에게 올린 「의견서 意見書」는 간도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韓人)은 2만여 호에 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청국 관리들의 침탈과 학대가 심하므로 한인을 보호하기 위해 토문강을 경계로 청과 국경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건의를 상부에 올리기 위해 작성한 문서이다.

우리와 청 양국 경계의 일대 두만강을 건너 월경한 우리 백성이 이만 여호를 넘고, 오로지 우리 백성은 개척을 위해 애쓰며 청인과 섞이여 살고 있다.¹⁴¹⁾

한편, 서북경략사 어윤중(魚允中)은 1882년 두만강유역 열읍을 답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여러 자료를 제시하며, 토문강은 송화강 상류이므로 간도 지방이 우리 영토라고 주장했다. 백두산정계비와 토문강 발원지에 관해서는 공동조사를 통한 국경 획정을 청나라의 현지 관료에게 제기했다.¹⁴²⁾ 조선정부는 청국의 조선인 쇄환 압력, 그리고 어윤중의 보고와 건의에 따라 청 정부에 변계조사에 대한 자문을 보냈다. 오히려 함경도안무사 조병직(趙秉稷)은 1885년 4월 청나라 훈춘 당국으로부터 조선 월경민들을 무력으로 축출하라는 통고를 받았다. 이에 조선정부는 청나라에 토문감계를 다시 요청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 이아당(二雅堂) 이중하¹⁴³⁾는 1885년과 1887년 두 차례 토문

139) 동북아역사재단, 2008, 역주 감계사등록(勘界使謄錄), 을유 12월 6일, 別單草.

140) 『白頭山定界碑資料』, 1903년(光武 7) 이후, 서울대규장각 한국학연구원 (奎25219).

141) 我清兩界而隔一帶豆滿江往在己庚大斂以後我民之越墾者概不下二萬餘戶欵地方開拓專由我民而若干清民雜處其間矣.

142) 1976, 북여요선(北輿要選) 하, 탐계공문고(探界公文攷), 경문사, pp. 92~95.

143) 1882년 증광문과(增廣文科)에 급제한 이후 정부의 주요 요직에 기용된 이아당(二雅堂) 이중하는

감계사(土門勘界使)로 임명되었다. 그는 청과의 국경문제를 확고히 하고 월경한 변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했다.

1차 감계회담은 1885년 9월 30일과 10월 1일에 있었던 을유감계회담(乙酉淸界會談)이다. 청측은 토문강과 두만강(도문강 圖們江)이 같은 강이라는 일강설을, 조선 측은 토문강·두만강 이강설을 전제로 각기 상반된 입장에서 회담을 시작하였다. 청은 1712년 정계에 관한 당안(문서)은 이미 남아 있지 않고, 정계비를 조사하는 것은 단지 토문강(두만강)에서 흐르는 데를 찾아 그 원류를 향해 거슬러 올라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하나의 증거에 불과하므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조선은 경계를 정하여 비석을 세운 것은 바로 양국의 경계를 표시한 것이 되므로 정계비를 먼저 살피고 비석의 경계를 조사한 후 두만강의 원류를 조사해야 한다는 강건한 입장으로 대응했다. 결국, 양측은 각각 인원을 내어 홍단수·서두수·홍토산수의 원류를 따라 백두산으로 향하는 세 길로 나누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중하와 중국과원 진영(秦煥)·가원계(賈元桂) 등은 홍토산수의 원류를 따라가며 정계비를 발견하고, 비문을 2장 탁본하여 중국 측과 각각 한 장씩 나누어 가진 후 산에서 내려왔다. 이중하는 비석은 대택(大澤·천지)의 남쪽 기슭 10리쯤에 있고, 비석의 서쪽 부근 몇 걸음 떨어진 땅에 도랑이 있어 압록강의 원류가 되고, 비석의 동쪽 부근 몇 걸음 떨어진 땅에 도랑이 있어 토문강(土門江)의 원류가 된다고 했다. 잇달아 석퇴와 토퇴를 만든 것이 90리가 되고 언덕의 높이는 수척이 되며 언덕 위에 수목이 자생하였는데 이미 늙어 한 아름이 되는 나무는 그해에 마땅히 경계를 표시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대각봉 후미 중간에 이르러 도랑 모양이 갑자기 좁아지고 언덕이 문처럼 마주하고 있는데 예부터 이것을 토문이라 부른 것이며 두만강 상류의 여러 물들 가운데 봉퇴와 가장 가까운 것은 이 홍토산수의 발원처라는 것이다.¹⁴⁴⁾

1885년과 1887년 두 차례 토문감계사(土門勘界使)로 임명되고 1894년 동학농민운동 시 아산에 상륙한 청국군을 상대하는 아산청진영접관(牙山淸陳迎接官)으로 활약하며 청국과의 외교관계를 수행하였다.
144) 동북아역사재단, 2008, 역주 『감계사등록 勘界使謄錄』 상, 을유 12월 6일, 啓草.

1887년 2차 정해감계회담(丁亥堪界會談)은 4월 7일 회령에서 시작되어 윤사월을 거쳐 5월 28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되었다. 청측은 목극등의 정계비가 ‘분계지비(分界之碑)’가 아닌 ‘사변지비(查邊之碑)’¹⁴⁵⁾이기 때문에 분계와는 무관한 것이며, 이미 있는 기록과 조사들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새로 측량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양측 모두 도문(圖們)과 두만(豆滿)이 같은 강임은 동의했으나 조선 측은 토문과 두만은 별개의 강이라는 이강설을 고수하며 2차 감계 역시 1차 감계와 마찬가지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현답사에서 청국 대표는 억지로 자신들이 정하는 곳을 경계로 정할 것을 강요하였으나 이증하는 “내 머리는 자를 수 있을 것이나, 나라의 영토는 줄일 수 없다”고 단호히 맞섰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회담이 결렬되었지만 2차 감계 회담에서 회담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도를 작성한 것은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이 지도는 백두산 고지도의 수계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열쇠이다.

(2) 황화송구자 · 하유송구자(이도강) · 오도백하와 같은 토문강

《백두산정계비지도》(그림 91, 91-1, 91-2)는 1887년(광서 13년) 5월 26일 중국 감계관 방랑(方朗), 덕옥(德玉), 진영(秦煥), 조선감계사 이증하, 위원 팽한주(彭翰周)가 회담 이후 그린 지도이다. 백두산 천지와 원지 사이의 정계비에서 토퇴와 석퇴를 따라 황화송구자(黃花松溝子)가 북류한다. 천지의 달문(화구퇴, 火口瀨)을 따라 북류하는 이도백하와 백두산 북쪽에서 발원하여 북류하는 삼도백하, 사도백하와 합류한 후 송화강으로 유입된다. ‘황화송구자’는 1934년 대일본제국 육지측량부에서 제작한 《만주 10만분 1지도 백두산18호 滿洲10萬分1圖 白頭山18號》 지도(그림 92, 92-1)에서 상류부분에 ‘하유송구자(下柚松溝子)’로 표기된 ‘이도강(二道江)’이다. 19세기 후반 사학자이자 조선일보 사장을 역임한 안재홍(安在鴻)은 『백두산등척기 白頭山登陟記』에서,

145) ‘馬孟龍「穆克登查邊與《皇輿全覽圖》編繪」, 『中國邊疆史研究』, 제19권 제3기 pp.85~99’ 논문은 목극등의 변계조사활동을 조청간의 정계를 정하기 위함이 아닌 《황여전람도》 측회를 위한 사변조사(답사)였다고 주장.

토문강이 이도강이 되어 송화강에 들어간다고 기술한 바 있다.

이사이의 白頭山一帶에 큰 비가 업섯고 昨今數日은 快晴이 繼續되어 分水嶺 등성이에 乾燥한맛이잇고 土門江源인溪谷에도 물기운이업다 浮石의두터운벌이 수분을미트로 빨음으로 예서 十五里쯤은 여간해물가는일이업고 十五里를 나가서 大角峰 저비탈에서는 約百米突사이되는 壁立한兩岸이 흐릴업는土門으로되엇슴으로 土門江의일흐은 예서起原됨이오 江流가分明히시작된고장서부터 낙엽송의密林속을 東北으로四十里나迂回하여 북으로썩기어 約三十里의細流로 되고 滾滾한急流가 峻峭한峽谷의사이로흘러가기一白十五리에 二道江이 되어 松花江에들어가는것이니¹⁴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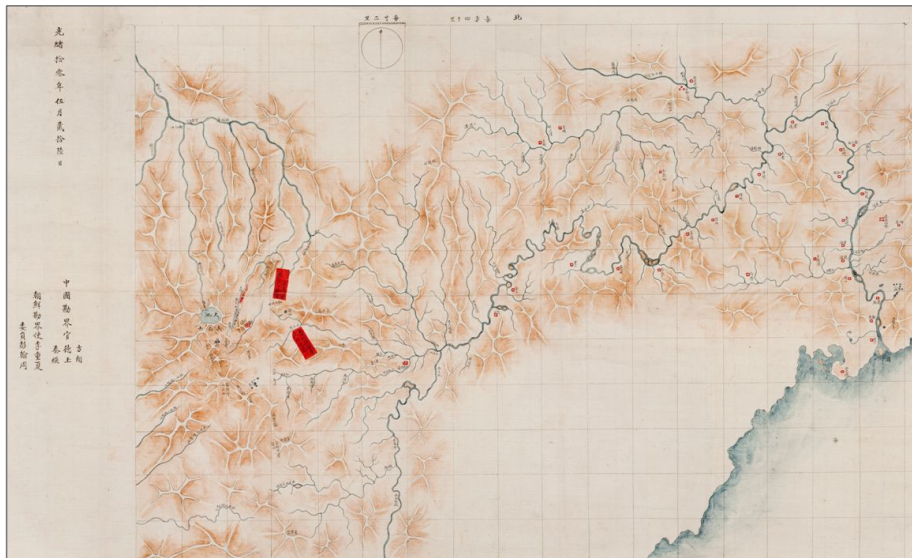


그림 91. 2차 정해감계회담 후 작성한 《백두산정계비지도》

‘하유송구자(下柚松溝子) · 이도강(二道江)’은 중국의 성구지도출판사(星球地圖出版社)에서 2010년에 출간한 『흑룡강 길림 요녕 교통도책 黑龍江 吉林 遼寧 交通圖冊』(그림 93, 93-1) 지도의 ‘오도백하’이다. 이중하가 정해감계회담 후 작성한 《백두산정계비지도》의 ‘황화송구자’, 백두산18호 지도의 ‘하유송구자 · 이도강’은 중국 현대 지도에 ‘오도백하’로 표기되어 있다. 현재 오도백하

146) 安在鴻, 1931, 白頭山登陟記, 류성사, p.51.

부근에는 송구자(松溝子)와 어원이 비슷한 ‘황송포림장(黃松浦林場)’이 존재한다. 이중하는 정계비에서 동쪽에서 흘러 송화강으로 합류하는 황화송구자를 두만강과 다른 토문강으로 인식했지만, 2차 감계회담에서도 청과 합일점을 찾지 못하자 한 발 물러서서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인정했다. 회담에서 양보를 했지만 두만강의 가장 상류인 ‘홍토산수(紅土山水)’¹⁴⁷⁾를 토문강(두만강)이라 주장하고, 이 물줄기에 ‘조선파원요차수정계(朝鮮派員要此水定界)’라는 표기를 했다. 청 측에서도 처음의 강경했던 입장에서 물러서서 가장 남쪽의 홍단수를 두만강의 수원으로 주장하지 않고, 홍단수와 홍토산수의 중간수계인 석을수에 ‘길림파원요차수정계(吉林派員要此水定界)’라는 표기 남겼다. 조선에서는 청의 뜻대로 무조건적으로 굽히지 않고 홍토산수를 경계로 타협하려 했지만 결국 회담은 결렬되어 회담의 과정과 결과를 그린 《백두산정계비지도》만이 남게 되었다. 조선의 감계사 이중하는 도문강의 정원(正源)을 경계로 정하고자 하는 청에 맞서, 오직 비퇴(碑堆)의 경계로 증거를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지도에 담아놓았다. 석퇴에서 이어지는 황화송구자(黃花松溝子·토문강)를 통해 그의 굳건한 주장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지도에는 황화송구자·하유송구자(이도강)·오도백하는 동일한 강이며 두만강이 아니라는 사실과 이중하의 영토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나타난다.

고지도에 나타난 백두산 동북부 쟁점하천은 송화강과 속평강, 그리고 황화송구자이다. 이 가운데 속평강은 조선후기, 백두산에서 동류하는 쟁점 하천 중 하나인 분계강과 같은 강으로 인식된다. 분계강과 더불어 쟁점이 되는 백두산 동류 하천은 토문강과 두만강으로 세 강은 조선 후기 고지도에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다. 고지도에 표현된 세 강의 고찰을 통해 문자기록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새로운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47) 현재 두만강의 수원으로 가장 북쪽의 홍토산수(紅土山水), 중간의 석을수(石乙水), 가장 남쪽의 홍단수(紅丹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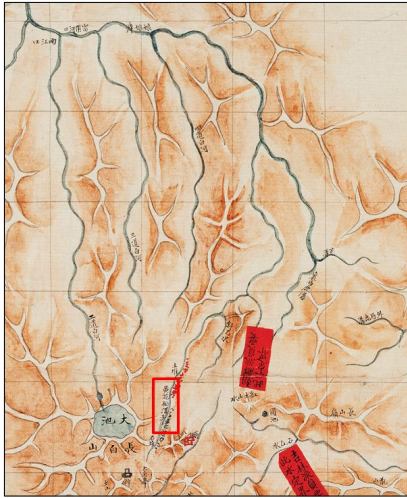


그림 91-1. <백두산정계비지도>

주: <백두산정계비지도>에서 발췌한 백두산 북류 하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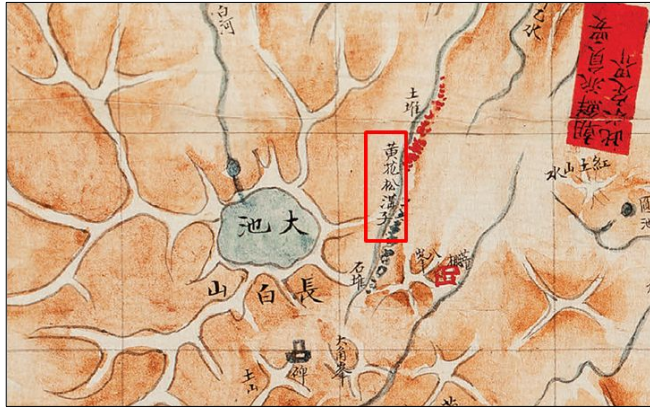


그림 91-2. <백두산정계비지도>

주: 1. <백두산정계비지도>에서 발췌한 백두산 부분
2. 주요 지명에 장방형 표시를 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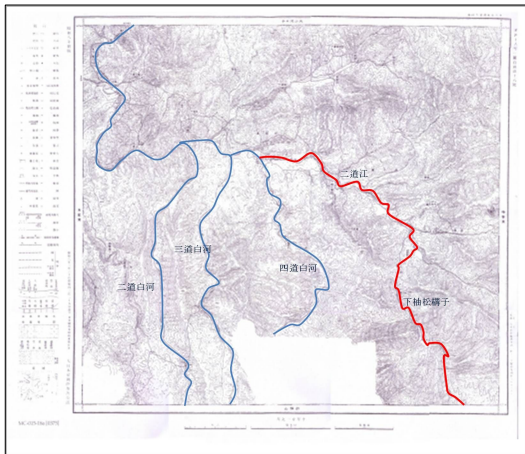


그림 92. <만주10만분1도 백두산1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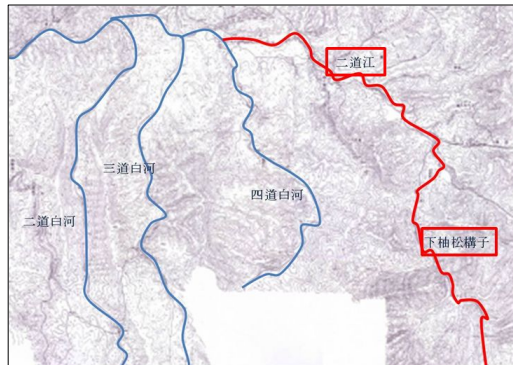


그림 92-1. <만주10만분1도 백두산18호>

주: 1. <만주10만분1도 백두산18호>에서 발췌한 백두산 북류 하천.
2. 주요하천을 표기하고 지명에 장방형 표시를 했음.

으로 표현한 A유형의 유로를 나타내는 고지도는 매우 확대된 영토인식을 담고 있다.

둘째, 『동국여지승람』에서 ‘백두산에서 북동류하는 속평강은 아야고하일 것’ 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일통지』의 ‘동쪽으로 흐르는 것은 아야고하이다’ 라는 내용을 부정한 것이다. 백두산에서 북동류하는 속평강을 통해 아야고하가 백두산에서 북동류한다는 인식을 표출했으며, 조선의 영역을 확대하여 인식한 적극적 의지와 사회적 인식이 고지도에 반영되었다. 백두산에서 북동류하여 공험진 부근을 흘러 동해로 유입하는 속평강을 표현한 17세기 후반, 18세기 고지도는 B유형의 유로를 나타낸다. 조선의 영역을 선춘령의 공험진 지역으로 확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다.

셋째, 18세기 후반, 19세기 이후에는 ‘분계강’에 관한 지식과 정보가 논의되면서 실학자들 사이에서는 분계강이 17세기 후반, 18세기에 언급되었던 속평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속평강과 일치되는 분계강 관념을 고지도상에 표현한 것은 조선 후기 확대된 고토회복에 대한 강한 의식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이중하가 정해감계회담 후 작성한 《백두산정계비지도》의 ‘황화송구자’는 1934년 대일본제국육지측량부에서 제작한 《만주 10만분 1지도 백두산 18호》 지도에 그려진 ‘하유송구자 · 이도강’이며, 중국 현대 지도의 ‘오도백하’이다. 황화송구자 · 하유송구자(이도강) · 오도백하는 동일한 강으로 이중하가 주장하는 토문강으로, 백두산에서 북류하는 C유형의 유로를 표현하고 있다. 두 만강과 다른 토문강은 이중하의 영토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여준다.

V. 고지도에 나타나는 쟁점이 되는 백두산 동류 하천



그림 94. 쟁점이 되는 백두산 동류 하천 수계도

주: 이 장에서 논의 될 쟁점이 되는 백두산 동류하천에 음영으로 표시하였음.

백두산에서 동류하는 하천에 관한 기록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고문헌에 다양하게 나타나며, 한국과 중국학자들의 해석과 견해의 차이 역시 크다. 다양한 기록 가운데 특히 쟁점의 대상이 되는 하천은 두만, 토문, 분계, 해란 이다. 토문(土門)이 두만(豆萬)이라는 해석과 토문(土門)은 송화강(松花江)이며 흑룡강(黑龍江)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가장 대조적인 논쟁이다. 그밖에 분계강(分界江)이 토문강(土門江)이며 두만강(豆萬江)과 별개의 강이라는 견해, 토문강(土門江)이 해란하(海蘭河)와 분계강(分界江)으로 이어진 후 두만강(豆萬江)과 합류한다는 견해, 분계강과 해란하(海蘭河)의 순서를 바꾸어 분계강(分界江)에서 해란하(海蘭河)와 건가퇴(件加堆)로 이어진 후 두만강(豆萬江)과 합류한다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기록들이 있다. 이 장에서는 하천의 유형분류를 바탕으로 쟁점이 되는 백두산 동류 하천에 관해 분석하고자 한다.

1. 유로 묘사 방법의 분류

백두산에서 동류하는 주요 쟁점 하천 토문강 · 두만강 · 분계강은 지도에 표현된 유로의 형태상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두 강과 북쪽 강 공백.



그림 95. 토문강, 분계강, 두만강의 형태 분류 1



그림 96. 《각도지도》 중 〈조선전도〉

- 주: 1. 《각도지도》 중 〈조선전도〉 에서 발취한 백두산 동북부지역.
2. 주요 하천에 표시를 했음.

북쪽에 있는 강은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흐르다가 중간에 끊기고 공백이 형성되어 있다. 공백 너머로 강이 다시 동류(별개의 다른 강이거나

또는 같은 강의 하류)하다가 백두산 아래쪽 소백산 부근에서 발원하여 동류하던 또 다른 하천과 무산 부근에서 합류한 후 동해로 유입된다. 두 강의 상류부근은 남쪽으로 뻗어 나가는 백두산맥으로 막혀있다. 《각도지도》 중 <조선전도> (그림 96)와 《해동여지도》 중 <조선전도> (42)(그림 97)에 표현되어 있다.



그림 97. 《해동여지도》 중 <조선전도>

주: 1. 《해동여지도》 중 <조선전도> 에서 발췌한 백두산 동북부지역.
2. 주요 하천에 표시를 했음.

2) 두 강을 잇는 목책과 북쪽 강 공백.

1712년 목극등과 접반사 일행은 정계비를 세우고 수원의 흐름이 끊겨 모호한 부분에 목책을 세워 한계를 정하자고 제안하였다.¹⁴⁸⁾ 당시의 상황이 반영된 고지도라면, 정계비에서 원류하는 강은 복류하는 부분에 목책을 그려

148) 총관이 또 산도(山圖)를 가리켜 보이며 말하기를, '수원의 흐름이 끊긴 곳이 이처럼 모호하여 분명하지 않아 만약 표지(標識)를 세우지 않는다면 피차 고거(考據)하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 목책(木柵)으로 한계(限界)를 정함이 어떻겠는가.' 하기에, 신 등이 대답하기를, '목책은 그곳에 나무가 혹 있기도 하고 혹 없기도 하니, 차라리 그 편부(便否)에 따라서 혹은 흙을 쌓고 혹은 돌을 모으며, 혹은 목책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감히 제 마음대로 하지는 못합니다. 마땅히 조정(朝廷)에 품(稟)하여서 편의(便宜)에 따라 역사(役事)를 시작해야 할 것이니, 대국 사람이 와서 간검(看檢)하면 좋겠습니다.' [摠管又指示山圖曰: '水源斷流處, 若是其模糊不明, 苟無立標, 則彼此有難考據, 以木柵定限何如?' 臣等答曰: '木柵則其處樹木, 或有或無, 毋寧隨其便否, 或築土或聚石或說柵, 而不敢擅便. 當稟于朝廷, 隨便始役, 而大國人來檢則好矣.' 摠管曰: '大國人不必看, 舉行與否, 每年節使, 便通于俺處, 以爲轉奏之地, 而說標後, 每年巡審, 在所不已.' 且言: '山圖一本, 歸奏皇上, 一本當送國王前' 云. 兩江源流, 既已的定, 許多人馬, 無一致傷, 摠管不但凡事, 務爲省弊, 以其行中牛隻]; 『숙종실록』 권 51, 6월 3일.

다시 유출하는 강과 이어지게 표현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래 지도에 표시한 것처럼 목책은 각기 다른 원류의 강과 강을 연결하고 있다. 정계비는 백두산의 바로 동남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정계비 동쪽으로 동류하다가 끊기는 강이 하나 있다. 강이 끊긴 부분은 공백으로 남아 있고 공백너머로 강은 또다시 동류한다. 이 강은 정계비 남쪽에서 동류하던 또 다른 강과 무산 부근에서 만나 동류하여 동해로 유입된다. 그리고 두 강의 상류 부근은 목책으로 이어져 두 강과 목책의 연결은 삼각형 모양의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이 유형의 경우, 첫 번째 유형의 지도에 없는 목책이 상류부분에 있다. 《북관지도》(43)(그림 99)와 《북계지도》(44)(그림 100)에 표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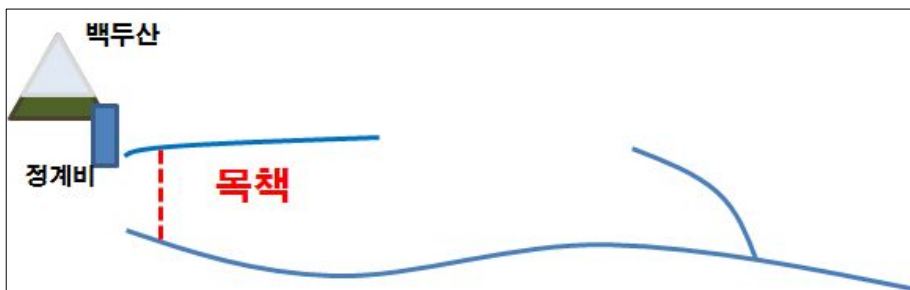


그림 98. 토문강, 분계강, 두만강의 형태적 분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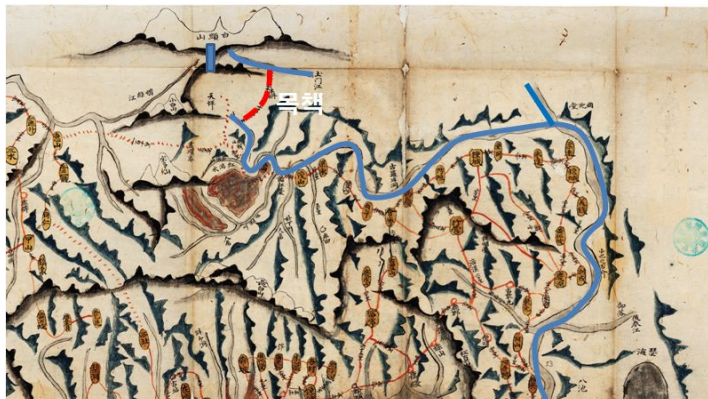


그림 99. 《북관지도》 중 [관북지도]

- 주: 1. [관북지도]에서 발췌한 백두산 동북부지역.
2. 주요 하천에 표시를 했음.

북쪽 강이 끊긴 부분에 공백이 나타나는 지도는 다수이다. 공백은 ‘평정산



그림 100. 《북계지도》

- 주: 1. 《북계지도》에서 발췌한 백두산 동북부지역.
2. 주요 하천에 표시를 했음.

(平頂山)’과 ‘북증산(北甌山)’이 있는 부분으로 산으로 인해 하천이 복류하거나 끊긴 부분에 아무것도 그리지 않고 공백으로 표현한 것이다. 19세기 후반에 제작된 《관북전도 關北全圖》(그림 101)는 서구의 근대적 지도의 특성을 띠고 있으며, 수계의 표현이 현재의 수계와 매우 유사하다. 지도에는 홍기하와 해란하 사이에 북증산이 있다. 《여지도 輿地圖》 중 〈함경도 咸鏡道〉(45)(그림 102)에는 홍기하가 ‘토문강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북증산으로 보이는 산맥이 있다. 그리고 산맥 너머로 해란하에 해당하는 분계강이 있다. 이와 같이 북쪽 강의 끊긴 부분은 토문강이 흐르다가 복류한다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¹⁴⁹⁾이 반영된 것이거나 ‘건가퇴(件加堆)’ 또는 ‘북증산’, ‘평정산’ 등의 산으로 강의 흐름이 끊긴 것을 표현한 것이다. 또는 당시 그 지역의 수계에

149) 총관(목극등)이 말하기를, ‘그대 나라의 길을 아는 사람이 말하기를, 「동쪽으로 흐르는 물은 흐름이 끊긴 뒤 백여 리에 비로소 솟아난다.」고 하였는데..[總管以爲: ‘爾國知路人言: 「東流之水, 斷流後百餘里, 始爲湧出。』云, 今吾所得水源, 與此言相符]; 『속중실록』 권 51, 6월 3일.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확신이 없어서 공백으로 남겨놓은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101. 《관북전도》

- 주: 1. 《관북전도》에서 발췌한 백두산 동북부지역.
 2. 주요 지명에 표시를 했음.



그림 102. 《여지도》 중 〈함경도〉

- 주: 1. 《여지도》 중 〈함경도〉에서 발췌한 백두산 동북부지역.
 2. 주요 지명에 표시를 했음.

3) 두 강을 잇는 목책.

두 강 중 북쪽의 강은 백두산 또는 백두산 부근에서 발원하고, 남쪽에 있는 강은 정계비 또는 소백산과 그 부근에서 발원한다. 각기 다른 발원지를 갖는 두 강은 무산 부근에서 합류하여 동쪽으로 흐르다가 동해로 유입된다. 그런데 두 강의 상류 부근은 목책으로 이어져 있어서 목책으로 연결된 두 강은 삼각형 모양의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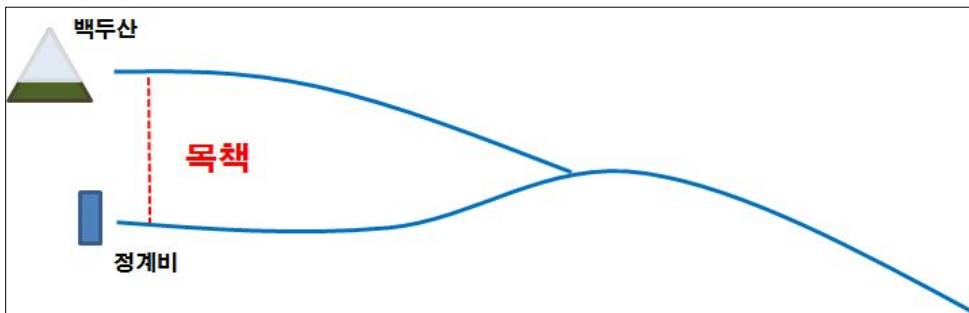


그림 103. 토문강, 분계강, 두만강의 형태적 분류 3

18세기에 제작된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그림 104)와 《청구관해방총도》(그림 105)는 두 강의 상류 부분을 목책으로 연결하여 두 강 사이의 영역을 하나의 공통된 공간으로 표현하였다.

정원용¹⁵⁰⁾은 두만강 대안지역의 지리에 관하여 『북행수록 北行隨錄』에서 분계강(위 지도에서 북쪽의 물줄기) 안쪽, 두만강 바깥쪽은 평평한 땅이 넓게 펼쳐져 있으며 육진보다도 넓다고 기록한 바 있다.

분계강내. 무산부로부터 임강대를 따라 길을 가면 삼산에 이르고, 덕창 말미 푸른 대편봉 아래 오래된 관아 옆으로 연못이 하나 있다. 대편봉에 올라 조망하면 장산일대가 병풍처럼 구불구불 굴곡하고 분계강내 두만강의 평평하여 넓은 지역은 끝이 없이 묘연하며 숲이 우거져있는데, 육진보다 넓은 땅이다. ¹⁵¹⁾

150) 19세기의 문신이며 현종, 철종 때 영의정을 지낸 鄭元容(1783-1873)은 19세기 전반의 함경도 會寧 및 北關 지역의 사정 전반에 대해 서술한 『북행수록 北行隨錄』를 편찬했다.

151) 『북행수록 北行隨錄』 1) 「두외보문 豆外補聞」 <분계강내 分界江內> _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古



그림 104.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 주: 1.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에서 발췌한 백두산 동북부지역.
- 2. 주요 하천을 표시하고 명칭을 확대하여 표기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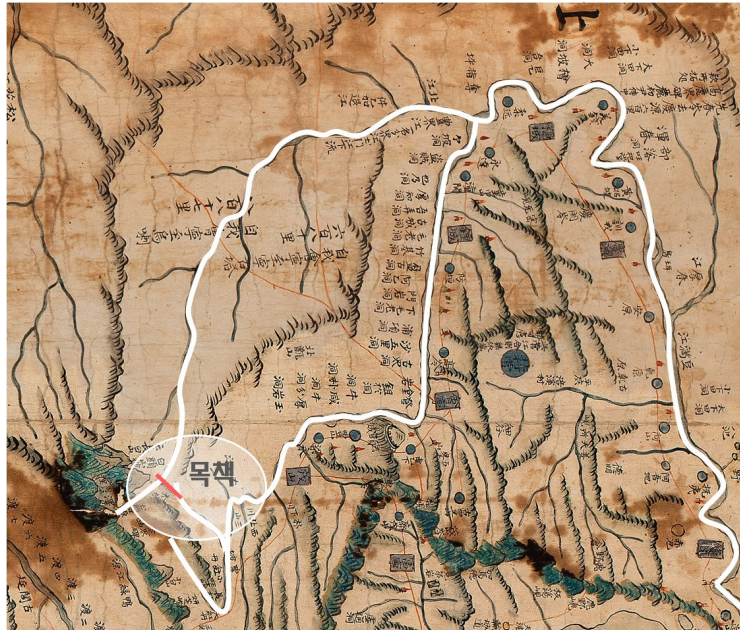


그림 105. 《청구관해방총도》

- 주: 1. 《청구관해방총도》에서 발췌한 백두산 동북부지역.
- 2. 주요 하천을 표시하고 명칭을 확대하여 표기했음.

4794 v.1-3 .

分界江內. 自茂山府有一條路由臨江臺抵三山德倉及尾可倉大編峰下有古館關傍有一池登大編峰眺望則一帶長山屈曲逶迤如屏障而分界之內豆滿之外平陸曠野杳無涯際叢林亂葳之地大於六鎮之廣云.

19세기 말에 제작된 《대한전도》(46)(그림 106)에서는 백두산 동쪽 두 강이 모두 백두산에서 발원한다. 목책의 연결 없이도 두 강 사이의 영역이 자연스럽게 지도에 표현되었고, 북쪽의 강을 따라 조선과 청과의 국경이 형성되어 있다. 지도상에 표현된 두 강 사이의 공간은 현재의 중국 연길 지역이며, 정원용이 『북행수록』에서 기술한 분계강 안쪽 - 두만강 바깥쪽의 넓고 평평한 지역이다.

유로의 ‘형태분류 1’의 두 강 상류를 목책으로 이으면 ‘형태 2’가 된다. ‘형태 2’에서 북쪽 강의 공백이 사라지면 ‘형태 3’이 된다. 형태 1, 2, 3이 ‘형태 1’에서 ‘형태 3’으로 점차 변화된 것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지만 목책과 두 강, 공백으로 표현되는 백두산 동쪽 수계의 형태는 공통적으로 두 강 사이의 공간을 인식하고 지도상에 표현했다. 이 공간은 정원용이 『북행수록』에서 언급한 분계강 안쪽 - 두만강 바깥쪽의 넓고 평평한 지역이다. 지도에 나타나는 이 지역은 조선의 영역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공간에 살았던, 혹은 관찰했던 당시 사람들의 ‘우리 땅’이라고 생각했던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그림 106. 《대한전도》

- 주: 1. 《대한전도》에서 발취한 백두산 동북부지역.
2. 주요 하천을 표시하였음.

4) 두 강과 정계비에서 연결된 목책.

이 유형은 백두산에서 동류하는 강이 하나 있고, 그 강의 남쪽에 위치한 정계비에서 이어지는 목책과 토퇴를 따라 동류하는 또 다른 강이 있는 경우이다. 목극등 정계 당시의 내용을 반영했다면 정계비에서 동류하는 하천이 있고, 하천이 복류하는 부분에 목책이 연결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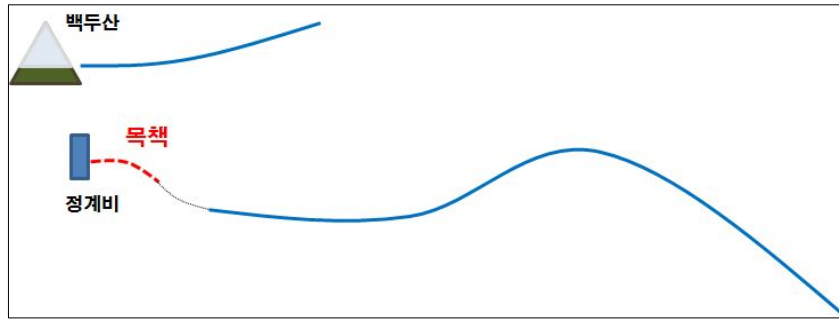


그림 107. 토문강 · 분계강 · 두만강의 형태적 분류 4

《북관장파지도》(47)(그림 108)와 《대동여지도》152(그림 109)는 목극등 정계 당시의 내용을 반영하여 정계비에서 이어지는 목책에 관한 정보를 지도상에 담았다. 하천이 복류하지 않고 계속 흐르는 것으로 표현했으며, 하천 옆에 목책을 그려 넣어 복류하는 것을 상징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08. 《북관장파지도》

- 주: 1. 《북관장파지도》에서 발췌한 백두산 동북부지역.
2. 주요 하천을 표시하고 명칭을 확대하여 표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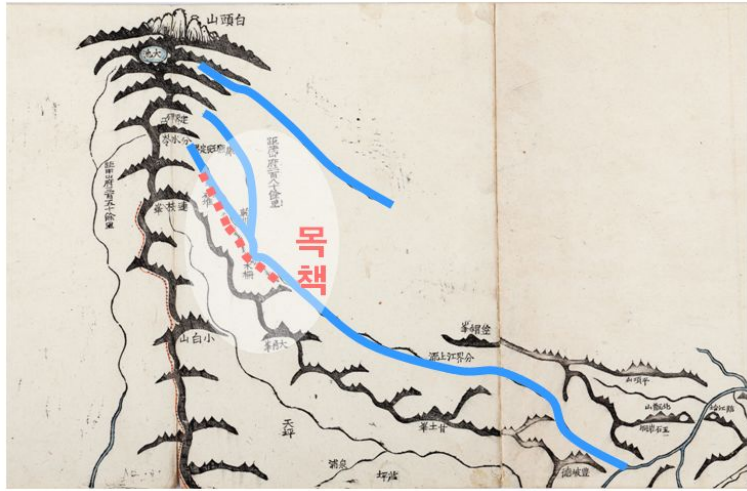


그림 109. 《대동여지도》

- 주: 1. 《대동여지도》에서 발췌한 백두산 동북부지역.
 2. 주요 하천을 표시하고 명칭을 확대하여 표기하였음.

152)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2. 토문강, 두만강의 동일 하천 여부와 분계강

1) 2강설과 분계강

두만강과 토문강이 각기 다른 별개의 강으로 표현되는 2강설은 백두산 동쪽에서 원출하는 토문강이 분계강으로 이어지다가 토문강 남쪽에서 평행하게 흐르던 두만강과 온성 부근에서 합류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토문강은 ‘토문강원류(土門江原流)’, ‘옥문(玉文)’, ‘토문강원상류(土門江上流)’, ‘건천(乾川)’ 등 다양한 명칭으로 나타난다. 지도상에 ‘고칭풍계강(古稱豐界江)·분계강(分界江)’, ‘분강계(分江界)’, ‘분동강(分東江)’ 등 분계강 역시 다양한 명칭으로 나타나지만, 온성 부근에서 두만강과 합류하는 수계의 흐름은 동일하다.



그림 110 《동국지도》 중 〈관북〉

- 주: 1. 《동국지도》 중 〈관북〉에서 발췌한 백두산 동북부지역, D유형.
2. 주요 하천을 표시하고 명칭을 확대하여 표기하였음.

《동국지도 東國地圖》 중 〈관북 關北〉⁽⁴⁸⁾(그림 110)과 《해동팔역여지도 海東八域輿地圖》 중 〈관북 關北〉⁽⁴⁹⁾(그림 111), 《동국지도 東國地圖》 중 〈함경북도 咸鏡北道〉⁽⁵⁰⁾(그림 112), 《여지도 輿地圖》 중 〈함경도 咸鏡道〉(그림 113)에는 백두산에서 동북쪽으로 토문강원(土門江原)이 발원하다가

끓기고 공백 너머에 흐르는 분계강은 두만강으로 유입된다.



그림 111. 《해동팔역여지도》 중 <관북>

- 주: 1. 《동국지도》 중 <관북> 에서 발췌한 백두산 동북부지역, D유형.
 2. 주요 하천을 표시하고 명칭을 확대하여 표기하였음.



그림 112. 《동국지도》 중 <함경북도>

- 주: 1. 《동국지도》 중 <함경북도> 에서 발췌한 백두산 동북부지역, D유형.
 2. 주요 하천을 표시하고 명칭을 확대하여 표기하였음.



그림 113. 《여지도》 중 〈함경도〉

주: 1. 《여지도》 중 〈함경도〉에서 발취한 백두산 동북부지역, D유형.

2. 주요 하천을 표시하고 명칭을 확대하여 표기하였음.

우리나라의 산계와 수계를 그리고 팔도 군현을 표기한 《조선지도 朝鮮地圖》(51)(그림 114)에서 ‘토문강상류(土門江上流)’라고 표기되어있는 토문강은 백두산 천지에서 발원하여 동북쪽으로 흐르다가 ‘건가퇴(件加堆)’¹⁵³⁾ 부근에서 끊긴다. 건가퇴(件加堆)를 사이에 두고 또 다른 두 물줄기가 각각 흐르다가 만나는데 만나는 지점에 ‘분강계(分江界)’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즉, ‘토문강상류~건가퇴~두 강’은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흐르던 두만강과 합류하여 동해로 흘러들어 간다. 길림성 연길시(吉林省 延吉市)에는 시내를 가로질러 흐르는 포이합통하(布爾哈通河)가 있는데, 지도의 작은 구렁인 ‘건가퇴(件加堆)’는 만주어 포이합통(布爾哈通)을 의미한다. 지도에서 분계강으로 표기된 부분의 두 강은 포이합통하(布爾哈通河)와 백두산 동쪽 증봉산(甌峰山)에서 발원하는 해란하(海蘭河)로, 연길시 장동(延吉市 長東) 부근에서 합류한다. ‘토문강상류~건가퇴~두 강’으로 이어지는 두만강 이북 지역까지 우리의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토문강과 두만강을 각기 다른 강으로 인식하고 있다.

153) 『조선왕조실록』 단종 3년 을해(1455, 경태 6) 3월24일 기사에는 ‘경원진(慶源鎭)에서 79리 강내(江內) 건가퇴(件加退)에 거주하는 여진(女眞)’이라는 기록이 있다.



그림 114. 《조선지도》

- 주: 1. 《조선지도》에서 발췌한 백두산 동북부지역, D유형.
2. 주요 하천을 표시하고 명칭을 표기했음.



그림 115. 《해좌전도》

- 주: 1. 《해좌전도》에서 발췌한 백두산 동북부지역, D유형.
2. 주요 하천을 표시하고 명칭을 표기했음.

《해좌전도 海左全圖》¹⁵⁴⁾(그림 115)는 19세기 중반에 제작된 대표적인 목판본 조선전도로 지도의 윤곽과 내용은 정상기의 ‘동국지도’와 유사하며 산계(山系)와 하계(河系), 자세한 교통로 등이 동일한 수법으로 그려져 있다. 지도의 여백에는 백두산·금강산·설악산 등 10여 개 명산의 위치, 산수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섬·정계비(定界碑)·초량왜관(草梁倭館) 등에 대한 기록을 실고 있다. 그리고 고조선(古朝鮮)·한사군(漢四郡)·신라구주(新羅九州)·고려팔도(高麗八道)의 현(縣)·읍(邑)의 수(數)를 각각 좌측상부(左側上部)의 여백에 기록하여 우리나라의 현재와 과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한 걸작품으로 평가받으며, 목판(木版)인쇄술에서도 뛰어난 솜씨를 보이고 있다. 백두산 동쪽으로 토문강으로 추정되는 건천(乾川)이라 표기된 강이 동북쪽을 향해 흐르다가 끊기고, 두만강 북쪽 지역을 공백으로 남겨 놓았다. 이 공백에는 ‘영고탑경계(寧古塔境界)’라고 표기되어 있다. 공백 동쪽으로 분계강인 ‘분동강(分東江)’과 또 다른 두 강이 합류하여 흐른다. 한편, 정계비 아래쪽 또 다른 지류에서 원류하는 두만강이 온성 부근에서 위 강들과 다시 합류하여 동해로 흘러들어 간다. 《해좌전도》에 그려진 공백 동쪽의 세 강은 남쪽으로부터 해란하(海蘭河)인 분동강(분계강), 포이합통하(布爾哈通河), 알아하(嘎呀河)이다. 증봉산(甌峰山)에서 발원하는

154) 《해좌전도 海左全圖》, 89, 1857-1859년, 목판본, 98.4×56.1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해란하(海蘭河)는 연길시 장동(延吉市長東) 부근에서 포이합통하(布爾哈通河)와 합류한다. 그리고 이 두 물줄기는 길림성 도문시(吉林省 圖們市)에서 알아하(嘎呀河)와 합류하여 두만강과 만난다. 백두산을 기준으로 토문강은 두만강보다 북쪽에 있는 다른 원류에서 시작하여 흐르고 있다.



그림 116. 《해동지도》 중 〈무산부〉

- 주: 1. 《해동지도》 중 〈무산〉에서 발췌한 백두산 동북부지역, D유형.
2. 주요 하천을 표시하고 명칭을 확대하여 표기하였음.

《해동지도 海東地圖》 중 〈무산부 茂山府〉(52)(그림 116)지도에는 천지에서 바로 동류하는 토문강이 두만강과 다른 강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분계강은 나타나지 않는다.

토문강과 분계강은 같은 강이며, 이 두 강은 두만강과 별개의 강이라는 주장은 조선후기 신경준(申景濬)의 『여암전서 旅庵全書』에 기술되어 있다.

『성경지』에 장백산은 가이민상견아린(歌爾民商堅阿隣)이며, 산해경의 불함산, 당서의 태백산 혹은 백산이라고 하였다. 『명일통지 明一統志』에 이르기를 옛 회령부 남쪽 60리에 있으며, 넓이는 천리이고 높이는 2백리이며, 그 정상에 호수가 있으며, 둘레가 80리인데, 남류하여 압록강이 되고, 북류하여 혼동강이 되고, 동류하여 아야고강(阿也苦江)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야고강이라는 이름이 없으니 옛날과 지금의 칭호가 다른 것이다. (중략...) 토문(土門)과 두만(豆滿)은 음이 비슷하기 때

문에, 어떤 사람들은 토문이 두만이며 두 강이 아니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용비어천가의 주에 이르기를 토문은 두만강의 북쪽에 있으며, 남쪽으로 경원부와 60리 떨어져 있고, 서쪽으로는 상가하와 1일 거리 떨어져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르기를 회령부로부터 북쪽으로 1일을 가면 아적랑귀이며, 다시 1일을 가면 상가하에 이른다고 하였다. 그러니 토문강 역시 백산에서 나와 동으로 회령 바깥을 매우 멀리 지나 그 하류는 두만강에서 만난다고 하겠다. 만약 두 나라의 국경을 정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백산 정상의 호수 물이 흐르는 곳을 한계로 삼아야 할 것이니, 이 물이 남북을 나누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산에서 나와 동으로 두만에 들어가는 물은 매우 많아서 오늘날 어떤 것이 산 정상 호수의 正派인지 알 수 없다. (중략...) 『동방지지』에 이르기를 백산 정상의 물은 남류하여 압록강이 되고 동류하여 두만강이 된다고 하였다. 그런즉 아야고강이 두만강이 된다는 것에는 의심이 없다. (옛 기록들은) 모두 동류하여 두만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목극등이 경계로 정한 물을 살펴보건대 백산에서 나와 아주 멀리 남류하다가 동류하기 시작하니 산 정상 호수의 正派가 아닌 것 같다. 혹자는 말하기를 그 근원은 비록 남류하지만 마침내 동류하기 때문에 기록(志)들이 동류한다고 한 것은 이로써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압록은 마침내는 서류하는데 기록(志)들은 반드시 남류한다고 하였으니, 무릇 모두가 그 원류를 매우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로써 살펴볼 때 두만의 근원은 남류하는 것이 아니며, 바로 동류하는 것이다. 지리에 밝은 사람들은 모두 이르기를 토문이 산 정상 호수의 正派라고 하지만, 그 역시 알 수 없다.¹⁵⁵⁾

강석화는 「19세기 북방강역에 대한 인식」¹⁵⁶⁾에서 19세기 폐사군 읍치의 북구 및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의 개발, 인구증가는 양강 대안지역에 대한 영토적 관심의 증가와 요동을 수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위 지도들은 쟁점이 되는 백두산 북동류 수계 가운데 ‘토문강 또는 분계강을 포함하는 유로 중 토문강과 분계강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 속하는 D유형이다. 분계

155) 申景濬, 旅庵全書 卷7, 疆界考, 白頭山 (景仁文化史 影印本, 267~269쪽).

156) 강석화, 2007, 19세기 북방강역에 대한 인식, 역사와 경계 65, pp.1~25.

강이 토문강과 동일한 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토문강과 두만강은 각기 다른 강으로, 2강설이 나타난다. 그리고 토문강과 분계강 사이에 공백이 있어서 분계강이 토문강의 하류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두 강이 두만강과 원류를 달리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분계강이 토문강과 동일한 강인지, 다르다면 어떤 강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결론은 없으며, 분계강 명칭의 의미에 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강원은 분계강이 경계를 나누는 강이라는 의미에서는 실체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그 근거로 ‘분계(分界)’를 여진어로 ‘풍가(豊家)’, ‘풍계(豊界)’로 적을 수 있고 오늘날 해란하(海蘭河) 강변 용정시(龍井市) 일대의 지명이 ‘풍가부락(豊家部落)’이었던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¹⁵⁷⁾ 《지도 地圖》 중〈함경도 咸鏡道〉(53) (그림 117)의 ‘고칭풍계강’, 《청구관해방총도》(그림 118)의 ‘풍계강 일명 분계강 토문강 하류(豊界江一名分界江土門江下流)’의 표기 등을 통해 ‘분계(分界)’가 ‘풍계(豊界)’의 또 다른 명칭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풍계강과 분계강이 같은 강을 지칭한다는 것을 증명해 줄 뿐, 분계강의 의미가 경계를 나눈다는 의미와 관련성이 없는지는 알 수 없다.



그림 117. 《지도》 중〈함경도〉

- 주: 1. 《지도》 중〈함경도〉에서 발췌한 백두산 동북부지역, D유형.
2. 주요 하천을 표시하고 명칭을 확대하여 표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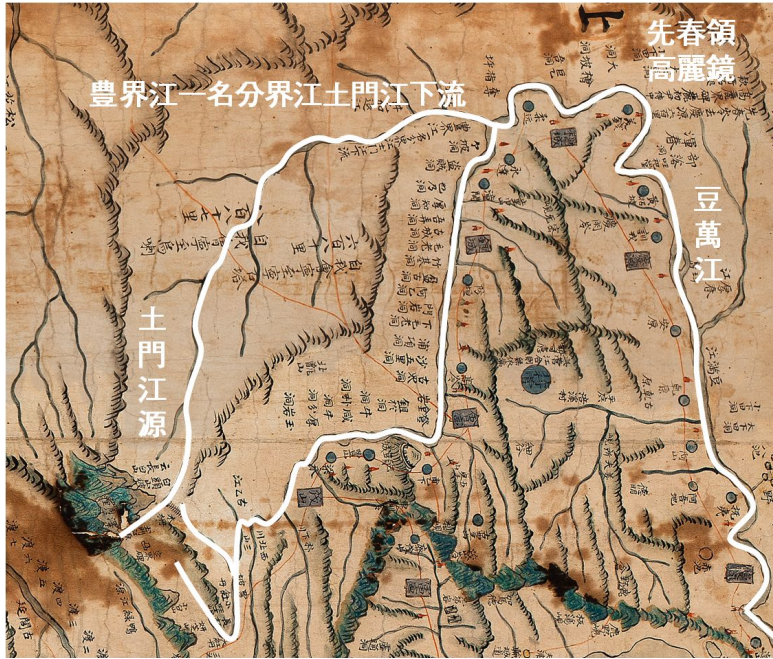


그림 118. 《청구관해방총도》

- 주: 1. 《청구관해방총도》에서 발췌한 백두산 동북부지역, E유형.
 2. 주요 하천을 표시하고 명칭을 확대하여 표기하였음.

도별도와 중국·일본·유구국 지도로 구성된 채색필사본 지도책 《지도 地圖》 중 〈함경도 咸鏡道〉에는 백두산 북쪽으로 ‘혼동강(混同江)’, 서쪽으로 ‘압록강(鴨綠江)’, 정계비 동쪽으로 ‘옥문(玉門)’이라 표기한 토문강¹⁵⁸⁾이 있다. 옥문은 동북쪽을 향해 흐르다가 끊기고, 두만강 북쪽 지역을 공백으로 남겨놓았다. 공백 동쪽으로 ‘고칭풍계강(古稱豐界江)¹⁵⁹⁾·분계강(分界江)’이라 표기된 강이 흐른다. 한편, 정계비 남쪽에서 발원하여 동류하는 두만강은 온성 부근에서 분계강과 합류하고, 경원(慶源)부근에서 ‘두만강(豆滿江)’으로 표기된 훈춘강¹⁶⁰⁾과 또다시 합류하여 동해로 유입된다. 지도에서 토문강과 두만강은 각기

157) 이강원, 2007, 조선후기 국경인식에 있어서 두만강·토문강·분계강 개념과 그에 대한 검토, 정신문화연구, 제30권 3호, pp.112~113.

158) 1712년 목극등과 접반사 일행이 정계비를 세울 당시, 수석통역관 김지남의 청으로 목극등이 화가 유윤길을 시켜 그리게 한 《여지도 輿地圖》 중 [임진정계지도 壬辰定界地圖] _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소장(古4709-1)에 정계비 옆에 있는 강을 ‘옥문(玉門)’으로 표기한 바 있다.

159) 고칭풍계강(古稱豐界江)은 예로부터 풍계강이라 명명했다는 의미이다.

160) 다른 고지도와 현재 지도에서 이 강은 훈춘강이다.

다른 원류에서 시작되어 흐르고 있으며, 두만강과 합류하는 훈춘강을 두만강으로 표기한 점이 특이하다. 두만강이 시작되는 원류는 두 곳으로 정계비 남쪽과 훈춘강이 발원하는 공험진 선춘령 부근이다. 분계강이 토문강의 하류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두만강과 별개의 강이다. 토문강도 두만강과는 별개의 강으로 표현되어 있다. 한 곳을 공험진 선춘령 부근에서 발원하는 두만강을 통해 고려 윤관이 영토를 확대했다고 전해지는 지역까지 조선의 영역으로 표현하고 있다.

《청구관해방총도》에서 토문강은 백두산의 천지에서 북쪽으로 발원하며 두만강은 천지에서 동남쪽으로 떨어진 곳에 있는 정계비에서 발원하여 동류한다. 토문강의 ‘풍계강은 분계강이며 토문강의 하류이다[豊界江一名分界江土門江下流]’라는 표기를 통해 토문강과 분계강이 동일한 강으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지도에서 분계강은 다양한 명칭과 함께 수계의 표현도 다양한데,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분계강은 속평강과 같은 강이다. 둘째, 분계강은 토문강과 같은 강이다. 셋째, 분계강은 분계를 나타내는 강이다. 넷째, 현재 지명의 해란하이다.

첫 번째, 속평강과 같은 강의 의미를 가지는 분계강은 앞의 IV-1장에서 상술하였다. E유형의 고지도에 다수 나타나며, 두만강과 토문강 2강설이 나타나는 D유형의 고지도에도 표현되어 있다. 두 번째, 토문강과 같은 분계강은 위 《청구관해방총도》에 나타나는데, 토문강의 하류로서 분계강이다. 이 두 유형의 분계강은 고려 윤관이 세운 정계비가 그려진 부근에서 두만강과 합류하여 동해로 유입된다. 토문강이 북류하여 혼동강과 합류한다는 조선 전기의 매우 확대된 영토의식은 나타나지 않지만, 토문강 또는 분계강이 동류하여 결국은 두만강과 합류한다는 인식이 지도에 반영되어 있다. 두만강과 토문강을 하나의 강이라 주장하는 중국의 입장에 대응하여 2강설을 표현하였고, 토문강은 두만강보다 북쪽에서 동류하고 있다. 분계강 부근에 윤관의 비를 그려서 조선 후기 요동수복에 대한 인식과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2) 1강설, 토문강과 다른 분계강

토문강과 분계강을 포함하는 유로 중에서 1강설을 표현하고 있는 지도는 유형 D와 E로 나타난다. D유형 지도 35개 가운데 1강설을 표현한 지도는 아래 두 지도 《동국팔로분지도 東國八路分地圖》 중 〈함경도 咸鏡道〉⁵⁴⁾(그림 119)와 《좌해지도 左海地圖》 중 〈함경도북도구주 咸鏡道北道九州〉¹⁶¹⁾(그림 120)뿐이다. 두 지도의 형태는 매우 유사한데 동쪽으로 흐르는 두만강의 원류를 토문강으로 인식하여 1강설을 표현하고 있으며, 토문강과 분계강을 서로 다른 강으로 묘사하고 있다. E유형 지도 가운데 1강설을 표현한 지도는 《천하대총일람지도 天下大揔一覽地圖》⁵⁵⁾(그림 121)를 비롯하여 3점이 있다.



그림 119. 《동국팔로분지도》 중 〈함경도〉

- 주: 1. 《동국팔로분지도》 중 〈함경도〉에서 발췌한 백두산 동북부지역, D유형.
2. 주요 하천을 표시하고 명칭을 확대하여 표기하였음.

조선 후기 이익, 성해응, 정약용 등의 학자들은 토문강은 두만강과 같은 강이지만 토문강과 분계강은 별개의 다른 강이라고 인식했으며, 분계강의 의미에 주목하였다. 이익(李瀾)은 『성호사설 星湖僿說』에서 직접적으로 토문강은 두만강이라고 언급했으며, 백두산 동북쪽으로 흐르는 속평강(소하강)을 분계강이라고 인식했다.

161) 《좌해지도 左海地圖》 중 〈함경도 북도구주 咸鏡道 北道九州〉, 1838년, 일본 동양문고.



그림 120. 《좌해지도》 중 <함경도북도구주>

- 주: 1. 《좌해지도》 중 <함경도북도구주> 에서 발췌한 백두산 동북부지역, D유형.
 2. 주요 하천을 표시하고 명칭을 확대하여 표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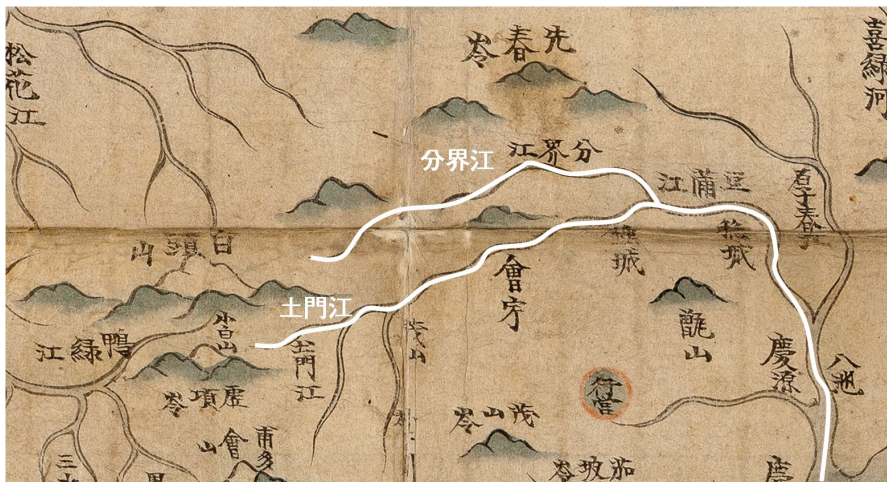


그림 121. 《천하대총일람지도》

- 주: 1. 《천하대총일람지도》 에서 발췌한 백두산 동북부지역, E유형.
 2. 주요 하천을 표시하고 명칭을 확대하여 표기하였음.

지금 홍세태(洪世泰)의 《유하집(柳下集)》에 있는 백두산기(白頭山記)를 보면, “장백산(長白山)을 우리나라에서는 백두산이라 하는데, 중국과 우리 두 나라에서 산 위의 두 강을 놓고 경계를 정했다. 임진년 여름에 중국에서 오랄총관(烏喇總管) 목극등(穆克登) 등 몇 사람을 보내서 직접 가 보고 경계를 정했으니, 대개 이 산은 서북쪽에서 오다가 딱 떨어져 큰 평원(平原)이 되었

고 여기에 와서 갑자기 우뚝 솟았으니 그 높이는 하늘에 닿은 듯하여 몇 천만 길이나 되는지 모르겠고, 그 절정에는 못이 있는데 사람 머리에 숨구멍 같이 되어서 그 주위는 20~30리나 되고, 물빛은 시꺼머서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없으며, 한여름에도 얼음과 눈이 쌓여서 바라보면 은해(銀海)와도 같다. 산 모양은 멀리서 바라보면 독을 엮은 것 같고, 올라가 보면 사방은 높고 중간은 쭉 들어가서 마치 동이를 찢혀놓은 것 같으며, 밖은 희고 안은 붉은 돌이 사면으로 벽처럼 에워쌌는데, 북쪽으로 두어 자쯤 터져서 물이 넘쳐나가 폭포가 되었으니 그것이 곧 혼동강이다. 동으로 3~4리쯤 내려와서 비로소 압록강의 근원이 생겼으니, 이는 샘이 구멍에서 팔팔 쏟아져 급류(急流)로 되었는데, 몇 천 보 내려가지 않아서 산이 잘라져 큰 구렁이 생긴 그 가운데로 흘러 들어간다. 여기서 또 동으로 조그마한 산을 넘어가면 샘물이 있는데 30~40보쯤 서쪽으로 흘러가다가 두 갈래로 갈라졌으니, 한 갈래는 흘러가다가 서쪽의 물과 합치고, 한 갈래는 동쪽으로 내려가는데 그 물은 아주 작다. 여기서 또 동으로 한 등성을 넘어가면 또 샘이 있어서 동으로 백여 보쯤 흘러가다가 먼저 동으로 갈라져 내려오는 물과 합하였다. 목극등은 물이 두 갈래로 갈라진 사이에 앉아서 말하기를, ‘여기는 분수령(分水嶺)이라 할 만하니 비석을 세워 경계를 정해야 하겠다. 그런데 토문강(土門江)의 원류가 중간에 끊어져서 땅속으로 흐르므로 경계가 분명치 않다.’ 하고, 이에 비석을 세우고 쓰기를, ‘대청(大清)의 오랄총관 목극등은 명령을 받들고 변경(邊境)을 조사하다가 여기에 이르러 자세히 살펴보니, 서쪽은 압록강이 되고 동쪽은 토문강이 되었으므로 분수령에 돌을 세우고 글을 새겨 기록한다. 강희(康熙) 51년 5월 15일이라.’ 하고, 우리나라 사람에게 이르기를, ‘토문강의 원류가 끊어진 곳에는 하류까지 연달아 담을 쌓아서 표시를 하라.’ 했다.” 하였다.

이 말은 세태가 직접 그때에 목격한 역관(譯官) 김경문(金慶門)에게서 얻어 들은 것이니 거의 믿을 만하다. 토문강은 두만강이다.¹⁶²⁾

162) 이익(李瀾) 『성호사설 星湖僿說』 권2, 「천지문 天地門」 〈백두산〉

洪世泰柳下集白頭山記云長白山我國謂之白頭山兩國以山上二江爲界壬辰夏中國遣烏喇總管穆克登等往觀定界蓋山起自西北直下大流至此陡立基高極天不知基幾千萬到頂有池如人頭穴周可二三十里色黝黑不測方夏沐雪委積望之一銀海也山形遠望若覆盆及登則四圍微凸中窪如仰盆口向上外白內赤四壁削立坼基北數尺水溢出爲瀑卽混同江也遂東下三四里而始得鴨綠之源有泉泡從山穴中出基流汨減票疾下數百步峽

根爲大壑中注之又東行踰一短網得一泉西流三四十步而別出二派基一派流與西泉合一則東下而基流甚細又東踰一岡則有泉東流可百餘步而中泉之岐而東者來合克登坐中泉漢水間曰此可各分水嶺立碑定界而土門源流間斷伏行地中疆界不明耐堅碑書曰大清烏喇總管穆克登奉旨查邊至此審示西爲鴨綠東爲土門故於分水嶺勒石爲記康熙五十一年五月十五日謂我人曰土門源斷處可築墩接基下流以表之此說世泰親得於當時目擊譯官金慶門殆可信也

이규경(李圭景)은 『오주연문장전산고 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대명일통지』에 나오는 아야고하(阿也苦河)는 토문강, 곧 두만강으로 토문강과 두만강은 같은 강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김조언(金肇彦)의 『백두산기』를 인용하여 정계비 부근 동류하는 물길이 있는데, 이 강이 분계강이라고 기술하였다.

『대명일통지』에 이르기를, 장백산은 동북 삼천리에 걸쳐있다. 횡으로 천여리에 걸쳐있으며 높이는 이백여리에 이른다. 정상에 못이 있는데 둘레가 80여리에 달하고 깊이는 알 수 없다. 남쪽으로 압록강으로 흐르고, 북쪽으로는 흑룡강, 동쪽으로는 아야고하에 이른다. [아야고하는 즉 토문강이며 두만강이다.] (중략...) 『문헌비고』에 이르길, 백두산은 압록강과 토문강 두 강 사이에 있으며 남쪽으로 연지지봉과 허항지령으로 이어진다. (중략...) 김조언의 『백두산기』에 따르면, (중략...) 산(백두산)은 골짜기가 험하여 곧게 오를 수가 없으며 무성하지 않고 나무가 우거져 있다. 삼십리를 가니 연지봉 아래였다. 그곳에서 숙박을 하였는데 봉우리에 초목이 없고 흙과 돌이 붙었다. 여기서부터 나무와 풀이 없다. 곳곳에 눈이 있고 한기가 돌아서 가죽옷을 입었다. 또다시 15리를 가니 동쪽으로 흐르는 물길이 있었는데, 분계강의 수원이었다. 그 남쪽 가에 석퇴가 있었고 목책을 세웠으며, 또한 5리를 더 가니 청인이 세운 청계비가 있었다. 또 다시 10리를 가니 산 정상에 대택이 있었다. 163)

성해응(成海應)은 『연경재전집 研經齋全集』 권46, 「북변잡의 北邊雜議」 <백두산기 白頭山記>에서 두만은 토문의 상류로, 두 강은 하나의 강이라고 기술했다. 그런데 그의 기술에서 두만과 토문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분계강이

土門者頭滿也昔尹瓘拓境至速平江遺碑尚在至金宗瑞以頭滿爲境國人猶恨不能以尹碑爭執爲奉命者之失然最古則北路皆是襍鞞之地以今則疆定久美如域中曷四郡尙以邊患移民奈置何必更賭無用之地惹動爭端呼今之幅員完若金鷗恐不可缺.

163) 이규경(李圭景) 『오주연문장전산고 五洲衍文長箋散稿』 「천지편 天地篇」 지리류(地理類) · 산(山) · 백두산변증설(白頭山辨證說)

『大明一統志』長白山在三萬衛東北千餘里故會寧府南六十里橫亘千里高二百里其巔有潭周八十里淵深莫測南流爲鴨綠江北流爲混同江東流爲阿也苦河[按阿也苦河卽土門江乃豆滿江也] (중략...) 『文獻備考』白頭山卽鴨綠江、土門兩江之間南至于臙脂之峯、虛項之嶺(중략...) 金肇彦『白頭山記』(중략...) 山木皆昂藏屈曲不能直上草不豐茂杜冲成林三十里至臙脂峯下結幕止宿峯無草木土石紫紅自此始無林木丈雪處處堆岸寒氣逼人卽著襲裘又十五里有東流水道乃分界江之源也其南岸聚石爲墩說木柵又五里豎清人定界碑又十里至山巔臨大澤.

다. 두만강과 토문의 흐름을 자세히 기록함과 동시에 혼동강의 한 줄기로 인식하는 분계강이 해란하인데, 분계강은 고려 윤관의 비가 있는 선춘령 아래를 휘돌아 흐르는 것으로, 고토 회복의 증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구를 다시 역으로 해석하자면 분계강은 고려의 옛 영토인 선춘령 부근에 미치는 강이며, 분계강은 우리 조선의 경계가 되는 강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두만강은 명일통지에서는 아야고강, 도문이라 칭했으며 금사에서는 통문, 청인은 애호라 불렀다. (중략...) 토문의 상류이다. (중략...) 두만강과 토문은 실제 하나이지만, 사람들은 이것의 경계를 나누었다. 이 강은 천지에서 발원하여 동류하며 토문과 두만 두 개로 나누었다. 그 경계를 가르켜 두만이라 한다. 분수령으로부터 토되는 삼나무 공짜기 분계에까지 미치며, 강의 원류는 6~70리에 이른다. 적암 두만강의 원류는 80리에 달한다. 평지를 흘러 두 물 사이를 따라 진장산이 있고 해란에 까지 이른다. 진장산은 또 북으로 북증산에 이르고 또다시 북으로 후죽봉에 이른다. 혼동강을 품고 분계강은 해란이 된다. 여러 곡류하는 물줄기는 온성 건가퇴에서 두만강으로 합류하여 경흥에 다달아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여진어로 만은 두만이다. 많은 물줄기가 합류한다는 의미이다. 고려시중 윤관은 선춘에 정계비를 세웠다. 분계강은 그 아래를 휘돌아간다. 이것이 우리의 경계라는 사실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능히 증거를 삼아 논쟁하여 고려의 옛 영토를 회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그러지는 달처럼 위축되어 말하면, 앞서서 칠백 리의 땅을 잃게 될 것이다. 조종의 발상지이며 팔지의 승리인 그곳은 애석하게도 호인의 땅이 된다.¹⁶⁴⁾

정약용(丁若鏞)은 『여유당전서 與猶堂全書』 제6집, 「대동수경 大東水經」·만수(滿水)에서 두만강과 토문강은 하나의 강이며, 통문하, 도문하 등 역시 같은

164) 성해응(成海應) 『연경재전집 研經齋全集』 권46, 「북변잡의 北邊雜議」 <백두산기 白頭山記>
 豆滿明志曰阿也苦河又曰徒門金史曰統門人曰愛濼(중략...) 是爲土門之上流(중략...) 豆滿土門實一也而人見分界亦自天池發源而東流遂以土門豆滿分之爲二指分界爲豆滿自分水嶺土墩訖于杉谷分界江之源幾六七十里赤巖豆滿江之源可八十里平麓進行從兩水間爲眞長山訖於海關眞長山又北爲北嶺山又北爲帷竹峰挾混同江分界江會海關諸谷水至穩城件加堆合豆滿江至慶興入于海女眞語謂萬爲豆滿以衆水至此合流故名高麗侍中尹瓘有定界碑於先春而分界江繞其下此爲我境無疑苟能援而爭之可以復高麗之舊而因循縮胸坐失地七百里祖宗發祥之地及八池之勝並爲胡地惜哉.

이름으로 음역의 차이일 뿐이라 했다. 그리고 아야고강 역시 같은 강이며 고금의 명칭이 상이한 것이라 기술했다. 하지만, 분계강은 고려와의 경계를 나타내는 강이고 윤관의 정계비는 분계강 근처에 세워져 있다고 언급했다.

『명일통지』에서 말하기를, 도문하는 건주위 동남 천여리를 흐른다. 여진조에는 아야고하라고 하면, 장백산에서 원출하며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유입된다고 기록했다. 여진조에는 또한 진주는 아야고하에서 나온다고 기록한다. 성경통지에서 말하기를, 토문강은 영고탑 남쪽 6백 여리에 있고, 장백산에서 원출하며 동북쪽으로 조선의 경계를 휘돌아 흐른다고 한다. 동남쪽으로 복류하여 바다로 유입되며, 지금 장백의 동쪽 지류는 토문강이며 고금의 호칭은 서로 상이하여 아야고강이라는 명칭은 없다고 했다. 『청일통지』에 이르기를, 토문강은 영고탑 남쪽 6백 여리에 있고, 장백산에서 원출하며 동북쪽으로 조선의 경계를 휘돌아 흐르며, 또한 동남쪽으로 복류하여 바다로 유입된다고 전한다. 금사에 따르면 통문, 혼춘수가 합류하는 오고륜부락 사람들의 땅이다. 오늘날 혼춘하가 남류하여 토문하와 합류한다. 통문은 즉 토문음가의 차이일 뿐이다. 명지에서는 도문하라 했는데, 즉 통문하이며 아야고하와 같은 것으로 당시 하나의 강을 이른다. 승람에 이르길, 두만강은 경원부 동쪽 25리에 있으며, 여진어로 만든 두만이라 한다. 여러 물줄기가 합한다는 의미이다.

동문회고에 이르길, 건륭이십이년 예부자문이 말하길, 혼춘까지 고려이며 양국은 토문강을 사이에 두고 있다. 혼춘에서 갈합리하 입구까지 혼춘의 관할하에 있다. 지금 고려에서 넘어와 살인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므로 갈합리하 입구까지 순찰을 해야 한다. 두만강 경계 내의 조사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했으나, 편전의 팔기관들은 두만강의 이름을 몰랐다. 우리 나라에서 회답하길, 우리나라 북계일대의 물은 두만강이며, 소위 대국에서 칭하는 토문강이다. 즉, 하나의 강이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분계하는 장백산 동측에서 원출하며 동쪽으로 흘러간다. 원류는 200여리 흘러 동관보 밖 만수에 유입된다. 상류는 아례하, 하류는 분계하라고 부른다. 일찍이 이 수계를 가지고 양국의 경계로 삼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혹 이

강을 토문강이라 부르지만 틀린 것이다. 함경도병마사 김여수는, 야인의 무리가 품고 있는 분계하 근처는 (윤관의) 정계비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라고 하였다.¹⁶⁵⁾

이익, 이규경, 성해응, 정약용은 백두산에서 동쪽으로 유출하는 하천에 대해 논하면서 중국 문헌을 참고하였고, 두만강과 토문강은 같은 강이라 기술했다. 그리고 두만강(토문강)보다 북쪽의 강으로, 백두산에서 동류하는 분계강을 언급하면서 고려 윤관의 비가 세워진 선춘령을 휘돌아가는 고려의 경계를 지우는 강으로 강조했다. 18세기 후반 19세기에 실학자들은 현실적 입장에서 토문강과 두만강을 같은 강으로 인정하였지만 분계강을 통해 적극적인 영토인식을 표출하였다. 윤관의 정계비 부근을 휘돌아 흐르는 분계강을 강조하였고, 실학자들의 인식은 지도에 반영되었다. 분계강은 17세기 후반 18세기 고지도에 표현되었던 속평강과 같은 강으로, 고지도를 통해 속평강에 담겨있던 확대된 영토인식을 계승하고 있다.

그런데 1강설을 표현한 지도 가운데에는 다른 인식을 표현한 지도가 있다. 《북관지도 北關地圖》 중 [관북지도 關北地圖] (56)(그림 122)와 《북관지도 北關地圖》 중 <북도십읍 北道十邑> (57)(그림 123)에는 백두산 남쪽의 정계비에서 토문강이 이어지고, 토문강과 두만강 사이 복류하는 하천이 목책으로 연결되어 있다. ‘정계비~토문강~목책~두만강’으로 연결되는 하천을 통해 백두산 정계비에서 동류하는 토문강과 두만강이 같은 강임을 표현하였다. 정계비에서

165) 정약용(丁若鏞) 『여유당전서 與猶堂全書』 제6집, 「대동수경 大東水經」·만수(滿水)

明一統志云徒門河流經建州衛東南一千里入於海女眞條又阿也苦河源出長白山東流入于海亦女眞條又云眞珠阿也苦河出盛京通志云土門江在寧古塔南六百里源出長白山東北流繞朝鮮北界復東南折入海又云今長白之水東流者有土門江無阿也苦之名古今稱呼之異也清一統志云土門江在寧古塔城南六百餘里源出長白山東北繞朝鮮北界又東南折會諸水入於海按金史留可統門、渾蠢水合流之地烏古倫部人今渾春河南流與土門江合統門即土門音之轉也明志有徒門河此即統門河也與阿也苦河當是一水也勝覽云。豆滿江在慶源府東二十五里女眞語謂萬爲豆滿以衆水至此合流故名之。

同文彙考乾隆二十二年禮部咨文云渾春至高麗相隔土門江由渾春至噶哈里河口原屬渾春所轄也是以每年派官兵至噶哈里河口巡查今高麗趙自永等越邊殺人其供稱豆滿江查該界冊內竝無豆滿江名色遍傳八旗界官亦不知仍行文知會節我國回咨曰小邦北界一帶水國俗謂之豆滿江即大國所稱土門江也是一江而二名也。

分界河出長白山東麓東流合諸谷之水至潼關堡外入于滿水源流可二百里也按白山東麓之水 upper 者爲阿几河下者爲分界河曾以此水界兩國故有斯目焉我人或以此別稱土門江非也昔威鏡道兵馬使金汝水善撫其衆野人懷之立碑于分界河邊至今猶存也。

이어지는 토문강과 두만강으로 이어지는 하천을 중국과의 북방영역 경계로 나타내고 있으며 분계강이 가지는 의미는 속평강이 아닌 현재 지명의 해란하에 가깝다. 지도에는 확대된 영토인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림 122. 《북관지도》 중 [관북지도]

- 주: 1. 《북관지도》 중 [관북지도]에서 발췌한 백두산 동북부지역, D유형.
2. 주요 하천을 표시하고 명칭을 확대하여 표기하였음.



그림 123. 《북관지도》 중 <북도십읍>

- 주: 1. 《북관지도》 중 <북도십읍>에서 발췌한 백두산 동북부지역, D유형.
2. 주요 하천을 표시하고 명칭을 확대하여 표기하였음.

3. 경계를 나누는 의미의 분계강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지리학자로 평가받는 김정호의 《청구도》 166), 《동여도》 167)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 각각 소장된 《대동여지도》(58)에는 공통적으로 정계비가 있다. 그 옆에 ‘분수령(分水嶺)’ ‘강희임진정계(康熙壬辰定界)’라는 문구를 표기하여 강희 임진년 목극등의 정계 사실을 지도에 표현했다. 그리고 두만강의 상류에 ‘분계강상류(分界江上流)’라고 표기하여 분계강을 두만강과 동일한 강으로 나타내었다. 지도에서 쟁점이 되는 북동부유로는 백두산에서 두만강으로 이어지는 F유형의 유로이다. 백두산 부근에 목극등의 정계사실을 매우 강조하여 지도상에 표현하였는데, 토문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림 124~127은 판각과 채색이나 표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지도의 내용은 동일한 지도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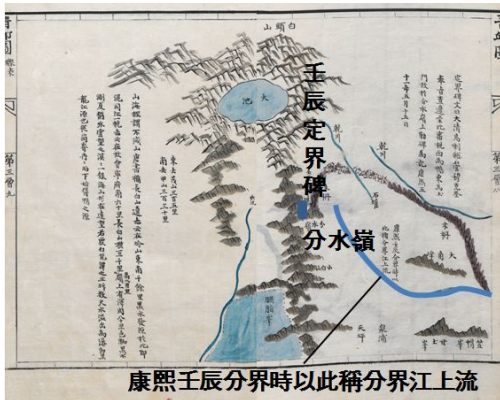


그림 124. 《청구도》

- 주: 1. 《청구도》에서 발췌한 백두산 동북부 지역, F유형.
2. 주요 하천을 표시하고 명칭을 확대하여 표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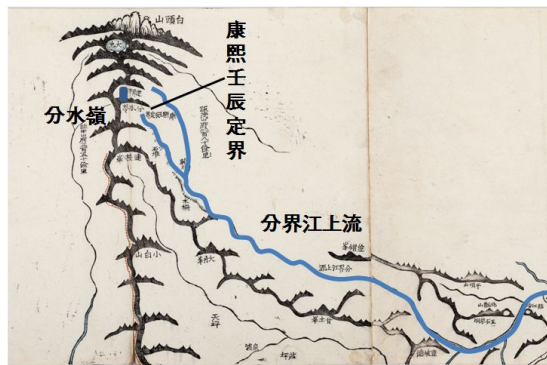


그림 125. 《대동여지도》

- 주: 1. 목판본 《대동여지도》에서 발췌한 백두산 동북부 지역, F유형.
2. 주요 하천을 표시하고 명칭을 확대하여 표기하였음.

이 가운데 일본국회도서관에 소장된 《대동여지도》(그림 127)에만 유일하게 정계비 바로 옆에 ‘도문강원(圖門江源)’이라는 표기가 있다. 하지만 ‘도문강원’은 토문강이 아니라 두만강이다. 영남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관북전

166) 한국학중앙연구원소장본.

167) 국립중앙박물관소장본.

도》에는 두만강에 ‘청명도문강두만원(淸名圖們江豆滿源)이라는 표기가 있고,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백두산정계비지도》에도 역시 두만강이 도문강(圖們江)으로 표기되어 있다. 현재 중국에서 두만강에 대한 표준 표기 역시 도문강(圖們江)이다. 그리고 ‘도문강원’ 반대편 압록강 수계에 ‘압록강원’이라 표기된 점을 참고하면, 일본에서 지도를 필사하는 과정에서 백두산 동-서 수계에 대칭적으로 ‘도문강원’과 ‘압록강원’을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강희임진정계’와 ‘분수령’을 지도상에 표기한 김정호는 도문강을 지도상에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대동여지도》 제작의 근간이 되었던 『대동지지 大東地志』에는 백두산 명칭에 대한 언급이 없고, 백두산의 수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백두산은 횡으로 천리에 걸쳐있고 높이는 이백리에 달하면 산정상에 못이 있는데 둘레가 팔십리에 달한다. 남쪽으로 흘러 압록강, 북쪽으로 혼동강, 동쪽으로 토문강이 흐른다.¹⁶⁸⁾



그림 126. 《동여도》

- 주: 1. 《동여도》에서 발췌한 백두산 동북부지역, F유형.
2. 주요 하천을 표시하고 명칭을 확대하여 표기하였음.



그림 127. 《대동여지도》

- 주: 1. 《대동여지도》에서 발췌한 백두산 동북부지역, F유형.
2. 주요 하천을 표시하고 명칭을 확대하여 표기하였음.

168) 『대동지지 大東地志』 권 19, 〈함경도〉 무산 [산수]
白頭山橫千里高二百里嶺山有澤周八十里南流爲鴨綠江北流爲混東江東流爲土門江.

그리고 목극등의 정계 사실도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비문에는 “대청오라총관목극등이 이 지역을 조사하고 서쪽으로 압록, 동쪽으로 토문을 분수령으로 삼아 비석을 세우니 강희51년 5월 15일이다.” 라고 써있다.¹⁶⁹⁾

목극등의 정계 사실에 이어 토문상류에 관한 언급이 있는데, 보다회산으로부터 동쪽으로 흐르는 대홍단수는 소홍단수로 이어지고, 소홍단수는 동류하여 어윤강이 되는데 이 강이 토문강 상류라고 기술하였다. 지도에는 보다회산 동쪽으로 흐르는 대홍단수와 어윤강이 표기되어있으나, 토문강상류라는 표기는 없다.

두만강 서쪽 5리. 보다회산천 상류는 대홍단수이며 하류는 소홍단수이다. 동쪽으로 흘러 어윤강이 되며 즉, 토문 상류이다.¹⁷⁰⁾

김정호는 막역했던 최한기로부터 방대한 장서(藏書)를, 신현으로부터 비변사나 규장각에 소장된 정부의 지도를 제공받았다. 최성환(崔瑔煥)으로부터는 재정적 지원을 받아 지지와 지도를 편찬하였다.¹⁷¹⁾ 특히 『대동지지』는 중국 도서 22종, 국내 도서 43종을 인용하였기 때문에 당시 그의 지리적 지식은 《대동여지도》에 충분히 반영되었을 것이다. 위 지지의 내용에도 분명 동쪽으로 토문강이 흐른다는 구절이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토문강을 모를 리는 없다. 두만강에 대한 기술은 ‘서쪽 5리’에 불과하며, 토문강과 같거나 토문강이 두만강의 상류라는 등 두 강을 연관 지어 기술한 부분은 없다. 반면, 서북천(西北川) · 박하천(博下川) · 성천(城川)의 기술에서 이 강들이 ‘두만강으로 유입된다

169) 碑文曰大清烏喇總官穆克登奉旨查邊至此責視西爲鴨綠東爲土門故於分水嶺上勤石爲記康熙五十一年五月十五日.

170) 豆滿江西五里. 寶多會山川上流曰大紅丹水下流曰小紅丹水東流爲魚潤江即土門上流.

171) 이상태, 2003, 김정호의 주변인물 연구, 고산자 김정호 관련 측량 및 지도 사료 연구, 대한측량협회, pp. 45~109.

(入于豆滿江)’는 부분이 있다. 그는 토문강에 대해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토문에 대한 상이한 정보와 지식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지도를 제작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 유행했던 토문강에 대한 상이한 지식과 인식을 본인 스스로 해석하여 지도에 그리기보다는 그리지 않는 것을 선택하여 객관성을 유지하려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대동지지』에서도 동쪽으로 토문강이 흐른다고 기술한 내용은 정계비의 내용을 그대로 기술했을 뿐이며, 주관적 해석은 하지 않았다. 또한, 어윤강이 토문의 상류라는 표현만이 있을 뿐, 토문이 구체적으로 어느 강으로 유입되는지 설명하지 않아서 토문의 하류와 그 이후의 구체적인 흐름은 알 수 없다.

한편 당시 실학자들은 분계강을 고려 윤관의 정계비 근처를 휘돌아가는 강으로 인식하고, 분계강을 통해 고토 회복에 대한 상징성까지 부여하고 있었다. 실제로 김정호의 지도를 제외한 당시 18세기 후반 19세기의 지도에서 분계강은 모두 두만강보다 북쪽에서 동류하는, 두만강과 다른 강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김정호는 지도에서 분계강을 두만강의 상류로 표현했다. 『대동지지 大東地志』에는 토문 상류에 관한 언급에 이어, 분계강에 관한 내용이 있다.

분계강은 분수령에서 원류하며 북류의 흔적은 없다. 강희임진 분계시 이를 분계강 상류로 칭했다.¹⁷²⁾

상술한 정계에 관한 내용에서 ‘압록강과 두만강의 분수령으로 정계비를 삼는다’는 언급과 ‘강희임진 분계시 분계강의 상류로 삼는다’는 위의 내용을 통해 그가 지도에 표기한 분계강은 ‘분수령이 되는 강의 상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분계강과 토문강의 연관성은 지지와 지도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김정호의 지도를 통해 지지를 기술하면서 토문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당시 토문에 대한 상이한 인식에 관해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 추

172) 『대동지지 大東地志』 권 19, 〈합경도〉 무산 [산수]
分界江水出于分水嶺上伏流無痕康熙任辰分界時以此稱分界江上流.

측할 수 있다. 지지에는 토문강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만을 나열하였고, 두만강과의 연관성은 기술하지 않았으며,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토문강에 관해서는 지도에 그리지 않는 것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지도상의 ‘분계강 상류’는 당시 실학자들의 고토회복 상징이 되었던 분계강이 아닌, 단순히 ‘분수령이 되는 강의 상류’를 의미한다. 김정호 지도의 분계강은 분계강의 의미 유형 네 가지 가운데 네 번째 의미인 ‘분계를 나타내는 강’을 뜻한다.

4. 이중하의 토문강과 발원이 다른 두만강

목극등의 정계, 토문강의 발원과 관련한 중국의 논문 가운데 마맹룡의 연구는 ‘정계’라는 표현을 부정하며 목극등이 정계를 위해 백두산변계를 답사한 것이 아니라 《황여전람도》 제작을 위해 답사한 것이라는 논지로 전개된다. 목극등이 심시비(審視碑·정계비에 대한 마맹룡의 표현으로, 정계비가 아니라 답사를 하고 세운 비석이라는 의미를 강조)를 세운 위치는 소백산이며, 토문강은 소백산에서 원류 한다는 주장을 《황여전람도》에 그려진 토문강의 수계를 근거로 주장했다.¹⁷³⁾ 이화자는 목극등의 정계 당시 송화강의 상류인 오도백하를 두만강(圖們江)의 수원으로 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기술했다. 그 후 1907년과 1908년(광서 33년과 34년) 일본의 간도 교섭안에 대응하기 위해 오록정과 유건봉이 답사한 결과 압록강과 두만강의 분수령은 장백산 남쪽 소백산의 포태산(胞胎山) 일대이며, 이곳이 북변의 천지와 남변의 조선 내지 사이의 절충선(折中線)이라는 논지를 전개했다.¹⁷⁴⁾ 이처럼 최근 중국에서는 토문강과 두만강이 하나의 강이라는 일강설을 유지하며 그 발원이 백두산이 아닌 소백산 부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맹룡 주장의 근거가 된 《황여전람도·압록강도》¹⁷⁵⁾에는 토문강이 소백산 부근에서 발원하고 있는데, 그는 장백산에서 발원하는 ‘토문강색금(土門江色禽)’은 언급하지 않았다. ‘토문강색금’의 ‘토문(土門)’은 여진어로 ‘만(萬)’, ‘색금(色禽)’은 ‘하원(河源)’을 뜻하는 것으로, 만 갈래의 수원이라는 의미를 가진 여진어이다. 중국의 중국고금지명대사전(中國古今地名大辭典)¹⁷⁶⁾과 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백과사전인 호동백화(互動百話)에는 토문색금의 어원과 함께 토문강이 도문강으로 개명된 사실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

173) 馬孟龍, 2009, 穆克登查邊與《皇輿全覽圖》編繪, 中國邊疆史研究, 19, pp.85~99.

174) 李花子, 2011, 清代長白山踏查活動及對三江源的記述, 韓國연구논총, 23, pp. 415~455.

175) (독일) Walter Fuchs영인, 《康熙皇輿全覽圖》, 輔仁大學 1934년 출판; 마맹룡 논문 인용.

176) 臧勵化, 1931, 中國古今地名大辭典, 上海: 商務印書館, p.1082.

도문강-명칭유래

도문강은 청조시기 만주어로 ‘도문강’이다. ‘도문’은 한어(중국 한족언어)도, 조선의 언어도 아닌 만주어이다. ‘도문’은 만주어로 ‘도문색금(土門色禽)’이며 도문의 의미는 ‘만’이고 색금의 의미는 ‘하원’이다. 즉, 만갈래 물의 근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후일 일본이 ‘도문’ 두 글자가 조선과 청 사이에서 청이 조선을 침략하려는 분쟁의 소지가 되겠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조선의 독립을 위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조선침략의 이익을 위한 일본의 속셈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아무 의미는 없지만 독음이 비슷한 ‘도문’을 이 강의 명칭으로 개명하였다. 한반도에서는 ‘두만강’이라고 칭한다.¹⁷⁷⁾



그림 128. 두만강광장

주: 2010.7.5 촬영.

중국 조선족자치구의 간판 경관에는 한글과 한자를 함께 표기하는데, 두만강 발원지를 표기한 이정표에도 ‘두만강’과 ‘圖們江’이 함께 병기되어 있다. ‘圖們江’은 한글로 ‘도문강’이고, ‘두만강’의 한자 표기는 ‘豆(頭)滿江’인데 중국에서는 한글로는 ‘두만강’, 한자로는 ‘圖們江’이라고 표기한다. 도문시의 두만강광장의

177) 图们江 - 名称由来 :<http://www.hudong.com/wiki/%E9%97%B4%E5%B2%9B>

图们江在清朝时按满语读音译作“土门江”。“土门”其实并非汉语，也不是朝鲜语，“土门”满语原称“土门色禽”，土门意为“万”，色禽意思是“河源，亦即万水之源。可是，后来日本借“土门”这两个汉字词挑起朝鲜和清朝之间的领土争端，指清朝非法侵占朝鲜的土地。事件间接引致朝鲜独立[来源请求]，并使日本有机会进一步侵占朝鲜的利益。与此同时，中国方面改用与原来读音相近，但没有意义的“图们”来作为这条河流的译名；而朝鲜半岛方面则使用“豆满江”这个名称。

표기 ‘圖TU두 們MEN만 江IVER강 廣Story광 場Park장’¹⁷⁸⁾을 통해서도 중국에서의 두만강은 ‘圖們江’으로 표기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9. 두만강 발원지 표지

주: 2010. 7. 7 촬영.

문헌에서는 간도협약 이후 토문강을 도문강으로 정식으로 명명하기 시작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1845년 중국 하북(河北) 창주(滄州)의 역사지리학자 협자패(叶子佩)가 남회인(南懷仁)의 《곤여전도 坤輿全圖》(1674년)를 저본으로 만든 중국 최초 중국인이 만든 세계지도 《만국대지전도 萬國大地全圖》¹⁷⁹⁾(그림 130~그림 130-3)에 도문강이 있다. 남북 양반구로 나누어진 지도는 경위선까지 표기되어 있는 서구식 근대적 특성의 지도로 세계지도 속에서 한반도는 비교적 단순하게 백두산의 동서 하천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서쪽의 압록강과 동쪽의 도문강이 표기되어 있다. 지도에서의 도문강은 강의 흐름을

178) 두만강광장에 관한 내용은 II-1의 연구지역 개괄에서 상술하였다.

179) 1980년대 토지의 주인이 땅을 개간하던 중 발견한 것으로 현재는 석가장시문물관리소(石家庄市文物管理所)에 소장되어 있다. 8축(軸) 1폭(幅)의 병풍식으로 표구되어 걸려있고(여덟 조각의 지도가 하나의 병풍처럼 표구되어 있음) 매 축은 높이 123미터, 넓이 28미터이다. 지도는 남북 양반구로 나뉘어져 있는데, 4축이 하나의 반구를 이루고 있다. 경위도선은 붉은색, 그 외의 선은 검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황제를 존중하는 의미로 북경의 경선은 본초자오선으로 지도의 기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조선은 경선 10도와 15도 사이에 위치한다. 지도는 중앙에 있고 주위는 지도에 대한 해설과 석문이 한자로 기록되어 있다. 그 중 지명에 대한 주석이 411건에 달한다. 따라서 이 지도는 내용이 풍부하며 지명에 대한 주석이 자세하고 표기된 영역이 광대하며 그 당시로서, 제작수준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남회인의 《곤여전도》를 저본으로 하고 이신기(李申耆)의 《황조일통여지전도 皇朝一統輿地全圖》, 장연용(張連勇)의 《여지도 輿地圖》, 《서양지구도 西洋地球圖》, 《남아프리카서양원판도》 등 중국 외 부분 지도사료를 참고하여 제작되었다.

참고할 때 두만강이다. 간도협약에서 토문강을 도문강(圖們江)으로 공식적으로 명명하기 이전부터 중국에서는 토문강과 다른 두만강을 도문강으로 인식하였고, 그러한 인식은 고지도에 반영되어 있다. 이중하의 『감계사문답 勘界使問答』에도 도문강과 두만강은 하나의 강이고, 도문강이 토문강이라는 주장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에서는 두만강과 도문강은 같은 강이지만, 토문강은 두만강과 다른 강으로 각각 발원처가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¹⁸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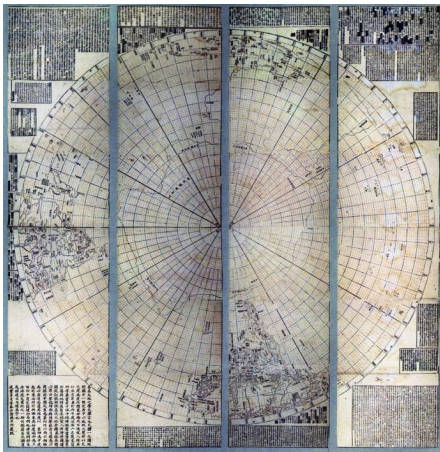


그림 130. 《만국대지전도》

주: 《만국대지전도》의 남반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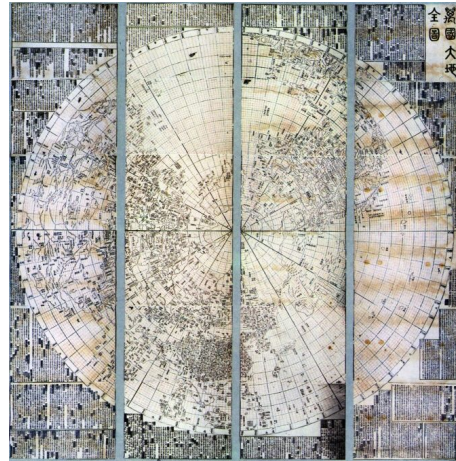


그림 130-1. 《만국대지전도》

주: 《만국대지전도》의 북반구.



그림 130-2. 《만국대지전도》

주: 《만국대지전도》의 조선부분.



그림 130-3. 《만국대지전도》

주: 《만국대지전도》의 백두산 부분.

180)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勘界使問答(奎21038), 10월11일·20일 三下江口談判.

토문강은 만주어로 ‘토문색금’이다. 마맹룡이 제시한 《황여전람도·압록강도》의 장백산 발원 ‘토문색금’과 소백산 발원 ‘토문강’은 명칭 상으로는 둘 다 ‘토문강’을 의미한다. 따라서 토문강이 소백산에서 발원하는 두만강이라는 그의 주장은 장백산에서 발원하는 또 다른 토문강인 ‘토문강색금’을 설명할 수 없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마맹룡 주장의 근거가 되었던 《황여전람도》를 저본으로 만든 《각국도 各國圖》 중 〈성경전도 盛京全圖, 조병사윤성본 曹兵使允成本〉(59)에서, 장백산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압록강, 동쪽으로 토문강이 흐른다. 지도에는 두만강을 ‘토문강’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토문색금’은 없다. 《황여전람도》를 근거로 볼 때, 두만강을 ‘토문강’으로 표기한 것은 틀림이 없다. 하지만 두만강을 ‘토문강’으로 표기한 것이지 ‘토문색금’을 두만강으로 표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지도에서는 압록강과 두만강만을 그린 것이고 토문색금(정계비에서 지칭하는 토문강)은 그리지 않았다.



그림 131 《황여전람도》

- 주: 1. 《황여전람도》에서 발췌한 백두산 부분.
- 2. 주요 하천을 표시하고 지명을 확대하여 표기함.



그림 132 《각국도》 중
〈성경전도, 조병사윤성본〉

- 주: 1. 《각국도》 중 〈성경전도〉에서 발췌한 백두산 부분.
- 2. 주요 하천을 표시하고 지명을 확대하여 표기함.

19세기 말 제작된 영남대박물관 소장 《관북전도》(그림 133)와 이중하가 감계이후 제작한 《백두산정계비지도》(그림 134)는 서구식 근대적 지도의 특성을 띠고 있는 지도로, 특히 수계의 표현이 상세하다. 도문강(圖們江·두만강)의 발원도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지(圓池)와 원지 부근에서 발원하는 두만강은 동류하여 동해로 유입된다. 그리고 지도상에서 토문강으로 상정¹⁸¹⁾되는 ‘송화강원’과 ‘황화송구자’는 백두산 부근에서 북류하고 있다. 두 지도에서 토문강과 다른 원류를 가지는 두만강은 원지 또는 원지 부근에서 발원하고 있다. 그리고 《관북전도》에 나타나는 해란하(海蘭河)는 분계강의 현재 지명으로, 증봉산(甕峰山)에서 발원하는 하천이다.



그림 133. 《관북전도》

- 주: 1. 《관북전도》에서 발취한 백두산 북동부 지역, C유형.
2. 주요 하천을 표시하고 지명을 확대하여 표기함.

일본 육지측량부에서 1912년에 발행한 《백두산 白頭山》_동아여지도서 제2행 북제2단 남부(東亞輿地圖西第2行北第2段南部)(그림 135)에는 백두산 북쪽으로 발원하는 이·삼·사도백하와 백두산에서 동북류하는 이도하가 있다. 원지(圓池)에서 발원하여 백두산 동쪽으로 흐르는 두만강에는 한국에서의 명칭인 ‘豆滿江’과 중국의 명칭인 ‘圖們江’이 함께 표기되어 있다. 이도하(二道河)는 1934년 대일본제국육지측량부에서 제작한 《만주10만분 1도 백두산18호 滿洲

¹⁸¹⁾ 이에 관해서는 위 챕터에서 상술한 바 있다.

10萬分1圖 白頭山18號》의 ‘이도강(二道江)’으로, 이중하의 황화송구자(토문강), 그리고 현재의 명칭인 오도백하라는 것을 전술¹⁸²⁾한 바 있다. ‘이도하(二道河)’는 이중하의 황화송구자(토문강)이며, 두만강은 중국 표기의 ‘豆滿江(圖們江)’이다. 북동류하는 이도하와 동류하는 두만강은 서로 다른 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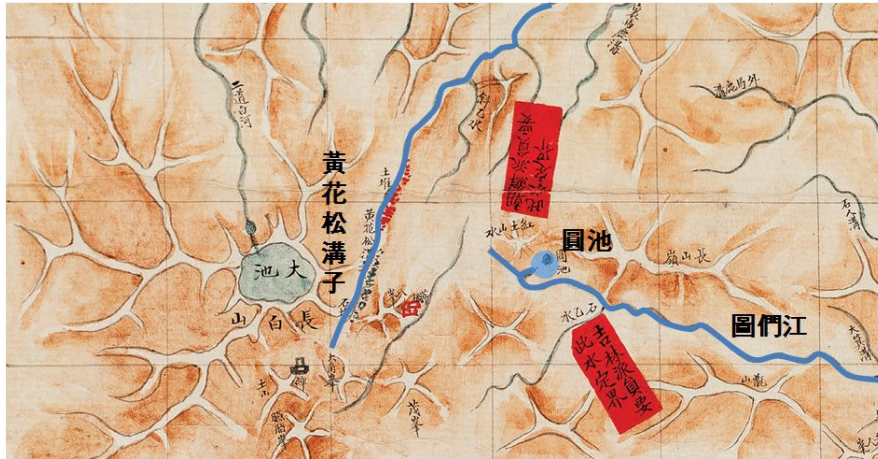


그림 134. 《백두산정계비지도》

- 주: 1. 《백두산정계비지도》에서 발췌한 백두산 북동부지역, C유형.
2. 주요 하천을 표시하고 지명을 확대하여 표기함.



그림 135. 《백두산》

- 주: 1. 《백두산》에서 발췌한 백두산 북동부지역.
2. 주요 하천을 표시하고 지명을 확대하여 표기함.

182) IV-2-(2)에서 전술했음.

안재홍(安在鴻)은 『백두산등척기 白頭山登陟記』¹⁸³⁾에서, 토문과 두만이 각기 다른 강임을 밝히고 있다. 두만강의 최북단인 석을수와 원지에서 내려가는 홍토수는 분수령과 칠십 리의 차이가 나며, 두만강원의 최고점인 신무치수 또한 북으로 유입되어 송화강과 합류하는 토문강과 이십 리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土門은土門이오 豆滿은豆滿이어서 兩者가서로석밭귀일바아니오 豆滿江源의最北端인石乙水와 圓池에서 내려가는紅土水는 分水嶺에서七十里요 無頭峰저쪽으로시작된 豆滿江源의最高點인 神武峙水에도 또한 大臙脂峰의東으로버튼一脈이 嶺드란峰으로되어 中間에約二十里의 限界가벌었스니 北으로들어松花江에合流된 土門江과 東으로 滄海에祖宗하는 豆滿江은 境土의關係가매우重大한 바이라

중국에서 백두산과 가장 근접한 마을은 이도백하진이다. 이도백하진에는 2010년에 새롭게 개관한 장백산자연박물관과 길림성 장백산과학연구원이 위치하고 있다. 장백산과학연구원에서는 장백산의 형성, 동·식물자원, 삼림생태, 종합자원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장백산자연박물관에는 연구의 성과가 전시되고 있다. 이도백하진의 미인송¹⁸⁴⁾을 지나 남쪽으로 30km 정도, 원지(직진 방향)와 천지(오른쪽 방향)의 갈림길을 나타내는 이정표가 나온다. 원지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홍송왕경구(紅松王景區)가 나오고 이 길부터는 채벌한 목재를 운반하려고 만든 작은 산길이 여러 갈래로 이어져 있다. 원지까지 이어진 여러 갈래의 길은 오도백하의 작은 지류들을 따라 나 있다. 현재 중국지도¹⁸⁵⁾에는 오도백하의 지류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지고, 다시 세 갈래와 두 갈래로 각기 나뉘는데, 이중하의 감계지도와 일치한다. 홍송왕경구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 삼

183) 安在鴻, 前掲書, p.52.

184) 동해신의 도움으로 綠珠선녀가 폭풍우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려고 미인송이 되어 백성을 지켰다는 고사가 있는 길이며, 아름답기로 명성이 높은 길이다. 망해각의 동해의 '일본해' 표기와 달리 이곳에는 '동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동해'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185) 2010, 黑龍江 吉林 遼寧 交通圖冊, 中國星球地圖出版社, p.57.

각선(三角線)이라는 지점이 나오고 이 길을 지나 좀 더 동쪽으로 향하면 오도백하의 첫 번째 지류, 이중하가 주장하는 토문강이 나온다. 10분 정도 동쪽으로 전진하면 수니교(水泥橋)가 나오는데 이 다리는 오도백하가 크게 돌로 나뉜 두 번째 지류의 시작 부분이다. 이곳에는 ‘백하(白河)삼림방재처’가 있다.

이곳은 해발 1200m 정도 되는 지점으로 이 하천들은 마른 골자기라는 뜻의 건구(乾溝), 또는 마른 하천이라는 의미의 건하(乾河)로 불리지만 우기인 여름철에는 오도백하 여러 지류에 습지가 생긴다. 수니교에서 남쪽으로 난 좁은 길을 벗어나면 넓은 길이 이어지는데, 이 길을 따라 동쪽으로 12km 정도 가면 원지가 나온다.

원지까지 약 3km 간격으로 3개의 다리를 지나게 되는데, 이 다리를 지나는 하천이 오도백하의 두 번째 · 세 번째 · 네 번째 지류이다. 이 중 세 번째 지류는 여름철 우기 직후에도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이다. 그리고 원지와 원지에서 동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두만강발원지(圖們江發源地) 사이에 하나의 다리가 더 있는데, 이 다리를 지나는 지류가 오도백하의 다섯 번째 지류이다. 두만강의 수원과 오도백하 지류와의 거리가 채 10km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옛사람들이 두 하천(두만강과 오도백하)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림 136. 오도백하 두 번째 지류의 시작지점

- 주: 1. 백하삼림방재처에서 인터뷰.
- 2. 2011. 7. 30 촬영.



그림 137. 오도백하의 지류

주: 2011. 7. 30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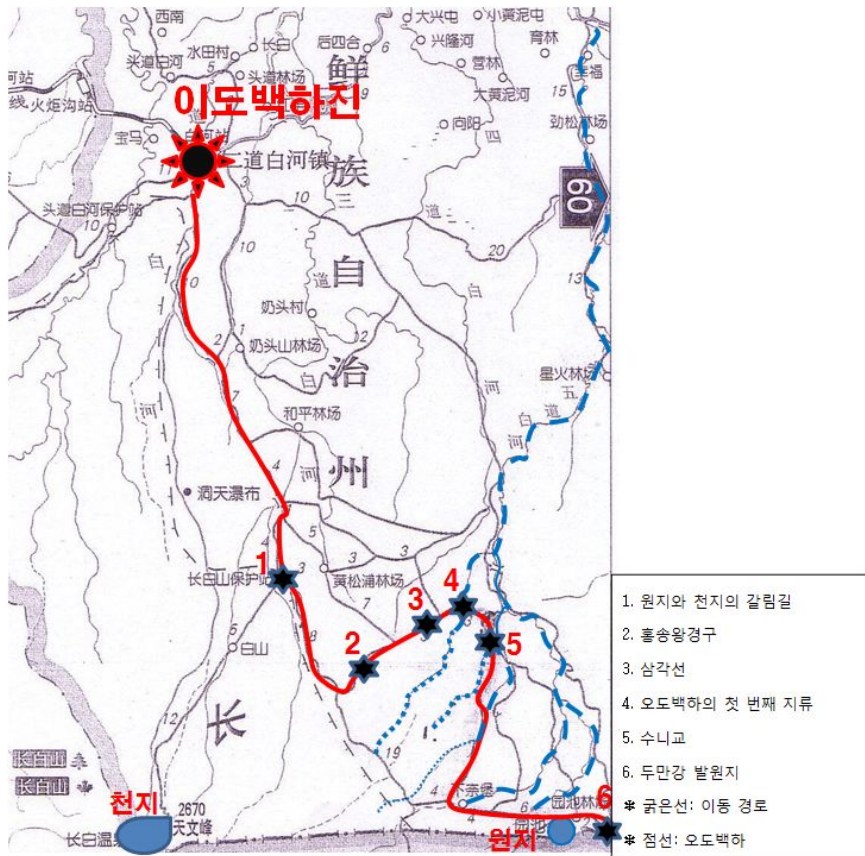


그림 138. 오도백하 원류 부근도

5. 요약

쟁점이 되는 백두산 동류 하천은 두만강, 토문강, 분계강이다. 토문 · 두만이 같다는 1강설과 서로 다른 강이라는 2강설, 그리고 최근에는 분계강 해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첫째, 토문강 · 분계강 · 두만강이 함께 나타나는 18세기 이후 고지도는 형태적으로 ① 원류가 다른 두 강이 있고, 북쪽 강 중간에 공백이 있는 경우. ② 원류가 다른 두 강을 잇는 목책이 있고, 북쪽 강 중간에 공백이 있는 경우. ③ 원류가 다른 두 강을 잇는 목책이 있는 경우. ④ 원류가 다른 두 강 중 정계비에서 목책이 연결된 강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목책과 두 강, 공백으로 표현되는 백두산 동쪽 수계의 형태는 작은 차이들을 보이지만, 두 강 사이에 공간을 인식하고 지도상에 표현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 공간은 조선시대에 분계강 안쪽-두만강 바깥쪽으로 표현되었던 넓고 평평한 땅이며, 조선의 영역으로 인식되었던 곳으로 현재 중국 연길 지역이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의 북쪽 강 중간의 공백은 ‘평정산(平頂山)’과 ‘북증산(北甌山)’이 있는 부분으로 산으로 인해 하천이 북류하거나 끊긴 부분에 아무것도 그리지 않고 공백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는 당시 그 지역의 수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확신이 없어서 공백으로 남겨놓은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세 강을 내용상으로 분류하면 ① 2강설을 표현하며, 토문강과 분계강이 같게 그려진 지도가 있다. 조선 전기 토문강이 북류하여 혼동강과 합류하는 매우 확대된 영토의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토문강은 백두산에서 동류하고, 분계강과 합류한 후 다시 두만강으로 유입되는 D와 E유형의 유로를 보여준다. 조선 초의 매우 확대된 영토인식에서 벗어났지만, 토문강과 두만강이 다르다는 2강설과 분계강을 통해 확대된 영토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분계강은 토문강과 같은 강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속평강의 의미를 계승하여 선춘령 공험진까지 확대된 고토 회복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기도 한다.

② 18세기 후반 여러 실학자는 토문강과 두만강을 같은 강으로 인식하였고, 이러한 인식은 지도에 1강설로 나타난다. 하지만 토문강(두만강)과 분계강을 다른 강으로 표현하여 D와 E유형 유로의 형태를 보여준다. 이 경우 분계강은 속평강으로, 고려의 옛 영토가 우리의 영역이었다는 적극적 영토의식이 나타난다.

그런데 1강설을 표현한 지도 가운데에는 다른 인식을 표현한 지도가 있다. ‘정계비~토문강~목책~두만강’으로 연결되는 하천을 통해 백두산정계비에서 동류하는 토문강과 두만강이 같은 강임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이 유로는 중국과의 북방영역 경계이며, 분계강이 가지는 의미는 속평강이 아닌 현재 지명의 해란하에 가깝다. 지도에는 확대된 영토인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셋째,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류에서 분계강이 두만강의 상류인 경우로 나타난다. 김정호는 지지를 기술하면서 토문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당시 토문에 대한 상이한 인식들을 통해 많은 고민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 진다.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토문’에 대해 지도에 그리지 않는 것을 선택하였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그가 그린 지도상의 ‘분계강상류’는 당시 실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고토회복 의지가 반영된 분계강이 아니다. 『대동지지 大東地志』의 ‘강희임진 분계시 이를 분계강 상류로 칭했다.’라는 기록을 통해 단순히 ‘분수령이 되는 강의 상류’임을 알 수 있다.

넷째, 중국에서는 1강설과 함께 토문강의 발원이 백두산이 아닌 소백산 부근이라는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서구식 근대적 지도의 특성을 나타내는 19세기 후반 지도에는 오도백하와 다른 두만강이 원지(圓池)와 원지 부근에서 시작되어 동류하며, 동해로 유입되는 유로의 형태가 다수 나타난다. 이 경우 오도백하는 고지도에서 토문강의 의미를 가지는데, 두만강은 도문강(圖們江)이며 도문강은 오도백하와 다른 강이다.

6. 연구의 한계점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의 북방 경계를 ‘국경’의 ‘선’이 아닌 ‘변경’의 ‘면’으로 바라보고 그 공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고지도를 통한 연구는 매우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고지도는 현재 공간의 옛 모습을 가장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옛 모습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당시 사회상과 옛 사람들의 인식 등 그 공간에 투영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다. 또한 문헌자료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공간의 위치와 범위 등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고지도만이 가지는 장점이 아닐 수 없다.

고지도의 특수한 성질과 장점을 바탕으로 고지도에 표현된 백두산 및 백두산 동북부하천을 분석하였고, 고지도에 나타나는 하천이 현재 어떤 하천인지 문자기록과 현재지도와의 비교를 통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하천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분석의 과정을 거쳐 다양한 관점을 도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헌기록 연구를 통해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토문강과 분계강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러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고지도의 ‘정확성’ 문제는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고지도라는 시각 자료는 당시 사람들이 이해한 지표상의 공간을 표현한 그림이기 때문에 현재지도가 가지는 정확성의 잣대로 논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지도와 다르게 그려진 고지도의 백두산 동북부의 하천을 ‘틀렸다’라고 하지 않고, 현재 어떤 하천인지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였다. 고지도마다 다르게 표현된 하천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분석하여 다양한 관점을 도출했으며, 어떤 고지도가 ‘옳다. 또는 그르다’라는 등의 주장은 배제하였다.

‘고지도의 한계’라고도 지적받는 ‘정확성 부족’의 문제에 관하여 필자는 고지도만이 가지는 ‘허용’이라고 주장하겠다. 고지도의 ‘허용’은 당시 사회의 인식과

국가의 분위기를 다양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다수의 고지도를 통해 과거의 한 공간을 연구한다면, 옛 사람이 살며 관찰했던 공간에 관한 보편적 이야기와 특수한 이야기를 모두 들을 수 있다. 개방적 자세로 고지도의 ‘허용’을 받아들인다면 ‘고지도의 한계’는 오히려 연구의 성과를 풍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VI. 결론

한민족과 중국 만주족의 민족적 영산이자 뿌리인 백두산 일부와 백두산 동북쪽 수계를 포함하는 지역은 중국의 국가 주권¹⁸⁶⁾ 하에 있지만, 한국의 역사주권¹⁸⁷⁾ 안에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국가 주권에서는 백두산과 주변지역을 ‘국경’의 ‘선’과 ‘현재적 관점’으로 바라본다. 한국에 이 지역은 이곳을 살았던 옛사람들이 현재의 ‘국경선’ 안팎을 오고 가며 수많은 점으로 ‘면’을 만들었던 공간이고, ‘면’으로 구성된 ‘변경’이다. 고지도는 옛사람들의 공간에 대한 인식과 사상, 사회적 분위기, 필요로 하는 수요와 공감대, 제작에 반영된 과학적 지식과 발전 정도를 포함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문자기록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한 위치를 공간 위에 총체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선’으로 표현되는 ‘국경’과 주변지역까지 포함하는 ‘면’으로 구성된 ‘변경’을 모두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백두산을 포함한 만주지역에 관한 연구는 지리, 역사, 인문, 국제법 등 다양하고 풍부하게 연구되어 왔으며, 중국과의 국경문제에 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다. 국경문제연구는 역사 · 지명 · 국제법 · 국제관계 · 국경문제 연구동향 · 하천 수계 등으로 다시 세분화할 수 있는데, 하천 수계를 중심으로 한 국경문제는 역사적인 문헌과 지지를 대상으로 연구되어 왔다. 고지도를 통한 수계 중심의 국경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지도를 통해 ‘백두산 및 쟁점이 되는 백두산 동북부 하천’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는 크게 ‘고지도를 통해 본 백두산’과 ‘고지도를 통해 본 백두산 동북부 하천’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백두산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백두산이 가지는 하계망의 독특한 성질이 화산 폭발로

186) ‘국가주권’에서 영토획득의 방법은 무주지 선점, 시효 취득, 함양, 침부, 정복의 다섯 가지를 포함한다. : Malcom N. Shaw QC, edited, op. cit. 3, p. xiv.; 김병렬, 2008, 영토/영해문제와 국가주권, 2008 International Conference 건국 60년과 우리의 영토와 주권, 한국국제정치학회, p.183 재인용.

187) 다민족국가인 중국은 ‘국가주권’의 관점을, 혈통적 민족개념이 완고한 한국은 ‘역사주권’의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2004, 임지현, 고구려사의 달레마-‘국가주권’과 ‘역사주권’의 사이에서, 근대의 국경, 역사의 변경, p.25.

이루어진 백두산과 천지의 특징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하계망은 이곳을 관찰하거나 살았던 사람들의 다양한 시각으로 고지도에 표현되었다. 따라서 고지도에 표현된 백두산을 분석하는 것은 고지도에 나타나는 쟁점이 되는 백두산 동북부 하천을 이해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 쟁점이 되는 백두산 동북부 하천은 양국의 경계를 정하는데 조선시대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흑룡강·송화강·속평강·토문강·분계강·두만강 등 이다.

백두산 영역권과 만주를 포함하고 있는 한국의 고지도 248점 가운데 백두산이 그려져 있지 않은 지도는 지도의 유형분류에서 제외하고, 160점의 고지도를 연구의 분석에 활용하였다. 크게 ‘백두산 표현’, ‘백두산 북동부 유로’와 관련된 두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 백두산 표현과 관련된 항목은 ‘백두산 명칭’, ‘천지 표기’, ‘백두산 표현의 특징’, ‘주기’의 네 가지로, 백두산 북동부 유로와 관련된 항목은 ‘백두산 북동부 유로’, ‘1강설과 2강설’, ‘분계강의 의미’, ‘유로의 특징’ 네 가지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여덟 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유형화한 내용을 통해 고지도에 나타나는 보편적 인식을 도출하였으며, 보편적 인식은 문자기록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객관화하였다. 그리고 고지도 이해와 해석에 부족한 부분은 현장 답사를 통해 보완하였다.

연구를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지도에 나타나는 백두산의 명칭은 ‘백두산’이 가장 많고, ‘태백산’, ‘백산’, ‘장백산’이 있으며 ‘불함산’은 지도의 주기에 나타난다. 백두산의 명칭에는 다양한 정보와 지식이 반영되어 있고, 색과 형태 등의 묘사에 따라 각기 다른 주제를 상징하기도 한다. 다양한 천지 명칭과 표현 역시 백두산의 상징성과 의미를 반영하며 이러한 모든 표현과 묘사는 백두산에 대한 인식을 총체적으로 표출한다. 특히 서울 역사박물관 소장본 《지도》(서 13193) 중 〈중국도〉에 표현된 ‘태백산’과 서울 역사박물관 소장본 《지도 地圖》(서 13187) 중 〈함경도 咸鏡道〉에 그려져 있는 ‘천년단목(千年檀木)’에는 민족 영산으로서 백두산의 신성함과 중요성이 표현되어 있다. 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 《조선팔도고금

총람도》(서 13145)는 두 개의 백두산을 다른 이름으로 지도에 표현하여 백두산을 강조하였다. 천하도 유형의 지도인 서울대규장각 소장본 《조선팔도지도 朝鮮八道地圖》중 〈천하지형 天下地形〉에는 백두산에서 분리된 천지가 독립적으로 지도의 북쪽 중앙에 묘사되어있다. 백두산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쟁점이 되는 백두산 북동부 유로는 두만강 북쪽 흑룡강이 동류하는 유로(A), 두만강과 흑룡강 사이 속평강이 동류하는 유로(B), 토문강 또는 분계강을 포함하는 유로 중 토문강이 북향하여 흐르는 경우(C) · 토문강과 분계강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경우(D) · 토문강 또는 분계강이 동향 · 동북향으로 흐르다 하류에서 두만강과 합류하는 경우(E), 백두산에서 두만강으로 이어지는 유로(F)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60점의 지도 가운데 A 유형의 고지도는 13점, B 유형은 7점, C 유형은 2점, D 유형은 35점, E 유형은 11점, F 유형은 76점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유형화를 통해 고지도에 다양한 백두산 북동부 유로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고지도에는 북방영역에 관한 인식이 나타난다. 현재 한반도와 중국의 국경선인 백두산~두만강 유로를 기준으로 볼 때, 확대(A, B, C)되거나 현재 양국의 국경선을 북방 한계로 생각(F)하는 국경인식이 나타난다.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 《팔도지도》는 A 유형,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는 B 유형, 서울대학교규장각 소장본 《백두산정계비지도》는 C 유형을 나타내는 지도 가운데 하나이다. 토문강 또는 분계강을 포함하는 유로 중 'D 유형'과 'E 유형'의 유로는 토문강 · 두만강의 1강설과 2강설, 분계강의 의미에 따라 상이한 인식이 나타나기도 한다.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동국지도》중 〈관북〉은 D 유형, 서울대학교규장각 소장본 《해동지도》중 〈서북피아양계전도〉는 E 유형의 대표적인 지도이다.

넷째, 토문강과 두만강 2강설은 대체로 확대된 북방영역 인식을 표출하는데, 대표적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동국지도》중 〈함경북도〉에 잘

나타나 있다. 1강설을 나타내는 지도 중에는 분계강을 속평강과 같은 강으로 표현하여 확대된 북방영역 인식을 표출하기도 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천하대총일람지도》는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도이다. 하지만 분계강의 의미가 현재 지명의 해란하인 경우, 지도에는 확대된 영토인식이 나타나지 않고 현재 한반도와 중국의 국경선과 일치되는 국경인식이 나타난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지도책 《북관지도》에 수록된 [관북지도]와 <북도 십읍>에 이와 같은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다섯째, 고지도에서 분계강은 네 가지 의미로 표현된다. ① 속평강을 의미하며 확대된 영토인식이 나타난다. 해남 녹우당 소장본 《동국여지지도》는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도이다. ② 토문강과 같은 강으로, 토문강의 하류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구관해방총도》를 대표적인 지도로 들 수 있다. ③ 현재 지명의 해란하를 표현하는 것으로 영남대학교 박물관 소장본 《관북전도》에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④ 단순히 분계를 나타내는 강으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나타난다.

여섯째,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백두산정계비지도》, 1934년 대일본제국 육지측량부에서 제작한 《만주10만분 1도 백두산18호 滿洲10萬分1圖 白頭山18號》, 2010년에 출간한 『흑룡강 길림 요녕 교통도책 黑龍江 吉林 遼寧 交通圖冊』의 비교를 통해 이중하가 주장하는 토문강이 오도백하이며, 두만강과 다른 강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하지만 고지도를 통해 오도백하가 토문강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고지도에는 토문강과 두만강을 하나의 강으로 표현한 지도가 다수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고지도를 통한 분석을 위해서는 유형화가 가능한 정도의 고지도 자료 확보가 우선 되어야 한다. 양적 연구를 바탕으로 보편적 인식을 도출하고, 문자기록과의 비교를 통해 객관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 답사를 통해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여 총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때, 종합적 시각에서 고지도 분석이 가능해진다.

연구의 한계점 및 앞으로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천 수계를 중심으로 한 국경문제 연구에서 고지도를 통한 연구는 미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다수의 고지도를 바탕으로 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한국에서 제작된 고지도가 대부분이라는 점은 연구의 한계점이기도 하다. 당시 고지도를 제작했던 한국 사람들이 관찰했던 공간의 모습과 인식만을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 나라의 입장을 배제한 채 국경문제를 논하여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객관화되고 설득력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국경문제에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중국과 일본의 고지도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시 동북아시아를 관찰하고 이해했던 서양의 시각에서 그려진 고지도 분석을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고지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한중간 근대적 국경개념의 성립에서 백두산정계비의 설립은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정계비 건립이 근대적 개념의 국경선 확정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지도에 나타난 백두산 및 쟁점이 되는 백두산 북동부 수계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정계비에 관한 분석이 미비하다. 고지도에 나타난 정계비 분석을 통해 지도가 그려졌을 당시 정계비 건립이 국경선 획정에 가지는 의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현재 공간의 옛 모습을 가장 시각적으로 표현해주며 문헌자료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공간의 위치와 범위 등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고지도의 특수한 성질과 장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를 통해 고지도에 나타나는 하천을 현재의 하천과 비교하여 설명하였으며 하천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분석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도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문헌기록 연구를 통해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토문강과 분계강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러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고지도의 ‘정확성’ 문제는 공격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렇지만 고지도라는 시각 자료는 당시 사람들이 이해한 지표상의 공간을 표현한 그림이기 때문에 현재 지도가 가지는 정확성의 잣대로 논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지도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하천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분석하여 다양한 관점을 도출했지만, 고지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는 않았다.

‘고지도의 한계’로 지적되는 ‘정확성 부족’의 문제는 고지도만이 가지는 ‘허용’이다. 당시 사회의 인식과 국가의 분위기는 고지도의 ‘허용’을 통해 고지도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수의 고지도를 통해 과거의 한 공간을 연구한다면, 옛 사람이 살며 관찰했던 공간에 관한 보편적 이야기와 특수한 이야기를 모두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고지도의 ‘허용’을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태도는 ‘고지도의 한계’를 넘어 연구의 성과를 풍부하게 만들 것이다.

- (1) 《지도 地圖》 중 〈중국도 中國圖〉, 서13193, 18세기 후반, 채색필사본, 30.3×35.2cm, 서울역사박물관.

《지도》는 채색필사본 동람도형 지도책으로, 〈천하도〉·〈중국〉·〈일본〉·〈조선국〉·〈유구국〉 그리고 도별도의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795년에 개칭된 경기도 시흥(始興), 1800년도에 개칭된 함경도 이원(利原) 등이 반영되어 있어, 1800년 이후에 제작된 지도책임을 알 수 있다.

〈중국〉 지도는 우공(禹貢) 구주, 춘추 전국시대의 11국, 명대의 13성을 중심으로 주요 산천이 그려져 있고, 13성 옆에는 북경까지의 거리가 표시되어 있다. 지도의 우측 여백에는 ‘사해최대십삼국(四海最大十三國)’이라는 제목으로 조선국, 일본국, 베트남 등 중국 주위의 13개 나라의 이름과 각 국의 행정구역 수가 기록되어 있다. 특히 북경과 남경 양경이 붉은 색 원으로 강조되어 있고, 황하는 다른 강의 푸른 색과 달리 황색으로 채색되어 있다.

- (2) 《조선지도 부 팔도천하지도 朝鮮地圖附八道天下地圖》 중 〈함경도 咸鏡道〉, 한古朝 61-6, 18세기 중반, 채색필사본, 24.5×30.5cm, 국립중앙도서관.

《조선지도 부팔도천하지도》는 〈천하총도 天下總圖〉, 〈중국지도 中國地圖〉, 〈유구국 琉球國〉, 〈일본국 日本圖〉, 그리고 조선전도와 조선 팔도의 지도로 구성되어 있는 지도책이다. 이 지도는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동람도식 형태의 〈함경도〉 지도이다.

- (3) 《청구도》는 1834년(순조 34년) 김정호(金正浩)가 만든 채색필사본 지도책으로, 「청구선표도 靑邱線表圖」라고도 부른다. 건·곤(乾·坤) 2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작원리를 수록한 최한기의 「청구도제 靑邱圖題」, 범례, 〈도성전도 都城全圖〉, 〈제주현도 諸州縣圖〉, 〈동방제국도 東方諸國圖〉, 〈사군삼한도〉, 〈삼국전도〉, 〈신라주현총도 新羅州縣總圖〉, 〈고려오도양계주현총도〉, 〈본조팔도성경합도〉, 〈본조팔도주현도총목 本朝八道州縣圖總目〉 등이 수록되어 있다. 현전본은 19세기 후반에 필사된 지도들이 다수이다.

전국을 가로 22판, 세로 29층으로 나누어 편람하기 좋도록 만든 총 321면의 지도책이며, 가로 70리, 세로 100리를 기준으로 모눈을 그린 경위선표식이다. 지도 위에 그려져 있는 방안이 산과 물을 자르는 기존 지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각 면의 위와 안쪽 또는 오른쪽에 10리 방안을 표시했을 뿐 지도 위에는 방안을 그리지 않았다. 그리고 군현의 경계를 확실하게 하였으며, 특히 비지(飛地)와 두입지(斗入地)를 표시하여 한눈에 볼 수 있게 한 점은 이전의 어느 지도보다도 실용적이다. 특히 사방을 12개의 방위로 나누고, 10리 간격의 원이 그려져 있는 지도식이 있다. 지도식은 기호만 별도로 모은 범례표가 아니라 지도상에서 직접 바다, 섬, 강, 산, 읍성, 목장, 못, 다리, 고개, 봉수, 누각 등의 기호를 설명하고 있는데 현대 지도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지리지에만 수록되어 있는 정보를 지도에 수록하여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모든 고을마다 호구수, 토지 면적, 군사 총수, 세금으로 거두어들이는 곡식의 총량, 한성까지의 거리 등을 기록하고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곳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는 등 역사지리 정보도 수록하였다. 현재 필사본으로 제작된 청구도는 국내에만 9종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품의 보물 제 1594-1호 《청구도》와 영남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은 비교적 보관 상태가 좋고 구성이 뛰어난 채색필사본이며 고려대학교도서관 소장본은 가장 최초의 본인 것으로 추정된다.

- (4) 《화이지계 華夷地界》 중 〈성경 盛京〉, 연대미상, 채색필사본, 27.5×17.5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1책 13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중국(華)과 중국의 변방(夷)과의 변경지역을 그린 지도이다.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성경〉 지도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있는 《각국도》 중 〈성경전도_청일통지본〉과 매우 유사하다. 산해관에서 이어지는 요동변장과 유조변 신변과 노변, 변문, 흑룡강 이남의 영고탑 지역까지 지도에 표현하였다. 《각국도》의 〈성경전도〉에 비해 채색이 화려하지는 않으나 성경 서쪽지역 ‘홍라산(紅羅山)’을 붉게 표현하는 등 회화성이 뛰어난 작품이다.

- (5) 《각국도 各國圖》 중 〈천하전도 天下全圖〉, 古2802-1, 1822년 이후, 채색필사본, 33.2×44.0cm, 국립중앙도서관.

《각국도》 중에 수록된 〈천하전도〉이다. 중국에서 제작된 목판본 지도를 바탕으로 조선에서 다시 그린 중국 중심의 세계지도이다.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채색필사본 《여지전도》와 매우 유사하다. 《여지전도》와 비교할 때 몇 글자의 누락이나 오기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여지전도》가 먼저 전사되고, 그 후에 다시 전사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 윤곽, 만주지방의 구획, 바다길의 표시 등 지도의 내용과 표현을 볼 때 저본이 된 지도는 1814년 중국에서 간행된 《대청만년일통천하전도 大清萬年一統天下全

圖》로 보인다. 중국을 중심에 두고 나머지 국가들을 주변에 배치하는 전통적인 화이관(華夷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조선에서 제작되는 많은 중국지도들이 명나라 때의 상황을 그린 데 반해 이 지도에는 청나라 때의 변화된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서북쪽에는 영국[英主黎](《여지전도》에는 영국[英吉黎國]으로 표기), 네덜란드[荷蘭國], 러시아[俄羅斯], 대서양(大西洋) 등의 서양 지명도 기입해, 서양 세계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지도의 상단에는 중국 각 성(省)에 대해 간략히 기록하였다. 황하가 황색으로 채색되어 있으며, 고비사막 북쪽까지 그려져 있어 청대에 이루어진 서쪽으로의 영토 확장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중국 각 성마다 채색을 달리하고 만리장성을 흰색으로 그렸으며 황하는 황토색이다. 중국 동북지역의 유조변도 자세히 그렸다. 중국에서 그린 지도를 모사한 것이므로 조선은 매우 간략하고 부정확하게 그려져 있고 ‘조선(朝鮮)’ 두 글자만 표기되어 있다.

- (6) 《백두산정계비지도 白頭山定界碑地圖》, 奎軸26675, 1887년, 채색필사본, 54.2×99.0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지도에는 광서 13년 5월 26일 중국 감계관 방랑(方朗), 덕옥(德玉), 진영(秦煥), 조선감계사 이중하, 위원 팽한주(彭翰周)가 이 회담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천지에서 흘러내리는 장백폭포는 이도백하로 이어지고, 삼도백하와 사도백하는 천지 북쪽에서 발원한다. 천지에서 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의 정계비 부근에서 북쪽으로 석퇴와 토퇴가 ‘황화송구자(黃花松溝子)’를 따라 이어진다. 황화송구자는 지금의 오도백하이며 1934년 대일본제국육지측량부에서 제작한 〈만주10만분1도 백두산18호(滿洲10萬分1圖 白頭山18號)〉 지도의 상류에는 ‘하유송구자(下柚松溝子)’로 표기되어있는 이도강(二道江)이다. 그리고 이도강은 이중하가 주장하는 토문강이다. 즉, 백두산 천지인 ‘대지(大池)’ 부근 이도백하·삼도백하·사도백하, 그리고 명칭의 표기가 없는 오도백하는 천지의 북쪽으로 흐르다가 만나서 송화강으로 합류하게 된다. 이중하는 정계비에서 동쪽에서 흘러 송화강으로 합류하는 황화송구자(오도백하)를 두만강과 다른 별개의 강인 토문강으로 상정하고 있다. 조선의 감계사 이중하는 토문강은 두만강과 전혀 다른 별개의 강인 오도백하이며, 송화강과 합류한다는 진실을 지도에 함께 그려놓았다.

- (7) 《지도 地圖》 중 〈동국팔도대총도 東國八道大總圖〉, 가람古912.5-J561, 연대미상, 목판본, 25.8×32.2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지도》에 수록된 〈동국팔도대총도〉는 조선전도로서 전체적인 윤곽은 《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팔도총도〉와 거의 동일하다. 지도의 왼쪽과 오른쪽 여백에는 조선 전체의 모습에 대해 “조선은 남북으로 3,200리이고 동서로 1230리, 온성에서 서울까지 2091리, 해남에서 서울까지 1007리”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경성을 중심으로 정북의 함경도 온성, 정남의 전라도 해남, 정동의 강원도 강릉, 정서의 황해도 풍천까지의 거리가 적혀 있다. 조선의 행정단위를 경·유수부·대도호부·목·도호부·군·현으로 나누어 각각의 숫자를 기록하였다. 양 쪽 여백의 이 기록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되어 있는 《동국여지도 東國輿地圖》에 수록되어 있는 〈동국대총〉과 같다.

- (8) 《여지도 輿地圖》 중 〈동국팔도대총도 東國八道大總圖〉, 古4709-1, 연대미상, 채색필사본, 28.9×39.4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여지도 輿地圖》는 〈천하제국도〉, 〈중국도〉, 〈성경여지전도〉, 〈일본도〉, 〈유구국〉, 〈동국팔도대총〉과 팔도의 지도를 수록하고 있는 지도책으로 바다와 하천, 산에 파란색으로, 경도에 붉은색으로 채색한 점만 다르고,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되어 있는 《지도》 중 〈동국팔도대총도〉와 동일한 내용을 가진 지도이다. 〈동국팔도대총도〉는 조선전도로서 전체적인 윤곽은 《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팔도총도〉와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팔도총도〉와 달리 국가의 제사처가 있는 주요 산을 그리기 보다는 조선 후기 민간에서 중요하게 인식하던 산과 강을 표현했다. 지도의 왼쪽과 오른쪽 여백에는 조선 전체의 모습에 대해 “조선은 남북으로 3200리이고 동서로 1230리, 온성에서 서울까지 2091리, 해남에서 서울까지 1007리”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경성을 중심으로 정북의 함경도 온성, 정남의 전라도 해남, 정동의 강원도 강릉, 정서의 황해도 풍천까지의 거리가 적혀 있다. 조선의 행정단위를 경·유수부·대도호부·목·도호부·군·현으로 나누어 각각의 숫자를 기록하였다.

- (9) 《천하도 天下圖》 중 〈팔도총도 八道總圖〉, 1017, 연대미상, 채색필사본, 28.6×33.9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천하도》는 〈천하도〉, 〈중국도〉, 〈일본도〉, 〈유구국도〉, 〈팔도총도〉와 팔도의 지도로 구성된 조선 후기 유행했던 채색필사본 지도책이다. 이 중 〈팔도총도〉의 전체적인 윤곽과 내용은 동람도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팔도총도〉와 달리 국가의 제사처가 있는 주요 산을 그리기 보다는 조선 후기 민간에서 중요하게 인식하던 산과 강을 표현했다. 바다는 파도무늬를 새겨 청색으로 채색했다.

- (10) 《서북계도 西北界圖》 古4709-89, 18세기 중반, 채색필사본, 23.5×17.0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중국의 동북부 지방(만주 지방)과 우리나라의 북부 지방을 포함하는 변경지도(邊境地圖)로 모두 6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지도의 훼손이 심하여 모두 파악할 수 없는 점이 안타깝다. 지도의 서쪽은 중국의 북경(北京)과 산둥반도(山東半島)를 포함하고 동북쪽은 흑룡강(黑龍江)에 이른다. 산해관(山海關)에서 시작하는 유조변과 변문이 자세히 표기되어 있다. 의주(義州)에서 봉황성(鳳凰城)과 심양을 거쳐 북경에 이르는 연행로와 영고탑(寧古塔)에서 개원(開元)을 거쳐 성경(盛京 심양瀋陽)에 이르는 경로와 주요 경유지를 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부분은 평안·함경·황해의 북부 3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압록강과 두만강변의 성(城)·진(鎭)·보(堡)를 상세히 그렸고, 대안(對岸)의 만주지역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작성된 서북(西北)지방의 관방도(關防圖) 중 가장 자세한 지도이다.
- (11) 《관서관북도 關西關北圖》 중 <관서관북도 關西關北圖> M82, 연대미상, 채색필사본, 57.0×73.0cm, 국립중앙박물관.
 《관서관북도》는 관서와 관북을 그린 <관서관북도>, 경기·해서·관동을 그린 <경기부해서관동도 京畿附海西關東圖>, 호서·호남·영남을 그린 <호서호남영남도 湖西湖南嶺南圖>, 중국의 동해안과 조선의 서해안을 묘화하고 특히 북부 심양지방의 해안을 자세히 그린 <해방도 海防圖>를 포함한 모두 4장의 지도를 수록하고 있다.
 《관서관북도》에 수록된 조선전도는 북부, 중부, 남부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 중 북부지역을 그린 <관서관북도>는 만주지역의 주요 도시인 영고탑, 오라, 심양을 표기했고 책문에서 오라로 이어지는 유조변도 그렸다. 두만강에 비해 압록강의 유로가 세 배 이상 길며 압록강 부분이 더 자세하다. 높은 봉우리의 연이은 산맥은 험준함과 위엄을 드러내고 있으며 하천과 도로, 봉수대가 잘 묘사되어 있다.
- (12) 《청구관해방총도 靑丘關海防總圖》 本館11651, 보물 제1582호, 1776-1787년, 채색필사본, 85.5×282.0cm, 국립중앙박물관.
 지도의 남북이 실제보다 두 배 이상 길게 그려졌고 지명과 주기 등 글자는 동쪽 방향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마치 한반도가 눕혀져 있는 듯하다. 남쪽에는 일본의 모습이 간략하게 그려져 있고 지도의 여백에는 국경지역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붉은 글씨로 적어 놓았다. 만주지역이 비교적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영고탑과 산해관에서부터 이어지는 유조변과 변문이 자세하다.
 청록색의 백두산을 중심으로 연이어 산맥을 이루는 모습이 유기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조선 부분에서는 군사 기지인 진보(鎭堡)와 성곽이 잘 그려져 있다. 붉은 선으로 교통망을 그리고, 해안에는 방어 시설과 관련된 초(哨: 백 명을 단위로 하는 군대의 편제)와 당(塘)을 표시했다. 봉수는 햇빛모양으로, 요충지는 깃발모양으로 표현하였다.
- (13) 《관북전도 關北全圖》, 10275, 1895년, 채색필사본, 84.0×81.0cm, 영남대학교 박물관.
 1895년에 제작된 40리 방안의 함경도지도이다. 지도의 상단에는 함경도 각 군현의 호총(戶總)·인구·전총(田總)·곡총(穀總)·사방(社坊)·토산·토품·인성·군액(軍額)·진보(鎭堡)·진포(津浦)·산천(山川)·리정(里程) 등의 항목이 표의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다. 함경도의 윤곽이 남쪽으로 치우쳐 그려져 있어서 방위가 정확하지 않다. 산맥은 여러 갈래를 먼저 그리고 그 위에 우모식과 유사하게 먹으로 채색한 점이 독특하며, 하계망이 매우 상세하다. 왜곡된 형태의 지도윤곽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우모식 산맥 표현법은 서구의 근대적 지도 특성을 띠고 있으며, 하계망은 대하천 뿐만 아니라 동해로 흘러드는 지류까지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 (14) 《천하여지도 天下輿地圖》, 32, 1747년, 목판본, 122.6×111.0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지도 상단에는 지도 전체의 3분의 1정도에 해당하는 공간에 주기가 기록되어 있다. 중국 각성(省)과 부(府)에서 북경·남경과의 거리, 그리고 각 도시의 세금으로 공납하는 쌀의 양에 대한 기록이다. 지도의 범례표가 있고, '건륭제 정묘년 매우 추운 겨울에 제작되었다.[乾隆丁卯孟冬]'라는 주기를 통해 1747년 겨울에 제작된 지도임을 알 수 있다. 지도 상단의 주기 부분을 제외한 지도부분은 글자와 지형 등이 겹치는 부분이 많다. 처음 지도만 있는 판본을 인쇄하고 그 위에 주기까지 포함된 목판본을 겹쳐서 다시 인쇄한 것으로 보인다. 지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기 부분은 후에 첨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 (15) 《조선팔도고금총람도 朝鮮八道古今總覽圖》 서13145, 보물 제1602호, 김수홍(金壽弘), 1673년, 목판본, 141.8×107.0cm, 서울역사박물관.
 보물 제1602호로 지정된 목판본 조선전도이다. 조선시대 우리나라의 각 지역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수록하여 고금(古今)을 함께 볼 수 있다. 지도의 작자 김수홍(金壽弘)(1601~1681)은 병자호란 때 강화성(江華城)에서 순절한 김상용(金尙容)의 손자이며 호조(戶曹)참판을 지냈다. 현종 7년(1666)에는 《천하 고금대총편람도 天下古今大總便覽圖》(서13124)를 목판으로 간행한 바 있다. 지도 좌측에 쓰여 있는 발문의 끝 부분 ‘계축맹하(癸丑孟夏)’를 참고로 이 지도의 작성연대를 1673년(현종 14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도의 윤곽은 조선 전기의 유형(類型)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이 동서 일직선상에 있고, 평안도와 함경도가 남북으로 심하게 압축된 모양을 하고 있다. 경도(京都), 즉 서울의 도성을 축척에 관계없이 크게 그려 수도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성 안에는 4대문,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 종묘, 경덕궁, 육조(六曹), 훈련원, 사직, 태학, 태평관 등이 표시되어 있고, 도성 밖으로는 경기감영, 동관왕묘, 남관왕묘 등이 표시되어 있다. 하계(河系)는 각 군현과 그 곳에 대한 주기(註記)를 쓰기 위하여 유로(流路)를 바르게 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군현의 위치도 매우 부정확하다. 한편 역사적인 사실이 발생한 지역에 첨가하였다. 지도의 곳곳에는 여백을 이용하여 28수(宿)의 별자리 이름인 미(尾)·기(箕)를 기입하여 우리나라가 미(尾)·기(箕) 분야에 속해 있음을 표현하였다.

- (16) 《천하 고금대총편람도 天下古今大總便覽圖》서13124, 1666년, 목판본, 142.8×89.5cm, 서울역사박물관.

1666년(현종 7)에 김수홍이 만든 중국 중심의 전통적 세계지도이다. 중국의 역사적인 기록을 해당되는 지역에 기록한 지도와 지지(地誌)를 겸한 지도이다. 지도 상단에는 『대명일통지 大明一統志』의 노정기(路程記)와 당(唐)나라 두우(杜佑)가 쓴 『통전 通典』의 노정기(路程記)가 인용되어 있고 왼쪽 면에는 1666년 지도 제작자 김수홍(金壽弘)이 쓴 발문이 있다.

발문에 회남자(淮南子)를 인용하여 태장(太章)과 수해(堅亥)가 같이 동서와 남북을 걸어 각각 23만 2575리를 얻어 천체(天體)가 원(圓)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마테오리치의 일도(一度)를 250리라고 말하고, 또 다른 수치들을 언급해 전통적 동양식 우주관과 서양에서 수입된 서양식 천문관의 혼재를 보여 준다. 만리장성 북쪽으로는 현재의 유럽을 가리키는 구라과국(歐邏巴國) 이마두(利瑪竇)라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은 지도의 제작자인 김수홍이 유럽인으로서 중국에 왔던 마테오리치[利瑪竇]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우측에는 백두산과 압록강, 두만강이 표시되어 있고 조선과 8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모두 4매의 판목을 잇대어 지도를 새겨 판각한 것으로 중국의 주요 도시와 성(省), 만리장성, 황하, 양자강 등의 하천, 산 등과 함께 경승, 유적, 인물 등이 기록되어 있다. 지도의 윤곽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간략하게 윤곽과 하계망, 주요 산을 그렸으며, 지명과 국명도 옛 것과 현재 것이 혼재해 있다. 필사본과 달리 바다의 표현은 동남도식 지도에 나타나는 바다의 물결무늬인 수파묘(水波描)가 그려져 있고 조선부분에는 조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다. 저자가 명시된 보기 드문 지도이며, 조선 초기목판본 지도의 보급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 (17) 전세보 傳世寶 중 [조선·만주지도 朝鮮·滿州地圖], 974, 18세기 후반, 채색필사본, 26.3×15.7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세상에 전하는 보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전세보》는 〈천문도〉, 〈중국도〉, 〈조선전도〉, 중국 각 지역도, 중국 역대국의 보계도(譜系圖), 주역의 하도(河圖), 낙서(洛書), 팔괘(八卦), 병법의 진도(陳圖) 등과 같은 다양한 그림들이 수록되어 있다. 《전세보》중 조선 전체와 중국의 동북부지역을 그린 지도이다. 보통 산해관부터 중국의 동북부지역을 그린 지도의 경우 조선의 북부지역만을 그리는데, 이 지도에는 조선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 한반도의 모습도 북쪽 지방이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조선전기의 전도 형태를 보여준다.

- (18) 《고지도첩 古地圖帖》 중 〈천하산천맥락도 天下山川脈絡圖〉, 10137, 19세기 초, 채색필사본, 36.4×59.8cm, 영남대학교 박물관.

1첩 8절로 구성된 채색필사본 지도첩에 실려 있는 중국 중심의 세계지도이다. 다른 중국도에 비해 우리나라의 모습이 비교적 자세하며,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1402년)와 윤곽이 비슷하다. 중국의 4분의 1 정도 크기로 그려진 조선은 비율상으로 볼 때, 중국보다 더 강조되어 있다. 산은 연이어 녹색의 산맥으로 표현했고 수계를 자세히 그렸다. 특히 성국하(星宿河)에서 발원하는 황하는 황색으로 강조하였고, 마호(馬湖)·동정호(洞定湖)·태호(太湖) 등의 유명한 호수도 부각시켜 그렸다. 산보다는 하천을 중심으로 그린 지도이다. 중국 산천의 지명과 명성(各省), 조선 팔도를 표기했다. 만주지역은 흑룡강 이남지역까지 표현했는데, 청을 건국한 건주여진과 생여진을 표기했다. 산해관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만리장성과 산해관에서 동쪽으로 이어진 요동변장이 있다.

- (19) 《동국여지도 東國輿地之圖》연대미상, 채색필사본, 121.0×73.4cm, 해남 녹우당.

보물 제481호로 지정된 공제(恭齋) 윤두서(尹斗緒)가 그린 우리나라 전도이다. 백두산 정계비가 표시

되어 있고 군현의 품계 등으로 보아 1710년대에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윤두서는 《중국여도 中國輿圖》와 《일본여도 日本輿圖》도 그렸는데 《중국여도》는 현존하지 않는다. 《동국여지도》는 조선 전기의 조선 전도로부터 조선 후기의 전도로 전환해가는 점이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지도로서 의의가 있다. 세필(細筆)에 능한 공재의 작품답게 매우 정교하고 섬세하며 채색도 훌륭하다. 각 군현의 모양을 달리 표시하여 부·목·군·현의 품계를 그려놓은 점이 조선 전기 지도와의 차이점이다. 군현의 채색을 도별로 달리하였으며, 군현 명칭 옆에 서울에서의 거리, 좌우도의 소속 관계를 표기하였다. 붉은 색으로 그린 육로(陸路)도 굵기를 달리함으로써 대로·중로·소로 등 도로의 크기를 구분하였고, 바닷길은 황색으로 표시하였다. 해남 녹우당에 소장되어 있으며 11대손 윤희식(尹亨植)이 관리하고 있다.

(20) 《조선팔로지도 朝鮮八路地圖》, 31, 1707년, 필사본, 126.0×83.0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1767년 산청(山淸)과 안의(安義)로 지명이 바뀌는 산음(山陰)과 안음(安陰)이 그대로 남아있고, 1684년 신설된 무산이 있으며 1712년 세워진 백두산정계비가 없다. 그리고 지도의 하단에는 정해년 정월 13일에 지도를 제작하여 3월5일에 완성했다는 주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1767년 이전, 1684년 이후의 정해년인 1707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공재(恭齋) 윤두서(尹斗緒)의 《동국여지도》와 조선의 전체적인 윤곽과 내용이 비슷하다. 북부지방의 왜곡된 모습과 압록강과 두만강 유로가 일치선에 가까운 모습은 조선 초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지도의 과도기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하지만 지도의 내용은 조선후기 지도 못지않게 풍부하며 유로가 자세하다. 특히 압록강 넘어 요동지역까지 자세히 표현되어 있다.

(21) 《북방강역도 北坊江域圖》, 영조 혹은 정조 연간, 채색필사본, 111.0×73.5cm, 개인소장.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89호로 지정되어 있다. 고지도에 정식 명칭이 없기 때문에 편의상 《북방강역도》로 이름 붙였다. 《북방강역도》는 지질이 두꺼운 한지로 제작된 대형지도로 황해도에서 백두산에 이르는 산천(山川), 성곽(城柵), 도서(島嶼), 지명(地名), 거리(距離) 등을 자세하게 표현했다. 특히 백두산 부근의 지명과 마을 이름, 거리 등을 적어 놓아 군사용 지도로 제작된 듯하다.

조선시대 영조와 정조 때의 유명한 실학자인 신경준은 신말주(申末舟)의 후손으로 천문, 지리, 음운학에 밝았다. 특히 그는 조선팔도의 산천 지리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명으로 정상기의 《동국여지도 東國輿地圖》와 《팔도분도》 등을 감수하였다. 저서로 『강계지 疆界誌』, 『산수경 山水經』, 『도로고 道路考』, 『산경표 山經表』 등의 지리서와 『여암집 旅庵集』이 있다. 그리고 그가 편찬한 지도인 《북방강역도》와 《강화도이북해역도》는 훼손된 부분이 있지만 비교적 잘 보관되었다. 현재는 설씨부인(薛氏婦人)의 권선문첩(勸善文帖:보물 728)과 함께 고령신씨 중손인 신남두(申南逗)의 본가에 세워진 보호각(保護閣:1990년 신축)에 소장되어 있다.

(22) 《관서관북도 關西關北圖》 중 <관서관북도 關西關北圖>, M82, 연대미상, 채색필사본, 57.0×73.0cm, 국립중앙박물관.

지도의 맨 위에 우뚝 솟은 백두산에서 우리나라가 시작되고 있다. 백두산 옆에는 중국에서는 장백산으로 명명한다는 의미의 ‘백두산 피운 장백산(彼云 長白山)’이라는 표기가 있고 천지에는 ‘주사십리 지(周四十里 池)’라고 표기되어 있다. 백두산에서 이어지는 산맥과 강이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생동하고 있음이 느껴진다. 백두산의 여러 산맥과 천지 동쪽에서 발원하는 두만강의 지류들이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유입된다. 백두산보다 북쪽에 있는 다른 산에서 발원하는 ‘토문강원’도 두만강의 지류들 중 하나이다. 정계비는 없지만 분수령이라는 표기가 있다.

(23) 《각도지도 各道地圖》 중 <조선전도 朝鮮全圖>, 10176, 18세기 후반, 채색필사본, 99.0×56.0cm, 영남대학교 박물관.

조선 순조 연간에 제작된 8도전도 『도리도표 道里圖表』 류의 지도다. 전체적인 윤곽과 내용이 정상기의 《동국지도》와 비슷하지만, 《동국지도》 유형의 전도와는 달리 압록강·두만강 이북의 산과 고개, 하천 등이 그려져 있다. 전체 한반도 산맥의 조종으로 강조된 백두산을 중심으로 산맥을 연이어 그리고 독립된 산이 혼재되어 표현되어 있다. 지도의 여백에는 조선 후기의 전도에서 많이 보이는 조선 지형의 좌향과 정동·정서·정남·정북의 위치와 거리를 주기하였다. 또한 《동국지도》처럼 십촌(十寸)으로 구분된 백리척(百里尺)도 있다. 국방상 요충지인 진보(鎭堡)·산성(山城)·역도(驛道)를 작은 원으로, 그리고 봉수(烽燧)는 붉은색의 햇불 모양으로 표시하였다. 팔도의 감영은 일반 군현보다 크게 그려 위계를 나타냈다.

(24) 《동국대지도 東國大地圖》, 德壽4396, 보물 제1538호, 18세기, 채색필사본(비단), 272.2×137.9cm, 국립중앙박물관.

2007년 보물 제 1538호로 지정되었다. 세로가 3미터, 가로 1미터가 넘는 대형 조선전도로 만주지역

의 흑룡강 유역까지 담고 있다. 지도 상단과 백두산 동쪽 부분의 박락이 심하여 안타깝지만, 세건(細絹) 세 폭에 표현된 정교한 이 지도는 도화서 화원의 솜씨로 추정된다. 조선의 전체적인 모습, 수록된 정보의 종류와 양은 정상기(鄭尙驥, 1678-1752)의 《동국지도》 원본 계통과 동일하다. 백두대간과 청북정맥 등 주요산맥은 진한 청록색으로 채색했고 다른 산지는 연두색으로 표현했다. 특히 국경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봉수대와 붉은 선의 도로망이 매우 상세하다. 국가에서 정상기의 《동국지도》를 원본으로 하고, 관에서 만주지역을 첨가하여 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의 첫 번째 수도였던 ‘흥경(建州興京)’과 세 번째 수도 ‘성경(盛京)’은 붉은색으로 강조하여 표기했고 유조변이 그려져 있다. 의주를 지나 압록강을 건너 성경과 오라를 지나 영고탑까지 가는 노정도 붉은 선으로 그렸다.

- (25) 《북관장파지도 北關長坡地圖》, 古朝61-59, 1880년대, 채색필사본, 71.5×109.7cm, 국립중앙도서관.
백두산과 백두산 동쪽 두만강 상류 무산 부분까지 자세하게 그린 지도이다. ‘장파(長坡)’는 긴 언덕을 뜻하는데, 계곡을 따라 두만강 연안까지 뻗어 있는 용암대지와 말단부의 단애가 지도에 잘 나타나 있다. 두만강 북안에는 침식으로 고립된 용암대지의 평탄면(平坦面)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다. 백두산과 정계비(定界碑) 부근의 목책과 토돈, 하계(河系)지형 등이 매우 상세하다.
- (26) 《서북양계지도 西北兩界地圖》 중 <관북총람도 關北總覽圖>, 貴706, 연대미상, 채색필사본, 87.5×88.7cm, 고려대학교 도서관.

《서북양계지도》에는 앞·뒷면으로 <관북총람도>와 <서관총람도>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지도는 함경도 23관을 그린 <관북총람도>이다. 세로 3단, 가로 5단으로 접힌 지도의 많은 부분 박락과 구김이 안타깝다. 여백에는 삼영소령군병총수(三營所嶺軍兵總數)에 대한 기록과 함경도 23관의 민호, 전(田) 등에 관한 내용을 주기하고 있다. 지도의 상단에는 ‘서저심양(西抵瀋陽)’, ‘서북극오라(西北極烏喇)’, ‘동북극영고탑(東北極寧古塔)’이라 표기되어 있다. 당시 조선에서 중요시하던 청의 세 번째 수도 심양과 청의 발상지로 알려진 영고탑, 서북지역의 중심 길림(오라)를 지도에서 언급하고 있다.

- (27) 《좌해여지도 左海輿地圖》 중 <동국팔도대총도 東國八道大總圖>, 292.1-443, 19세기, 채색필사본, 34.0×21.6cm, 천리대학 부속 천리도서관.

푸른 채색이 특히 돋보이는 아름다운 동람도형 전도이다. 지도의 여백에는 단군에서 시작되는 조선의 역사를 간략하게 기록하였다. 그리고 “남북으로 3220리, 동서로 1230리, 정북 온성, 정남 해남, 정동 강릉, 정서 풍천”이라는 주기를 넣었다. 한편 지도에서 서울의 표기인 ‘왕도(王都)’가 특징적이다. 그리고 왕도의 사대문과 궁에 대한 주기를 기록했다.

- (28) 《좌해여지도 左海輿地圖》 중 <함경도 咸鏡道>, 292.1-443, 19세기, 채색필사본, 34.0×21.6cm, 천리대학 부속 천리도서관.

《좌해여지도》에 수록되어 있는 <함경도> 지도는 푸른 채색이 특히 돋보이는 아름다운 동람도형 도별도로, 함경도 북도 12개의 군현을 그린 지도이다. 지도의 여백에는 백두산 산상에 대지(大池)가 있으며 80리에 이른다는 주기를 시작으로 백두산과 주변지역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3역(驛), 19보(堡), 민, 전, 결 등에 관한 주기를 덧붙였다.

- (29) 《동국여지도 東國輿地圖》 중 <동국대총 東國大摠>, 古4709-96, 여운(呂溫), 1849년, 목판본, 19.2×33.0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동국여지도 東國輿地圖》는 <천하도>, <중국도>, <동국대총>과 팔도의 지도로 구성된 지도책이다. 이 중 <동국대총>은 조선전도로서 전체적인 윤곽은 《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팔도총도>와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팔도총도>와 달리 국가의 제사처가 있는 주요 산을 그리기 보다는 조선후기 민간에서 중요하게 인식하던 산과 강을 표현했다. <팔도총도>에 비해 부드러운 곡선으로 표현한 전체적인 윤곽과 안정된 구도는 소장하고 싶어지는 한 폭의 판화작품처럼 느껴진다.

지도의 왼쪽과 오른쪽 여백에는 조선 전체의 모습에 대해 “조선은 남북으로 3,200리이고 동서로 1230리, 온성에서 서울까지 2091리, 해남에서 서울까지 1007리”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경성을 중심으로 정북의 함경도 온성, 정남의 전라도 해남, 정동의 강원도 강릉, 정서의 황해도 풍천까지의 거리가 적혀 있다. 조선의 행정단위를 경·유수부·대도호부·목·도호부·군·현으로 나누어 각각의 숫자를 기록하였다.

- (30) 《지도 地圖》 중 <조선국팔도통합도 朝鮮國八道統合圖>, 서13181, 19세기, 채색필사본, 50.0×25.2cm, 서울역사박물관.

《지도》는 아름다운 채색필사본 동람도형 지도책이다. <천하도>, <중국지도>, <일본지도>, <유구국지도>, <조선총도>, <조선국팔도통합도> 그리고 각 도별지도로 구성되어 있다. 도별도의 외곽에 호구(戶口)와 수조(收租)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계유호구(癸酉戶口)’, ‘갑술수조(甲戌收租)’로 기록되어 각각 1813년과 1814년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명 변화는 충실하게 반영

되어 있지 않다. 경기도의 ‘시흥(始興)’은 개칭(1795년)되기 전 지명인 금천(衿川)으로 표기되어 있는 반면, 충청도 ‘노성(魯城)’은 1800년 개칭 이후의 지명으로 쓰여 있다. <조선국팔도통합도>는 우리나라의 산계와 수계를 그리고 팔도 군현을 배치한 전도이다. 지도의 여백에는 우리나라의 국호(國號), 연혁(沿革), 도별(道別) 군현(郡縣) 총수, 팔도관명(八道官名) 총록 등이 기재되어 있다. 지도의 윤곽은 평안도와 함경도가 상대적으로 작게 표현된 조선전기의 조선전도 유형에 속하며, 해안선과 산맥을 과감하게 단순화시킨 점이 특징적이다. 백두산에서 이어지는 산맥과 강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은 유기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생동감을 더하고 있다. 청록색의 산줄기를 비롯하여 각 군현별 화려한 채색, 특히 붉은 띠 안에 검정색으로 채색한 만주지역은 매우 독특하다. 여백의 주기에는 단군조선을 정통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조선만만세(朝鮮萬萬歲)’라고 주기하여 조선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 (31) 《팔도총도 八道總圖》, 古軸4709-74, 1683년, 채색필사본, 124.0×90.5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서와 관북 지방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있는 조선전기 전도의 형태이며, 정척(鄭陟)과 양성지(梁誠之)의 <동국지도 東國地圖> (1463)와 같은 유형의 지도이다. 하계망(河系網)이 상세하고 군현(郡縣)·병영(兵營)·수영(水營)·관찰사영(觀察使營)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 특히 수도인 경도를 비롯해 각도의 관찰사영은 붉은색 원에 표기 했다. 숙종(肅宗) 9년(1683)에 다시 부(府)로 회복한 경상도의 순흥(順興)이 있으므로 1683년 이후이고, 숙종(肅宗) 10년(1684)에 신설된 함경도의 무산(武山)이 없으므로 1684년 이전의 지도이다. 두만강과 압록강을 포함한 북부 지역과 만주지역의 하계망이 부정확하지만 흑룡강(黑龍江)·송화강(松花江)을 표시했다.

- (32) 《요계관방지도 遼薊關防地圖》, 古大4790-91, 보물 제1542호, 이이명(李頤命), 1706년, 채색필사본, 241.5×64.5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8년 3월 12일 보물 제1542호로 지정되었다. ‘요계(遼薊)’는 요동과 북경을 가리키는 말이며, ‘요계관방지도’란 요동에서 북경지방까지의 군사형세도를 그린 지도라는 뜻이다. 규장각 소장 “요계관방지도”는 1706년(숙종 32)에 노론대신 이이명(李頤命, 1658-1722)이 제작하여 왕에게 올린 것으로, 관방지도의 백미로 뽑힌다. 이이명은 1705년에 청나라 사신으로 다녀오는 길에 구입해온 『주승필람 籌勝必覽』 속에 들어 있는 <요계관방도>와, 동행한 화사를 시켜 모사한 《산동해방지도 山東海防地圖》에 우리나라 관방의 중요한 부분을 합하여 이 지도를 제작하였다. 동쪽 끝으로 우수리강, 북쪽 끝으로는 흑룡강을 그렸으며 바다의 파도는 규칙적인 무늬를 가지고 있다. 만리장성은 깃발까지 세밀하게 묘사했고 유조변에는 변문은 물론 길이 교차하는 부분에 유조변을 통과하는 통로까지 그렸을 정도로 자세하다. 대폭의 10폭 병풍 비단에 펼쳐진 치밀한 구성력과 강직하면서도 세련된 필묘(筆妙), 청록산수기법으로 표현된 산악의 장식적인 효과는 지도에 예술성을 더해준다. 지도사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회화성도 뛰어난 작품이다.

- (33) 《북관지도 北關地圖》 중 <북도십읍 北道十邑> 古朝61-50, 18세기 후반, 채색필사본, 61.2×99.9cm, 국립중앙도서관.

《북관지도》는 1책(冊) 30도엽(圖葉)으로 된 채색 필사본이며, 함경도(咸鏡道) 전체와 북관(北關)을 그린 관방도이다.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북도십읍>은 함경북도의 10개 군현을 그린 지도이다. 표제 옆에는 전결, 민호, 군량미의 현황, 병영 등의 지리적 내용이 주기되어 있다.

- (34) 《지도 地圖》 중 <함경도 咸鏡道> 서13187, 19세기, 채색필사본, 32.3×38.5cm, 서울역사박물관.

《지도》는 채색필사본 동람도형 지도책으로, <친하도>, <중국>, <일본>, <조선국>, <유구국> 그리고 도별도의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전도와는 달리 특별한 주기가 없으며, 군현명 옆에 서울까지의 거리를 기록하고, 각 군현 사이는 검은 실선으로 연결해 군현 사이의 거리를 이수(里數)로 표시해 지역 간의 거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표기했다.

- (35) 《동국지도 東國地圖》 중 <관북 關北>, 서13150, 19세기 전반, 채색필사본, 69.6×45.6cm, 서울역사박물관.

《동국지도》 중 함경도의 두만강 유역을 그린 <관북> 지도이다. 지도의 상측 중간 부분에 백리척을 그리고, 산지와 강이 있는 곳을 굴곡이 있기 때문에 1척이 1백2십3리가 된다는 주기를 덧붙였다.

- (36) 《팔도지도 八道地圖》, 貴33, 16세기, 채색필사본, 91.0×35.7cm, 국사편찬위원회.

국보 제248호 《조선방역지도 朝鮮方域之圖》와 비슷한 형태를 가진 조선 전기의 조선전도이다. 《조선방역지도》에 비해 채색이 돋보인다. 지도의 바탕은 가지색이고 팔도를 다섯 가지 색으로 구분하여 채색했다. 일부 군현명과 산맥을 가필한 흔적도 보인다. 함경도 22관, 평안도 42관, 황해도 24관, 경기도 37관, 강원도 26관, 충청도 54관, 경상도 67관, 전라도 57관 총 329관이 기재되어 있다.

- (37) 《조선국도 朝鮮國圖》, 178-449, 16세기, 채색필사본, 일본 국립공문서관.

일본 국립공문서관 내각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전도이다.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 팔도지도 朝鮮八道地圖》, 같은 국립공문서관 내각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도》 史199-004와 동일한 지도이다. 《조선팔도지도》와 차이점이 있다면 군현별 채색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이 지도의 군현 명 옆에는 서울까지의 리정(里程)이 표기되어 있다는 점이다. 함경도 22관, 평안도 42관, 황해도 24관, 경기도 37관, 강원도 26관, 충청도 54관, 경상도 67관, 전라도 57관 총 329관이 기재되어 있다.

- (38)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 海東八道烽火山岳地圖》, 貴700, 보물 제1533호, 17세기 후반, 채색필사본, 218.0×149.0cm, 고려대학교 도서관.

전국 팔도에 있는 봉수대를 표시한 지도이다. 상단에는 붉은색의 전서체로 제목이 쓰여 있고, 각 지역 별로 백·적·황·갈·녹·청색의 원에 지명이 적혀 있다.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봉수대는 산봉우리 위에 촛불처럼 묘사되어 있는데, 압록강과 두만강의 국경지대 및 경상도 일대에 밀집되어 있다. 지방의 읍치와 도서지역을 비롯하여 산맥과 산봉우리 그리고 하계망이 자세히 그려져서 봉수의 간선로를 일목요연하게 알아 볼 수 있다. 1652년(효종 3)에 황해도 강음(江陰)과 우봉(牛峰)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김천(金川)이 있고 1712년(숙종 38)에 건립된 백두산 정계비(定界碑)가 없는 것으로 보아 지도의 제작시기는 17세기 후반 무렵으로 추정된다. 2m에 달하는 지도의 규모에 봉수로의 상세한 표현과 뛰어난 회화성이 돋보이는 17세기 후반의 지도로 고지도 분야 뿐만 아니라 회화사적으로도 가치가 높다.

- (39) 《삼한일람도 三韓一覽圖》 중 〈함경도 咸鏡道〉, 古4709-194, 18세기 전반, 채색필사본, 65.1×52.4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삼한일람도(三韓一覽圖)》 중 〈함경도〉 지도이다. 백두산 너머에서부터 이어지는 산맥이 백두산에 이르고 크게 강조되어 있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산맥과 수계가 이어진다. 이 지도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산맥이다. 연이은 산줄기를 짙은 청녹색으로 채색하여 마치 조감도를 보는 느낌이 든다. 각 군현명 옆에는 경도까지 걸리는 일정을 기록하였다.

- (40) 《해동지도 海東地圖》 중 〈서북피야양계전도 西北彼我兩界全圖〉, 古大4709-41, 보물 제1591호, 1750년대 초, 채색필사본, 181.0×228.0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해동지도》의 제 4책에 수록된 대형 채색지도로 우리나라의 북부 지방과 중국의 만주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그린 관방지도다. 지도 제목의 ‘피야(彼我)’는 중국 청나라와 조선을 의미한다. 청나라의 침입에 대한 방비를 목적으로 제작된 일종의 군사지도로 유사한 사본이 현재 여러 본 남아있다. 지도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만주의 흑룡강으로부터 서쪽 산해관(山海關)에 이르는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데, 길게 세워진 성책과 도로를 따라 설치된 역참, 군사기지의 성격을 지닌 진보(鎭堡) 등을 자세히 표시하였다. 방위의 배치가 독특한데 남북 방향으로 배치하지 않고 국토의 좌향(坐向)인 해좌사향(亥坐巳向·북서북-남동남)을 상하의 축으로 삼았다. 흰색의 웅장한 백두산은 성스러움을 강조했고 다른 산들은 녹색으로 연이어 산맥으로 표현했다. 도로는 대로와 소로의 굽기를 다르게 그려서 위계를 나타냈다. 특히 회령에서 영고탑, 오라를 지나 성경으로 가는 노선과, 연행로를 통해 청과의 왕래를 짐작할 수 있다.

연행 노정은 조선 조정과 사신들이 자유롭게 정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 중국 황제가 정해놓은 이른바 진공로(進貢路)였다. 연행로의 변화는 바로 중국 정치의 변동을 뜻하며, 한중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 변화했다. 1644년(인조 22) 청나라가 입관한 뒤 사신은 북경까지 걸어야 했다. 현종 6년(1665) 심양에 盛京府(성경부)가 설치될 때까지, 조선 사신은 연산관(아골관 鴨鵝關)에서 심양을 거치지 않고 鞍山(안산), 廣寧(광녕)으로 가는 지름길을 택했다. 이 길을 ‘아골대로’라고 부른다. 성경부에 봉천 장군이 주재하게 되자, 조선 사신은 여기에 공물의 일부를 바쳐야 했다. 그래서 숙종 4년(1678)까지는 연산관에서 성경까지 올라갔다가 우가장→광녕→산해관으로 내려오는 길을 걸어야 했다. 숙종 5년(1679) 강희제는 바다를 방어하기 위해 우가장에 진지를 쌓았고, 보안을 위해 조선인들의 출입을 금지했다. 그리고 심양에서 小黒山(소흑산)을 돌아 광녕에 이르도록 했다. 이로써 요양에서 심양, 광녕(廣寧)을 거쳐 산해관에 이르는 기본 연행 노정이 확정되었다.

- (41) 《각국도 各國圖》 중 〈서북피야교계도 西北彼我交界圖〉, 古2802-1, 19세기, 채색필사본, 47.8×60.3cm, 국립중앙도서관.

《각국도》는 1책 32장의 세계지도와 중국도로 구성된 화려한 채색의 회화식지도이다. 표제는 『각국도부 천하총도십육성도 各國圖附 天下總圖十六省圖』다. 〈천지전도 天地全圖〉, 〈천하총도 天下全圖〉, 〈북경노정기〉, 〈연경성시도〉, 〈서북피야교계도 西北彼我交界圖〉, 〈장성이북도〉, 〈열하전도〉, 〈성경전도〉, 그리고 중국 17성(省)을 그린 지도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서북피야교계도〉는 병사(兵使) 조윤성(曹允成)이 소장하고 있던 관방지도를 모사한 것이다. 백두산을 중심으로 압록강과 두만강 양안 지역을 자세히 그렸다. 만주지역은 흑룡강 연안까지 포함하였으며 함경도 온성에서 중국의 영고탑과

- 오라를 거쳐 성경까지의 노선이 붉은 선으로 표현되어 있다.
- (42) 《해동여지도 海東輿地圖》 중 〈조선전도 朝鮮全圖〉, 古朝61-35, 19세기 초반, 채색필사본, 98.7×56.5cm, 국립중앙도서관.
19세기(世紀) 전기(前期)에 작성된 군현(郡縣)·봉수(烽燧)·도로망을 상세히 그린 우리나라 전도로, 우리나라 전도와 도별도(道別圖)로 구성되어 있는 《해동여지도 海東輿地圖》에 포함되어 있다. 도로망과 봉수대의 분포가 자세하게 그려져 있는데, 백두산 북쪽 여백에 ‘거영고탑육일정(距寧古塔六日程)’이라는 영고탑까지의 여정도 표기하고 있다. 압록강 대안의 만주지역에는 봉황성(鳳凰城)에서 개원(開元)을 거쳐 산해관(山海關)에 이르는 유조변장(柳條邊牆)의 일부가 그려져 있고 영액문(英額門), 위원보문(威遠堡門), 발고문(發庫門), 해해문(靉海門), 책문(柵門), 홍경의 또 다른 이름인 감창문(鹹廠門) 변문이 표기되어 있다. 지도의 윤곽은 정상기(鄭尙驥)(1678~1752)의 《동국지도 東國地圖》 유형에 속하나 산계(山系)와 수계(水系)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정상기의 《동국지도》를 그대로 전사(轉寫)한 것은 아니다. 지도의 여백에는 고조선(古朝鮮)·한사군(漢四郡)·신라구주(新羅九州)·고려팔도(高麗八道)와 그 소속 현(縣)·읍(邑) 수를 기록하고 있다.
- (43) 《북관지도 北關地圖》 중 [관북지도 關北地圖], 古朝61-50, 연대미상, 채색필사본, 72.7×119.0cm, 국립중앙도서관.
《북관지도》는 1책 30도엽(圖葉)으로 구성된 채색 필사본 지도책으로 함경도(咸鏡道) 전체와 북관(北關)을 그린 관방도이다. 북관은 함경북도 지방을 이르는 말이다. 함경도를 군사상 구분하여 마천령을 경계로 그 북쪽은 북관, 그 남쪽은 남관(南關)이라 한다. 길주(吉州)로부터 그 이북의 명천(明川)·경성(鏡城)·부령(富寧)·중성(鍾成)·무산(茂山)·회령(會寧)·은성(穩城)·경원(慶源)·경흥(慶興)에 이르는 10개 고을이 포함된다.
- (44) 《북계지도 北界地圖》, 古4709-86, 19세기 후반, 채색필사본, 93.5×138.0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함경도의 지세와 하천, 주요 통로를 자세하게 나타낸 행정 및 군사적 목적으로 작성된 지도이다. 지도의 방위와 축척을 무시하고 두만강 유역과 청국(淸國)과의 경계(境界)를 자세하게 그렸다. 지도의 제작자와 연대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폐사군 중 고종 6년에 부군(復郡)으로 바뀐 자성(慈城)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아 고종(高宗) 6년(1869) 이전으로 추정된다.
- (45) 《여지도 輿地圖》 중 〈함경도 咸鏡道〉, 古4709-78, 보물 제1592호, 채색필사본, 91.8×59.8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여지도 輿地圖》 2권에 수록된 〈함경도 咸鏡道〉 23권의 지도이다. 지도의 전체적인 형식과 내용은 정상기의 《동국지도 東國地圖》 유형을 따르고 있다. 전도인 〈아국총도〉 처럼 하천을 그리고 초록색과 청록색으로 채색된 산맥을 연이어 그렸으며, 함경도의 군현명은 회색 장방형 안에 표기했다. 붉은 색의 도로와 두만강변의 봉수대가 화려한 채색을 더하여 오히려 한 폭의 그림처럼 느껴진다.
- (46) 《대한전도 大韓全圖》 중 〈대한전도 大韓全圖〉, 58, 1905년 전후, 동판본, 40.5×31.1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1907년(光武 11) 6월 장지연(張志淵)이 애국심을 고양하기 위해 저술한 지리교과서 《대한신지지 大韓新地志》에 수록된 부도(附圖)만을 모아 만든 지도책 《대한전도》이다. 여기에는 〈대한전도〉와 1896년 이후 13도로 행정구역이 바뀐 상황을 반영하는 각 도별도가 수록되어 있다.
〈대한전도〉는 축척 350만분의 1 지도로서 근대적 경위선망이 사용되었고 방위, 범례 등이 기호로 표현되었다. 특히 경선은 19세기 후반에 제작된 지도에서 자주 보이는 중국의 북경 기준이 아닌 영국을 기준선으로 채택했다. 지형을 우모식(羽毛式)으로 표현하는 등 전통적 기법보다는 서양식 근대적 기법에 의해 만든 지도이다. 지도의 좌측 상단에 ‘현성운철판조각 玄聖運鐵板造刻’이라 기록해 놓아 철판 인쇄본 지도임을 알 수 있다. 지도에 표현된 내용은 각 도의 행정구역의 명칭과 주요 산천명, 도로망, 도별 경계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도의 내용은 1899년(光武 3)년에 학부편집국에서 간행한 〈대한전도 大韓全圖〉(서13160)와 거의 동일하며, 당시의 행정구역과 지역사정 등이 반영되어 있지만 북간도(北間島) 지방이 함경북도 북쪽의 조선 영토로 확실하게 표시되어 있고, 국경선 밖에 ‘청국만주 淸國滿洲’로 표시한 점이 크게 다르다.
- (47) 《북관장파지도 北關長坡地圖》, 古朝61-59, 1880년대, 채색필사본, 71.5×109.7cm, 국립중앙도서관.
백두산과 백두산 동쪽 두만강 상류 무산 부분까지 자세하게 그린 지도이다. ‘장파(長坡)’는 긴 언덕을 뜻하는데, 계곡을 따라 두만강 연안까지 뻗어 있는 용암대지와 말단부의 단애가 지도에 잘 나타나 있다. 두만강 북안에는 침식으로 고립된 용암대지의 평탄면(平坦面)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다. 백두산과 정계비(定界碑) 부근의 목책과 토돈, 하계(河系)지형 등이 매우 상세하다.

- (48) 《동국지도 東國地圖》 중 〈관북 關北〉, 서13150, 19세기 전반, 채색필사본, 69.6×45.6cm, 서울역사박물관.
 《동국지도》 중 함경도의 두만강 유역을 그린 〈관북〉 지도이다. 지도의 상측 중간 부분에 백리척을 그리고, 산지와 강이 있는 곳을 굴곡이 있기 때문에 1척이 1백2십3리가 된다는 주기를 덧붙였다.
- (49) 《해동팔역여지도 海東八域輿地圖》 중 〈관북 關北〉, 292.1-131, 채색필사본, 74.0×61.2cm, 천리대학 부속 천리도서관.
 일본 천리대학부속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해동팔역여지도》에 수록되어 있는 〈관북〉 지도이다. 과란색 산과 하천이 잘 어우러지게 표현되어 있다.
- (50) 《동국지도 東國地圖》 중 〈함경북도 咸鏡北道〉, 53, 19세기, 채색필사본, 83.5×57.3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동국지도》에 수록된 〈함경북도〉이다. 불꽃처럼 솟아오르는 강인한 백두산에서 비롯된 녹색의 산들이 아름답다. 그리고 그 사이를 흐르는 푸른색의 하천, 특히 평정산 산봉우리에 걸쳐진 빨간 태양과 산을 감싸 도는 붉은 빛은 지도의 회화적 느낌을 한 층 돋보이게 한다.
- (51) 《조선지도 朝鮮地圖》, 서13156, 19세기 이후, 채색필사본, 84.0×62.3cm, 서울역사박물관.
 1822년에 신설된 함경도 후주(厚州)가 그려져 있어, 이 이후에 제작된 지도임을 알 수 있다. 지도에는 군현명, 진보(鎭堡)의 이름, 산천명(山川名)이 표기되어 있다. 울릉도를 매우 크게 그려, 전도임에도 주토굴(朱土窟)·죽전(竹田) 등의 지명이 섬 안에 기입되었으며, 울릉도 동쪽에 우산도도 크고 분명하게 그려져 있다. 함경도 명천(明川) 부분이 조선 전기의 지도처럼 많이 돌출되어 있다.
- (52) 《해동지도 海東地圖》 중 〈제 3책 함경도 무산부 茂山府〉, 古大4709-41, 보물 제1591호, 1750년대 초, 채색필사본, 47.0×30.5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무산부는 두만강과 연해 있는 고을로 위로는 회령, 아래로는 갑산과 접해있다. 세종 때 이곳에 살던 야인을 몰아내고 진을 설치했다. 1674년(현종 15)에 첨사진(僉使鎭)을 삼봉평(三峰坪)으로 옮기고 1684년(숙종 10)에는 감사 이세화(李世華)의 청에 의해 비로소 도호부를 두었는데, 부령의 거유령 서쪽 지역과 회령의 노전항(蘆田項) 남쪽 지역을 병합했다. 해방 이전 행정구역으로는 함경북도 무산군 읍면, 영북면, 풍계면, 동면, 계하면, 연상면, 연사면, 삼사면, 삼장면, 서하면 일대에 해당한다. 현재는 함경북도 무산군을 비롯하여 연사군, 량강도 대흥단군, 백암군, 그리고 삼지연군 일부 지역이 과거 무산부의 영역이다. 읍치에는 1694년(숙종 20)에 부사 이천근이 축조한 읍성이 있었지만 지도상에는 그려져 있지 않다. 더구나 읍치를 표시하는 무산이라는 표기도 누락되어 있다. 읍치가 풍수의 형국으로는 행주형(行舟形)에 해당하여, 성안에 우물을 파지 않았기 때문에 부근의 하천물을 식수로 이용했다고 전해진다. 주변 지역의 방사(坊社), 창고, 봉수 등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동쪽의 풍산진은 본래 회령부의 풍산보로 1674년(현종 15)에 이곳으로 옮기고 1684년(숙종 10) 무산부에 소속시켰다.
- (53) 《지도 地圖》 중 〈함경도 咸鏡道〉, 서13182, 18세기, 채색필사본, 34.7×35.4cm, 서울역사박물관.
 도별도와 중국·일본·유구국 지도로 구성된 채색 필사본 지도책 《지도》에 수록된 〈함경도〉 지도이다. 감영소재지인 함흥부는 붉은색의 큰 원으로 표시하고, 병영(兵營)·수영(水營)·진보(鎭堡)는 청색으로 구분하였다. 붉은색 도로를 그리고, 군현 사이의 도로에 지역 간 거리를 기록하였다. 청록색으로 채색된 산봉우리는 연맥하여 그렸다.
- (54) 《동국팔로분지도 東國八路分地圖》 중 〈함경도 咸鏡道〉, 65, 19세기, 채색필사본, 159.1×123.5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동국여지도범례(東國輿地圖凡例)’라는 제목의 서문을 포함하고 있다. 서문을 통해 정항령(鄭恒齡) 집안 지도의 백리척 사용을 언급하고, 면밀함과 상세함을 높게 평가하였다. 이 지도첩은 정상기의 《동국지도》 유형의 채색필사본 도별지도인데, 백리척은 그리지 않았다. 같은 유형의 《팔도분도》와 다르게 함경남도 와 북도를 한 장에 그렸다. 창고, 역, 봉수 등이 상세하게 잘 나타나있고 붉은색의 도로망도 있다.
- (55) 《천하대총일람지도 天下大揔一覽地圖》, 古朝61-11, 1767년, 채색필사본, 128.5×151.2cm, 국립중앙도서관.
 표제는 『천하지도 부조선유구국 天下地圖 附朝鮮琉球國』이고 내제는 「천하대총일람지도 天下大揔一覽地圖」이다. 중국(中國)·조선(朝鮮)·유구국(琉球國)을 그린 조선 후기의 중국식(中國式) 세계지도이다. 흔히 전래되는 중국식 천하도(天下圖) 또는 세계지도는 중국을 중심에 크게 그리고 그 주변에 간략하게 표시한 하는 정도로 외국을 그린 지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유구국이 상대적으로 월등하게 크게 그려진 이 지도는 우리나라에서 중국식 세계지도에 한반도(韓半島)와 유구(琉球)를 추가하여 그린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와 왕래가 빈번했던 유구는 그렸지만 일본은 빠져있다.
- (56) 《북관지도 北關地圖》 중 [관북지도 關北地圖], 古朝61-50, 연대미상, 채색필사본, 72.7×119.0cm,

국립중앙도서관.

《북관지도》는 1책 30도엽(圖葉)으로 구성된 채색 필사본 지도책으로 함경도(咸鏡道) 전체와 북관(北關)을 그린 관방도이다. 북관은 함경북도 지방을 이르는 말이다. 함경도를 군사상 구분하여 마천령을 경계로 그 북쪽은 북관, 그 남쪽은 남관(南關)이라 한다. 길주(吉州)로부터 그 이북의 명천(明川)·경성(鏡城)·부령(富寧)·중성(鍾成)·무산(茂山)·회령(會寧)·온성(穩城)·경원(慶源)·경흥(慶興)에 이르는 10개 고을이 포함된다.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백두산> 지도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두만강과 압록강 유역을 표현하였다. 하천(河川), 진보(鎭堡), 봉수(烽燧), 령(嶺), 창(倉), 사찰(寺刹), 산맥(山脈), 역(驛), 원(院), 방사명(坊社名)을 기록하였다. 주요 산과 산맥은 검정색으로 채색하였고 기타 산줄기는 녹색으로 채색했다.

- (57) 《북관지도 北關地圖》 중 <북도십읍 北道十邑>, 古朝61-50, 18세기 후반, 채색필사본, 61.2×99.9cm, 국립중앙도서관.

《북관지도》는 1책(冊) 30도엽(圖葉)으로 된 채색 필사본이며, 함경도(咸鏡道) 전체와 북관(北關)을 그린 관방도이다.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북도십읍>은 함경북도의 10개 군현을 그린 지도이다. 표제 옆에는 전결, 민호, 군량미의 현황, 병영 등의 지리적 내용이 주기되어 있다.

- (58) 《대동여지도》는 전통지도의 집대성이자 전통시대에 제작된 우리나라 전국지도 중 가장 큰 지도이다. 고산자(古山子) 김정호(金正浩)가 1861년 편찬한 약 16만분의 1 대축척(大縮尺) 지도로 현재 우리나라 11개 기관에 모두 17분의 지도가 소장되어 있다. 전체가 세로 약 6.7m, 가로 약 3.8m에 이른다. 하지만 동서 80리, 남북 120리가 1첩이 되는 22첩(帖) 19판 절첩식으로 구성된 이 지도의 각 권은 가로 20cm, 세로 30cm 정도로 휴대하기 간편한 지도책이기도 하다.

서문에 해당하는 《대동여지도》의 지도유설에는 중국 고전에 있는 지리 관련 글귀를 인용하여 김정호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중국 지리학자 배수(裴秀)의 지도제작 방법을 정리했다. 그리고 조선 팔도의 행정구역, 군사시설, 산성, 봉수, 역참 등의 수를 정리했으며 각 도의 전부(田賦), 민호, 인구, 창고 등의 사항을 수록하여 당시 조선의 행정·군사·경제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국토의 모든 산은 백두산에서 시작되는 백두대간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크고 작은 산줄기로 연결되어 있고, 산줄기 사이사이 흐르는 하천은 그 연결과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산과 하천의 연결과 흐름을 통해 유기체적인 사고관을 엿볼 수 있다. 인문지리적인 정보도 매우 풍부한데, 특히 실선으로 표현한 도로 위에는 10리마다 점을 찍어 거리를 쉽게 알 수 있다. 기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목판본에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게 했으며 동시에 이용자의 편의도 도왔다.

- (59) 《각국도 各國圖》 중 <성경전도 盛京全圖, 조병사윤성본 曹兵使允成本> 古2802-1, 19세기, 채색필사본, 33.5×44.0cm, 국립중앙도서관.

《각국도 各國圖》에는 조병사윤성본(曹兵使允成本)과 청일통지본(淸一統志本) 두 장의 <성경전도>가 수록되어 있다. 조병사윤성본은 같은 《각국도》에 수록된 <천하전도>의 성경지역 부분과 완전히 동일하다. 매우 화려한 채색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특히 유조변장 내에 청의 첫 번째 수도 '홍경', 두 번째 수도 '동경', 세 번째 수도 '성경'을 모두 표기하여 만주지역의 중심지역을 모두 표현하였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강석화, 2000, 조선후기 함경도와 북방영토의식, 경세원.
-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5, 만주 - 그 땅, 사람 그리고 역사, 고구려연구재단.
-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六堂全集編纂委員會 편, 1972, 六堂 崔南善全集
3. 朝鮮常織問答·朝鮮常織; 6. 白頭山觀參記 金剛禮讚 外, 현암사.
- 공우석 · 이민부 외, 2002, 백두대간의 자연과 인간, 산악문화.
- 과학기술출판사, 1992, 백두산 총서.
-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2009, 한국 지도학 발달사.
- 국회도서관, 1976, 間島領有權關係拔萃文書, 大韓民國國會圖書館.
- 김득황, 1988, 백두산과 북방강계-압록강과 두만강은 우리의 국경이 아니다(사
사연신서 12), 사사연.
- 김득황, 2005, 만주의 역사와 간도 문제, 남강기획출판부.
- 김봉남, 1990, 백두산은 우리 고향, 평화사.
- 김일기 · 양보경 · 김덕순 · 오경섭 · 이민부 · 정연숙 · 김지홍, 1997, 백두대
간의 개념정립과 실태조사 연구, 산림청.
- 김정배 · 이서행 외, 2010, 백두산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
판부.
- 김지남 외, 1998, 조선시대 선비들의 백두산 답사기, 해안.
- 김태준 · 이승수 · 김일환, 2005, 조선의 지식인들과 함께 문명의 연행길을 가
다, 푸른역사.
- 남구만 저·성백효 역, 2008, 약천집(藥泉集), 지만지 고전선집 296, 지만지.
- 남주성 역, 2010, 흙정 만주원류고(상, 하), 글모아.

- 동북아역사재단, 2006, 백두산정계비 자료집.
- 동북아역사재단, 2007, 백두산 세계유산 공동 등재를 위한 몽블랑·몽삐르뒤 사례조사 보고서.
- 동북아역사재단, 2009, 근대만주자료의 탐색.
- 동북아역사재단, 2012, 백두산 고지도집(가제), 발간예정.
- 박인호, 2003, 조선시기 역사가와 역사지리인식, 이화문화사.
- 박찬교, 1993, 백두산 - 그 형성과 역사, 자연, 생태계, 한겨레신문사.
- 白頭山定界碑, 1990, 景仁文化社(影印).
- 백산학회, 2000, 間島 領有權 問題 論攷, 백산자료원.
- 비교역사문화연구소 · 임지현, 2004, 근대의 국경, 역사의 변경, 휴머니스트.
- 산림청, 1996, 백두대간 관련 문헌집.
- 서길수, 2009, 백두산 국경 연구, 여유당.
- 서울역사박물관, 2006, 이찬 기증 우리 옛 지도.
- 서정철, 1991, 서양고지도와 한국, 대원사.
- 星球地圖出版社, 2010, 黑龍江 吉林 遼寧 交通圖冊, 中國星球地圖出版社.
- 아즈마우시오, 2008, 고구려의 역사와 유적, 동북아역사재단.
- 安在鴻, 1931, 白頭山登陟記, 류성사.
- 楊昭全 · 孫玉梅, 1993, 中朝邊界史吉林文史出版社.
- 우실하, 2007, 동북공정 너머 요하문명론, 소나무.
- 이서행 · 정치영편, 2010, 고지도와 사진으로 본 백두산,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이영노, 1991, 백두산의 꽃, 한길사.
- 이왕무 외, 2008, 역주감계사등록 勘界使臚錄, 동북아역사재단.
- 이옥희, 2011, 북·중 접경지역 -전환기 북·중 접경지역의 도시네트워크-, 푸른길.
- 이은방 편, 1990, 백두여 천지여(아름문고), 삼성미디어.

- 이찬, 1991, 韓國의 古地圖, 범우사.
- 이화자, 2008, 朝淸國境問題研究, 집문당.
- 이화자, 2011, 韓中 國경사 연구, 해안.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2010, 범월과 이산-만주로 건너간 조선인들, 인하대학교 출판부.
- 臧勵化, 1931, 中國古今地名大辭典, 上海 : 商務印書館.
- 朝鮮總督府, 1918, 白頭山植物調查書, 朝鮮總督府.
- 曹婉汝 외, 1995, 中國古代地圖集:明代, 중국 文物出版社.
- 曹婉汝 외, 1997, 中國古代地圖集:清代, 중국 文物出版社.
- 中國地圖出版社, 2006, 黑龍江省地圖冊.
- 中國地圖出版社, 2007, 吉林省地圖冊.
- 中國地圖出版社, 2008, 遼寧省地圖冊.
- 진태하, 1986, 아! 백두산, 교보문고.
- 丁興旺, 1982, 白頭山天池, 北京地質出版社.
- 최남선 외, 1989, 백두산근참기-한국결작 기행문 23선, 조선일보사.
- 최남선 지음, 정재승·이주현 역주, 2008, 불함문화론, 우리역사연구재단.
- 최서면, 1983, 유럽지도에 나타난 최초의 朝鮮, 조선일보사.
- 최서면, 1983, 大航海시대 海圖속 의 朝鮮 ; 原色地圖 와 지도 를 통해 본 東西交涉史, 조선일보사.
- 최장근, 1996, 간도협약과 일본의 음모, 안보문제 연구원.
- 탐계공문고 探界公文攷복여요선 北輿要選하, 경문사.
- 한국과학기자클럽 편, 1991, 백두산대탐사, 한국교육문화원.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4, 江北日記·江左輿地記·俄國輿地圖, 韓國學資料叢書 二.
- 한규철 외, 2007, 발해5경과 영역변천, 동북아역사재단.
- 한석정·노기식, 2008,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
- 한영우 외, 1997, 우리 옛 지도와 그 아름다움, 효형출판.

황상구 · 김백록, 2011, 백두산의 화산지질, 한국학술정보.

H.E.M. James, 1888, Long White Mountain or A Journey in MAnchuria,
London Longmans, Green, and Co. and New York.

2. 국내 학술지 논문

강석화, 1995, 1712년의 조·청 정계와 18세기 조선의 북방경영, 진단학보 79,
pp.135~165.

강석화, 1997, 백두산 정계비와 간도, 한국사 연구 96, pp.121~134.

강석화, 2005, 백두산 정계비와 간도문제, 경인문화연구 32, 한국사연구 96,
pp.181~204.

강석화, 2007, 19세기 북방강역에 대한 인식, 역사와 경계 65, pp.1~26.

강석화, 2010, 백두산정계와 간도 · 백두산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한국학중앙
연구원 출판부 pp.65~88.

강석화, 2011, 조선 후기 백두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 조선시대 사학보 56,
pp.195~224.

고승희, 2009, 1880년대 조·청 감계 협상과 국경 문제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학술회의 자료집, pp.103~138.

구범진, 2007, 청대 '만주'지역 행정체제의 변화 -'주방체제'에서 '주현체제'로,
동북아역사논총 18, pp.77~107.

김경춘, 1987, 한 · 청국경문제의 일시점 -범월을 중심으로, 경주사학 6,
pp.57~97.

김경춘, 1986, 두만강 하류역에 있어서의 국경분쟁 -장고봉 사건 중심으로, 국
사학 19, pp.421~484.

김기혁, 2006, 조선후기 고지도에 나타난 조·청·노 국경인식의 변화, 부산대학교
부산지리연구소, pp.1~366.

- 김기훈, 2009, 간도담론의 연구사적 검토, 근대만주자료의 탐색동북아 기획연구 31, pp.93~123.
- 김병렬, 2008, 영토 / 영해문제와 국가주권, 한국국제정치학회, 2008 International Conference 건국 60년과 우리의 영토와 주권 2008.8, pp.179-194.
- 김순자, 2006, 10~11세기 고려와 요의 영토 정책 -압록강선 확보 문제 중심으로, 북방사논총 11, pp.239~270.
- 김영신, 2007, 개항 · 조차와 근대 만주 신흥도시의 흥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26, pp.64~106.
- 김영표 · 임은선 · 김연준, 2004, 한반도 산맥체계 재정립 연구 : 산줄기 분석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288, pp.131~133.
- 김우준, 2001, 중국 동북3성과 시베리아·러시아극동지방간 관계 : 현황과 쟁점, 현대중국연구 5(1), pp.159~225.
- 김정배, 2010, 백두산과 고대북방, 백두산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pp.15~34.
- 김종건, 2007, 백두산, 간도 역사 연구의 현황과 쟁점, 동북아논총 18, pp.65~141.
- 김종원, 1985, 동양사 - 팔기제도의 성립과정에 대한 일고찰, 동아연구, pp.1-19.
- 김종현, 2009, 러시아의 극동정책과 간도, 동북아역사논총 25, pp.7~38.
- 김주용, 2007, 일제강점기 한인의 만주 이주와 도시지역의 구조변화 - 봉천(심양)과 안동(단동)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26, pp.108~156.
- 김춘선, 2002, 압록 · 두만강 국경문제에 관한 한 · 중 양국의 연구동향, 한국사학보 12, pp.339~382.
- 김태국, 2007, 만주지역 한인의 도시 거주지 형성 과정 -만주국시기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26, pp.158~199.

- 김혜자, 1982, 조선후기 북변월경문제 연구, 이대사원 19, pp.58~81.
- 남의현, 2009, 중국의 명대 동북강역 연구성과와 문제점 분석, 인문과학연구 22, pp.187~219.
- 노기식, 2001, 만주사변 70 주년기념학술대회 발표논문 : 만주의 흥기와 동아시아 질서의 변동, 중국사연구 16, pp.1~35.
- 노기식, 2004, 명대 몽골과 만주의 교체(交替), 사총 59, pp.45~72.
- 노계현, 1966, 간도협약에 관한 외교사적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6(2), pp.155~182.
- 노영돈, 1995, 소위 청일 간도협약의 효력과 한국의 간도영유권, 국제법학회논총 40(2), pp.61~84.
- 노영돈, 1986, 간도영유권에 관한 소고, 성균법학 19, pp.54~67.
- 노영돈, 2005, 청 · 일 간도협약의 무효와 한국의 간도영유권, 간도학보 창간호, pp.143~173.
- 노영돈, 2005, 한 · 중 간도영유권문제의 고찰, 군사 56, pp.37~68.
- 노영순, 2005, 청불전쟁(1884~1885년) 전후 중국-베트남 국경문제와 획정과정, 북방사논총 4, pp.127~159.
- 도성재, 2010, 백두산의 수자원, 백두산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pp.212~230.
- 도성재, 2010, 백두산의 지질 및 토양, 백두산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pp.131~165.
- 박명용, 2005, 연해주를 둘러싼 한국과 러시아 영토문제 -1650년에서 1900년까지, 북방사논총 4, pp.37~86.
- 박수진 · 손일, 2008, 한국 산맥론: 새로운 산맥도의 제안, 대한지리학회지 43(3), pp.276~295.
- 박선영, 2003, 20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민족주의 단면-동아시아 간도연구의 시공문제 이해를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26, pp.272~300.

- 박선영, 2003, 혈맹과 선린우호의 함수관계 사이에 남겨진 국경문제 -'간도'문제를 중심으로, 중국학보 48, pp.415~437.
- 박선영, 2004, 현대 동아시아의 국경인식과 간도 -지도에 나타난 한중 국경선 변화를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32, pp.199~234.
- 박선영, 2005, 한중국경획정의 과거와 현재-유조변, 간도협약 -북·중 비밀국경 조약 분석을 중심으로, 북방사논총 4, pp.7~35.
- 박선영, 2005, 북한과 중국의 비밀 국경조약, 중국사연구 34, pp.389~410.
- 박선영, 2005, 비밀의 해부 -조선과 중국의 국경 조약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38, pp.195~224.
- 박선영, 2005, 간도문제의 시대성 : 시대적 함의를 중심으로, 역사교육논집 35, pp.287~323.
- 박선영, 2007, 역사의 운명-간도조약체결의역사와현장, 중국사연구 49, pp.261~273.
- 박선영, 2007, 일본 방위성 사료실에서 새롭게 발굴한 '간도'관련 자료에 대하여, 중국 근현대사 연구 33, pp.177~187.
- 박선영, 2008, 중화민국 내정부 지도로 본 백두산 정계비 -중화민국 중앙연구원에서 새롭게 발굴한 간도 자료, 동양사학연구 105, pp.265~313.
- 박창욱, 1996, 19세기 80~20세기초 《간도》와 중국조선족 문제에 대한 중한 양국간의 쟁단, 동북아연구13, pp.43~69.
- 반병률, 2000, 간도 15만원 사건의 재해석,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 pp.353~372.
- 반병률, 2009, 러시아 연해주 한인마을 연추의 형성과 초기 모습, 동북아역사논총 25, pp.39~72.
- 방동인, 1980, 고려의 동북지방경성에 관한 연구 -특히 윤관의 구성설치범위를 중심으로, 영동문화, pp.33~52.
- 방동인, 1983, 고려전기 북진정책의 추이, 영토문제연구, pp.69~111.

- 배성준, 2004, 중국의 조·청 국경문제 연구 동향, 중국의 동북변장 연구 동향 분석고구려연구재단 기획연구 3, pp.117~132.
- 배성준, 2008, 한·중의 간도문제 인식과 갈등구조, 동양학 43, pp.339~357
- 배우성, 1995, 고지도를 통해 본 18세기 북방정책, 규장각 18, pp.69~125.
- 배우성, 1998, 조선후기 변지관의 변화와 지역민 인식, 역사학보 160, pp.19~45.
- 배우성, 2005, 홍양호의 지리인식-조선후기 만주 지리인식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100, pp.327~356.
- 배우성, 2007, 18세기 청의 지리지·지도와 백두산의 수계, 역사와 경계 65, pp.27~62.
- 백동현, 2005, 한말 민족의식과 영토관 -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의 논설에 나타난 영토권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29, pp.117~142.
- 백충현, 1982, 영토분쟁의 해결방식과 증거, 서울대학교법학 23(4), pp.17~37.
- 백충현, 1984, 백두산 '천지 양분설'의 국제법적 평가, 북한 152, pp.87~94.
- 서정흠, 1981, 명말의 (明末) 건주여직과 (建州女直) 팔기제의 (八旗制) 기원, 역사교육논집 2, pp.167~187.
- 서정흠, 1985, 청초의 국호문제, 대구사학 28, pp.81~104.
- 손승희, 2006, 청말 송교인의 만주 인식, 북방사논총 12, pp.37~78.
- 송용덕, 2007, 고려~조선전기의 백두산 인식, 역사와 현실 64, pp.127~159.
- 신규섭, 2006, 재만 친일 조선인의 만주(국) 인식, 북방사논총 12, pp.105~138.
- 신영철, 1984, 백두산과 북한·중공의 엇갈린 이해관계, 북한 152, pp.103-110.
- 심현용, 2005, 근대 조·러 국경획정과 영토, 이주민 문제 -영토주권과 역사주권을 중심으로, 북방사논총 6, pp.281~326.
- 아키즈키 노조미, 2009, 화이질서에서의 경계지대와 국제법적 '국경', 동북아역사재단, pp.279~316.
- 안휘준, 1995, 한국의 고지도와 회화, 문화역사지리 7, pp.47~53.

- 양보경, 1992, 申景濬의 『山水考』와 『山經表』 - 국토의 산천에 대한 체계적 이해, 토지연구 3(3), pp.135~145.
- 양보경, 1995, 조선후기 군현지도의 발달, 문화역사지리 7, pp.55~63.
- 양보경, 1996, 옛 지도에 나타난 북방 인식과 백두산, 역사비평 35, 한국역사연구회, pp.300~322.
- 양보경, 1997, 고지도와 역사연구, 역사와 현실 26, pp.263~281.
- 양보경, 1997, 조선시대 '백두대간' 개념의 형성, 진단학보 83, 진단학회, pp.85~106.
- 양보경, 2001, 산경표와 백두대간, 시안2001 가을호 기획특집 백두대간의 의의와 시적 상상력, pp.16~31.
- 양정석, 2007, 발해5경과 영역변천궁궐유적을 통해 본 발해의 도성, 동북아역사재단, pp.207~246.
- 양태진, 1981, 중공의 국경정책 변천 개관, 북한, pp.146~163.
- 양태진, 1981, 백두산 천지를 위요한 한중국경선, 한국학보 7(1), pp.1095~1120.
- 양태진, 1982, 한국의 북방 강역지지에 관한 고찰, 정신문화, pp.152~163.
- 양태진, 1983, 한국 영토관계 문헌목록, 영토문제연구창간호, pp.191~215.
- 양태진, 1983, 북한 · 중공의 영토분쟁, 북한 137, pp.92~101.
- 양태진, 1984, 17세기 이후 한국 · 중국의 국경분쟁, 북한 152, pp.76~86.
- 양태진, 1985, 북한 · 소련 국경문제의 역사적 배경과 현실, 북한 160, pp.100~107.
- 양태진, 1991, 두만강 하류지역의 '햇쌀' 경제특구 설정설과 토자비에 관한 논고, 북한학보 15, pp.147~176.
- 양태진, 1996, 남북한의 한국영토문제 인식에 관한 고찰 - 특히 북한 측의 국경 · 영토문제에 대한 대응측면을 중심으로, 북한학보 21, pp.153~182.
- 양태진, 2006, 압록, 두만 양강을 끼고 있는 양강도, 신 북한 지지기행, pp.179~185.

- 오병수, 2006, 중국 국민사학의 형성과 인종 · 강역문제 -양계초·장병린의 만주 인식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14, pp.33~76.
- 오상학, 2005, 조선시대 지도를 통해 본 대중국 인식의 변화, 북방사논총 5, pp.289~332.
- 오일환, 2009, 서양고지도의 우리나라 반도형태와 한·중 경계인식에 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13(4), pp.327~356.
- 유영박, 1976, 녹둔도의 연육과정과 국경분쟁의 미결유산 , 녹둔도의 귀속문제 -학술원논문집 15, pp.17~35.
- 유지원, 2007, 청 대 동북정책의 변화에 따른 만주 도시 성격의 변화,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26, pp.18~63.
- 윤경수, 1995, 檀君神話에 나타난 神檀樹의 一考察,牛岩斯黎, 부산외국어대학교, pp.13~30.
- 윤세부, 1959, 檀君考, 학술지 2(1), 건국대학교, pp.11~51.
- 윤희탁, 2001, 만주사변 70 주년기념학술대회 발표논문 : ` 변지 ` 에서 ` 내지 ` 로 : 중국인 이민과 만주 (국), 중국사연구 16, pp.37~80.
- 윤희탁, 2004, 현대중국의 국가주의 역사관과 고대 동북변강사 인식, 동북아논총 1, pp.175~206.
- 윤희탁, 2004, 중국의 '변강' 연구동향과 '변강' 인식 -동북변강을 중심으로, 중국의 동북변강 연구 동향 분석고려연구재단 기획연구 3, pp.13~78.
- 윤희탁, 2008, 중국의 민족문제와 중화민족 국가관, 동북아역사논총 21, pp.185~211.
- 은정태, 2007, 대한제국기 '간도문제'의 추이와 '식민화', 역사문제연구 17, pp.93~122.
- 은정태, 2009, 청일전쟁 전후 조선의 대청정책과 조청관계의 변화,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48, pp.80~109.
- 이강원, 2007, 조선후기 국경인식에 있어서 두만강 · 토문강 · 분계강 개념과

- 그에 대한 검토, 정신문화연구 30(3), pp.91~118.
- 이강원, 2010, 대동여지도 백두산 · 두만강 일대에 표시된 몇 가지 지명의 검토 -국경인식, 위치·어원 및 오기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6(5), pp.474~496.
- 이강원, 2010, 백두산(白頭山),천지(天池) 지명(地名)에 대한 일고찰: 한(韓),중(中) 지명표기를 중심으로, 지리학연구 44(2), pp.129~141.
- 이경찬, 2007, 청 대 이후 근대 만주 도시체계와 도시구조 변화과정,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26, pp.200~282.
- 이기봉, 2009, 정상기의 동국지도 제작 과정에 관한 연구 -동국여지승람과 해동지도 계통의 위치 정보를 중심으로- 규장각 30, pp.95~124.
- 이동진, 2005, 1872년 '강북'의 조선인 사회: '강북일기'에 나타나는 민족, 국가, 지역, 북방사논총 8, pp.285~332.
- 이동진, 2010, 방법으로서의 만주-변경 만주와 지역 협력, 동북아역사재단연구총서 54, pp.23~62.
- 이병건, 2007, 발해5경과 영역변천발해의 교통로와 24개 돌유적의 기능, 동북아역사재단, pp.171~204.
- 이병호, 2008, 동북공정' 전사 -부사년의 동북사강 비판, 동북아역사논총 20, pp.243~268.
- 이상태, 2003, 김정호의 주변인물 연구, 고산자 김정호 관련 측량 및 지도 사료 연구, 대한측량협회, pp.45~109.
- 이상태, 2007, 백두산정계비 설치와 김지남의 역할, 역사와 실학 33, pp.75~119.
- 이선근, 1962, 백두산과 간도문제 - 회상되는 우리강역의 역사적 수난, 역사학보 17·18, pp.547~570.
- 이성환, 1999, 대중국 21개조 요구와 간도문제, 일본학지 19, pp.119~141.
- 이성환, 2000, 하라다카시 내각의 간도정책 -간도 출병을 중심으로, 일본어문

- 학 13, pp.409~440.
- 이성환, 2005, 이토 히로부미와 간도문제, 일본문화연구 16, pp.185~204.
- 이성환, 2005, 일본외교문서와 간도문제 -만주에 관한 일청협약 체결 1건을 중심으로, 간도학보 2, pp.246~250.
- 이성환, 2006, 시데하라 외교와 간도 5·30 사건 -시데하라의 간도구상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18, pp.135~158.
- 이성환, 2007, 통감부 시기 대한제국의 간도문제 인식, 역사와 경계 65, pp.63~92.
- 이성환, 2009, 일본의 대륙정책에서 본 간도 -러일전쟁 후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25, pp.75~114.
- 이완중, 2005, 동아시아의 극동진출과 중-러 국경획정과정 연구, 북방사논총 4, pp.161~213.
- 이왕무, 2005, 조선후기 강북일기에 나타난 만주지역 인식, 동북아논총 4, pp.283~299.
- 이왕무, 2005, 동국여지도에 나타난 조선의 러시아 영역 인식과 국경 상황, 북방사논총 5, pp.335~365.
- 이은자, 2007, 한중간 영토 분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중 양국의 논리와 대응, 아시아문화연구 14, pp.153~200.
- 이인호, 1998, 명·청대 중국 지리서에 나타난 대조선 역사지리인식 -조선시기 역사지리 연구의 추이와 관련하여, 경북사학 21, pp.1001~1024.
- 이일걸, 1996, 간도분쟁과 국제관계, 정치외교사논총 14, pp.207~251.
- 이재돈, 2005, 간도 영유권 문제 고찰, 대륙전략 3, pp.84~99.
- 이진영, 2005, 1990년대 중국의 민족 및 소수민족 연구 경향에 대한 연구, 북방사논총 6, pp.327~367.
- 이찬, 1976, 한국의고세계지도-천하도와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 대하여-, 한국학보 12, pp.47~66.

- 이찬, 1984, 백두산의 자연지리 조건과 인문환경, 북한 152, pp.68~75.
- 이화자, 2008, 명·청시기 중한 지리지에 기술된 백두산 수계, 문화역사지리 20(3), pp.31~50.
- 이화자, 2008, 18·19세기 조선의 토문강. 분계강 인식, 근대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pp.68~98.
- 이성덕, 2008, 간도 귀속과 관련한 몇 가지 국제법적 문제에 대한 관견, 중앙법학 10(2), pp.367~398.
- 이정태, 2010, 중국의 변경인식과 변경정치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54, pp.64~101.
- 이철성, 2009, 조선후기 압록강과 책문사이 봉금지대에 대한 역사지리적 인식, 동북아논총 23, pp.271~305.
- 임금화 · 김태영, 2007, 두만강 북안 중류 조선족 농촌마을 공간구조의 변화 - 용정시 삼합진 감사동 마을을 대상으로, 청주대학교 산업과학연구 24(2), pp.145~152.
- 임성모, 2006, 근대 일본의 만주 인식 -제국의식의 정치 · 문화적 자장, 북방사논총 12, pp.7~35.
- 장원석, 2010, 민족의 상징, 백두산의 탄생, 백두산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pp.378~391.
- 장상훈, 2006, 청대 황여전람도 수록 <조선도> 연구, 동원학술논문집 8, pp.113~152.
- 장세윤, 2004, 간도문제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시각, 국회도서관보 41, pp.18~28.
- 조광, 2001, 왜? 압록강과 두만강은 왜 국경선이 되었을까, 내일을 여는 역사 7, pp.5~13.
- 조법중, 2009, 한국 고종세 백두산 신앙과 만주명칭, 한국사연구 147, pp.121~158.

- 조법중, 2010, 백두산과 장백산 그리고 만주, 백두산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pp.35~64.
- 최덕규, 2008, 제국주의 열강의 만주정책과 간도협약(1905-1910), 역사문화연구 31, pp.203~242.
- 최장근, 1997, 한국통감부의 '간도침입'에 관한 논증 -통감부과출소의 설치경위, 조선사연구 6, pp.159~186.
- 최장근, 1997, 일제의 '한국보호국'화 과정에 관한 일고찰 -국제관계적 측면에서 간도 정책(1904.5~1909.9)과 관련하여, 한국학보 89, pp.103~134.
- 최장근, 1997, 일제의 간도 '통감부 임시과출소' 설치 경위, 한일관계사연구 7, pp.86~115.
- 최장근, 1998, 일본의 한 청국경문제 연구와 소속론에 대한 인식, 일어일문학 10, pp.323~347.
- 최장근, 1998, 일제의 '간도에 관한 일·청협약' 체결제요인, 일본어문학 5, pp.409~442.
- 최장근, 2003, 한·중·일 삼국의 간도 영유권에 대한 인식 - 일본의 간도 문제 개입기 (1905년 전후), 일어일문학 19, pp.215~244.
- 최장근, 2005, 간도문제에 있어서 일제논리의 수용 가능성, 일본어문학회 국제 학술대회, pp.183~188.
- 추월망, 1982, 통감부 간도과출소의 설치동기, 사총 26, pp.45~56.
- 하원호, 2006, 개화기 조선의 간도 인식과 정책의 변화, 동북아역사논총 14, pp.7~31.
- 하중문, 2005, 일본과 러시아의 국경획정 문제에 대한 고찰 -포츠머스강화조약 까지, 북방사논총 4, pp.87~125.
- 한명기, 2005, 17세기 초·중반 조청관계와 이신, 북방사논총 4, pp.247~283.
- 한영우, 1995, 고지도제작의 역사적 배경, 문화역사지리 7, pp.39~45.
- 현영남, 2010, 백두산의 식물, 백두산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pp.304~336.

홍영국, 1990, 백두산의 지질, 지질학회지 26(2), pp.119~126.

홍응호, 2006, 1858~1898년 러시아의 동아시아 팽창과 만주, 동북아역사논총 14, pp.108~137.

3. 학위 논문

김종혁, 2002, 조선후기 한강유역의 교통로와 시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노계현, 1958, 동간도 귀속문제를 논함,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기석, 1955, 간도 귀속문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상학, 1994, 정상기의 <동국지도>에 관한 연구 -제작과정과 필사본들의 계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명원, 2005, 18세기 서양고지도를 통해 본 간도영유권 문제,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재은, 2011, 서양 고지도를 통해 본 간도: 티메카 코리아 웹사이트 소재 지도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혜은, 1976, 조선시대의 교통로에 대한 역사지리적 연구: 한성-의주간을 사례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성규, 2007, 백두대간의 역사지리학적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황명준, 2005, 간도영유권 문제의 국제법적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중국논문

姜龙范, 1997, 清代中朝两国边界问题的理论思考, 延边大学学报(社会科学版), 1997(3), pp.36-41.

- 陶勉, 1996, 清代封祭长白山与派员踏查长白山,中国边疆史地研究, 1996(3), pp.66~84.
- 吕一燃, 1994, 一部值得重视的学术著作—评杨昭全、孙玉梅著《中朝边界史》, 中国边疆史地研究, 1994(4), pp.113~116.
- 馬孟龍, 2009, 穆克登查邊與《皇輿全覽圖》編繪, 中國邊疆史研究, 2009(3), pp.85~99.
- 徐德源, 1996, 长白山东南地区石堆土堆筑设的真相,中国边疆史地研究, 1996(2), pp.60~68.
- 徐德源. 1997, 穆克登碑的性质及其凿立地点与位移述考—近世中朝边界争议的焦点, 中国边疆史地研究, 1997(1), pp.68~77.
- 刁书仁, 崔文植, 2000, 明前期中朝东段边界的变化,史学集刊, 2000(2), pp.22~27.
- 刁书仁, 2001, 中朝边界沿革史研究, 中国边疆史地研究, 2001(4). pp.19~25.
- 刁书仁, 2003, 康熙年间穆克登查边定界考辨, 中国边疆史地研究, 2003(3), pp.45~116.
- 陈慧, 李宝奇, 2006, 穆克登碑文中的“土门”即今图们江,学术交流, 2006(11), pp.176~179.
- 袁辉, 1997, 穆克登查边始末,中国地名, 1997(4), p.20.
- 王德朋, 2006, 篠田治策与《白头山定界碑》, 中国边疆史地研究, 2006-01, pp.115~118.
- 李花子, 2007, 朝鲜王朝的长白山认识, 中国边疆史地研究, 2007(2) pp.126~150.
- 李花子, 2011, 清代長白山踏查活動及對三江源的記述, 韩国研究论丛, 2011(1), pp.415~455.
- 李花子, 2011, 穆克登错定图们江源及朝鲜移柵位置考, 韩国研究论丛, 2008(1), pp.383~405.

6. 자료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白頭山定界碑資料(奎25219).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白頭山定界碑勘界使交涉報告書(奎26302).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勘界使問答(奎21038).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洪世泰, 白頭山記(古4790-47).

萬機要覽

備邊司謄錄

承政院日記

我邦疆域考

朝鮮王朝實錄

四庫全書

皇輿全覽圖

欽定滿洲原流考

欽定盛京通志

山海經

晉書

魏書

北史

新唐書

太平寰宇記

通典

契丹國志

金史

明一統志

東國輿地承覽

萬機要覽

北行隨錄

旅庵全書

星湖僊說

五洲衍文長箋散稿

研經齋全集

與猶堂全書

大東地志

ABSTRACT

Baekdu Mountain and Its East-North Flowing Streams on the Old Map of Korea

Moon Sang Myeoung
Ph.D. Thesis Research,
Department of Geograph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Bo Kyung)

The 'national sovereign' sees Baekdu mountain and its area as the 'line' of the 'national board' and the 'manifest point of view', however, China is resisting that viewpoint of the national sovereign on Baekdu mountain. This area of Korea is the 'trans-border area' that consisted of the 'sides' made of countless residential districts from the people when they move back and forth at the frontier area. Since the old maps are the unique material that reflect the old figures of the area in visual and synthetic perspectives, they makes it possible to comprehend the area where people who drew the maps used to live and where the society recognized once we contemplate Baekdu mountain and its area on the old maps. The analyses of the old maps could be the most appropriate research methodologies to discuss the space of the trans-border area.

There have been various and abundant researches on many academic fields about Manchu area including Baekdu mountain. Most of the researches dealt with the frontier issue with China, and the characteristics of studies are divided into history, toponym,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relations, border studies trends, and watershed system. The border issues for the watershed system have been studied mostly through the historical literatures and geographic materials, however, there is almost no watershed system of border study with old maps.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Baekdu mountain area with its the north east flowing and east flowing streams which are the issues on the old maps. Also, it will analyze the north-eastern flows, Heukryong river; Songhwa river; Sockpyung river; Tomoon river; Boongye river; Dooman river, from Baekdu mountain which have been the border settlement issues since Josun dynasty. Out of 248 old maps that Baekdu mountain area and Manchu were drew, 160 maps were utilized for the research, leaving out the other maps that don't mark out Baekdu mountain at all.

The old maps were analyzed mainly after defining Baekdu mountain expressions and finding the articles about Baekdu mountain north-eastern flows. There are four Baekdu mountain expressions such as Baekdu mountain name, Cheonji marking, the features of Baekdu mountain expressions, and cycles. Also, the four articles focused on Baekdu mountain north-eastern flows which are Baekdu mountain north-eastern flows, the one stream theory, the two streams theory, and Boongye river were stated. These eight stereotyped contents became the basic elements to bring out the universal conceptions on the old maps. Those universal conceptions were objected through literally

recorded materials and supplemented by the in-situ survey.

These are the results of the research.

Firstly, there are various information and knowledge on the name of Baekdu mountain, and it represents the different subjects depend on the descriptions of the colors and forms. The various names of Chunji also reflect the symbols and meanings of Baekdu mountain, and these all expressions and descriptions show the overall conception of Baekdu mountain.

Secondly, the mainly issued Baekdu mountain's north-eastern flows can be classified into six different flows which are, (A) the east flowing Heukryong river at the northern part of Dooman river, (B) the east flowing Sockpyung river between Dooman and Heukryong river, (C) the north flowing Tomoon river within the flow that contains Boongye river, (D) the case of when there is the empty spot between Tomoon and Boongye river, (E) the case of when the east · east north flowing Tomoon or Boongye river and they meet with Dooman river, and (F) the flow that is connected from Baekdu mountain to Dooman river. By the classifications, it proves that there are various Baekdu mountain north-eastern flows on the old maps.

Thirdly, the perspectives on the northern area are showing on the old maps. If we look at the border line of Korean peninsula and China, Baekdu mountain ~ Dooman river flow, there are the frontier perceptions that expand the border (A, B, C) or set the border expanding limit on the northern area (F). Among the flows that contain Tomoon and Boongye river, 'D type' and 'E type' bring very different

perspectives depend on the meaning of Boongye river and the one and the two rivers theory of Dooman river.

Fourthly, the two streams theory of Tomoon and Doman river explains the perspective of the northern expansion, and the one stream theory expresses it by stating Boongye and Sockpyung river as the same one. However, in the case of the meaning of Boongye river is Haeran river on the middle of one stream theory map, there is no region expanding perspective but the same border perspective that Korean peninsula and China match.

Fifthly, Boongye river is expressed into four different meanings. ①It is the same river with Sockpyung and shows the regional expanding perception. ② It is the same river with Tomoon and the down stream of Tomoon river. ③ It expresses the current name, Haeran river. ④ It simply means the river shows the boundary.

Sixthly, as Lee jung ha argued, it proved Tomoon river is OdoBaek river by comparison between the historical and present maps, and it is different river from Dooman river. However, it is not possible to have a conclusion that OdoBaek river is Tomoon river because there are some maps described Tomoon river and Dooman river as the same one among old maps.

Seventhly, the border study is possible only when it is based on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old maps. The abstract of common perspectives was possible based on the various old maps, and the objectification was possible by comparing literal records. Also, the analysis of the old maps on the overall viewpoints become possible

when the holistic study starts by supplementing the insufficient contents through the in-situ survey.

These are the limits of the research will be studied further.

Firstly, the border study of the watershed system through the old maps is still not enough. It is meaningful that this research has been processed even in this background, however, having only few old maps that are made in Korea is the limit of the research. To have the objective and persuasive research, the analyzing of related old maps such as Japanese and Chinese are needed. Moreover, the studies on the old maps need to be conducted in the diverse point of views by analyzing the maps written by the western who understood and saw the real northeastern Asia perspectives.

Secondly, the building of Baekdu mountain demarcation stone was the most event among the time when Korea and China set up the border conception, and it is still debatable whether the building of Baekdu mountain demarcation stone corresponds with the modern frontier of the countries. On this research, the demarcation stone was not dealt. Therefore, a study on the meaning of the demarcation stone building at the time of when this stone was built should be conducted by the old maps.

Thirdly, it is not fair to discuss the old maps by comparing with modern maps since the old maps are drew based on the concepts of how people back then understood the spaces of the surfaces. It is possible to explain which north east flowing Baekdu mountain river refers the river on the current map through the literal records, however, it can not

be said the rivers drew on the old maps are wrong. For those reasons, I abstracted the diverse viewpoints by classifying and analyzing the differently expressed rivers and didn't argued that whether the old maps are 'correct or wrong'.

There are many researchers who argue that these features of the old maps are the limits, however, I believe these are actually the 'licenses'. The 'licenses' of the old maps show the social perceptions and national images diversely of the old time that if we study a certain space of the past through the old maps, it could be the most opened research approached in many different angles.

부 록 1. 연구대상 지도목록

지도 번호	지도명(한글)	지도명(한자)	소장처	제작시기	청구기호	크기 (세로×가로)cm
1	서북피아양계 만리일람지도	西北彼我兩界萬里一覽之圖	국립중앙도서관	18세기 중반	BC古朝61-77	162.2×191.4
2	서북양계도	西北兩界圖	천리대학부속천리도서관		292-1*47	154.0×169.3
3	서북피아양계 만리일람지도	西北彼我兩界萬里一覽之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712년 이후	古軸4709-22A	150.6×202.2
4	서북계도	西北界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8세기 중반	古4709-89	23.5×17.0
5	요계관방지도	遼薊關防地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706년	古大4790-91	241.5×64.5
6	해동지도 중 조선여진분계도	海東地圖 中 朝鮮女眞分界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8세기 중반	古大4709-41	47.5×30.0
7	전세보 중 조선·만주지도	傳世寶 中 朝鮮·滿州地圖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18세기 후반	974	26.3×15.7
8	해동지도 중 요계관방도	海東地圖 中 遼薊關防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750년대 초	古大4709-41	47.0×30.5
9	여지대전도 중 요계관방대전도	輿地大全圖 中 遼薊關防大全圖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1725년	54	27.8×19.3
10	해동지도 중 서북피아양계전도	海東地圖 中 西北彼我兩界全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750년대 초	古大4709-41	181.0×228.0
11	각국도 중 서북피아교계도	各國圖 中 西北彼我交界圖	국립중앙도서관	19세기	古2802-1	47.8×60.3
12	영고탑총람도	寧古塔總覽圖	국립중앙도서관	1741년	古2702-5	20.3×12.4

13	여도 중 영고탑도	輿圖 中 寧古塔圖	영남대학교 박물관	18세기 후반~ 19세기 전반	10241	43.3×63.8
14	여지도 중 성경여지전도	輿地圖 中 盛京輿地全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연대미상	古4709-1	31.8×21.2
15	각국도중성경전도, 청일통지본	各國圖 中 盛京全圖 清一統志本	국립중앙도서관	19세기	古2802-1	33.5×44.0
16	중국고대각성별전도 중 성경전도	中國古代各省別全圖 中 盛京全圖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연대미상	60	27.0×17.0
17	화이지계 중 성경	華夷地界 中 盛京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연대미상	1281	27.5×17.5
18	각국도 중 성경전도, 조병사운성본	各國圖 中 盛京全圖, 曹兵使充成本	국립중앙도서관	19세기	古2802-1	33.5×44.0
19	대한지리도 중 성경도	大韓地里圖 中 盛京圖	서울역사박물관	18세기	서13192	47.9×30.4
20	고지도첩 중 성경여지전도	古地圖帖 中 盛京輿地全圖	영남대학교 박물관	19세기 전반	10137	34.0×48.0
21	여도 중 성경전도	輿圖 中 盛京全圖	영남대학교 박물관	18세기 후반~ 19세기 전	10241	43.3×63.8
22	여지도 중 의주북경사행로	輿地圖 中 義州北京使行路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세기 전반	古4709-78	59.0×75.0
23	각국도 중 북경노정기	各國圖 中 北京路程記	국립중앙도서관	19세기	古2802-1	
24	조선강역총도 중 고구려북도급강외강역도	朝鮮江域摠圖 中 高句麗北都及江外疆域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8세기 초반	古軸4709-53	
25	북관지도 중 관북지도	北關地圖 中 關北地圖	국립중앙도서관	연대미상	古朝61-50	72.7×119.0

26	관서관북도 중 관서관북도	關西關北圖 中 關西關北圖	국립중앙박물관	연대미상	M82	57.0×73.0
27	북계지도	北界地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세기 후반	古4709-86	93.5×138.0
28	양계지도	兩界地圖	국립중앙박물관	18세기 초	本10045	
29	북방강역도	北坊江城圖	개인소장	영조 혹은 정조 연간		111.0×73.5
30	서관총람지도	西關摠覽之圖	국립중앙도서관	연대미상	古2702-4	127.2×195.0
31	서북양계지도 중 서관총람도	西北兩界地圖 中 西關摠覽圖	고려대학교 도서관	연대미상	貴706	100.3×70.0
32	서북양계지도 중 관북총람도	西北兩界地圖 中 關北摠覽圖	고려대학교 도서관	연대미상	貴706	87.5×88.7
33	청남도 중 관서전도	淸南圖 中 關西全圖	고려대학교 도서관	1776년 이후	貴707.1	94.7×71.2
34	청북도 중 청북전도	淸北圖 中 淸北全圖	고려대학교 도서관	1776 이후	貴707.2	67.0×109.4
35	여도중압록강도	輿圖 中 鴨綠江圖	영남대학교 박물관	18세기 후반~ 19세기 전반	10241	43.3×63.8
36	압록강변계도	鴨綠江邊界圖	국립중앙박물관	연대미상	本館10049	68.0×111.0
37	관서청북전도	關西淸北全圖	영남대학교 박물관	18세기 중반	10236	151.3.×235.5
38	청북변성도	淸北邊城圖	국립중앙박물관	1780년대	本館10688	43.1×224.5
39	폐사군국경수어도	廢四郡國境守御圖	고려대학교 박물관	연대미상	D67	129.5×181.5

40	폐사군도	廢四郡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세기 초반	古 複 軸 4709-94	115.5×194.5
41	관북전도	關北全圖	영남대학교 박물관	1895년	10275	84.0×81.0
42	아국여지도	俄國輿地圖	한국학중앙연구원		2-4611	27.2×35.0
43	아국여지도 목록	俄國輿地圖	한국학중앙연구원		2-4611	27.2×35.0
44	아국여지도 중 녹둔 도도	俄國輿地圖 中 鹿菴島圖	한국학중앙연구원		2-4611	27.2×35.0
45	아국여지도 중 연추 영도·혼춘도	俄國輿地圖 中 延秋營圖 琿春 圖	한국학중앙연구원		2-4611	27.2×35.0
46	아국여지도 중 해삼 위도	俄國輿地圖 中 海蔘蕨圖	한국학중앙연구원		2-4611	27.2×35.0
47	백두산정계비지도	白頭山定界碑地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887년	奎軸26675	54.2×99.0
48	동국여도 제 3책 함 경도 중 백두산도	東國輿圖 第 3冊 咸鏡道 中 白頭山圖	고려대학교 박물관	연대미상	2664 V.3	33.2×31.5
49	여지도중임진정계지 도	輿地圖 中 壬辰定界地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연대미상	古4709-1	31.8×21.2
50	조선정계비강역약도	朝鮮定界碑疆域略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연대미상	奎15504	85.4×53.0
51	백두산정계비지도	白頭山定界碑地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연대미상	奎26676	97.6×56.9
52	장파지도	長坡地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연대미상	奎12160	71.0×108.5
53	북관장파지도	北關長坡地圖	국립중앙도서관	1880년대	古朝61-59	71.5×109.7

54	장진지도	長津地圖	국립중앙박물관	연대미상	구6743	116.0×75.1
55	갑산지도	甲山地圖	국립중앙도서관	연대미상	古朝61-7	74.4×69.7
56	팔도지도	八道地圖	국사편찬위원회	연대미상	貴33	91.0×35.7
57	조선국도	朝鮮國圖	일본 국립공문서관	연대미상	178-449	
58	조선도	朝鮮圖	일본 국립공문서관	연대미상	史199-004	
59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중조선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中 朝鮮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402년의 모 사본		158.5×168.0
60	조선방역지도	朝鮮方域之圖	국사편찬위원회	16세기		132.0×61.0
61	팔도총도	八道總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683년	古軸4709-74	124.0×90.5
62	동국팔도여지도	東國八道輿地圖	서울역사박물관	1819년	서13147	121.5×70.3
63	동국여지지도	東國輿地之圖	해남 녹우당	연대미상		121.0×73.4
64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	海東八道烽火山岳地圖	고려대학교 도서관	17세기 후반	貴700	218.0×149.0
65	조선팔로지도	朝鮮八路地圖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1707년	31	126.0×83.0
66	조선팔도고금총람도	朝鮮八道古今揔覽圖	서울역사박물관	1673년	서13145	141.8×107.0
67	조선팔도총람지도	朝鮮八道揔覽之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7세기 후기	古軸4709-115	104.5×69.5

68	팔도총도	八道總圖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연대미상	33	132.5× 40.1
69	동국대지도	東國大地圖	국립중앙박물관	18세기	德壽4396	272.2×137.9
70	동국대지도	東國大地圖	서울역사박물관	19세기	서13148	252.5×139.5
71	조선팔역도	朝鮮八域圖	국립중앙도서관	1822년 이후	古朝61-52	241.3×99.0
72	조선전도 중 조선총도	朝鮮全圖 中 朝鮮總圖	고려대학교 박물관	18세기 중엽	D129	98.5×57.5
73	각도지도 중 조선전도	各道地圖 中 朝鮮全圖	영남대학교 박물관	18세기 후반	10176	99.0×56.0
74	동국지도	東國地圖	서울역사박물관	1846년	서13152	95.0×53.1
75	해동여지도 중 조선전도	海東輿地圖 中 朝鮮全圖	국립중앙도서관	19세기 초반	古朝61-35	98.7×56.5
76	청구관해방총도	靑丘關海防總圖	국립중앙박물관	1776-1787년	本館11651	85.5×282.0
77	조선지도	朝鮮地圖	서울역사박물관	19세기 이후	서13156	84.0×62.3
78	여도	輿圖	영남대학교 박물관	18세기 전반	10175	153.7×95.0
79	동국지도 중 총도	東國地圖 中 總圖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19세기	53	93.3×59.7
80	동국여지도 중 동국대총	東國輿地圖中東國大總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849년	古4709-96	19.2×33.0
81	지도 중 조선국	地圖 中 朝鮮國	서울역사박물관	19세기	서13187	32.3×38.5

82	조선지도 부 팔도천 하지도 중 조선전도	朝鮮地圖 附 八道天下地圖 中 朝鮮全圖	국립중앙도서관	18세기 중반	한古朝 61-6	24.5×30.5
83	해동총도 중 조선총 도	海東總圖 中 朝鮮總圖	국립중앙도서관	연대미상	古朝61-42	42.5×32.3
84	지도 중 조선총도	地圖 中 朝鮮總圖	서울역사박물관	19세기	서13181	25.2×25.0
85	지도 중 조선도	地圖 中 朝鮮圖	서울역사박물관	18세기 후반	서13193	28.4×34.0
86	지도 중 동국팔도대 총도	地圖 中 東國八道大總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연대미상	가 람 古 912.5-J561	25.8×32.2
87	여지도 중 동국팔도 대총도	輿地圖中東國八道大總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연대미상	古4709-1	28.9×39.4
88	조선팔도지도 중 조 선팔도대총지형	朝鮮八道地圖中朝鮮八道大總地 形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8세기 말	古4709-13	19.8×31.1
89	천하도 중 팔도총도	天下圖 中 八道總圖	성신여자대학교 박 물관	연대미상	1017	28.6×33.9
90	좌해여지도 중 동국 팔도대총도	左海輿地圖 中 東國八道大總圖	천리대학부속천리도 서관	제작시기??	292.1-443	34.0×21.6
91	조선팔도	朝鮮八道	서울역사박물관	18세기 후반	서13146	48.0×32.8
92	동국지도	東國地圖	서울역사박물관	18세기 전반	서13151	92.6×65.3
93	고지도첩 중 조선전 도	古地圖帖 中 朝鮮全圖	영남대학교 박물관	19세기 전반	10137	96.0×65.5
94	지도 중 조선국팔도 통합도	地圖 中 朝鮮國八道統合圖	서울역사박물관	19세기	서13181	50.0×25.2
95	조선팔도여지도	朝鮮八道輿地之圖	서울역사박물관	16세기 후반	서13144	107.0×69.8

96	동국지도	東國地圖	서울역사박물관	19세기 이후	서13153	78.4×48.8
97	여지도 중 아국총도	輿地圖 中 我國總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8세기 말	古4709-78	152.5×82.5
98	조선팔도지도	朝鮮八道地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8세기 말	古軸 4709-2	169.0×93.0
99	해좌전도	海左全圖	성신여자대학교 박 물관	1857-1859년	89	98.4×56.1
100	해좌전도	海左全圖	성신여자대학교 박 물관	19세기 중반	46	106.5×56.0
101	대동여지전도	大東輿地全圖	서울역사박물관	19세기 후반	서13157	104.3×31.7
102	청구도 중 본조팔도 주현도총목	靑邱圖 中 本朝八道州縣圖總目	고려대학교 도서관	1834년	貴511	30.8×20.7
103	청구도 중 본조팔도 성경합도	靑邱圖 中 本朝八道盛京合圖	고려대학교 도서관	1834년	貴511	30.8×20.7
104	청구도 중 3층 8판·9 판	靑邱圖 中 三層 八版·九版	고려대학교 도서관	1834년	貴511	30.8×20.7
105	동여도 중 제표총목, 팔도분표	東輿圖 中 諸標總目, 八道分俵	천리대학부속천리도 서관		292.1-223	
106	동여도 중 제 3층8·9	東輿圖中 第三層 八·九	천리대학부속천리도 서관		292.1-223	
107	청구도	靑邱圖	한국학중앙연구원		2-4587	24.0×37.2
108	청구도 중 제 1층	靑邱圖 中 第一層	한국학중앙연구원		2-4587	24.0×37.2
109	청구도 중 제 3층 8·9	靑邱圖 中 第三層 八·九	한국학중앙연구원		2-4587	24.0×37.2

110	대동여지도 중 제 2 첩 백두산 부분	大東輿地圖 제 2첩 백두산 부 분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861년	奎10333	30.2×20.1
111	대동여지도 제 2첩 백두산 부분	大東輿地圖 제 2첩 백두산 부 분	일본 국회도서관			
112	조선지방도 제 1첩 백두산 부분	朝鮮地方圖 제 1첩 백두산 부 분	천리대학부속천리도 서관		292.1'-211	29.0×17.5
113	대동여지도 제 2첩 백두산 부분	大東輿地圖 제 2첩 백두산 부 분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861년	奎12380	30.2×20.1
114	해좌여도	海左輿圖	성신여자대학교 박 물관	1861년	971	29.8×19.8
115	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	성신여자대학교 박 물관	1861년	47	30.6×20.1
116	동여도	東輿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849-1863년	奎10340	30.5×20.0
117	동여도	東輿圖	서울역사박물관	연대미상	서3069	30.5×20.0
118	동여 제 2첩·3첩	東輿 제 2첩·3첩	국립중앙박물관	1858년	M127	41.0×26.5
119	동여도 제 2첩·3첩	東輿圖 제 2첩·3첩	국립중앙박물관	1857년	신수3659	30.5×20.0
120	대한여지도	大韓輿地圖	성신여자대학교 박 물관	20세기 초반	51	161.4×91.6
121	대한전도 중 대한전 도	大韓全圖 中 大韓全圖	성신여자대학교 박 물관	1905년 전후	58	40.5×31.1
122	근역강산맹호기상도	槿域江山猛虎氣象圖	고려대학교 박물관	19세기 말~20 세기 초		80.3×46.0
123	북관지도 중 북도십 읍	北關地圖 中 北道十邑	국립중앙도서관	18세기 후반	古朝61-50	61.2×99.9

124	여지도 중 함경도	輿地圖 中 咸鏡道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古4709-78	91.8×59.8
125	조선전도 중 함경남도	朝鮮全圖 中 咸鏡南道	고려대학교 박물관	18세기 중엽	D129	97.0×58.5
126	조선전도 중 함경북도	朝鮮全圖 中 咸鏡北道	고려대학교 박물관	18세기 중엽	D129	97.0×60.0
127	동국지도 중 함경남도	東國地圖 中 咸鏡南道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19세기	53	101.5×57.5
128	동국지도 중 함경북도	東國地圖 中 咸鏡北道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19세기	53	83.5×57.3
129	도리도표 중 함경도	道理圖標 中 咸鏡道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연대미상	古4709-23	99.0×63.0
130	동국지도 중 관서	東國地圖 中 關西	서울역사박물관	19세기 전반	서13150	69.6×45.6
131	동국지도 중 관남	東國地圖 中 關南	서울역사박물관	19세기 전반	서13150	69.6×45.6
132	동국지도 중 관북	東國地圖 中 關北	서울역사박물관	19세기 전반	서13150	69.6×45.6
133	아동여지도 중 평안도	我東輿地圖 中 平安道	국립중앙도서관	19세기 전반	古朝61-48	98.5×55.6
134	아동여지도 중 함경도전도	我東輿地圖 中 咸鏡道全道	국립중앙도서관	19세기 전반	古朝61-48	100.7×55.2
135	아동여지도 중 함경도관북	我東輿地圖 中 咸鏡道關北	국립중앙도서관	19세기 전반	古朝61-48	77.4×57.4
136	동국팔로분지도 중 함경도	東國八路分地圖 中 咸鏡道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19세기	65	159.1×123.5
137	기봉요도 중 함경북도	箕封瑤圖 中 咸鏡北道	천리대학부속천리도서관		292.1-153	100.3×62.3

138	해동팔역여지도 중 관북	海東八域輿地圖 中 關北	천리대학부속천리도서관		292.1-131	74.0×61.2
139	관서도지도	關西都地圖	한국학중앙연구원		K2-4544	70.0×65.0
140	함경도전도	咸鏡道全圖	천리대학부속천리도서관		292-1-335	88.0×120.8
141	팔도분도 중 함경남도	八道分圖 中 咸鏡南道	서울역사박물관	19세기	서13167	107.2×64.8
142	여지도 중 함경도	輿地圖 中 咸鏡道	서울역사박물관	19세기 전반	서13168	76.3×65.
143	좌해지도 중 함경도 남도십삼주	左海地圖 中 咸鏡道 南道十三州	일본 동양문고	연대미상		
144	좌해지도 중 함경도 북도구주	左海地圖 中 咸鏡道 北道九州	일본 동양문고	연대미상		
145	조선팔도여지전도 중 평안	朝鮮八道輿地全圖 中 平安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18세기	72	64.7×47.8
146	조선팔도여지전도 중 함경	朝鮮八道輿地全圖 中 咸鏡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18세기	72	64.0×48.0
147	여지도 중 평안도도	輿地圖 中 平安道圖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19세기 말	39	27.6×35.9
148	여지도 중 함경도도	輿地圖 中 咸鏡道圖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19세기 말	39	27.6×36.2
149	대한전도 중 평안북도	大韓全圖 中 平安北道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1905년 전후	58	28.6×32.2
150	대한전도 중 함경북도	大韓全圖 中 咸鏡北道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1905년 전후	58	26.9×21.0
151	해동도 중 함경도 지계리수	海東圖 中 咸鏡道 地界里數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17세기	1042	18.7×32.7

152	해동도 중 함경도	海東圖 中 咸鏡道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17세기	1042	18.7×32.7
153	조선팔도지도 중 함경도	朝鮮八道地圖 中 咸鏡道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8세기 말	古4709-13	19.8×31.1
154	천하지도 중 함경도	天下地圖 中 咸鏡道圖	서울역사박물관	18세기 후반	서13189	31.0×38.8
155	대한지리도 중 평안도	大韓地理圖 中 平安道	서울역사박물관	18세기	서13192	47.9×30.4
156	대한지리도 중 함경도	大韓地理圖 中 咸鏡道	서울역사박물관	18세기	서13192	47.9×30.4
157	지도 중 함경도	地圖 中 咸鏡道	서울역사박물관	19세기	서13181	25.2×25.0
158	함경남북도읍전도 중 함경전도	咸鏡南北都邑全圖 中 咸鏡全道	국립중앙도서관	연대미상	古朝61-81	23.4×31.0
159	좌해여지도 중 함경도	左海輿地圖 中 咸鏡道	천리대학부속천리도서관	제작시기??	292.1-443	34.0×21.6
160	동국여지도 중 함경도	東國輿地圖 中 咸鏡道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849년	古4709-96	19.2×33.0
161	천하도 중 함경도	天下圖 中 咸鏡道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17세기	1017	28.6×33.9
162	삼한일람도 중 함경도	三韓一覽圖 中 咸鏡道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8세기 전반	古4709-194	65.1×52.4
163	지도 중 함경도	地圖 中 咸鏡道	서울역사박물관	18세기	서13182	34.7×35.4
164	조선지도 부 팔도천하지도 중 함경도	朝鮮地圖 附 八道天下地圖 中 咸鏡道	국립중앙도서관	18세기 중반	한古朝 61-6	24.5×30.5
165	지도 중 함경도	地圖 中 咸鏡道	서울역사박물관	19세기	서13187	32.3×38.5

166	조선강역총도 중 함경도 세부도	朝鮮江域總圖 中 咸鏡道 細部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8세기 초반	古軸4709-53	
167	조선강역총도 중 함경도 세부도	朝鮮江域總圖 中 咸鏡道 細部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8세기 초반	古軸4709-53	
168	해동총도 중 함경도	海東總圖 中 咸鏡道	국립중앙도서관	18세기	古朝61-42	42.5×32.3
169	해동총도 중 관북	海東總圖 中 關北	국립중앙도서관	18세기	古朝61-42	
170	북관지도 중 북관지도	北關地圖 中 關北地圖	국립중앙도서관	18세기 후반	古朝61-50	84.7×121.5
171	해동지도 중 제 3책 평안도전도	海東地圖 中 第 3冊 平安道全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750년대 초	古大4709-41	49.8×38.5
172	해동지도 중 제 2책 함경도전도	海東地圖 中 第 2冊 咸鏡道全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750년대 초	古大4709-41	49.8×38.5
173	해동여지도 중 평안도	海東輿地圖 中 平安道	국립중앙도서관	19세기 초반	古朝61-35	80.1×57.2
174	해동여지도 중 함경도	海東輿地圖 中 咸鏡道	국립중앙도서관	19세기 초반	古朝61-35	48.8×57.4
175	관북지도 표지	關北地圖	고려대학교 도서관	연대미상	貴 706.3	32.0×23.0
176	관북지도 서문	關北地圖	일본 동양문고		VII-2-228	
177	관북지도 서문	關北地圖	고려대학교 도서관	연대미상	貴 706.3	32.0×23.0
178	관북지도 서문	關北地圖	일본 동양문고		VII-2-228	
179	관북지도 중 갑산부	關北地圖 中 甲山府	일본 동양문고		VII-2-228	

180	관북지도 중 갑산부	關北地圖 中 甲山府	고려대학교 도서관	연대미상	貴706.3	106.7×59.6
181	관북지도 중 삼수부	關北地圖 中 三水府	일본 동양문고		VII-2-228	
182	관북지도 중 삼수부	關北地圖 中 三水府	고려대학교 도서관	연대미상	貴706.3	113.2×60.0
183	관북지도 중 무산부	關北地圖 中 茂山府	일본 동양문고		VII-2-228	
184	관북지도 중 무산부	關北地圖中 茂山府	고려대학교 도서관	연대미상	貴706.3	40.9×87.4
185	관북지도 중 온성부	關北地圖 中 穩成府	일본 동양문고		VII-2-228	
186	관북지도 중 온성부	關北地圖 中 穩成府	고려대학교 도서관		貴706.3	47.0×58.0
187	해동지도 중 갑산부	海東地圖 中 甲山府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750년대 초	古大4709-41	47.0×30.5
188	해동지도 중 삼수부	海東地圖 中 三水府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750년대 초	古大4709-41	47.0×30.5
189	해동지도 중 폐사군	海東地圖 中 廢四郡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750년대 초	古大4709-41	47.0×30.5
190	해동지도 중 강계부	海東地圖 中 江界府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750년대 초	古大4709-41	47.0×30.5
191	해동지도 중 위원군	海東地圖 中 渭原郡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750년대 초	古大4709-41	47.0×30.5
192	해동지도 중 이산부	海東地圖 中 理山府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750년대 초	古大4709-41	47.0×30.5
193	해동지도 중 벽동군	海東地圖 中 碧潼郡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750년대 초	古大4709-41	47.0×30.5

194	해동지도 중 창성부	海東地圖 中 昌城府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750년대 초	古大4709-41	47.0×30.5
195	해동지도 중 삭주부	海東地圖 中 朔州府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750년대 초	古大4709-41	47.0×30.5
196	해동지도 중 의주부	海東地圖 中 義州府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750년대 초	古大4709-41	47.0×30.5
197	해동지도 중 무산부	海東地圖 中 茂山府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750년대 초	古大4709-41	47.0×30.5
198	해동지도 중 회령부	海東地圖 中 會寧府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750년대 초	古大4709-41	47.0×30.5
199	해동지도 중 종성부	海東地圖 中 種城府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750년대 초	古大4709-41	47.0×30.5
200	해동지도 중 온성부	海東地圖 中 穩城府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750년대 초	古大4709-41	47.0×30.5
201	해동지도 중 경원부	海東地圖 中 慶源府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750년대 초	古大4709-41	47.0×30.5
202	해동지도 중 경흥부	海東地圖 中 慶興府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750년대 초	古大4709-41	47.0×30.5
203	관북지도 중 무산부	關北地圖 中 茂山府	일본 동양문고	연대미상	VII-2-228	
204	관북지도 중 무산부	關北地圖 中 茂山府	고려대학교 도서관	18세기 중엽	貴706.3	40.9×87.4
205	관북지도 중 무산부	關北地圖 中 茂山府	고려대학교 도서관	18세기 중엽	貴706.2	47.4×90.7
206	관북여지도 중 무산부	關北輿地圖 中 茂山府	국립중앙박물관	연대미상	구2152	41.0×84.2
207	북관지도 중 무산	北關地圖 中 茂山	국립중앙도서관	1776~1784	古朝61-50	46.0×47.5

208	해동지도 무산부	海東地圖 中 茂山府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750년대 초	古大4709-41	47.0×30.5
209	조선지도 중 무산	朝鮮地圖 中 茂山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767-1776년	奎16030	74.7×77.2
210	함경남북도도읍전도 중 무산전도	咸鏡南北道都邑全圖 中 茂山全圖	국립중앙도서관	1822년 이후	古朝61-81	22.8×31.5
211	함경도전도 중 무산부	咸鏡道全圖 中 茂山府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세기 초	奎12156	74.3×77.0
212	무산지도	茂山地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872년	奎10694	36.6×25.6
213	청북도 중 의주부	淸北圖 中 義州府	고려대학교 도서관	18세기 중엽	貴707.2	88.5×66.8
214	청북도 중 강계부	淸北圖 中 江界府	고려대학교 도서관	18세기 중엽	貴707.2	67.4×99.6
215	갑산부지도	甲山府地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872년	奎10681	36.6×25.6
216	함경도전도 중 회령부	咸鏡道全圖 中 會寧府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세기 초	奎12156	74.3×77.0
217	회령부지도	會寧府地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872년	奎10680	36.6×25.6
218	함경남북도도읍전도 중 함흥전도	咸鏡南北道都邑全圖 中 咸興全圖	국립중앙도서관	1822년 이후	古朝61-81	23.4×31.3
219	관북여지도 중 함흥	關北輿地圖 中 咸興	국립중앙박물관	연대미상	구2152	54.0×47.0
220	동국여도 중 함경도 함흥부	東國輿圖 中 咸興府	고려대학교 박물관	1800-1822년	2664.V.3	65.4×58.8
221	동국여도 중 평안도 평안부성도	東國輿圖 中 平壤府城圖	고려대학교 박물관	1800-1822년	2664.V.4	

222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국립중앙박물관			
223	화동고지도	華東古地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6세기 후반	古軸4709-114	180.0×197.0
224	천하고금대총편람도	天下古今大揔便覽圖	서울역사박물관	1666년	서13124	142.8×89.5
225	천하고금대총편람도	天下古今大揔便覽圖	서울역사박물관	1666년	서13125	110.0×77.5
226	천하대총일람지도	天下大揔一覽地	국립중앙도서관	1767년	古朝61-11	128.5×151.2
227	여지전도	輿地全圖	서울역사박물관	1824년,	서13126	83.0×69.5
228	여지전도	輿地全圖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19세기	48	92.5×61.0
229	천하여지도	天下輿地圖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1747년	32	122.6×111.0
230	각국도중천하전도	各國圖 中 天下全圖	국립중앙도서관	1822년 이후	古2802-1	33.2×44.0
231	고지도첩 중 천하산천맥락도	古地圖帖 中 天下山川脉絡圖	영남대학교 박물관	19세기초	10137	36.4×59.8
232	각국도중천하총도	各國圖 中 天下總圖	국립중앙도서관	1822년 이후	古2802-1	33.5×22.3
233	축벽도	丑關圖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연대미상	62	18.8×35.1
234	조선팔도지도 중 천하지형	朝鮮八道地圖 中 天下地形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8세기 말	古4709-13	19.8×31.1
235	각국도중천지전도	各國圖 中 天地全圖	국립중앙도서관	1822년 이후	古2802-1	33.2×44.0

236	해동삼국도	海東三國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780년대	奎15506	248.0×264.4
237	여지도 중 천하도지 도	輿地圖 中 天下都地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623년 원도, 1770년대 필 사	古4709-78	60.3×102.2
238	중국역대팔폭병풍	中國歷代八幅屏風	서울역사박물관	1825년	서13217	118.3×456.0
239	동국여지도 중 중국 도	東國輿地圖 中 中國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849년	古4709-96	19.2×33.0
240	지도 중 중화도	地圖 中 中華圖	서울역사박물관	19세기	서13181	50.0×25.2
241	조선팔도지도 중 중 국지형	朝鮮八道地圖 中 中國地形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8세기 말	古4709-13	19.8×31.1
242	조선지도 부 팔도천 하지도 중 중국지도	朝鮮地圖 附 八道天下地圖 中 中國地圖	국립중앙도서관	18세기 중반	한古朝 61-6	24.5×30.5
243	지도 중 중국도	地圖 中 中國圖	서울역사박물관	18세기 후반	서13193	30.3×35.2
244	대한지리도 중 천하 중국도	大韓地里圖 中 天下中國圖	서울역사박물관	18세기	서13192	47.9×30.4
245	중국전도	中國全圖	서울역사박물관	1831년	서13127	68.0×44.7
246	중국지도	中國地圖	국립중앙박물관	연대미상	M138	40.6×58.8
247	여지도 중 중국지도	輿地圖 中 中國地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789-1795년	古4709-78	82.5×91.0
248	지도 중 중국도	地圖 中 中國圖	서울역사박물관	19세기	서13187	33.0×39.2

부록 2. 분석대상 지도목록(160점)

지도 번호	지도명(한글)	유형	특징
1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백두산을 포함하는 양계지역 지도	
2	서북양계도	백두산을 포함하는 양계지역 지도	
3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백두산을 포함하는 양계지역 지도	
4	서북계도	백두산을 포함하는 양계지역 지도	
5	요계관방지도	백두산을 포함하는 양계지역 지도	
6	전세보 중 조선·만주지도	백두산을 포함하는 양계지역 지도	두 개의 백두산
7	해동지도 중 요계관방도	백두산을 포함하는 양계지역 지도	
8	해동지도 중 서북피아양계전도	백두산을 포함하는 양계지역 지도	農事江(源出白頭山)≈件乙加 土江≈分界江≈豆滿江
9	각국도 중 서북피아교계도	백두산을 포함하는 양계지역 지도	
10	영고탐총람도	백두산을 포함하는 양계지역 지도	
11	여도 중 영고탐도	백두산을 포함하는 양계지역 지도	海蘭河 ≡ 卜兒哈夷河 ≡ 噶 哈里河
12	여지도 중 성경여지전도	백두산을 포함하는 양계지역 지도	
13	각국도중성경전도, 청일통지본	백두산을 포함하는 양계지역 지도	
14	중국고대각성별전도 중 성경전도	백두산을 포함하는 양계지역 지도	圖門江
15	화이지계 중 성경	백두산을 포함하는 양계지역 지도	
16	각국도 중 성경전도, 조병사윤성본	백두산을 포함하는 양계지역 지도	
17	고지도첩 중 성경여지전도	백두산을 포함하는 양계지역 지도	
18	여도 중 성경전도	백두산을 포함하는 양계지역 지도	海蘭河 ≡ 卜兒哈夷河 ≡ 噶 哈里河
19	조선강역총도 중 고구려북도급강외강역도	백두산을 포함하는 양계지역 지도	黑水
20	북관지도 중 관북지도	백두산을 포함하는 양계지역 지도	정계비~토문강~목책~두만강

21	관서관북도 중 관서관북도	백두산을 포함하는 양계지역 지도	
22	북계지도	백두산을 포함하는 양계지역 지도	分界江教源
23	양계지도	백두산을 포함하는 양계지역 지도	土門江~分界江
24	북방강역도	백두산을 포함하는 양계지역 지도	
25	서북양계지도 중 관북총람도	백두산을 포함하는 양계지역 지도	土門江=分界江
26	여도중압록강도	백두산을 포함하는 양계지역 지도	황여전람도와 유사
27	관북전도	백두산을 포함하는 양계지역 지도	송화강=토문강, 공백=북중산, 원지에서발원하는두만강(淸名圖們江), 海蘭河
28	백두산정계비지도	백두산 주제도	황화송구자=토문강, 원지에서 발원하는圖們江//博爾哈通河, 戛雅河
29	동국여도 제 3책 함경도 중 백두산도	백두산 주제도	
30	여지도중임진정계지도	백두산 주제도	玉門
31	조선정계비강역약도	백두산 주제도	
32	백두산정계비지도	백두산 주제도	土門江源 一名分界江
33	장파지도	백두산 주제도	
34	북관장파지도	백두산 주제도	
35	장진지도	백두산 주제도	
36	팔도지도	조선전도	
37	조선국도	조선전도	
38	조선도	조선전도	
39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중조선	조선전도	
40	조선방역지도	조선전도	
41	팔도총도	조선전도	황금색 백두산
42	동국팔도여지도	조선전도	

43	동국여지지도	조선전도	
44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	조선전도	
45	조선팔로지도	조선전도	
46	조선팔도고금총람도	조선전도	두 개의 백두산
47	조선팔도총람지도	조선전도	
48	팔도총도	조선전도	
49	동국대지도	조선전도	豊界江一名分界江
50	동국대지도	조선전도	土門江源~分界江
51	조선팔역도	조선전도	강~平頂山~分界江
52	조선전도 중 조선총도	조선전도	土門江源~分界江
53	각도지도 중 조선전도	조선전도	土門江上流~分界江
54	동국지도	조선전도	
55	해동여지도 중 조선전도	조선전도	土門江上流~分界江
56	청구관해방총도	조선전도	土門江源=豊界江一名分界江 土門江下流
57	조선지도	조선전도	土門江上流~分界江
58	여도	조선전도	
59	동국지도 중 총도	조선전도	
60	동국여지도 중 동국대총	조선전도	
61	지도 중 조선국	조선전도	
62	조선지도 부 팔도천하지도 중 조선전도	조선전도	
63	해동총도 중 조선총도	조선전도	
64	지도 중 조선총도	조선전도	
65	지도 중 조선도	조선전도	

66	지도 중 동국팔도대총도	조선전도	
67	여지도 중 동국팔도대총도	조선전도	
68	조선팔도지도 중 조선팔도대총지 형	조선전도	
69	천하도 중 팔도총도	조선전도	
70	좌해여지도 중 동국팔도대총도	조선전도	
71	조선팔도	조선전도	
72	동국지도	조선전도	
73	고지도첩 중 조선전도	조선전도	
74	지도 중 조선국팔도통합도	조선전도	
75	조선팔도여지도	조선전도	
76	동국지도	조선전도	
77	여지도 중 아국총도	조선전도	
78	조선팔도지도	조선전도	
79	해좌전도	조선전도	천지~乾川~공백~分東江
80	해좌전도	조선전도	
81	대동여지전도	조선전도	
82	청구도 중 본조팔도주현도총목	조선전도	같은 청구도 안에서 지도의 표현 범위에 따라 백두산 명칭 표기와 두만강 표기가 다름
83	청구도 중 본조팔도성경합도	조선전도	長白山~土門江
84	청구도 중 3층 8판·9판	조선전도	康熙壬辰分界時以此稱分界江 上流
85	동여도 중 제 3층8·9	조선전도	康熙壬辰分界時以此稱分界江 上流
86	청구도 중 제 3층 8·9	조선전도	康熙壬辰分界時以此稱分界江 上流

87	대동여지도 중 제 2첩 백두산 부분	조선전도	
88	대동여지도 제 2첩 백두산 부분	조선전도	
89	조선지방도 제 1첩 백두산 부분	조선전도	
90	대동여지도 제 2첩 백두산 부분	조선전도	
91	해좌여도	조선전도	
92	대동여지도	조선전도	
93	동여도	조선전도	
94	동여도	조선전도	
95	대한여지도	조선전도	分東江
96	대한전도 중 대한전도	조선전도	土門江=分界江 // 조-중 국경선이 두만강 북쪽의 분계강임.
97	북관지도 중 북도십읍	도별지도	정계비~土門江濱甲巖源~목책~두만강
98	여지도 중 함경도	도별지도	
99	조선전도 중 함경북도	도별지도	土門江源~공백~分界江
100	동국지도 중 함경북도	도별지도	土門江源~공백~分界江
101	동국지도 중 관북	도별지도	土門江源~공백~分界江
102	아동여지도 중 함경도관북	도별지도	土門江源~平頂山~分界江
103	동국팔로분지도 중 함경도	도별지도	分界江上流~공백 // 좌해지도 함경도 북도구주와 분계강 표현 같음
104	기봉요도 중 함경북도	도별지도	土門江源~平頂山/北甌山~分界江
105	해동팔역여지도 중 관북	도별지도	土門江源~공백~分界江
106	함경도전도	도별지도	土門江源~공백~分界江
107	여지도 중 함경도	도별지도	土門江源~산~分界江

108	좌해지도 중 함경도 북도구주	도별지도	정계비~목책~分界江下流~ 공백
109	조선팔도여지전도 중 함경	도별지도	백두산에서 북류하는 두 하 천에 小澤, 大澤 표기
110	여지도 중 함경도도	도별지도	백두산~공백~分東江
111	대한전도 중 함경북도	도별지도	백두산~土門江~荷蘭河
112	해동도 중 함경도	도별지도	
113	조선팔도지도 중 함경도	도별지도	
114	천하지도 중 함경도도	도별지도	
115	대한지리도 중 함경도	도별지도	
116	지도 중 함경도	도별지도	
117	함경남북도읍전도 중 함경전도	도별지도	
118	좌해여지도 중 함경도	도별지도	
119	동국여지도 중 함경도	도별지도	
120	천하도 중 함경도	도별지도	
121	삼한일람도 중 함경도	도별지도	愁濱江 ≈ 土門 ≈ 豆滿江
122	지도 중 함경도	도별지도	천지~玉門~分界江
123	조선지도 부 팔도천하지도 중 함경도	도별지도	백산
124	지도 중 함경도	도별지도	백두산에 그려진 千年檀木
125	해동총도 중 함경도	도별지도	천지~土門江~공백~分界江
126	해동지도 중 제 2책 함경도전도	도별지도	
127	해동여지도 중 함경도	도별지도	천지~강~件加堆~分界江
128	관북지도 중 갑산부	군현지도	天上近
129	관북지도 중 갑산부	군현지도	

130	해동지도 중 갑산부	군현지도	
131	해동지도 중 무산부	군현지도	천지에서 동쪽으로 유출하는 토문강
132	북관지도 중 무산	군현지도	分界碑~토문강원~목책~두 만강
133	조선지도 중 무산	군현지도	정계비~목책~토포~分界江 上流~두만강
134	함경도전도 중 무산부	군현지도	천지에서 동쪽으로 유출하는 토문강
135	무산지도	군현지도	
136	천하고금대총편람도	세계지도	2개의 백두산
137	천하고금대총편람도	세계지도	2개의 백두산
138	천하대총일람지도	세계지도	세계지도에 자세히 그려진 백두 산 북동부유로
139	여지전도	세계지도	수분하(속평강) ≈ 토문강 ≈ 두만강
140	여지전도	세계지도	두만강 표기 없고, 토문강
141	천하여지도	세계지도	수분하
142	각국도중천하전도	세계지도	수분하(속평강) ≈ 토문강(두 만강) // 장백산보다 크게 표기된 대택 명칭
143	고지도첩 중 천하산천맥략도	세계지도	2개의 백두산
144	각국도중천하총도	세계지도	
145	축벽도 중 천하도	세계지도	
146	조선팔도지도 중 천하지형	세계지도	
147	해동삼국도	세계지도	.
148	여지도 중 천하도지도	세계지도	
149	중국역대팔폭병풍 세부도	세계지도	
150	중국역대팔폭병풍	세계지도	
151	동국여지도 중 중국도	아시아지도	

152	지도 중 중화도	아시아지도	
153	조선팔도지도 중 중국지형	아시아지도	
154	조선지도 부 팔도천하지도 중 중국지도	아시아지도	
155	지도 중 중국도	아시아지도	
156	대한지리도 중 천하중국도	아시아지도	
157	중국전도	아시아지도	
158	중국지도	아시아지도	
159	여지도 중 중국지도	아시아지도	
160	지도 중 중국도	아시아지도	태백산

부 록 3. 백두산 표현 유형 목록

지도 번호	지도명(한글)	백두산 명칭	천지 표기	백두산 표현의 특징	주기
1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白頭山	大澤	수파묘, 흰색 봉우리	
2	서북양계도	白頭山	·	·	
3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白頭山	大澤	수파묘, 흰색 봉우리	
5	요계관방지도	白頭山	·	강조된 흰색산	명일통지
7	해동지도 중 요계관방도	白頭山	·	강조되지 않음	명일통지
8	해동지도 중 서북피아양계전 도	白頭山	大澤	강조된 흰색산	명일통지
9	각국도 중 서북피아교계도	白頭山	大澤	·	명일통지
10	영고탑총람도	白頭山	大澤	주산절리, 흰봉우리	
19	조선강역총도 중 고구려북도 급강외강역도	白頭山	·	·	
20	북관지도 중 관북지도	白頭山	·	우뚝 솟은 흰 산	
22	북계지도	白頭山	大澤	주상절리로 둘러싸인 산	
23	양계지도	白頭山	大澤	강조된 봉우리	
24	북방강역도	白頭山	周八十里 池	강조된 봉우리	임진정계 내용
25	서북양계지도 중 관북총람도	白頭山	大澤 周八十里	수파묘, 흰색 봉우리	
29	동국여도 제 3책 함경도 중 백두산도	白頭山	大澤	·	
30	여지도중임진정계지도	白頭山	·	·	
31	조선정계비강역약도	白頭山	大澤	높고 웅장한 산	
32	백두산정계비지도	白頭山	大澤	높고 웅장한 산	
33	장파지도	白頭山	大澤 周面 八十里	주상절리로 둘러싸인 산	
34	북관장파지도	白頭山	大澤 周面 八十里	주상절리로 둘러싸인 산	

35	장진지도	白頭山	大澤	주상절리로 우뚝 솟은 산	
36	팔도지도	白頭山	.	강조된 흰색산	
37	조선국도	白頭山	.	강조된 흰색산	
38	조선도	白頭山	.	강조된 흰색산	
40	조선방역지도	白頭山	.	.	
41	팔도총도	白頭山	.	황금색으로 강조	
43	동국여지지도	白頭山	池	강조된 흰색산	
44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	白頭山	池	강조된 흰색산	
45	조선팔로지도	白頭山	周八十里	.	대명 일통지
49	동국대지도	白頭山	大池 周八十里	주상절리로 둘러싸인 산	
50	동국대지도	白頭山	大池 周八十里	강조	
51	조선팔역도	白頭山	大池 周八十里	강조	
52	조선전도 중 조선총도	白頭山	.	강조	
53	각도지도 중 조선전도	白頭山	大池 周八十里	강조	
54	동국지도	白頭山	.	강조	
55	해동여지도 중 조선전도	白頭山	.	강조	
57	조선지도	白頭山	大澤	.	
58	여도	白頭山	大澤	강조	
59	동국지도 중 총도	白頭山	.	강조	
60	동국여지도 중 동국대총	白頭山	.	흰색봉우리	
61	지도 중 조선국	白頭山	周面 八十里	불꽃모양 봉 우리	
62	조선지도 부 팔도천하지도 중 조선전도	白頭山	.	강조되지 않 음	

63	해동총도 중 조선총도	白頭山	·	흰색봉우리	
64	지도 중 조선총도	白頭山	·	흰색봉우리	
65	지도 중 조선도	白頭山	·	강조되지 않음	
70	좌해여지도 중 동국팔도대총도	白頭山	達門潭	불꽃모양 봉우리	
71	조선팔도	白頭山	·	강조	
72	동국지도	白頭山	·	강조된 흰색산	
73	고지도첩 중 조선전도	白頭山	·	강조	
74	지도 중 조선국팔도통합도	白頭山	·	흰색봉우리	
75	조선팔도여지도	白頭山	·	강조	
76	동국지도	白頭山	·	강조	
77	여지도 중 아국총도	白頭山	·	강조	
78	조선팔도지도	白頭山	·	강조	
79	해좌전도	白頭山	大池	강조	청구도주 기(산해경 칭불함산)
80	해좌전도	白頭山	·	강조	
81	대동여지전도	白頭山	大池	강조	
82	청구도 중 본조팔도주현도총목	白頭山	·	강조	
84	청구도 중 3층 8판·9판	白頭山	大池	강조	산해경칭 불함산, 임진정계 내용
85	동여도 중 제 3층8·9	白頭山	大池	강조	산해경칭 불함산, 임진정계 내용
86	청구도 중 제 3층 8·9	白頭山	大池	강조	산해경칭 불함산, 임진정계 내용

87	대동여지도 중 제 2첩 백두산 부분	白頭山	大池	우뚝 솟은 흰 봉우리	
88	대동여지도 제 2첩 백두산 부분	白頭山	大池	우뚝 솟은 흰 봉우리	임진정계 내용
89	조선지방도 제 1첩 백두산 부분	白頭山	大池	강조	
90	대동여지도 제 2첩 백두산 부분	白頭山	大池	우뚝 솟은 흰 봉우리	
91	해좌여도	白頭山	大池	우뚝 솟은 흰 봉우리	
92	대동여지도	白頭山	大池	우뚝 솟은 흰 봉우리	
93	동여도	白頭山	大池	우뚝 솟은 흰 봉우리	
94	동여도	白頭山	大池	우뚝 솟은 흰 봉우리	
95	대한여지도	白頭山	大池	강조된 우모식 산	
96	대한전도 중 대한전도	白頭山	.	강조되지 않음	
97	북관지도 중 북도십읍	白頭山	大澤	수파묘, 흰색 봉우리	
98	여지도 중 함경도	白頭山	大澤	흰색봉우리	
99	조선전도 중 함경북도	白頭山	大池	흰색 산	
100	동국지도 중 함경북도	白頭山	大池	불꽃모양 봉우리	
101	동국지도 중 관북	白頭山	大池	불꽃모양 봉우리	
102	아동여지도 중 함경도관북	白頭山	大池	불꽃모양 봉우리	
103	동국팔로분지도 중 함경도	白頭山	大池	강조	
104	기봉요도 중 함경북도	白頭山	大池	불꽃모양 봉우리	
105	해동팔역여지도 중 관북	白頭山	大池	불꽃모양 봉우리	
106	함경도전도	白頭山	.	강조	
107	여지도 중 함경도	白頭山	大池	불꽃모양 봉우리	
108	좌해지도 중 함경도 북도구주	白頭山	大澤	불꽃모양 봉우리	

109	조선팔도여지전도 중 함경	白頭山	·	흰색 산	
110	여지도 중 함경도도	白頭山	大池	강조	
111	대한전도 중 함경북도	白頭山	大池	강조된 우모 식 산	
112	해동도 중 함경도	白頭山	·	강조	
113	조선팔도지도 중 함경도	白頭山	·	강조	
114	천하지도 중 함경도도	白頭山	·	흰색 산	
115	대한지리도 중 함경도	白頭山	·	수염모양의 산	
116	지도 중 함경도	白頭山	大澤	흰색 봉우리	
117	함경남북도읍진도 중 함경전 도	白頭山	·	강조	
118	좌해여지도 중 함경도	白頭山	達門潭 周 面八十里	불꽃모양 봉 우리	
119	동국여지도 중 함경도	白頭山	·	강조	
121	삼한일람도 중 함경도	白頭山	·	흰색 봉우리	
122	지도 중 함경도	白頭山	大池	강조	
124	지도 중 함경도	白頭山	大澤	불꽃모양 봉 우리	
125	해동총도 중 함경도	白頭山	大澤	흰색봉우리	
126	해동지도 중 제 2책 함경도전 도	白頭山	大澤	흰색봉우리	
127	해동여지도 중 함경도	白頭山	大池	강조	
128	관북지도 중 갑산부	白頭山	天上近	강조	
129	관북지도 중 갑산부	白頭山	·	강조	
130	해동지도 중 갑산부	白頭山	大澤	강조	
131	해동지도 중 무산부	白頭山	大(澤)	강조	
132	북관지도 중 무산	白頭山	·	강조	
133	조선지도 중 무산	白頭山	·	수파묘	

134	함경도전도 중 무산부	白頭山	大澤	강조	
135	무산지도	白頭山	大澤	흰 봉우리	
138	천하대총일람지도	白頭山	.	흰 봉우리	
140	여지전도	白頭山	.	.	
145	축벽도 중 천하도	白頭山	大澤周万里	강조	
146	조선팔도지도 중 천하지형	白頭山	大澤周方千里	강조	
147	해동삼국도	白頭山	.	강조	
148	여지도 중 천하도지도	白頭山	.	강조	
149	중국역대팔괘명풍 세부도	白頭山	.	강조	
150	중국역대팔괘명풍	白頭山	.	강조	
152	지도 중 중화도	白頭山	.	강조	
153	조선팔도지도 중 중국지형	白頭山	.	강조	
154	조선지도 부 팔도천하지도 중 중국지도	白頭山	.	강조되지 않음	
155	지도 중 중국도	白頭山	.	흰 봉우리	
156	대한지리도 중 천하중국도	白頭山	.	강조	
157	중국전도	白頭山	.	강조	
159	여지도 중 중국지도	白頭山	.	강조되지 않음	
151	동국여지도 중 중국도	白頭	.	강조	
142	각국도중천하전도	長白山	大澤	강조되지 않음	
144	각국도중천하총도	長白山	.	강조	
11	여도 중 영고탑도	長白山	.	강조되지 않음	
12	여지도 중 성경여지전도	長白山	.	.	
13	각국도중성경전도, 청일통지본	長白山	.	.	

14	중국고대각성별전도 중 성경전도	長白山	.	.	
15	화이지계 중 성경	長白山	.	.	
16	각국도 중 성경전도, 조병사윤성본	長白山	.	.	
17	고지도첩 중 성경여지전도	長白山	.	.	
18	여도 중 성경전도	長白山	.	강조되지 않음	
26	여도중압록강도	長白山	.	강조되지 않음	
28	백두산정계비지도	長白山	大池	.	
66	지도 중 동국팔도대총도	長白山	.	강조되지 않음	
67	여지도 중 동국팔도대총도	長白山	.	강조된 흰색 산	
69	천하도 중 팔도총도	長白山	.	강조되지 않음	
83	청구도 중 본조팔도성경합도	長白山	.	강조되지 않음	
120	천하도 중 함경도	長白山	.	흰색 음각	
160	지도 중 중국도	太白山	.	불꽃모양 봉우리	
123	조선지도 부 팔도천하지도 중 함경도	白山	.	강조	
27	관북전도	白頭山 淸興圖長白山	.	.	
141	천하여지도	白頭山彼名長白山	.	.	
21	관서관북도 중 관서관북도	白頭山 彼云長白山	周四十里池	주상절리로 둘러싸인 산	
56	청구관해방총도	白頭山 彼云長白山	澤 周面八十里	강조	
68	조선팔도지도 중 조선팔도대총지형	白頭·長白	.	강조되지 않음	
4	서북계도	白頭山·長白山	周四十里	.	
6	전세보 중 조선·만주지도	白頭山, 長白山(2)	天上近	.	
46	조선팔도고금총람도	白頭山, 長白山(2)	.	.	

47	조선팔도총람지도	白頭山, 長白山(2)	.	.	
136	천하고금대총편람도	白頭山, 長白山(2)	.	.	
137	천하고금대총편람도	白頭山, 長白山(2)	.	.	
143	고지도첩 중 천하산천맥락도	白頭山, 長白山(2)	.	강조되지 않음	
39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중 조선	.	.	.	
42	동국팔도여지도	.	.	.	
48	팔도총도	.	.	강조된 흰색산	
139	여지전도	.	.	.	
158	중국지도	.	.	강조되지 않음	

부 록 4. 백두산 동북부 유로 유형 목록

지도 번호	지도명(한글)	정계 비	백두산 북동부 유로	1강설 과 2강설	목책의 연결	분계강 의미
19	조선강역총도 중 고구려 북도급강외강역도	무	A	·	·	·
46	조선팔도고금총람도	무	A	·	·	·
47	조선팔도총람지도	무	A	·	·	·
48	팔도총도	무	A	·	·	·
36	팔도지도	무	A	·	·	속평강
37	조선국도	무	A	·	·	속평강
38	조선도	무	A	·	·	속평강
40	조선방역지도	무	A	·	·	속평강
41	팔도총도	무	A	·	·	속평강
42	동국팔도여지도	무	A	·	·	속평강
143	고지도첩 중 천하산천맥락도	무	A	·	·	
31	조선정계비강역약도	유	A	2강설	정계비~석퇴~토퇴~ 목책~토문강원	토문강
32	백두산정계비지도	유	A	2강설	정계비~토퇴~목책~ 토문강원	토문강
141	천하여지도	무	B	·	·	·
43	동국여지지도	유	B	·	·	속평강
44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	무	B	·	·	속평강
45	조선팔로지도	무	B	·	·	속평강
142	각국도중천하전도	무	B	1강설	·	·
121	삼한일람도 중 함경도	무	B	2강설	·	속평강
139	여지전도	무	B	2강설	·	·

27	관북전도	유	C	2장설	.	해란하
28	백두산정계비지도	유	C	2장설	.	해란하
54	동국지도	무	D	.	.	.
123	조선지도부 팔도천하지도 중 함경도	무	D	.	.	.
124	지도 중 함경도	무	D	.	.	.
22	북계지도	유	D	.	분계강교원~두만강	속평강
33	장파지도	유	D	.	정계비~목책~토둔~ 두만강원시류	속평강
34	북관장파지도	유	D	.	정계비~목책~토둔~ 두만강원시류	속평강
79	해좌전도	유	D	.	.	속평강
110	여지도 중 함경도도	유	D	.	.	속평강
126	해동지도 중 제 2책 함경 도전도	유	D	.	강(토문강)~두만강	속평강
127	해동여지도 중 함경도	유	D	.	.	속평강
49	동국대지도	유	D	2장설	천지~목책~토문강원	속평강
103	동국팔로분지도 중 함경 도	유	D	1장설	.	속평강
59	동국지도 중 총도	무	D	2장설	.	.
131	해동지도 중 무산부	유	D	2장설	토문강~두만강	.
134	함경도전도 중 무산부	유	D	2장설	정계비~두만강	.
50	동국대지도	유	D	2장설	.	속평강
51	조선팔역도	유	D	2장설	.	속평강
52	조선전도 중 조선총도	무	D	2장설	.	속평강
53	각도지도 중 조선전도	무	D	2장설	.	속평강
55	해동여지도 중 조선전도	무	D	2장설	.	속평강

57	조선지도	무	D	2장설	.	속평강
99	조선전도 중 함경북도	유	D	2장설	.	속평강
100	동국지도 중 함경북도	유	D	2장설	.	속평강
101	동국지도 중 관북	유	D	2장설	.	속평강
102	아동여지도 중 함경도관북	유	D	2장설	.	속평강
104	기봉요도 중 함경북도	유	D	2장설	.	속평강
105	해동팔역여지도 중 관북	유	D	2장설	대지~목책~토문강원	속평강
106	함경도전도	유	D	2장설	.	속평강
107	여지도 중 함경도	유	D	2장설	.	속평강
108	좌해지도 중 함경도 북도구주	유	D	1장설	정계비~목책~분계강 하류	속평강
122	지도 중 함경도	유	D	2장설	.	속평강
125	해동총도 중 함경도	유	D	2장설	토문강~두만강	속평강
23	양계지도	유	D	2장설	.	토문강
25	서북양계지도 중 관북총 람도	유	D	2장설	토문강원~두만강원	토문강
98	여지도 중 함경도	유	D	2장설	정계비~토문강	토문강
8	해동지도 중 서북피아양계전도	유	E	.	대흥단~소흥단	속평강
9	각국도 중 서북피아교계도	유	E	.	.	속평강
10	영고탑총람도	무	E	.	.	속평강
1	서북피아양계만리 일람지도	유	E	1장설	분계강~토문강	속평강
3	서북피아양계만리 일람지도	유	E	1장설	분계강~토문강	속평강
138	천하대총일람지도	무	E	1장설	.	속평강
4	서북계도	유	E	2장설	토문강색리, 토문강 원~두만강	.
21	관서관북도 중 관서관북도	무	E	2장설	.	.

56	청구관해방총도	유	E	2강설	토문강원~두만강원	속평강
96	대한전도 중 대한전도	무	E	2강설	.	속평강
111	대한전도 중 함경북도	무	E	2강설	.	해란하
35	장진지도	무	F	.	.	.
39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중 조선	무	F	.	.	.
95	대한여지도	유	F	.	.	해란하
144	각국도중천하총도	무	F	.	.	
2	서북양계도	유	F	1강설	두만강 상류의 두 강 사이	.
5	요계관방지도	무	F	1강설	.	.
6	전세보 중 조선·만주지 도	무	F	1강설	.	.
7	해동지도 중 요계관방도	무	F	1강설	.	.
12	여지도 중 성경여지전도	무	F	1강설	.	.
13	각국도중성경전도,청일통 지본	무	F	1강설	.	.
14	중국고대각성별전도 중 성경전도	무	F	1강설	.	.
15	화이지계 중 성경	무	F	1강설	.	.
16	각국도 중 성경전도, 조 병사윤성본	무	F	1강설	.	.
17	고지도첩 중 성경여지전 도	무	F	1강설	.	.
20	북관지도 중 관북지도	유	F	1강설	토문강~두만강	.
24	북방강역도	유	F	1강설	.	.
26	여도중압록강도	무	F	1강설	.	.

29	동국여도 제 3책 함경도 중 백두산도	유	F	1강설	정계비~두만강	.
30	여지도중임진정계지도	유	F	1강설	.	.
58	여도	유	F	1강설	.	.
60	동국여지도 중 동국대총	무	F	1강설	.	.
61	지도 중 조선국	무	F	1강설	.	.
62	조선지도부 팔도천하지도 중 조선전도	무	F	1강설	.	.
63	해동총도 중 조선총도	무	F	1강설	.	.
64	지도 중 조선총도	무	F	1강설	.	.
65	지도 중 조선도	무	F	1강설	.	.
66	지도 중 동국팔도대총도	무	F	1강설	.	.
67	여지도 중 동국팔도대총도	무	F	1강설	.	.
68	조선팔도지도 중 조선팔도대총지형	무	F	1강설	.	.
69	천하도 중 팔도총도	무	F	1강설	.	.
70	좌해여지도 중 동국팔도대총도	무	F	1강설	.	.
71	조선팔도	무	F	1강설	.	.
72	동국지도	무	F	1강설	.	.
73	고지도첩 중 조선전도	무	F	1강설	.	.
74	지도 중 조선국팔도통합도	무	F	1강설	.	.
75	조선팔도여지도	무	F	1강설	.	.
76	동국지도	무	F	1강설	.	.
77	여지도 중 아국총도	무	F	1강설	.	.

78	조선팔도지도	무	F	1강설	.	.
80	해좌전도	무	F	1강설	.	.
81	대동여지전도	무	F	1강설	.	.
82	청구도 중 본조팔도주현도총목	무	F	1강설	.	.
83	청구도 중 본조팔도성경합도	무	F	1강설	.	.
97	북관지도 중 북도십읍	유	F	1강설	토문강~두만강	.
109	조선팔도여지전도 중 함경	유	F	1강설	.	.
112	해동도 중 함경도	무	F	1강설	.	.
113	조선팔도지도 중 함경도	무	F	1강설	.	.
114	천하지도 중 함경도도	무	F	1강설	.	.
115	대한지리도 중 함경도	무	F	1강설	.	.
116	지도 중 함경도	무	F	1강설	.	.
117	함경남북도읍전도 중 함경전도	무	F	1강설	.	.
118	좌해여지도 중 함경도	무	F	1강설	.	.
119	동국여지도 중 함경도	무	F	1강설	.	.
120	천하도 중 함경도	무	F	1강설	.	.
128	관북지도 중 갑산부	유	F	1강설	정계비~토문강원	.
130	해동지도 중 갑산부	유	F	1강설	.	.
132	북관지도 중 무산	유	F	1강설	토문강~두만강	.
135	무산지도	유	F	1강설	地界碑~목책~토퇴~ 두만강	.
140	여지전도	무	F	1강설	.	.
84	청구도 중 3층 8판·9판	유	F	1강설	정계비~목책~석퇴~ 목책~분계강상류	분계가 되는 강

85	동여도 중 제 3층8·9	유	F	1강설	정계비~목책~석퇴~ 목책~분계강상류	분계가 되는 강
86	청구도 중 제 3층 8·9	유	F	1강설	정계비~목책~석퇴~ 목책~분계강상류	분계가 되는 강
87	대동여지도 중 제 2첩 백두산 부분	유	F	1강설	정계비~석퇴~목책~ 분계강상류	분계가 되는 강
88	대동여지도 제 2첩 백두산 부분	유	F	1강설	정계비~석퇴~목책~ 분계강상류	분계가 되는 강
89	조선지방도 제 1첩 백두산 부분	유	F	1강설	정계비~목책~석퇴~ 목책~분계강	분계가 되는 강
90	대동여지도 제 2첩 백두산 부분	유	F	1강설	정계비~석퇴~목책~ 분계강상류	분계가 되는 강
91	해좌여도	유	F	1강설	정계비~석퇴~목책~ 분계강상류	분계가 되는 강
92	대동여지도	유	F	1강설	정계비~석퇴~목책~ 분계강상류	분계가 되는 강
93	동여도	유	F	1강설	정계비~석퇴~목책~ 분계강상류	분계가 되는 강
94	동여도	유	F	1강설	정계비~석퇴~목책~ 분계강상류	분계가 되는 강
133	조선지도 중 무산	유	F	1강설	정계비~분계강~목 책~두만강	분계가 되는 강
11	여도 중 영고탑도	무	F	1강설	.	해란하
18	여도 중 성경전도	무	F	1강설	.	해란하
129	관북지도 중 갑산부	유	F	2강설	정계비~토문강원	.
136	천하고금대총편람도	무	F	2강설	.	.
137	천하고금대총편람도	무	F	2강설	.	.
145	축벽도 중 천하도	무

146	조선팔도지도 중 천하지형	무	.	.	.	
147	해동삼국도	무	.	.	.	
148	여지도 중 천하도지도	무	.	.	.	
149	중국역대팔폭병풍 세부도	무	.	.	.	
150	중국역대팔폭병풍	무	.	.	.	
151	동국여지도 중 중국도	무	.	.	.	
152	지도 중 중화도	무	.	.	.	
153	조선팔도지도 중 중국지형	무	.	.	.	
154	조선지도 부 팔도천하지 도 중 중국지도	무	.	.	.	
155	지도 중 중국도	무	.	.	.	
156	대한지리도 중 천하중국도	무	.	.	.	
157	중국전도	무	.	.	.	
158	중국지도	무	.	.	.	
159	여지도 중 중국지도	무	.	.	.	
160	지도 중 중국도	무	.	.	.	

주: 1. '부록 2~부록 4'의 지도번호는 '부록 1'의 지도번호와 동일 함.

2. '부록 1'의 지도번호를 참고로 지도의 서지사항을 참고 할 수 있음.

부 록 5. 논문에 수록된 고지도 이미지 목록

미주 번호	지도명	소장기관	수록 페이지
1	지도 중 중국도	서울역사박물관	44
2	조선지도 부 팔도천하지도 중 함경도	국립중앙도서관	45
3	청구도	고려대 외	47, 48
4	화이지계 중 성경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50
5	각국도 중 천하전도	국립중앙도서관	50, 90
6	백두산정계비지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51, 107 109
7	지도 중 동국팔도대총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52
8	여지도 중 동국팔도대총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52
9	천하도 중 팔도총도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52
10	서북계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53, 62
11	관서관북도 중 관서관북도	국립중앙박물관	54
12	청구관해방총도	국립중앙박물관	54, 98, 119, 130
13	관북전도	영남대학교 박물관	55, 117
14	천하여지도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55
15	조선팔도고금총람도	서울역사박물관	56, 86
16	천하고금대총편람도	서울역사박물관.	56
17	전세보 중 조선·만주지도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58, 68
18	고지도첩 중 천하산천맥락도	영남대학교 박물관	58
19	동국여지지도	해남 녹우당	61, 88
20	조선팔로지도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62, 87
21	북방강역도	개인소장	62
22	관서관북도 중 관서관북도	국립중앙박물관	62

23	각도지도 중 조선전도	영남대학교 박물관	63, 113
24	동국대지도	국립중앙박물관	63
25	북관장파지도	국립중앙도서관	64
26	서북양계지도 중 관북총람도	고려대학교 도서관	64
27	좌해여지도 중 동국팔도대총도	천리대 부속 천리도서관	65
28	좌해여지도 중 함경도	천리대 부속 천리도서관	66
29	동국여지도 중 동국대총	규장각한국학연구원	69
30	지도 중 조선국팔도통합도	서울역사박물관	69
31	팔도총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70, 85
32	요계관방지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70
33	북관지도 중 북도십읍	국립중앙도서관	71
34	지도 중 함경도	서울역사박물관	72, 73
35	동국지도 중 관북	서울역사박물관	73
36	팔도지도	국사편찬위원회	84
37	조선국도	일본 국립공문서관	85
38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	고려대학교 도서관	70, 87
39	삼한일람도 중 함경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89
40	해동지도 중 서북피아양계전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96
41	각국도 중 서북피아교계도	국립중앙도서관	97
42	해동여지도 중조선전도	국립중앙도서관	114
43	북관지도 중 관북지도	국립중앙도서관	115
44	북계지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16
45	여지도 중 함경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17
46	대한전도 중 대한전도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98, 120
47	북관장파지도	국립중앙도서관	121
48	동국지도 중 관북	서울역사박물관	123

49	해동팔역여지도 중 관북	천리대 부속 천리도서관	124
50	동국지도 중 함경북도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124
51	조선지도	서울역사박물관	126
52	해동지도 중 제 3책 함경도 무산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27
53	지도 중 함경도	서울역사박물관	129
54	동국팔로분지도 중 함경도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116
55	천하대총일람지도	국립중앙도서관	133
56	북관지도 중 관북지도	국립중앙도서관	139
57	북관지도 중 북도십읍	국립중앙도서관	139
58	대동여지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외	122, 140, 141
59	각국도 중 성경전도 조병사윤성본	국립중앙도서관	149
미주 에 없는 고지 도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국립중앙도서관	10, 97, 119
	관북지도 중 갑산부	일본 동양문고	68
	장과지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71
	조선팔도지도 중 천하지형	규장각한국학연구원	77, 78
	축벽도 중 천하도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77, 78
	천하도 중 천하도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77
	여지전도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90
	백두산정계비지도 奎2667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02
	해좌전도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126
	좌해지도 중 함경도 북도구주	일본 동양문고	133
	만국대지전도	석가장시문물관리소	148
	황여전람도	마맹룡 논문에서 발췌	149

감사의 글

박사논문이란 한 가지 전문 분야에 관한 본인의 노력과 연구의 결정체라는 생각으로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박사과정 공부와 논문을 마치며 비로소 박사는 혼자만의 지식과 열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한 편의 논문이 만들어진 것은 많은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선배님들의 연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고, 논문을 완성해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공부이며, 그것을 모두 포함한 것이 논문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지난 15년 동안 나의 학문적 스승이자 인생의 스승이신 양보경 교수님께 가장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늘 제자들에게 청출어람 하라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담고, 스승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훌륭한 부인과 엄마로,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학자로서 살아오신 그 모습을 같은 여성으로서, 제자로서 존경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3년 반의 시간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지만, 나와 나의 아이가 같이 성장했던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엉금엉금 기어다니던 둘째 채령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며 공부를 시작했는데, 벌써 큰 아이 수연이는 씩씩한 1학년이 되었습니다. 많이 보듬어주지 못하는 엄마였기에 늘 미안합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고서 받아쓰기 한번 제대로 봐주지 않는데도 백점 받고, 스스로 알아서 척척 해내는 우리 수연이에게 정말 많이 고맙고 자랑스럽고 사랑합니다. 엄마에게 늘 웃음을 주는 애교대장 우리 깽깽이(채령이) 사랑합니다. 언제나 항상 나를 사랑해주고 용기를 주며, 내 편이 되어주는 단 한 사람. 내 남편 이재인 씨, 정말 고맙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단 한마디에 언제고 어디서나 달려와 주시는 우리 엄마 아빠. 나를 낳아 주시고 키워 주시고, 내 아이까지 보듬어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무엇보다 두 분이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늘 든든하고 힘이 납니다. 며느리 공부한

다고 시택에 많이 소홀했는데, 늘 묵묵히 응원해주시고 모자란 머느리 칭찬해 주시는 시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논문을 마치고 문득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가족이 있기에,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고 논문을 쓰면서 가르침과 도움을 주신 고마운 선생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문 뿐 아니라 인품을 존경해왔던 김기혁 교수님께 가장 큰 감사를 드립니다. 김종혁 선생님께는 학부생이던 13여 년 전 프로젝트를 도와드리며 많은 가르침을 받았었는데, 박사논문을 쓰면서도 큰 가르침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사과정 시절부터 지금까지, 예리한 한마디 한마디가 가르침이고 조언이었던 부담임 박경 교수님.. 정말 좋아하고 감사합니다. 가깝게는 성신의 선배님으로 나와 많은 후배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늘 같이 고민해주시며, 학문적으로 큰 가르침을 주시는 이자원 교수님..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매우 감사합니다.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한국지리연구소장 이원호 교수님, 고맙습니다. 논문을 쓸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고 격려해주신 동북아역사재단의 배성준 선생님, 감사합니다. 털털한 웃음 뒤에 숨겨 놓은 일침으로 가르침을 주신 오빠, 이현군 선생님 고맙습니다. 논문을 쓰면서 많은 도움을 준 우리 연구실의 혜진 선배님과 윤정, 은영, 미영, 기진, 영선 후배님 고맙습니다. 특히 대학원 생활을 함께 한 성은언니, 지영언니.. 앞서 논문을 쓰고 끊임없는 용기와 격려를 보내 준 민영언니와 박지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힘든 육아 중에도 논문 쓰는 친구를 위해 파이팅을 외쳐주고, 오늘의 결실을 자신의 일보다 더 기뻐해 주는 소은, 민정, 근정, 영희.. 친구들, 고맙고 사랑합니다.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해도 된다는 의미로 알겠습니다. 늘 열심히 노력하고, 지식인으로서 내 자신과 사회에 부끄럽지 않는 행동을 할 것이며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선배님을 존중하며 따르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것이며, 모범이 되는 선배가 되도록 공부하고 행동을 조심하겠습니다.

2012년 5월 문상명 올림